자료 제공: 한말연구학회
자료 입력: 허재영 회원
자료 내용: 석보상절 권6, 권9, 권13, 권19, 권23, 권24

<釋譜詳節 第六>

◉ 世尊이 象頭山애 가샤 龍과 鬼神과 위ᄒᆞ야 說法ᄒᆞ더시다.(석보 6:1)

◉ 龍鬼 위ᄒᆞ야 說法ᄒᆞ샤미 부텻 나히 셜흔 둘히러시니 穆王 여슷 찻ᄒᆡ 乙酉ㅣ라.(석보 6:1)

◉ 부톄 目連이 ᄃᆞ려 니ᄅᆞ샤ᄃᆡ 네 迦毗羅國에 가아 아바님긔와 아ᄌᆞ마님긔와 아자바님내ᄭᅴ 다 安否ᄒᆞ숩고 ᄯᅩ 耶輸陁羅ᄅᆞᆯ 달애야 恩愛ᄅᆞᆯ 그쳐 羅睺羅ᄅᆞᆯ 노하 보내야 샹재 ᄃᆞ외에ᄒᆞ라.(석보 6:1)

◉ 아ᄌᆞ마니ᄆᆞᆫ 大愛道ᄅᆞᆯ 니르시니 大愛道ㅣ 摩耶夫人ㅅ 兄니미시니 양ᄌᆡ 摩耶夫人만 몯ᄒᆞ실ᄊᆡ 버근 夫人이 ᄃᆞ외시니라.(석보 6:1)

◉ 羅睺羅ㅣ 得道ᄒᆞ야 도라가ᅀᅡ 어미ᄅᆞᆯ 濟渡ᄒᆞ야 涅槃得호ᄆᆞᆯ 나ᄀᆞᆮ게 ᄒᆞ리라.(석보 6:1)

◉ 目連이 그 말 듣ᄌᆞᆸ고 즉 자히 八定ᄒᆞ야 펴엣던 ᄇᆞᆯ홀 구필ᄊᆞᄉᆡ예「ᄉᆞᆯ론 주를 니르니라」 迦毗羅國에 가아 淨飯王ᄭᅴ 安否 ᄉᆞᆲ더니 耶輸ㅣ 부텻 使者왯다 드르시고「使者ᄂᆞᆫ 브리신 사ᄅᆞ미라」 靑衣ᄅᆞᆯ 브려 긔별아라 오라ᄒᆞ시니 羅睺羅ᄃᆞ려다가 沙彌 사모려 ᄒᆞᄂᆞ다 홀ᄊᆡ「沙彌ᄂᆞᆫ 새 出家ᄒᆞᆫ 사ᄅᆞ미니 世間앳 ᄠᅳ들 그치고 慈悲ㅅ 힝뎌글 ᄒᆞ다ᄒᆞᄂᆞᆫ ᄠᅳ디니 처ᅀᅥᆷ 佛法에 드러 世俗앳 ᄠᅳ디 ᄒᆞᆫ 젼ᄎᆞ로 모로매 모딘 ᄠᅳ들 그치고 慈悲ㅅ 힝뎌글 ᄒᆞ야ᅀᅡ ᄒᆞ릴ᄊᆡ 沙彌라 ᄒᆞ니라」ㅣ 그 긔별 드르시고 羅睺羅 더브러 노ᄑᆞᆫ 樓 우희 오ᄅᆞ시고「樓ᄂᆞᆫ 다라기라」 門ᄃᆞᆯ홀 다 구디 ᄌᆞᆷ겨 뒷더시니 目連이 耶輸ㅅ 宮의 가 보니 門ᄋᆞᆯ 다 ᄌᆞᄆᆞ고 유무드륧사ᄅᆞᆷ도 업거늘 즉 자히 神通力으로 樓우희 ᄂᆞ라올아 耶輸ㅅ 알ᄑᆡ 가 셔니 耶輸ㅣ 보시고 ᄒᆞ녀 ᄀᆞ론 분별ᄒᆞ시고 ᄒᆞ녀 ᄀᆞ론 깃거 구쳐니러 절ᄒᆞ시고 안ᄌᆞ쇼셔 ᄒᆞ시고 世尊ㅅ 安否 묻ᄌᆞᆸ고 니ᄅᆞ샤ᄃᆡ 므스므라 오시니잇고.(석보 6:2-3) * -다가/ 알ᄑᆡ-가 -셔니

◉ 目連이 ᄉᆞᆯ보ᄃᆡ 太子 羅睺羅ㅣ 나히 ᄒᆞ마 아호ᄇᆡᆯᄊᆡ 出家히여도 聖人ㅅ 道理 ᄇᆡ화ᅀᅡ ᄒᆞ리니 어버ᅀᅴ 子息 ᄉᆞ랑호ᄆᆞᆫ 아니한 ᄉᆞᅀᅴ어니와 ᄒᆞᄅᆞᆺ 아ᄎᆞᄆᆡ 命終ᄒᆞ야 「命終은 목숨 ᄆᆞᄎᆞᆯ씨라」 모딘 길헤 ᄠᅥ러디면 恩愛ᄅᆞᆯ 머리여희여 어즐코 아ᄃᆞᆨᄒᆞ야 어미도 아ᄃᆞᄅᆞᆯ 모ᄅᆞ며 아ᄃᆞᆯ도 어미ᄅᆞᆯ 모ᄅᆞ리니 羅睺羅ㅣ 道理ᄅᆞᆯ 得ᄒᆞ야ᅀᅡ 도라와 어마니ᄆᆞᆯ 濟渡ᄒᆞ야 네가짓 受苦ᄅᆞᆯ 여희여 涅槃得호ᄆᆞᆯ 부텨 ᄀᆞᄐᆞ시긔ᄒᆞ리이다.(석보 6:3-4)

◉ 네가짓 受苦ᄂᆞᆫ 生과 老와 病과 死왜라.(석보 6:4)

◉ 耶輸ㅣ 나ᄅᆞ샤ᄃᆡ 如來 太子ㅅ 時節에 나ᄅᆞᆯ 겨집사ᄆᆞ시니 내 太子ᄅᆞᆯ 셤기ᄉᆞᄫᆞᄃᆡ 하ᄂᆞᆯ 셤기ᄉᆞᆸᄃᆞᆺ ᄒᆞ야 ᄒᆞᆫ번도 디만ᄒᆞᆫ 일업수니 妻眷ᄃᆞ외얀디 三年이 몯차이셔 世間 ᄇᆞ리시고 城 나마 逃亡ᄒᆞ샤 車匿이 돌아보내샤 盟誓ᄒᆞ샤ᄃᆡ 道理 일워ᅀᅡ 도라오리라 ᄒᆞ시고 鹿皮 옷 니브샤 미친 사ᄅᆞᆷᄀᆞ티 묏고래 수머 겨샤 여슷히ᄅᆞᆯ 苦行ᄒᆞ샤 부텨 ᄃᆞ외야 나라해 도라오샤 도ᄌᆞ올아 ᄇᆡ아니ᄒᆞ샤 아랫 恩惠ᄅᆞᆯ 니저 ᄇᆞ리샤 길녆 사ᄅᆞᆷ과 ᄀᆞ티 너기시니 나ᄂᆞᆫ 어버ᅀᅴ 여희오ᄂᆞᄆᆡ 그에브터 사로ᄃᆡ 우리 어ᅀᅴ 아

ᄃᆞ리 외롭고 입게 ᄃᆞ외야 人生 즐거ᄫᅳᆫ ᄠᅳ디 업고 주구믈 기드리노니 목수미 므거ᄫᅳᆫ 거실ᄊᆡ 손소 죽디 몯ᄒᆞ야 셟고 애왇븐 ᄠᅳ들 머거 갓가ᄉᆞ로 사니노니 비록 사ᄅᆞᄆᆡ 무렛 사니고도 즁ᄉᆡᆼ마도 몯ᄒᆞ이다. (석보 6:4-5) *-만도(즁ᄉᆡᆼ+마도)

◉ 셜ᄫᅳᆫ 人生이 어딋던이 ᄀᆞᄐᆞ니 이시리잇고. 이제 ᄯᅩ 내 아ᄃᆞ를 ᄃᆞ려가려 ᄒᆞ시ᄂᆞ니 眷屬 ᄃᆡ외ᅀᅡ 바셔 셜ᄫᅳᆫ 일도 이러ᄒᆞᆯ쎠「眷屬은 가시며 子息이며 죵이며 집앗 사ᄅᆞᄆᆞᆯ 다 眷屬이라 ᄒᆞᄂᆞ니라」太子ㅣ 道理 일우샤 ᄌᆞ걔 慈悲호라 ᄒᆞ시ᄂᆞ니 慈悲ᄂᆞᆫ 衆生ᄋᆞᆯ 便安케 ᄒᆞ시ᄂᆞᆫ 거시어늘 이제 도ᄅᆞ혀ᄂᆞᄆᆡ 어ᅀᅵ 아ᄃᆞ를 여희에 ᄒᆞ시ᄂᆞ니.(석보 6:5)

◉ 셜ᄫᅳᆫ 잀 中에도 離別 ᄀᆞᄐᆞ니 업스니「離別은 여흴씨라」일로 혜여보건덴 므슴 慈悲 겨시거뇨 ᄒᆞ고 目連이 ᄃᆞ려 니ᄅᆞ샤ᄃᆡ 도라가 世尊ᄭᅴ 내 ᄠᅳ들 펴아 ᄉᆞᆯᄫᆞ쇼셔.(석보 6:6)

◉ 그 ᄢᅴ 目連이 種種 方便으로 다시곰 ᄉᆞᆯ바도 耶輸ㅣ 잠깐도 듣디 아니ᄒᆞ실ᄊᆡ 目連이 淨飯王ᄭᅴ 도라가 이 辭緣을 ᄉᆞᆯᄫᆞᆫ대 王이 大愛道ᄅᆞᆯ 블러 니ᄅᆞ샤ᄃᆡ 耶輸는 겨지비라, 法을 모ᄅᆞᆯᄊᆡ 즐급드리워 ᄃᆞᆺ온 ᄠᅳ들 몯 ᄡᅳ러 ᄇᆞ리ᄂᆞ니 그듸 가아 아라듣게 니르라.(석보 6:6) * 그듸 가아 아라듣게 (임자토씨 '가'의 출현 과정은 아닐지?)

◉ 大愛道ㅣ 五百 靑衣 더브르시고 耶輸ᄭᅴ 가아 種種 方便으로 두ᅀᅥ번 니르시니 耶輸ㅣ ᄉᆞᆫ지 듣디 아니ᄒᆞ시고 大愛道ᄭᅴ ᄉᆞᆯᄫᅩ샤ᄃᆡ 내 지븨 이싫저긔 여듧 나랏 王이 난 겻기로 ᄃᆞ토거늘 우리 父母ㅣ 듣디 아니ᄒᆞ샨 고ᄃᆞᆫ 釋迦 太子ㅣ 직죄 奇特ᄒᆞ실ᄊᆡ「奇ᄂᆞᆫ 神奇ᄒᆞᆯ 씨오, 特은 ᄂᆞᄆᆡ 크리예 ᄠᅳ로다ᄅᆞᆯ 씨라」우리 父母ㅣ 太子ᄭᅴ 드리ᄉᆞᄫᆞ시니 夫人이 며느리 어드샤ᄆᆞᆫ 溫和히 사라 千萬 뉘예 子孫이 니ᅀᅥ가ᄆᆞᆯ 위ᄒᆞ시니 太子ㅣ ᄒᆞ마 나가시고 ᄯᅩ 羅睺羅ᄅᆞᆯ 出家히샤 나라 니스리ᄅᆞᆯ 긋게 ᄒᆞ시ᄂᆞ니 엇더ᄒᆞ니잇고.(석보 6: 6-7)

◉ 大愛道ㅣ 드르시고 ᄒᆞᆫ 말도 몯ᄒᆞ야 잇더시니 그 ᄢᅴ 世尊이 즉자히 化人ᄋᆞᆯ 보내샤「化人은 世尊ㅅ 神力으로 ᄃᆞ외의ᄒᆞ샨 사ᄅᆞ미라」虛空애셔 耶輸ᄭᅴ 니ᄅᆞ샤ᄃᆡ 네 디나건 네 ᄒᆞᆺ 時節에 盟誓 發願혼이ᄅᆞᆯ 혜ᄂᆞᆫ다 모ᄅᆞᄂᆞᆫ다.(석보 6: 7-8)

◉ 釋迦如來 긔 ᄢᅴ 菩薩ㅅ 道理ᄒᆞ노라 ᄒᆞ야 네 손ᄃᆡ 五百 銀 도ᄂᆞ로 다ᄉᆞᆺ 줄깃 蓮花ᄅᆞᆯ 사아 錠光佛ᄭᅴ 받ᄌᆞᄫᆞᆯ쩌긔 네 發願을 호ᄃᆡ 世世예 妻眷이 ᄃᆡ외져 ᄒᆞ거늘 내 닐오ᄃᆡ 菩薩이 ᄃᆞ외야 劫劫에 發願行ᄒᆞ노라 ᄒᆞ야 一切 布施ᄅᆞᆯ ᄂᆞᄆᆡ ᄠᅳᆯ 거스디 아니ᄒᆞ거든 네 내 마ᄅᆞᆯ 다 드를 ᄯᅡᄒᆞ야ᄂᆞᆯ 네 盟誓ᄅᆞᆯ 호ᄃᆡ 世世예 난ᄯᅡ마다 나라히며 자시며 子息이며 내 몸 니르리.(석보 6: 8)

◉ 布施ᄒᆞ야도 그딋 혼조초ᄒᆞ야 뉘 읏븐 ᄆᆞᅀᆞᄆᆞᆯ 아니호리라 ᄒᆞ더니 이제 엇뎨 羅睺羅ᄅᆞᆯ 앗기ᄂᆞᆫ다.(석보 6:9)

◉ 耶輸ㅣ 이 말 드르시고 ᄆᆞᅀᆞ미 훤ᄒᆞ샤 前生앳 이리 어제 본ᄃᆞᆺᄒᆞ야 즐급ᄃᆞᄫᆡᆫ ᄆᆞᅀᆞ미 다 스러디거늘 目連이ᄅᆞᆯ 블러 懺悔ᄒᆞ시고「懺은 ᄎᆞᄆᆞᆯ씨니 내 罪ᄅᆞᆯ ᄎᆞ마 ᄇᆞ리쇼셔 ᄒᆞ논 ᄠᅳ디오 悔ᄂᆞᆫ 뉘으츨씨니 아랫 이ᄅᆞᆯ 외오호라ᄒᆞᆯ씨라」羅睺羅ᄋᆡ 소ᄂᆞᆯ 자바 目連일 맛디시고 울며 여희시니라.(석보 6:9)

◉ 淨飯王이 耶輸의 ᄠᅳ들 누규리라 ᄒᆞ샤 즉자히 나랏 어비 ᄆᆞᆫ내ᄅᆞᆯ 모도아 니ᄅᆞ샤ᄃᆡ 金輪王 아ᄃᆞ리 出家ᄒᆞ라 가ᄂᆞ니 그듸 내 各各 ᄒᆞᆫ 아ᄃᆞᆯ옴내야 내 孫子조차 가게 ᄒᆞ라 ᄒᆞ시니 즉자히 쉰 아히

몯거늘 羅睺羅 조차 부텨ᄭᅴ 가아 禮數ᄒᆞᅀᆞᄫᆞᆫ대 부톄 阿難 일 시기샤 羅睺羅ᄋᆡ 머리 갓기시니 녀느 쉰 아ᄒᆡ도 다 出家하니라.(석보 6:10)

◉ 부톄 命ᄒᆞ샤 舍利弗을 和尙이 ᄃᆞ외오「和尙은 갓가ᄇᆡ 이셔 외오다 ᄒᆞ논 마리니 弟子ㅣ 샹녜 갓가ᄇᆡ 이셔 經 ᄇᆡ호아 외올씨니 和尙은 스스을 니르니라」目連이 闍梨 ᄃᆞ외야「闍梨ᄂᆞᆫ 法이라 혼 마리니 弟子ᄋᆡ 힝뎌글 正케 홀씨라」열가짓 戒를 ᄀᆞᄅᆞ치라 ᄒᆞ시니「열가짓 戒ᄂᆞᆫ 산것 주기디 마롬과 도ᄌᆞᆨ 마롬과 淫亂 마롬과 거즛말 마롬과 수을 고기 먹디 마롬과 모매 香 기름 ᄇᆞᄅᆞ며 花鬘瓔珞 빗이기 마롬과 놀애 춤 마롬과 노ᄑᆞᆫ 平床애 안ᄊᆡ 마롬과 時節 아닌 저긔 밥 먹디 마롬과 金銀 보ᄇᆡ 잡디 마롬괘라」羅雲이 져머 노ᄅᆞᆯ 즐겨 法 드로ᄆᆞᆯ 슬히 너겨 ᄒᆞ거든 부톄 ᄌᆞ로 니ᄅᆞ샤도 從ᄒᆞᅀᆞᆸ디 아니ᄒᆞ더니 後에 부톄 羅雲이ᄃᆞ려 니ᄅᆞ샤ᄃᆡ 부텨 맛나미 어려ᄇᆞ며 法 드로미 어려ᄇᆞ니 네 이제 사ᄅᆞᄆᆡ 모ᄆᆞᆯ 得ᄒᆞ고 부텨를 맛나 잇ᄂᆞ니 엇뎨 게을어 法을 아니 듣ᄂᆞᆫ다.(석보 6:10-11)
*조차/ᄃᆞ려

◉ 羅雲이 ᄉᆞᆯ보ᄃᆡ ᄲᅮ텻 法이 精微ᄒᆞ야 져믄 아ᄒᆡ 어느 듣ᄌᆞ보리잇고.(석보 6:11)

◉ 아래 ᄌᆞ조 듣ᄌᆞ반 마ᄅᆞᆫ 즉자히 도로 니저 ᄀᆞᆺ몰ᄲᅮ니니 이제 져믄 저그란 안ᄌᆞᆨ ᄆᆞᅀᆞᆷᄉᆡ장 노다가 ᄌᆞ라면 어루 法을 ᄇᆡ호ᅀᆞ보리.(석보 6:11) * ᄲᅮᆫ/ -다가/ --으란(저그란)

◉ 이 다 부톄 니ᄅᆞ샤ᄃᆡ 자ᄇᆞᆫ이리 無常ᄒᆞ야 므ᄆᆞᆯ 몯미듧 거시니 네 목수믈 미더 ᄌᆞᄅᆞᆱ 時節을 기드리ᄂᆞᆫ다 ᄒᆞ시고 다시 說法ᄒᆞ시니 羅雲의 ᄆᆞᅀᆞ미 여러 아니라.「羅雲이 出家호미 부텻 나히 셜흔 세히러시니 穆王 닐굽 찻히 丙戌이라.(석보 6:11)

◉ 偸羅國婆羅門 迦葉이 三十二相이 ᄀᆞᆺ고 글도 만히 알며 가ᅀᆞ며러 布施도 만히 ᄒᆞ더니 제 겨집도 됴ᄒᆞᆫ 相이 ᄀᆞᆺ고 世間앳 情欲이 업더라.(석보 6: 12)

◉ 迦葉이 世間 ᄇᆞ리고 뫼해 드러 닐오ᄃᆡ 諸佛도 出家ᄒᆞ샤ᅀᅡ 道理를 닷ᄀᆞ시ᄂᆞ니 나도 그리 호리라 ᄒᆞ고 손소 머리 갓고 뫳고래 이셔 道理 ᅀᆞ랑ᄒᆞ더니 虛空애셔 닐오ᄃᆡ 이제 부톄 나아 겨시니라 ᄒᆞ야ᄂᆞᆯ 즉자히 니러 竹園으로 오더니 부톄 마조 나아 마ᄌᆞ샤 서르 고마ᄒᆞ야 드르샤 說法ᄒᆞ시니 곧 阿羅漢ᄋᆞᆯ 아니라.(석보 6: 12)

◉ 威嚴과 德쾌 커 天人이 重히 너길씨 大迦葉이라 ᄒᆞ더니 부텨 업스신 後에 法 디녀 後世예 펴디게 호미 이 大迦葉의 히미라.(석보 6: 12-13)

◉ 舍衛國 大臣 須達이 가ᅀᆞ며러 쳔랴이 그지 업고 布施ᄒᆞ기ᄅᆞᆯ 즐겨 艱難ᄒᆞ며 어엿븐 사ᄅᆞᄆᆞᆯ 쥐주어 거리칠씨 號를 給孤獨이라 ᄒᆞ더라.「給은 줄씨오 孤ᄂᆞᆫ 져머셔 어버ᅀᅵ 업슨 사ᄅᆞ미오 獨은 늘구ᄃᆡ 子息업서 ᄒᆞ옷 모민 사ᄅᆞ미라.(석보 6:13) * ᄒᆞ-옷 몸(홀몸)

◉ 給孤獨長者ㅣ 닐굽 아ᄃᆞ리러니 여슷 아ᄃᆞᆯ란 ᄒᆞ마 갓 얼이고 아기 아ᄃᆞ리 양ᄌᆡ 곱거늘 各別히 ᅀᆞ랑ᄒᆞ야 아ᄆᆞ례나 ᄆᆞᆺ돐ᄒᆞᆫ 며느리ᄅᆞᆯ 어두리라 ᄒᆞ야 婆羅門ᄋᆞᆯ ᄃᆞ려 닐오ᄃᆡ 어듸ᅀᅡ 됴ᄒᆞᆫ ᄯᅳ리 양ᄌᆞ ᄀᆞᄌᆞ니 잇거뇨.(석보 6: 13) -으란/아ᄆᆞ례나/ ᄃᆞ려/

◉ 내 아기 위ᄒᆞ야 어더 보고려.(석보 6: 13)

◉ 婆羅門이 그 말 듣고 고ᄇᆞᆯ 쏠 얻니노라 ᄒᆞ야 빌머거 摩竭陁國王舍城의 가니 그 城 안해 ᄒᆞᆫ 大臣護彌라 호리 가ᅀᅳ멸오 發心ᄒᆞ더니 婆羅門이 그 지븨 가 糧食 빈대 그 나랏 法에 布施호ᄃᆡ 모로매 童女로 내야 주더니 그 짓 ᄯᅳ리 ᄠᅳᆯ 가져 나오나ᄂᆞᆯ 婆羅門이 보고 깃거이 각시사 내 얻니논 ᄆᆞᅀᅳ매 맛도다 ᄒᆞ야 그 쏠ᄃᆞ려 무로ᄃᆡ 그딋 아바니미 잇ᄂᆞ닛가.(석보 6:14)

◉ 對答호ᄃᆡ 잇ᄂᆞ니이다.(석보 6: 14)

◉ 婆羅門이 닐오ᄃᆡ 내 보아져 ᄒᆞᄂᆞ다.(석보 6: 14)

◉ 그 ᄯᅳ리 드러 니른대 護彌長者ㅣ 나아오나ᄂᆞᆯ 婆羅門이 安否 묻고 닐오ᄃᆡ 舍衛國애 한 大臣 須達이라 호리 잇ᄂᆞ니 아ᄅᆞ시ᄂᆞ니잇가.(석보 6: 14-15)

◉ 護彌 닐오ᄃᆡ 소리ᅀᅮᆫ 듣노라.(석보 상 6:15) ᅀᅮᆫ

◉ 婆羅門이 닐오ᄃᆡ 舍衛國에 ᄆᆞᆺ 벼슬 놉고 가ᅀᅳ며루미 이 나라해 그듸 ᄀᆞᄐᆞ니 ᄒᆞᆫ ᄉᆞ랑ᄒᆞᄂᆞᆫ 아기아ᄃᆞ리 양ᄌᆡ 며ᄌᆡ죄ᄒᆞᆫ 그티니 그딋 ᄯᅳ를 맛고져 ᄒᆞ더이다.(석보 6: 15)

◉ 護彌 닐오ᄃᆡ 그리호리라 ᄒᆞ야ᄂᆞᆯ 마초아 홍졍바지 舍衛國으로 가리 잇더니 婆羅門이 글왈ᄒᆞ야 須達ᄋᆡ손ᄃᆡ 보내야ᄂᆞᆯ 須達이 깃거 波斯匿王ᄭᅴ 가아「그 나랏 王 일후미 波斯匿이라」 말ᄆᆡ 엳ᄌᆞᆸ고 쳔량 만히시러 王舍城으로 가며 길헤 艱難ᄒᆞᆫ 사ᄅᆞᆷ보아ᄃᆞᆫ 다 布施ᄒᆞ더라.(석보 6:15)

◉ 須達이 護彌 지븨 니거늘 깃거 나아 迎逢ᄒᆞ야 지븨 드려 재더니 그 지븨셔 차반 ᄆᆡᇰᄀᆞᆯ쏘리워즈런ᄒᆞ거늘 須達이 護彌ᄃᆞ려 무로ᄃᆡ 主人이 므슴 차바ᄂᆞᆯ 손소 ᄃᆞᆫ녀 ᄆᆡᇰᄀᆞ노닛가.(석보 6:15-6)

◉ 太子ᄅᆞᆯ 請ᄒᆞ야 이바도려 ᄒᆞ놋닛가.(석보 6:16)

◉ 護彌 닐오ᄃᆡ 그리이닝다.(석보 6: 16)

◉ 須達이 ᄯᅩ 무로ᄃᆡ 婚姻 위ᄒᆞ야 아ᅀᅳ미 오나ᄃᆞᆫ 이바도려 ᄒᆞ노닛가. (석보 6: 16)

☞ 사회 녀긔셔 며느리녁 지블 婚이라 니ᄅᆞ고 며느리 녀긔셔 사회녁 지블 姻이라 니ᄅᆞᄂᆞ니 댱가들며 셔방 마조ᄆᆞᆯ 婚姻ᄒᆞ다 ᄒᆞᄂᆞ니라.(석보 6: 16)

◉ 護彌 닐오ᄃᆡ 그리 아니라 부텨와 즁과ᄅᆞᆯ 請ᄒᆞᅀᅳ보려 ᄒᆞ닝다.(석보 6: 15)

◉ 須達이 부텨와 즁괏 마ᄅᆞᆯ 듣고 소홈도텨 自然히 ᄆᆞᅀᅳ매 깃븐 ᄠᅳ디 이실ᄊᆡ 다시 무로ᄃᆡ 엇뎨 부톄라 ᄒᆞᄂᆞ닛가.(석보 6: 15)

◉ 그 ᄠᅳ들 닐어쎠 對答호ᄃᆡ 그듸ᄂᆞᆫ 아니 듣ᄌᆞ뱃더시닛가.(석보 6: 17)

◉ 淨飯王 아ᄃᆞ님 悉達이라 ᄒᆞ샤리 나실 나래 ᄒᆞᄂᆞᆯ로셔 셜흔 두가짓 祥瑞 ᄂᆞ리며 一萬 神靈이 ᄒᆞᅀᅳᄫᆞ며 자ᄇᆞ리 업시 닐굽 거르믈 거르샤 니ᄅᆞ샤ᄃᆡ 하ᄂᆞᆯ 우 하ᄂᆞᆯ 아래 나 ᄇᆞᆫ 尊호라 ᄒᆞ시며 모미 金ㅅ 비치시며 三十二 相 八十 種好ㅣ ᄀᆞᆺ더시니 金輪王이 ᄃᆞ외샤 四天下ᄅᆞᆯ ᄀᆞᄉᆞᆷ 아ᄅᆞ시련마ᄅᆞᆫ 늘

그니 病ᄒᆞ니 주근 사ᄅᆞᆷ 보시고 世間 슬히 너기샤 出家ᄒᆞ샤 道理 닷ᄀᆞ샤 六年 苦行ᄒᆞ샤 正覺ᄋᆞᆯ 일우샤 魔王ㅅ 兵馬 十八 億萬을 降服히오샤 光明이 世界ᄅᆞᆯ ᄉᆞᄆᆞᆺ 비취샤 三世옛 이ᄅᆞᆯ 아ᄅᆞ실ᄊᆡ 부톄시다 ᄒᆞᄂᆞ닝다.(석보 6: 17-18)

◉ 須達이 ᄯᅩ 무로ᄃᆡ 엇뎨 쥬이라 ᄒᆞᄂᆞ닛가.(석보 6: 18)

◉ 對答호ᄃᆡ 부톄 成道ᄒᆞ샤시ᄂᆞᆯ 梵王이 轉法ᄒᆞ쇼셔 請ᄒᆞᄉᆞᄫᆞᄂᆞᆯ 婆羅栋國鹿野苑에 가샤 憍陳如ᄃᆞᆯ 다ᄉᆞᆺ 사ᄅᆞᄆᆞᆯ 濟渡ᄒᆞ시며 버거 鬱卑迦葉 三兄弟의 물 一千 사ᄅᆞᄆᆞᆯ 濟渡ᄒᆞ시며 버거 舍利弗 目揵連의 물 五百ᄋᆞᆯ 濟渡ᄒᆞ시니 이 사ᄅᆞᆷᄃᆞᆯ히 다 神足이 自在ᄒᆞ야 衆生ᄋᆡ 福田이 ᄃᆞ욀ᄊᆡ 쥬이라 ᄒᆞᄂᆞ닝다.(석보 6: 18-19)

☞ 轉法은 法을 그우릴씨니 부톄 說法ᄒᆞ샤 世間애 法이 펴디여 갈ᄊᆡ 그 우리 다 ᄒᆞᄂᆞ니 說法호ᄆᆞᆯ 轉法이라 ᄒᆞᄂᆞ니라.(석보 6: 18)

☞ 福田은 衆生ᄋᆡ 福이 쥬의 그에셔 남과 나디 바ᄐᆡ셔 남과 ᄀᆞᄐᆞᆯᄊᆡ 福 바티라 ᄒᆞᄂᆞ니라.(석보 6: 19)

◉ 須達이 이 말 듣고 부텻긔 發心ᄋᆞᆯ 니ᄅᆞ와다 언제 새어든 부텨를 가 보ᄉᆞ보려 ᄒᆞ더니 精誠 고ᄌᆞᆨᄒᆞ니 밤 두니 번ᄒᆞ거늘 길흘 ᄎᆞ자 부텻긔로 가ᄂᆞᆫ 저긔 城門애 내ᄃᆞ라 하ᄂᆞᆯ 祭ᄒᆞ던 짜ᄒᆞᆯ 보고 절ᄒᆞ다가 忽然히 부텨 向ᄒᆞᆫ ᄆᆞᄉᆞᄆᆞᆯ 니즈니 누니 도로 어듭거늘 제 너교ᄃᆡ 바ᄆᆡ 가다가 귓것과 모딘 즘ᄉᆡᆼ이 므싀엽도소니 므스므라 바ᄆᆡ 나오나뇨 ᄒᆞ야 뉘으처 도로 오려 ᄒᆞ더니 아래 제 버디 주거 하ᄂᆞᆯ해 갯다가 ᄂᆞ려와 須達 일ᄃᆞ려 닐오ᄃᆡ 須達이 뉘옷디 말라 내 아랫 네 버디라니 부텻 法 듣ᄌᆞᄫᆞᆫ 德으로 하ᄂᆞᆯ해 나아 門神이 ᄃᆞ외야 잇노니 네 부텨를 가 보ᄉᆞᄫᆞ면 됴ᄒᆞᆫ 이리 그지 업스리라.(석보 6: 19-20)

☞ 門神은 門ㅅ 神靈이라.(석보 6: 20)

◉ 四天下애 ᄀᆞᄃᆞᆨᄒᆞᆫ 보ᄇᆡ를 어더도 부텨 向ᄒᆞᄉᆞ바 ᄒᆞᆫ 거름 나소거룸만 몯ᄒᆞ니라.(석보 6: 20)

◉ 須達이 그 말듣고 더욱 깃거 다시 ᄭᅵ ᄃᆞ라 世尊ᄋᆞᆯ 念ᄒᆞᄉᆞᄫᆞ니 누니 도로 ᄇᆞᆰ거늘 길흘 ᄎᆞ자 世尊ᄭᅴ 가니라.(석보 6: 20)

◉ 世尊이 須達이 올ᄯᆞᆯ 아ᄅᆞ시고 밧긔 나아 걷니더시니 須達이 ᄇᆞᄅᆞᄆᆞᆸ고 몯내 과ᄒᆞᄉᆞ바 호ᄃᆡ 부텨 뫼ᄉᆞᆸᄂᆞᆫ 禮數를 몰라 바ᄅᆞ 드러 묻ᄌᆞ보ᄃᆡ 瞿曇 安否ㅣ 便安ᄒᆞ시니잇가 ᄒᆞ더니 世尊이 방셕 주어 안치시니라.(석보 6: 20)

◉ 그 ᄢᅴ 首陁會天이 須達ᄋᆡ 버릇 업순 주를 보고 네 사ᄅᆞ미 ᄃᆞ외야 와 世尊ᄭᅴ 禮數ᄒᆞᄉᆞᆸ고 ᄭᅮ러 安否 묻ᄌᆞᆸ고 올ᄒᆞᆫ 녀그로 세 ᄇᆞᆯ갑 도ᄉᆞᆸ고 ᄒᆞ녀긔 앉거늘 그제ㅅ 須達이 설우ᄉᆞ바 恭敬ᄒᆞᄉᆞᆸᄂᆞᆫ 法이 이러ᄒᆞᆫ 거시로다 ᄒᆞ야 즉 자히 다시 니러 네 사ᄅᆞᆷᄒᆞᄂᆞᆫ 양ᄋᆞ로 禮數ᄒᆞᄉᆞᆸ고 ᄒᆞ녀긔 안ᄌᆞ니라.(석보 6: 21) *줄/ 녁/ 세 ᄇᆞᆯ갑도ᄉᆞᆸ고/ -에ㅅ(그제ㅅ>그제사)

☞ 首陁會天은 淨居天이라 (석보 6: 21)

◉ 그 ᄢᅴ 世尊이 須達이 위ᄒᆞ야 四諦法을 니르시니 듣ᄌᆞᆸ고 깃ᄉᆞ바 須陁洹ᄋᆞᆯ 일우니라.(석보 6: 21)

◉ 그 저긔 舍衛國엣 사ᄅᆞ미 邪曲ᄒᆞᆫ 道理ᄅᆞᆯ 信ᄒᆞ야 正ᄒᆞᆫ 法 ᄀᆞᄅᆞ쵸미 어렵더니 須達이 부텨ᄭᅴ ᄉᆞᆯ보ᄃᆡ 如來하 우리 나라해 오샤 衆生ᄋᆡ 邪曲ᄋᆞᆯ 덜에 ᄒᆞ쇼셔.(석보 6: 21-2)

◉ 世尊이 니ᄅᆞ샤ᄃᆡ 出家ᄒᆞᆫ 사ᄅᆞᄆᆞᆫ 쇼히 곧디 아니ᄒᆞ니 그에 精舍ㅣ 업거니 어드리 가료.(석보 6: 22)

◉ 須達이 ᄉᆞᆯ보ᄃᆡ 내 어루 이ᄅᆞᅀᆞ보리이다.(석보 6: 22)

◉ 須達이 辭ᄒᆞᄉᆞᆸ고 가 제 아기 아ᄃᆞᆯ 댱가 드리고 제 나라ᄒᆞ로 갈쩌긔 부텨ᄭᅴ 와 ᄉᆞᆯ보ᄃᆡ 舍衛國에 도라가 正舍 이ᄅᆞᅀᆞ보리니 弟子 ᄒᆞ나ᄒᆞᆯ 주어시든 말 드러 이ᄅᆞᅀᆞ바지이다.(석보 6: 22)

☞ 辭ᄂᆞᆫ 하딕이라 ᄒᆞ듯ᄒᆞᆫ 마리라.(석보 6: 22)

◉ 世尊이 너기샤ᄃᆡ 舍衛國 婆羅門이 모디러 년기 가면 몯 이긔리니 舍利弗ᄋᆞᆺ 聰明ᄒᆞ고 神足이 ᄀᆞᄌᆞ니 舍利弗이 가ᅀᅡ 일우리라 ᄒᆞ샤 舍利弗을 須達이 조차 가라ᄒᆞ시다.(석보 6: 22)

◉ 길헤 가며 須達이 舍利弗 더브러 무로ᄃᆡ 世尊이 ᄒᆞᄅᆞ 몃 里ᄅᆞᆯ 녀시ᄂᆞ니잇고.(석보 6: 22-23)

◉ 對答호ᄃᆡ ᄒᆞᄅᆞ 二十里ᄅᆞᆯ 녀시ᄂᆞ니 轉輪王ᄋᆡ 녀샤미 ᄀᆞᄐᆞ시니라.(석보 6:23)

◉ 須達이 王舍城으로셔 舍衛國에 올ᄊᆞᄊᆡ 길헤 二十里예 ᄒᆞᆫ 亭舍옴 짓게 ᄒᆞ샤 사ᄅᆞᄆᆞᆯ 긔걸ᄒᆞ야 두고 舍衛國애 도라와 精舍 지ᅀᅮᆷ터ᄒᆞᆯ 어드니 맛당ᄒᆞᆫᄃᆡ 업고 오직 太子祇陁ᄋᆡ 東山이 ᄯᅡ토 平ᄒᆞᅡ며 나모도 盛ᄒᆞ더니 舍利弗이 닐오ᄃᆡ ᄆᆞᄉᆞᆯ히 멀면 乞食ᄒᆞ디 어렵고 하 갓가ᄫᆞ면 조티 몯ᄒᆞ리니 이 東山이 甚히 맛갑다.(석보 6: 23-24)

☞ 亭은 亭子ㅣ오 舍ᄂᆞᆫ 지비니 부톄 舍衛國ᄋᆞ로 오싫길헤 머므르싫 지비라.(석보 6: 23)

◉ 須達이 깃거 太子ᄭᅴ 가 ᄉᆞᆯ보ᄃᆡ 이 東山ᄋᆞᆯ 사아 如來 위ᄒᆞᅀᆞ바 精舍ᄅᆞᆯ 이ᄅᆞᅀᆞ바지이다.(석보 6: 24)

◉ 太子ㅣ 우스며 닐오ᄃᆡ 내 므스거시 不足ᄒᆞ료. 젼혀 이 東山은 남기 됴ᄒᆞᆯᄊᆡ 노니논 ᄯᅡ히라.(석보 6: 24)

◉ 須達이 다시곰 請ᄒᆞᆫ대 太子ㅣ 앗겨 ᄆᆞᅀᆞ매 너교ᄃᆡ 비들 만히 니르면 몯 ᄉᆞᆱ가ᄒᆞ야 닐오ᄃᆡ 金으로 ᄯᅡ해 ᄉᆡ로ᄆᆞᆯ 뮈 업게ᄒᆞ면 이 東山ᄋᆞᆯ ᄑᆞ로리라.(석보 6: 24)

◉ 須達이 닐오ᄃᆡ 니ᄅᆞ샨 양ᄋᆞ로 호리이다.(석보 6: 24)

◉ 太子ㅣ 닐오ᄃᆡ 내 롱담ᄒᆞ다라.(석보 6: 24) *-다라(맺음씨끝:평서형)

◉ 須達이 닐오ᄃᆡ 太子ㅅ 法은 거즛마ᄅᆞᆯ 아니ᄒᆞ시ᄂᆞᆫ 거시니 구쳐 ᄑᆞᄅᆞ시리이다 ᄒᆞ고 太子와 ᄒᆞ야 그 위예 決ᄒᆞ라 가려 ᄒᆞ더니 그 ᄢᅴ 首陁會天이 너교ᄃᆡ 나랏 臣下ㅣ 太子ㅅ 녀글 들면 須達ᄋᆡ 願을 몯 일울까ᄒᆞ야 ᄒᆞᆫ 사ᄅᆞ미 ᄃᆞ외야 ᄂᆞ려와 分揀ᄒᆞ야 太子ᄭᅴ 닐오ᄃᆡ 太子ᄂᆞᆫ 거즛말 몯ᄒᆞ시ᄂᆞᆫ 거시니 뉘으처 마ᄅᆞ쇼셔.(석보 6: 24-25)

◉ 太子ㅣ 구쳐 ᄑᆞ라ᄂᆞᆯ 須達이 깃거 象애 金을 시러 여든 頃 싸해 즉자히 다 ᄉᆞᆯ오, 아니ᄒᆞᆫᄃᆡ 몯다 ᄉᆡᆼ랫거늘 須達이 잔즉고 ᄉᆞ랑ᄒᆞ더니 太子ㅣ 무로ᄃᆡ 앗가ᄫᅳᆫ ᄠᅳ디 잇ᄂᆞ니여.(석보 6: 25) *-여(의문씨끝)

☞ 頃은 온 畝ㅣ니 ᄒᆞᆫ 畝ㅣ 二百마ᅀᅥ 步ㅣ라.(석보 6: 25)

◉ 對答호ᄃᆡ 그리 아니라 내 ᄉᆞ랑호ᄃᆡ 어누 藏ㅅ金이ᅀᅡ 마치 ᄉᆞᆯ이려뇨 ᄒᆞ노이다.(석보 6: 25)

◉ 太子ㅣ 너교ᄃᆡ 부텻 德이 至極ᄒᆞ샤ᅀᅡ 이 사ᄅᆞ미 보ᄇᆡ를 더리도록 아니 앗기놋다 ᄒᆞ야 須達이 ᄃᆞ려 닐오ᄃᆡ 金을 더 내디 말라. ᄯᅡᄒᆞᆫ 그딋 모ᄀᆡ 두고 남ᄀᆞ란 내 모ᄀᆡ 두어 둘히 어우러 精舍 밍ᄀᆞ라 부텻긔 받ᄌᆞ보리라.(석보 6: 25-26)

◉ 須達이 깃거 지븨 도라가 精舍 지ᅀᅮᆯ 이ᄅᆞᆯ 磨鍊ᄒᆞ더니 그 나랏 六師ㅣ 듣고 王ᄭᅴ ᄉᆞᆯ보ᄃᆡ 長者 須達이 祇陁太子ㅅ 東山ᄋᆞᆯ 사아 瞿曇 沙門 위ᄒᆞ야 精舍ᄅᆞᆯ 지수려 ᄒᆞᄂᆞ니 우리 모다 ᄌᆡ조ᄅᆞᆯ 겻고아 뎌옷 이긔면 짓게ᄒᆞ고 몯 이긔면 몯 짓게 ᄒᆞ야지이다.(석보 6: 26)

☞ 六師ᄂᆞᆫ 外道ᄋᆡ ᄉᆞ숭 여스시라.(석보 6: 26)

◉ 王이 須達이 블러 닐오ᄃᆡ 六師ㅣ 이리 니르ᄂᆞ니 그듸 沙門 弟子ᄃᆞ려 어루 겻굴 따 무러 보라.(석보 6: 26)

◉ 須達이 지븨 도라와 ᄠᅴ 무든 옷 닙고 시름ᄒᆞ야 잇더니 이틋나래 舍利弗이 보고 무른대 須達이 그 ᄠᅳ들 닐어ᄂᆞᆯ 舍利弗이 닐오ᄃᆡ 분별 말라. 六師ᄋᆡ 무리 閻浮提예 ᄀᆞᄃᆞᆨᄒᆞ야도 내 바랫 ᄒᆞᆫ 터리ᄅᆞᆯ 몯 무으리니 므슷 이ᄅᆞᆯ 겻고오려 ᄒᆞᄂᆞᆫ고. 제 ᄒᆞᆯ 양ᄋᆞ로 ᄒᆞ게 ᄒᆞ라.(석보 6: 27)

◉ 須達이 깃거 香湯애 沐浴ᄒᆞ고 새옷 ᄀᆞ라 닙고 즉자히 王ᄭᅴ 가 ᄉᆞᆯ보ᄃᆡ 六師ㅣ 겻구오려 ᄒᆞ거든 제 ᄒᆞᆯ양ᄋᆞ로 ᄒᆞ라 ᄒᆞ더니이다.(석보 6: 27)

◉ 그 저긔 六師ㅣ 나라해 出令호ᄃᆡ 이 後 닐웨예 城 밧 훤ᄒᆞᆫ ᄯᅡ해 가 沙門과 ᄒᆞ야 ᄌᆡ조 겻구오리라.(석보 6: 27)

◉ 그 날 다ᄃᆞ라 金 부플티니 나랏 사ᄅᆞᆷ 十八億이 다 모ᄃᆞ니 六師ᄋᆡ 무리 三億萬이러라.(석보 6: 27-28)

☞ 舍衛國 사ᄅᆞ미 十八億이러니 그 나랏 法에 ᄇᆞᆸ 텨 사ᄅᆞᄆᆞᆯ 모도오ᄃᆡ 툥 부플 티면 十二億 사ᄅᆞ미 몯고 銀 부플 티면 十四億 사ᄅᆞ미 몯고 金 부플 티면 十八億 사ᄅᆞ미 다 몯더니라.(석보 6: 28)

◉ 그저긔 나랏 사ᄅᆞ미 모다 王과 六師와 위ᄒᆞ야 노푼 座 밍ᄀᆞᆯ오 須達인 舍利弗 위ᄒᆞ야 노푼 座 밍ᄀᆞ니 그 ᄢᅴ 舍利弗이 ᄒᆞᆫ 나모 미틔 안자 入定ᄒᆞ야 諸根이 괴외ᄒᆞ야 너교ᄃᆡ 오ᄂᆞᆯ 모댓ᄂᆞᆫ 한 사ᄅᆞ미 邪曲ᄒᆞᆫ 道理 ᄇᆡ환디오라 아제 노포라 ᄒᆞ야 衆生ᄋᆞᆯ 프셩귀만 너기ᄂᆞ니 엇던 德으로 降服히려뇨.(석보 6: 28)

☞ 諸根은 여러 불휘니 눈과 귀와 고콰 혀와 옴과 ᄠᅳᆮ괘라. ᄆᆞᅀᆞ미 一定ᄒᆞᆫ 고대 들면 봄과 드룸과 마톰과 맛아롬과 모매 다홈과 雜 ᄠᅳᆮ괘 다 업스릴씨 諸根이 괴외타 ᄒᆞ니라.(석보 6: 28)

◉ 세 德으로 호리라 ᄒᆞ고 盟誓ᄅᆞᆯ 호ᄃᆡ 나옷 無數ᄒᆞᆫ 劫에 父母 孝道ᄒᆞ고 沙門과 婆羅門과ᄅᆞᆯ 恭敬혼디면 내 처섬 모ᄃᆞᆫᄃᆡ 드러 니거든 한 사ᄅᆞ미 날 위ᄒᆞ야 禮數ᄒᆞ리라 ᄒᆞ더라.(석보 6: 29)

☞ 세 德은 法身과 般若와 解脫왜라 解脫은 버서날씨니 變化ᄅᆞᆯ ᄆᆞᅀᆞᆷ조초 ᄒᆞ야 ᄆᆞᅀᆞ미 自得ᄒᆞ야 드트릐 얽ᄆᆡ윰미 아니 ᄃᆞ욀씨라.(석보 6: 29)

◉ 그 ᄢᅴ 六師ᄋᆡ 무른 다 모댓고 舍利弗이 ᄒᆞ오ᅀᅡ 아니 왯더니 六師ㅣ 王ᄭᅴ ᄉᆞᆯ보ᄃᆡ 瞿曇ᄋᆡ 弟子ㅣ 두리여 몯 오ᄂᆞ이다.(석보 6: 29)

◉ 王이 須達이ᄃᆞ려 닐오ᄃᆡ 네 스스의 弟子ㅣ 엇뎨 아니오ᄂᆞ뇨.(석보 6: 29)

◉ 須達이 舍利弗ᄭᅴ 가 ᄭᅮ러 닐오ᄃᆡ 大德하 사ᄅᆞ미 다 모다 잇ᄂᆞ니 오쇼셔.(석보 6: 29)

☞ 大德은 큰 德이니 舍利弗을 니르니라.(석보 6: 30)

◉ 舍利弗이 入定으로셔 니러 옷 고티고 尼師檀ᄋᆞᆯ 왼녁 엇게예 엿고 ᄌᆞᄂᆞᄌᆞᄂᆞ기 거러 모ᄃᆞᆫᄃᆡ 니거늘 모ᄃᆞᆫ 사ᄅᆞᆷ과 六師왜 보고 ᄀᆞ마니 이셔 自然히 니러 禮數ᄒᆞ더라.(석보 6: 30)

☞ 尼師檀은 앉ᄂᆞᆫ 거시라.(석보 6: 30)

◉ 舍利弗이 須達ᄋᆡ 밍ᄀᆞ론 座애 올아 앉거늘 六師ᄋᆡ 弟子 勞度差ㅣ 幻術을 잘ᄒᆞ더니 한 사ᄅᆞᆷ 알ᄑᆡ 나아 呪ᄒᆞ야 ᄒᆞᆫ 남ᄀᆞᆯ 지스니 즉자히 가지 퍼디여 모ᄃᆞᆫ 사ᄅᆞᄆᆞᆯ ᄀᆞ리 두프니 곳과 여름괘 가지마다 다ᄅᆞ더니 舍利弗이 神力으로 旋嵐ᄋᆞᆯ 내니 그 나못 불휘ᄅᆞᆯ 빼혀 그 우리 부러 가짓것 비쳐 드트리 ᄃᆞ외ᄋᆡ 붓아디거늘 모다 닐오ᄃᆡ 舍利弗이 이긔여다.(석보 6: 30-31)

☞ 旋嵐은 ᄀᆞ장 ᄆᆡ본 ᄇᆞᄅᆞ미라.(석보 6: 30)

◉ 勞度差ㅣ ᄯᅩ 呪ᄒᆞ야 ᄒᆞᆫ 모ᄉᆞᆯ 지스니 四面이 다 七寶ㅣ오 가온ᄃᆡ 種種 고지 퓟더니 舍利弗이 큰 六牙 白象ᄋᆞᆯ 지ᅀᅥ내니 엄마다 닐굽 蓮花ㅣ오 곳 우마다 닐굽 玉女ㅣ러니 그 못 므를 다 마시니 그 모시 다 스러디거늘 모다 닐오ᄃᆡ 舍利弗이 이긔여다.(석보 6: 31)

☞ 六牙ᄂᆞᆫ 여슷 어미라. (석보 6: 31)

◉ 勞度差ㅣ ᄯᅩ ᄒᆞᆫ 뫼ᄒᆞᆯ 지스니 七寶로 莊嚴ᄒᆞ고 못과 곳과 果實왜 다 ᄀᆞ초 잇더니 舍利弗이 金剛力士ᄅᆞᆯ 지ᅀᅥ내야 金剛杵로 머리셔 견지니 그 뫼히 ᄒᆞᆫ 것도 업시 믈어디거늘 모다 닐오ᄃᆡ 舍利

弗이 이긔여다.(석보 6: 31-32)

☞ 杵는 방핫과니 굴근 막다히 ᄀᆞ튼 거시라.(석보 6: 31)

◉ 勞度差ㅣ ᄯᅩ ᄒᆞᆫ 龍을 지스니 머리 열히러니 虛空애셔 비오ᄃᆡ 고ᄅᆞᆫ 種種 보ᄇᆡ 듣고 울에 번게 ᄒᆞ니 사ᄅᆞ미 다 놀라더니 舍利弗이 ᄒᆞᆫ 金翅鳥ᄅᆞᆯ 지ᅀᅥ내니 그 龍을 자바 ᄠᅳ저 머거늘 모다 닐오ᄃᆡ 舍利弗이 이긔여다.(석보 6: 32)

☞ 金翅鳥ᄂᆞᆫ 迦樓羅ㅣ라.(석보 6: 32)

◉ 勞度差ㅣ ᄯᅩ ᄒᆞᆫ 쇼ᄅᆞᆯ 지ᅀᅥ내니 모미 ᄀᆞ장 크고 다리 굵고 ᄲᅳ리 ᄂᆞᆯ캅더니 ᄯᅡ 허위며 소리 ᄒᆞ고 ᄃᆞ라오거늘 舍利弗이 ᄒᆞᆫ 獅子ㅣᄅᆞᆯ 지ᅀᅥ 내니 그 쇼ᄅᆞᆯ 자바 머그니 모다 닐오ᄃᆡ 舍利弗이 이긔여다.(석보 6: 32) *ㅡㅣᄅᆞᆯ(부림자리토씨의 용례)

◉ 勞度差ㅣ ᄒᆞ다가 몯ᄒᆞ야 제 모미 夜叉 ᄃᆞ외야 모미 길오 머리 우희 블븓고 누니 핏 무적 ᄀᆞᆮ고 톱과 엄괘 ᄂᆞᆯ캅고 이베 블 吐ᄒᆞ며 ᄃᆞ라오거늘 舍利弗도 자내 毗沙門王이 ᄃᆞ외니 夜叉ㅣ 두리여 믈러 ᄃᆞ로려 ᄒᆞ다가 四面에 브리 니러셜씨 갈띠 업서 오직 舍利弗 알ᄑᆡ옷 브리 업슬씨 즉자히 降服ᄒᆞ야 업더디여 사ᄅᆞ쇼셔 비니 그리 降服ᄒᆞ야ᅀᅡ 브리 즉자히 ᄲᅳ거늘 모다 닐오ᄃᆡ 舍利弗이 이긔여다.(석보 6: 33)

◉ 그제ᅀᅡ 舍利弗이 虛空애 올아 거르며 셔며 안ᄌᆞ며 누ᄇᆞ며 ᄒᆞ고 몸 우희 믈내오 몸 아래 블내오 東녀긔셔 수므면 西ㅅ 녀긔 내ᄃᆞᆫ고 西ㅅ 녀긔셔 수므면 東녀긔 내ᄃᆞᆫ고 北 녀긔셔 수므면 南녀긔 내ᄃᆞᆫ고 南녀긔셔 수므면 北녀긔 내ᄃᆞᆫ고 모미 크긔 ᄃᆞ외야 虛空애 ᄀᆞᄃᆞᆨᄒᆞ야 잇다가 ᄯᅩ 젹긔 ᄃᆞ외며 ᄯᅩᄒᆞᆫ 모미 萬億身이 ᄃᆞ외야 잇다가 도로 ᄒᆞ나히 ᄃᆞ외며 ᄯᅩ 虛空애 ᄯᅡ히 ᄃᆞ외야 ᄯᅡ홀 ᄇᆞᆯᄇᆞᆫᄃᆡ 믈 ᄇᆞᆲᄃᆞᆺᄒᆞ고 므를 ᄇᆞᆯᄇᆞᆫᄃᆡ ᄯᅡ ᄇᆞᆲᄃᆞᆺᄒᆞ더니 이런 變化ᄅᆞᆯ 뫼오ᅀᅡ 神足을 가다 도로 本座애 드러 앉ᄌᆞ니라.(석보 6: 33-34)

☞ 本座ᄂᆞᆫ 本來ㅅ 座ㅣ라.(석보 6: 34)

◉ 그 ᄠᅴ 머댓ᄂᆞᆫ 사ᄅᆞ미 다 降服ᄒᆞ야 깃거ᄒᆞ더니 舍利弗이 그제ᅀᅡ 說法ᄒᆞ니 제여곰 前生애 닷곤 因緣으로 須陁洹을 得ᄒᆞ리도 이시며 斯陁含을 得ᄒᆞ리도 이시며 阿那含을 得ᄒᆞ리도 이시며 阿羅漢을 得ᄒᆞ리도 잇더라.(석보 6: 34-35)

◉ 六師ᄋᆡ 弟子ᄃᆞᆯ토 다 舍利弗ᄭᅴ 와 出家ᄒᆞ니라.(석보 6: 35)

◉ ᄌᆡ조 겻구고ᅀᅡ 須達이 와 舍利弗왜 精舍ᄅᆞᆯ 짓더니 둘히 손소 마조 자바 터 되더니 舍利弗이 젼ᄎᆞ 업시 우ᅀᅥ늘 須達이 무른대 對答호ᄃᆡ 그듸 精舍 지무려 터흘 ᄀᆞᆺ 始作ᄒᆞ야 되어늘 여ᄉᆞᆺ 하ᄂᆞ래 그듸 가 들찌비 ᄇᆞᆯ쎠 이도다 ᄒᆞ고 道眼을 빌여늘 須達이 보니 여ᄉᆞᆺ 하ᄂᆞ래 宮殿이 싁싁ᄒᆞ더라.(석보 6: 35) *동사 '가다'의 문법화 사례/ . 너희 ᄲᆞᆯ리 바ᄅᆞᆱ ᄀᆞ새 가아(월석 10:13)/어미 최시 병이 극ᄒᆞ야 주거가거늘(동국신 7:47) / 그듸 가아 아라듣게 니르라(석보 6: 6)/ 네가 무러 보라(월석 7:11)/ 네가 ᄌᆞᄂᆞᄂᆞ기 窮子ᄃᆞ려 닐오ᄃᆡ(월석 13: 20)/ 네가 뎌나라 업시워(법화 7:12)/ . 네가 ᄉᆞᆯ피오ᄂᆞᆫ ᄠᅳ디나 스고 마쟈스놋다.(순천김씨 73)/ 내가 차려 밥고져 호ᄃᆡ(순천김씨 12)

☞ 여슷 하ᄂᆞ른 欲界 六天이라.(석보 6: 35)

☞ 道眼은 道理옛 누니라.(석보 6: 35)

◉ 須達이 무로ᄃᆡ 여슷 하ᄂᆞ리 어늬사 ᄆᆞᆺ 됴ᄒᆞ니잇가.(석보 6: 35)

◉ 舍利弗이 닐오ᄃᆡ 아랫 세 하ᄂᆞ른 煩惱ㅣ 만ᄒᆞ고 ᄆᆞᆺ 우흿 두 하ᄂᆞ른 너무 게을이 便安ᄒᆞ고 가온ᄃᆡ 네찻 하ᄂᆞ리사 샹녜 一生補處菩薩이 그에 와 나샤 法訓이 긋디 아니ᄒᆞᄂᆞ니라.(석보 6: 35-36)

☞ 一生은 ᄒᆞᆫ번 날씨니 ᄒᆞᆫ번 다른 地位예 난 後ㅣ면 妙覺地位예 오ᄅᆞᆯ씨니 等覺애셔 金剛乾慧예 ᄒᆞᆫ번 나면 後에 妙覺애 오ᄅᆞᄂᆞ니 나다 ᄒᆞ논 마른 사라나다 ᄒᆞ논 마리 아니라 다른 地位예 올마가다 ᄒᆞ논 ᄠᅳ디라.(석보 6: 36)

☞ 訓은 ᄀᆞᄅᆞ칠씨라.(석보 6: 36)

◉ 須達이 닐오ᄃᆡ 내 正히 그 하ᄂᆞ래 나리라.(석보 6: 36)

◉ ᄀᆞᆺ 그말 다ᄒᆞ니 녀느 하ᄂᆞ랫 지븐 업고 네찻 하ᄂᆞ랫 지비 잇더라.(석보 6: 36)

◉ 주를 다른ᄃᆡ 옮겨 터되더니 舍利弗이 측ᄒᆞᆫ ᄂᆞᆺ고지 잇거늘 須達이 무른대 對答호ᄃᆡ 그듸 이 굼긧 개야미 보라. 그듸 아래 디나건 毗婆尸佛 위ᄒᆞᄉᆞ바 이 ᄯᅡ해 精舍이르ᄉᆞᄫᆞᆯ 쩨도 이 개야미 이에셔 살며 尸棄佛 위ᄒᆞᄉᆞ바 이 ᄯᅡ해 精舍이르ᄉᆞᄫᆞᆯ 쩨도 이 개야미 이에셔 살며 毗舍佛 위ᄒᆞᄉᆞ바 이 ᄯᅡ해 精舍이르ᄉᆞᄫᆞᆯ 쩨도 이 개야미 이에셔 살며 拘留孫佛 위ᄒᆞᄉᆞ바 이 ᄯᅡ해 精舍 이르ᄉᆞᄫᆞᆯ 쩨도 이 개야미 이에셔 살며 迦那含牟尼佛 위ᄒᆞᄉᆞ바 이 ᄯᅡ해 精舍 이르ᄉᆞᄫᆞᆯ 쩨도 이 개야미 이에셔 살며 迦葉佛 위ᄒᆞᄉᆞ바 이 ᄯᅡ해 精舍 이르ᄉᆞᄫᆞᆯ 쩨도 이 개야미 이에셔 사더니 처섬 이에셔 사던 저그로 오ᄂᆞᆶ낤 ᄀᆞ짱 혜면 아ᄒᆞᆫ ᄒᆞᆫ 劫이로소니 제 ᄒᆞᆫ가짓 모ᄆᆞᆯ 몯여희여 죽사리도 오랄쎠 ᄒᆞ노라.(석보 6: 36-37) *-제(쩨)/ -ㄹ쎠(오랄쎠+ᄒᆞ다)

◉ 아마도 福이 조ᄉᆞᄅᆞ빙니 아니 심거 몯ᄒᆞᆯ꺼시라.(석보 6: 38) *-것

◉ 須達이도 그말 듣고 슬허ᄒᆞ더라.(석보 6: 38)須達이 精舍이르ᄉᆞᆸ고 窟 밍ᄀᆞᆯ오 栴檀香ㄱ ᄀᆞᆯᄋᆞ로 ᄇᆞᄅᆞ고 別室이사 一千二百이오 쇠붑 ᄃᆞᆫ지비사 一百 스믈 고디러라.(석보 6: 38)

◉ 須達이 精舍 다 짓고 王ᄭᅴ 가 ᄉᆞᆯ보ᄃᆡ 내 世尊 위ᄒᆞᄉᆞ바 精舍ᄅᆞᆯ ᄒᆞ마 짓ᄉᆞ보니 王이 부텨를 請ᄒᆞᄉᆞᄫᆞ쇼셔.(석보 6: 38)

◉ 王이 使者 브리샤 王舍城의 가 부텨를 請ᄒᆞᄉᆞᄫᆞ니 그 ᄢᅴ 世尊ᄭᅴ 四衆이 圍繞ᄒᆞᄉᆞᆸ고 큰 光明을 펴시고 天地 드러치더니 舍衛國에 오실쩌긔 須達ᄋᆡ 지순 亭舍마다 드르시며 길헤 사ᄅᆞᆷ 濟渡ᄒᆞ샤미 그지 업더시다.(석보 6: 38-39)

◉ 世尊이 舍衛國에 오샤 큰 光明을 펴샤 三千大千 世界ᄅᆞᆯ 다 비취시고 밧가라 ᄀᆞ로 ᄯᅡ홀 누르시

니 싸히 다 드러치고 그 잣 안햇 풍륫가시 절로 소리ᄒᆞ며 一切 病ᄒᆞᆫ 사ᄅᆞ미 다 됴터니 그 나랏 十八億 사ᄅᆞ미 그런 祥瑞ᄅᆞᆯ 보숩고 모다 오나ᄂᆞᆯ 부톄 妙法을 施說ᄒᆞ시니 제여곰 因緣으로 須陁洹도 得ᄒᆞ며 斯陁含도 得ᄒᆞ며 阿那漢도 得ᄒᆞ며 辟支佛 因緣도 지스며 無上道理ᄅᆞᆯ 發心ᄒᆞ리도 잇더라.(석보 6: 39) 모다 =몯+아>모다(부사 파생)

◉ 부톄 後에 阿難이ᄃᆞ려 니ᄅᆞ샤ᄃᆡ 이 東山은 須達ᄋᆡ 산 거시오 나모와 곳과 果實와ᄂᆞᆫ 祇陁ᄋᆡ 뒷 논 거시니 두 사ᄅᆞ미 어우러 精舍 지스란ᄃᆡ 일후믈 太子 祇陁樹給孤獨園이라 ᄒᆞ라.(석보 6: 39-40)

☞ 須達ᄋᆡ 精舍 지ᅀᅳᆷ 저기 부텻 나히 셜흔 네히러시니 穆王 여듧 찻히 丁亥라.(석보 6: 40)

◉ 波斯匿王과 末利夫人괘 부텨 보숩고 과ᄒᆞᄉᆞ바 닐오ᄃᆡ 내 ᄉᆞᆯ 勝鬘이 聰明ᄒᆞ니 부텨옷 보ᄉᆞᄫᆞ면 당다이 이 得道ᄅᆞᆯ ᄲᅡᆯ리 ᄒᆞ리니 사ᄅᆞᆷ 브려 닐어ᅀᅡ ᄒᆞ리로다.(석보 6: 40)

◉ 勝鬘이 부텻 功德을 듣ᄌᆞᆸ고 깃거 偈ᄅᆞᆯ 지ᅀᅥ 부텨를 기리숩고 願호ᄃᆡ 부톄 나ᄅᆞᆯ 어엿비 너기샤 나ᄅᆞᆯ 보숩게 ᄒᆞ쇼셔.(석보 6: 40)

◉ ᄀᆞᆺ 그리 念ᄒᆞᄂᆞᆫ 저긔 如來 忽然히 虛空애 오샤 無比身ᄋᆞᆯ 現ᄒᆞ샤 勝鬘經을 니르시니라.(석보 6: 41)

☞ 無比身은 가ᄌᆞᆯᄇᆞᆯᄯᅵ 업슨 모미니 부텻 모미 여러 가짓 相이 ᄀᆞᄌᆞ샤 가ᄌᆞᆯ비ᄉᆞᄫᆞᆯ ᄯᅵ 업스실씨라.(석보 6: 41)

◉ 世尊이 拘耶尼國에 婆陁和菩薩 위ᄒᆞ야 苦行 般若ᄅᆞᆯ 니르시며 山애 겨샤도 說法ᄒᆞ시며 穢澤애 겨샤도 說法ᄒᆞ시며 舍衛國과 摩竭國 ᄉᆞ싀예 鸚鵡林이 잇더니 鸚鵡王이 부텨를 請ᄒᆞᄉᆞ바ᄂᆞᆯ 부톄 比丘 ᄃᆞ리시고 드러 안ᄌᆞ신대 鸚鵡ᄃᆞᆯ히 부텨를 보숩고 깃븐 ᄆᆞᄉᆞᄆᆞᆯ 내야 ᄒᆞᆫ날 命終ᄒᆞ야 忉利天에 나리라.(석보 6: 41-42)

☞ 苦行 般若 니ᄅᆞ샤미 부텻 나히 셜흔 다ᄉᆞ시러시니 穆王 아홉 찻히 成子ㅣ라.(석보 6: 41)

☞ 柳山애셔 說法ᄒᆞ샤미 부텻 나히 셜흔 여스시러시니 穆王 열 찻히 己丑ㅣ라.(석보 6: 41)

◉ 世尊이 摩竭國에 도라오샤 弗沙王 위ᄒᆞ야 說法ᄒᆞ시며 鷲峯山애셔 수므시면 忉利宮의 나시고 須彌山애셔 수므시면 炎摩宮의 나샤 華嚴等經을 니르시며--(석보 6: 42)

☞ 摩竭陁國에 도라오샤미 부텻 나히 셜흔 여들비러시니 穆王 열둘 찻히 辛卯ㅣ라.(석보 6: 42)

☞ 炎摩宮은 夜摩宮이라.(석보 6: 42)

◉ 恐惧樹 아래 겨샤 彌勒 위ᄒᆞ야 修行本起經을 니르시며 迦毗羅國에 도라 오샤 淨飯王 위ᄒᆞ야 說法ᄒᆞ시며--(석보 6: 42-43)

☞ 本은 根源이오 起ᄂᆞᆫ 닐씨니 修行 本起經은 修行ㅅ 根源 니르와ᄃᆞ샨 ᄆᆞᆺ 첫 根源을 닐온 經이

라. 彌勒 위ᄒᆞ야 說法ᄒᆞ샤미 부텻 나히 셜흔 아호비러시니 穆王 열세찻히 壬辰이라.(석보 6: 42)

☞ 淨飯王 위ᄒᆞ야 說法ᄒᆞ샤미 부텻 나히 마ᄉᆞ니러시니 穆王 열네찻 히 癸巳ㅣ라.(석보 6: 43)

◉ 難陁龍王宮寶樓中에 겨샤 大雲輪請雨經을 니르시며 (석보 6: 43)

☞ 大雲輪請雨經은 부톄 優婆難陁 龍王 宮內예 大雲輪殿 寶樓閣中에 잇거시ᄂᆞᆯ 三千大千 世界 龍王ㅅ 中에 ᄆᆞᆺ 위 두ᄒᆞᆫ 無邊莊嚴 海雲 威德輪蓋 龍王이 閻浮擬예 비오게 ᄒᆞ야 草木이며 디며 ᄌᆞ라게 ᄒᆞᆯ 이ᄅᆞᆯ 請ᄒᆞᄉᆞ바ᄂᆞᆯ 부톄 니ᄅᆞ샨 經이라.(석보 6: 43)

◉ 楞伽頂에 가샤 入楞伽山經을 니르시며 (석보 6: 43)

☞ 楞伽頂은 楞伽山애 드러가 니ᄅᆞ샨 經이라. 楞伽山이 南天竺 바ᄅᆞᆱ ᄀᆞ새 잇ᄂᆞ니 神通 잇ᄂᆞᆫ 사ᄅᆞ미ᅀᅡ 가ᄂᆞ니라.(석보 6: 43)

◉ 補陁巖애 가샤 十一面 觀在經을 니르더시다.(석보 6: 43)

☞ 補陁ᄂᆞᆫ 혀 근ᄒᆞᆫ 고지라 ᄒᆞ논 마리니 이 山애 이 고지 만히 이셔 香 내 머리 나ᄂᆞ니 觀自在菩薩 겨신 ᄯᅡ히라. 巖은 바회라. 十一面은 열 ᄒᆞᆫ ᄂᆞ치니 열 ᄒᆞᆫ ᄂᆞ칫 觀自在 菩薩ㅅ 相ᄋᆞᆯ ᄆᆡᆼᄀᆞ라 供養ᄒᆞᄉᆞᄫᆞᆯ 일 니ᄅᆞ샨 經이라.(석보 6: 44)

◉ 師羅長者ㅣ 킈 석자히러니 부텨도 석잣 모미 ᄃᆞ외샤 敎化ᄒᆞ더시다.(석보 6: 44)

◉ 부톄 여러 나라해 두루 ᄃᆞᆫ니샤 舍衛國에 오래 아니왯더시니 須達이 長常 그리ᄉᆞ바 셜버ᄒᆞ더니 부톄 오나시ᄂᆞᆯ 보ᄉᆞ바 ᄉᆞᆯ보ᄃᆡ 나ᄅᆞᆯ 죠고맛 거슬 주어시든 샹녜 供養ᄒᆞᄉᆞ바지이다.(석보 6: 44)

◉ 부톄 마리와 손톱과ᄅᆞᆯ 바혀 주신대 須達이 塔 세오 堀 짓고 種種 莊嚴ᄒᆞ고 供養ᄒᆞᄉᆞᆸ더라.(석보 6: 44)

◉ 須達이 病ᄒᆞ얫거늘 부톄 가아 보시고 阿那含ᄋᆞᆯ 得ᄒᆞ리라 니르시니라.(석보 6: 44)

◉ 命終ᄒᆞ야 兜率天에 가아 兜率天子ㅣ ᄃᆞ외야 世尊 뵈ᄉᆞᆸ고져 너겨 즉자히 ᄂᆞ려와 世尊ᄭᅴ 뵈ᄉᆞ바 머리 조ᄯᅡᆸ고 ᄒᆞ녀긔 안ᄌᆞ니 그저긔 兜率天子ㅣ 모매 放光ᄒᆞ야 祇樹給孤獨園을 다 비취오 偈 지ᅀᅥ 讚嘆ᄒᆞᄉᆞᆸ고 즉자히 도로 수므니라.(석보 6: 45)

☞ 祇樹ᄂᆞᆫ 祇陁樹ㅣ라.(석보 6: 45)

◉ 阿含經 열두히 니르시고 버거 여듧힛 ᄉᆞᄉᆡ예 方等을 니르시니라.(석보 6: 45)

☞ 方은 ᄀᆞᄎᆞ 니르실씨오 等은 골오 니르실씨라. 方等 처ᅀᅥᆷ 니ᄅᆞ샤미 부텻 나히 마ᄉᆞᆫ 둘히러시니 穆王 열여슷 찻히 乙未라.(석보 6: 45)

◉ 世尊이 聖衆ᄃᆞᆯ ᄃᆞ리시고 欲界 色界 두 하ᄂᆞᆳ ᄉᆞᄉᆡ예 가샤 大集等經을 니르더시니(석보 6:

45-46)

☞ 衆은 한 사ᄅᆞ미니 다 聖人엣 사ᄅᆞᆯ씨 聖衆이라 ᄒᆞ니라.(석보 6: 45)

☞ 大集은 키 모ᄃᆞᆯ씨니 부톄 一切 大衆을 ᄀᆞ장 모도아 니ᄅᆞ샨 經이라.(석보 6: 46)

◉ 出令ᄒᆞ샤ᄃᆡ 人間이며 天上이며 一切 모딘 귓거시 다 모다 부텻 付囑을 드러 正法을 護持ᄒᆞ라.(석보 6: 46)

☞ 付囑은 말ᄊᆞᆷ 브텨 아ᄆᆞ례ᄒᆞ고라 請ᄒᆞᆯ씨라.(석보 6: 46)

◉ ᄒᆞ다가 아니오리 잇거든 四天王 이더ᄫᅳᆫ 鐵輪을 ᄂᆞᆯ여 보내야 다 조차 자바 오라 ᄒᆞ시니 그리 다 모다 부텻 敎授 듣ᄌᆞ바 各各 큰 盟誓ᄒᆞ야 正法을 護持호리이다 ᄒᆞ거늘 오직 魔王이 世尊ᄭᅴ ᄉᆞᆯ보ᄃᆡ 瞿曇아 나ᄂᆞᆫ 一切衆生이 다 부톄 ᄃᆞ외야 衆生이 업거ᅀᅡ 菩提心ᄋᆞᆯ 發호리라 ᄒᆞ더라.(석보 6: 46)

☞ 敎授는 ᄀᆞᄅᆞ쳐 심길씨라.(석보 6: 46)

☞ 大集經 니ᄅᆞ샤미 부텻 나히 마ᅀᆞᆫ 다ᅀᆞ시러니 穆王 열 아홉 찻히 戊戌이라.(석보 6: 46-47)

◉ 方等 여듧히 니르시고 버거 스믈 ᄒᆞᆫ 힛 ᅀᆞᅀᅵ예 般若ᄅᆞᆯ 니르시니라.(석보 6: 47)

☞ 般若 처ᅀᅥᆷ 니ᄅᆞ샤미 부텻 나히 쉬니러시니 穆王ㄱ 스믈 네찻 히 癸卯ㅣ라.(석보 6: 47)

<釋譜詳節 第六> 끝

<釋譜詳節 第九>

◉ 부톄도 녀 諸國ᄋᆞᆯ 敎化ᄒᆞ샤「諸國은 여러 나라히라」廣嚴城에 가샤 樂音樹 아래 겨샤 굴근 比丘 八千人과 ᄒᆞᆫᄃᆡ 잇더시니 菩薩 摩訶薩 三萬 六千과「摩訶薩은 굴근 菩薩이시다 ᄒᆞ논 마리라.」國王과 大臣과 婆羅門과 居士와「居는 살씨니 居士ᄂᆞᆫ 쳔량 만히 두고 가ᅀᆞ며 사ᄂᆞᆫ 사ᄅᆞ미라」天 龍夜叉人非人 等 無量大衆이 恭敬ᄒᆞ야 圍繞ᄒᆞᅀᆞ뱃거늘「人非人은 사ᄅᆞᆷ과 사ᄅᆞᆷ 아닌 것과 ᄒᆞ논 마리니 八部를 어울워 니르니라」위ᄒᆞ야 說法ᄒᆞ더시니 그 ᄢᅴ 文殊師利 世尊ᄭᅴ ᄉᆞᆯᄫᆞ샤ᄃᆡ 부텻 일훔과 本來ㅅ 큰 願과 ᄀᆞ장 됴ᄒᆞ신 功德을 불어 니ᄅᆞ샤 듣ᄌᆞᄫᆞᆱ 사ᄅᆞᄆᆡ 業障이 스러디여「障은 마ᄀᆞᆯ씨니 煩惱ㅣ ᄀᆞ리여 涅槃ᄋᆞᆯ 마ᄀᆞ며 無明이 ᄀᆞ리여 菩提ᄅᆞᆯ 마ᄀᆞᆯ씨라」像法이 轉ᄒᆞᆯ 時節에「法이 처ᅀᅥᆷ 盛히 行ᄒᆞ야 사ᄅᆞ미 번드기 수ᄇᆡ 앓 時節은 正法이라 ᄒᆞ고 부텨 나 겨시던 時節이 더 멀면 사ᄅᆞ미 수ᄇᆡ 몯 아라 가ᄌᆞᆯ벼 보아ᅀᅡ 앓 時節이 像法이라 ᄒᆞᄂᆞ니 像은 ᄀᆞᄐᆞᆯ씨니 道理 잇ᄂᆞᆫ 사ᄅᆞᆷ과 쌔즛ᄒᆞᆯ씨라. 이 後는 末法이니 末法 時節은 몰라 거즛말로 니르ᄂᆞ니 末은 그티라」믈읫 有情을 利樂긔코져 ᄒᆞ노이다.「利樂은 됴코 즐거ᄇᆞᆯ씨라」(석보 9: 1-2)

◉ 부톄 文殊 師利ᄭᅴ 니ᄅᆞ샤ᄃᆡ 東方ᄋᆞ로 이에셔 버으로미 十恒河沙等佛土 디나가 世界 이쇼ᄃᆡ 일후미 淨琉璃오「淨은 조ᄒᆞᆯ씨라」부텻 일후믄 藥師琉璃光如來 應供正遍知明行足 善逝世間解無上士 調御丈夫天人師佛 世尊이시니「如來로 셔르리 열가짓 號ㅣ시니 부텨옷 ᄃᆞ외시면 다 ᄒᆞᆫ 야ᄋᆞ로 이

열가짓 號를 숣ᄂᆞ니라. 應은 맛당ᄒᆞᆯ씨니 應供은 一切 天地 衆生ᄋᆡ 供養 바도미 맛당ᄒᆞ실씨라. 正遍知ᄂᆞᆫ 正히 ᄀᆞᄎᆞ 아ᄅᆞ실씨라. 明行足은 ᄇᆞᆯᄀᆞᆫ 힝뎌기 ᄀᆞᄌᆞ실씨라. 善은 됴ᄒᆞᆯ씨오 逝ᄂᆞᆫ 갈씨오 解ᄂᆞᆫ 알씨니 善逝 世間 解ᄂᆞᆫ 부텻 攻夫에 됴히 올아가샤 世間앳 이를 다 아ᄅᆞ실씨라. 士ᄂᆞᆫ 어딘 남지니니 無上士ᄂᆞᆫ 尊ᄒᆞ샤 더은 우히 업스신 士ㅣ라. 調御는 이대 다ᄉᆞ실씨오 丈夫는 게여ᄇᆞᆫ 남지니니 부톄 겨지블 調御ᄒᆞ시ᄂᆞ다 ᄒᆞ면 尊重티 아니ᄒᆞ시릴ᄊᆡ 丈夫를 調御ᄒᆞ시ᄂᆞ다 ᄒᆞ니라. 天人師ᄂᆞᆫ 하ᄂᆞᆯ히며 사ᄅᆞᄆᆡ 스스이시다 ᄒᆞ논 마리라.(석보 9: 2-3) *양(의존명사-야ᄋᆞ로)/ ᄒᆞ+시+리+ㄹᄊᆡ

◉ 뎌 藥師琉璃光 如來菩薩ㅅ 道理行ᄒᆞ실쩌긔 열 두 大願을 ᄒᆞ샤「大願은 큰 願이라」 믈읫 有情이 求ᄒᆞ논 이를 다 得긔호려 ᄒᆞ시니라.(석보 9: 3-4)

◉ 第一 大願은 내 來世예「來世ᄂᆞᆫ 오ᄂᆞᆫ 뉘라」 阿녹(褥)多羅三藐三菩提得ᄒᆞᆫ 時節에 내 모맷 光明이 無量數 無邊世界를 盛히 비취여 三十二相 八十種好로 모ᄆᆞᆯ 莊嚴ᄒᆞ야 一切 有情이 나와 다ᄅᆞ디 아니케 호리라.(석보 9:4)

◉ 第二 大願은 내 來世예 菩提得ᄒᆞᆫ 時節에 모미 琉璃ᄀᆞᆮᄒᆞ야 안팟기 ᄉᆞᄆᆞᆺ ᄆᆞᆯ가 허므리 업고 光明이 크며 功德이 노파 ᄇᆞᆰ비ᄎᆞ로 莊嚴호미 日月라와 느러「日月은 히ᄃᆞ리라」 어드ᄇᆞᆫ딧 衆生도 다 ᄇᆞᆯ고 ᄆᆞᆯ아 더 ᄆᆞᅀᆞᆷ조초 이를 ᄒᆞ긔호리라.(석보 9:4-5) -라와/ᄋᆞ로/ ᄃᆡ(어드ᄇᆞᆫ딧)

◉ 第三 大願은 來世예 菩提 得ᄒᆞᆫ 時節에 無量無邊智慧 方便으로 믈읫 有情의 ᄢᅳᆶ거시 다 낟ᄇᆞᆫ 줄 업긔호리라.(석보 9: 5) *줄

◉ 第四 大願은 내 來世예 菩提 得ᄒᆞᆫ 時節에 ᄒᆞ다가 有情이 邪曲ᄒᆞᆫ 道理 行ᄒᆞ리잇거든 다 菩提道中에 便安히 잇긔ᄒᆞ며 ᄒᆞ다가 聲聞辟 支佛乘ᄋᆞᆯ 行ᄒᆞᆷ 사ᄅᆞ미 잇거든「 聲聞辟支佛乘은 小乘 中乘이라」다 大乘ᄋᆞ로 便安킈 호리라.(석보 9:5) -긔(어찌법 씨끝)

◉ 第五 大願은 내 來世예 菩提 得ᄒᆞᆫ 時節에 ᄒᆞ다가 無量 無邊 有情이 내 法中에 修行ᄒᆞ리 잇거든 다 이저디디 아니ᄒᆞᆫ 警戒를 得ᄒᆞ며 三聚戒를 ᄀᆞᆺ게 호리라.「三聚戒ᄂᆞᆫ 세 가지 모든 警戒니 모딘 이를 그치틸씨오 둘흔 됴ᄒᆞᆫ 힝뎌글 가졧ᄂᆞᆫ 警戒니 됴ᄒᆞᆫ 이를 行ᄒᆞᆯ씨오 세흔 衆生ᄋᆞᆯ 가졧ᄂᆞᆫ 警戒니 慈悲 喜捨로 有情을 利樂긔 ᄒᆞᆯ씨니 이 戒ᄂᆞᆫ 諸佛 菩薩이 修行ᄒᆞ시논 즈ᄅᆞᆶ 길히라. 喜ᄂᆞᆫ 깃블씨니 衆生ᄋᆞᆯ 즐겁긔 ᄒᆞᆯ씨라. 捨ᄂᆞᆫ ᄇᆞ릴씨니 내 恩惠를 ᄇᆞ려 衆生ᄋᆞᆯ 줄씨라.」(석보 9:5-6)

◉ 비록 그르ᄒᆞ야 지슨 이리 이셔도 내 일후믈 드르면 도로 淸淨을 得ᄒᆞ야 모딘 길헤 아니 뻐러디게 호리라.(석보 9:6)

◉ 第六 大願은 내 來世예 菩提 得ᄒᆞᆫ 時節에 ᄒᆞ다가 믈읫 有情이 모미 사오나ᄇᆞ 諸根이 ᄀᆞᆺ디 몯ᄒᆞ야 미혹ᄒᆞ고 種種 受苦ᄅᆞᄫᆡᆫ 病 ᄒᆞ얫다가 내 일후믈 드르면 다 智慧 잇고 諸根이 ᄀᆞ자 病이 업게 호리라.(석보 9: 7)

◉ 第七 大願은 내 來世예 菩提 得ᄒᆞᆫ 時節에 ᄒᆞ다가 믈읫 有情이 病ᄒᆞ야 이셔 救ᄒᆞ리 업고 갌ᄃᆡ 업거든 내 일후믈 귀예 ᄒᆞᆫ 번 드러도 病이 업고 世間애 ᄢᅳᆶ 거시 ᄀᆞᄌᆞ며 無上 菩提를 證호매 니를 의 호리라.(석보 9: 7)

◉ 第八 大願은 내 來世예 菩提 得ᄒᆞᆫ 時節에 ᄒᆞ다가 겨지비 겨지븨 온가짓 어려ᄇᆞᆫ 이리 다 와다 ᄀᆞ장 싀틋ᄒᆞ야 겨지븨 모ᄆᆞᆯ ᄇᆞ리고져 ᄒᆞ거든 내 일후믈 드르면 다 남지니 ᄃᆞ외야 無上 菩提ᄅᆞᆯ 證호매 니를의 호리라.(석보 9: 7)

◉ 第九 大願은 내 來世예 菩提 得ᄒᆞᆫ 時節에 믈읫 有情을 魔 그므레 내야「魔ㅣ ᄀᆞ리ᄂᆞᆫ 거실씨 그므리라 ᄒᆞ니라」一切 外道ᄋᆡ 얽ᄆᆡ요ᄆᆞᆯ 버서나게 호리니 ᄒᆞ다가 種種 머즌 보매 ᄠᅥ디옛거든 다 引導ᄒᆞ야「引導ᄂᆞᆫ 혀아 길 알욀씨라.」正ᄒᆞᆫ 보매 두어 漸漸 菩薩ㅅ 힝뎌글 닷가 無上 菩提ᄅᆞᆯ 샐리 證케 호리라.(석보 9: 8)

◉ 第十 大願은 내 來世예 菩提 得ᄒᆞᆫ 時節에 ᄒᆞ다가 有情이 나랏 法에 자피여 ᄆᆡ여 매 마자 獄애 가도아「獄은 사ᄅᆞᆷ 가도ᄂᆞᆫ 짜히라」罪 니블 ᄆᆞᄃᆡ며 녀나ᄆᆞᆫ 그지 업슨 어려ᄇᆞᆫ 일와 辱 ᄃᆞᄫᆡᆫ 일와 슬픈 일와 시름다ᄫᆞᆫ 이리 다 와댓거든 내 일후믈 드르면 내 福德成神力으로 一切 受苦ᄅᆞᆯ 다 버서 나긔 호리라.(석보 9: 8-9) 와+댓거든(분석 다시)

◉ 第十一 大願은 내 來世예 菩提 得ᄒᆞᆫ 時節에 ᄒᆞ다가 有情이 주으려 밥 얻고져 ᄒᆞ야 모딘 罪ᄅᆞᆯ 지슬 ᄆᆞᄃᆡ예 내 일후믈 드러 닛디 아니ᄒᆞ야 디니면 내 몬져 됴ᄒᆞᆫ 차바ᄂᆞ로 ᄇᆡ브르긔 ᄒᆞ고ᅀᅡ 法味로 乃終에 便安코 즐겁긔 호리라.「法味ᄂᆞᆫ 法 마시라」(석보 9:9)

◉ 第十二 大願은 내 來世예 菩提 得ᄒᆞᆫ 時節에 ᄒᆞ다가 有情이 오시 업서 모기 벌에며 더뷔 치뷔로 셜버ᄒᆞ다가 내 일후믈 드러 닛디 아니ᄒᆞ야 디니면 제 맛 드논 야ᄋᆞ로 種種앳 됴ᄒᆞᆫ 오ᄉᆞᆯ 어드며 ᄯᅩ 보ᄇᆡ옛 莊嚴이며 花香伎樂ᄋᆞᆯ ᄆᆞᅀᆞᆷ조초 ᄀᆞ초 얻긔 호리라 ᄒᆞ더시니 文殊 師利여 뎌 藥師 琉璃 光 如來ㅅ 十二 微妙上願 이시니라.「上願은 위 두ᄒᆞᆫ 願이라」(석보 9:10)

◉ ᄯᅩ 文殊師利여 뎌 藥師 琉璃光如來菩薩ㅅ 道理 行ᄒᆞ싫 時節에 發ᄒᆞ샨 큰 願과 뎌 부텻 나라햇 功德 莊嚴을 내 ᄒᆞᆫ 劫이며 이 남ᄃᆞ록 닐오도 몯다 니르리어니와 그러나 뎌 부텻 짜히 雜말 업시 淸淨ᄒᆞ고 겨지비 업스며 惡趣ㅣ며 受苦ᄅᆞᄫᆡᆫ 소리 업고「惡趣는 머즌 길히니 地獄 餓鬼 畜生이라」琉璃 짜히 ᄃᆞ외오 金노ᄒᆞ로 길흘 느리고 城이며 지비며 羅網이 다 七寶로 이러 이쇼미 ᄯᅩ 西方 極樂 世界와 ᄀᆞᆮᄒᆞ야 ᄀᆞᆯ히요미 업고 그 나라해 두 菩薩 摩訶薩이 이쇼ᄃᆡ ᄒᆞᆫ 일후믄 日光遍照ㅣ오 ᄒᆞᆫ 일후믄 月光遍照ㅣ니 뎌 無量 無數 菩薩衆에 위ᄒᆞ야 잇ᄂᆞ니 이럴씨 信心 ᄃᆡᆺᄂᆞᆫ 善男子 善女人이「信心은 믿ᄂᆞᆫ ᄆᆞᅀᆞ미라」뎌 부텻 世界예 나고져 發願ᄒᆞ야ᅀᅡ ᄒᆞ리라.(석보 9: 10-11)

◉ 그 ᄢᅴ 世尊이 ᄯᅩ 文殊 師利ᄃᆞ려 니ᄅᆞ샤ᄃᆡ 文殊師利여 믈읫 衆生이 됴ᄒᆞ며 구즌 이ᄅᆞᆯ 모ᄅᆞ고 오직 貪ᄒᆞ며 앗가ᄫᆞᆫ ᄆᆞᅀᆞᄆᆞᆯ 머거 布施ᄒᆞ며 布施ᄒᆞᄂᆞᆫ 果報ᄅᆞᆯ 몰라 쳔랴ᄋᆞᆯ 만히 뫼호아 두고 受苦ᄅᆞᄫᆡ 딕희여 이셔 빌리 잇거든 츠기 너겨 모지 마라.(석보 9: 11-12)

◉ 줆디라도 제 모맷 고기ᄅᆞᆯ 바혀 내는 ᄃᆞ시 너겨 ᄒᆞ며 ᄯᅩ 貪ᄒᆞᆫ 無量 有情이 쳔랴ᄋᆞᆯ 모도아 두고 제 ᄇᆞᆷ도 오히려 아니ᄒᆞ거니 ᄒᆞᄆᆞᆯ며 어버싄ᄃᆞᆯ 내야 주며 가시며 子息이며 죠인ᄃᆞᆯ 주며 와 비ᄂᆞᆫ 사ᄅᆞᄆᆞᆯ 주리여.(석보 9:12) *-와('오다'에서 유래된 것은 아닌지)

◉ 이런 有情ᄃᆞᆯᄒᆞᆫ 이에셔 주그면 餓鬼어나 畜生이어나 ᄃᆞ외리니 人間애 이셔 藥師 琉璃光如來ㅅ 일후믈 잠ᄭᅡᆫ 듣ᄌᆞᄫᆞᆯ 젼ᄎᆞ로 惡趣예 이셔도 뎌 如來ㅅ 일후믈 잠ᄭᅡᆫ 싱각ᄒᆞ면 즉자히 뎌에셔 업서 도로 人間애 나아 惡趣의 受苦ᄅᆞᆯ 저허 貪欲을 즐기디 아니ᄒᆞ고 布施ᄅᆞᆯ 즐겨 뒷논 거슬 앗기디 아니ᄒᆞ야 머리며 누니며 손바리며 모맷 고기라도 비ᄂᆞᆫ 사ᄅᆞᄆᆞᆯ 주리어니 ᄒᆞᄆᆞᆯ며 녀나ᄆᆞᆫ 쳔랴이ᄊᆞ

녀.(석보 9:13)

◉ 또 文殊 師利여 믈읫 有情이 비록 如來ᄭᅴ 道理 ᄇᆡ호다가도 尸羅ᄅᆞᆯ 헐며「尸羅ᄂᆞᆫ 淸淨ᄒᆞᆫ 戒라 ᄒᆞ논 마리라」 尸羅ᄅᆞᆯ 아니허러도 軌則을 헐며「軌則은 法이니 擧動ᄋᆞᆯ 니르니라」 尸羅軌則을 아니허러도 正ᄒᆞᆫ 보ᄆᆞᆯ 헐며 正ᄒᆞᆫ 보ᄆᆞᆯ 아니허러도 해 드로ᄆᆞᆯ ᄇᆞ려 부텨 니ᄅᆞ샨 經엣 기픈 ᄠᅳ들 아디 몯ᄒᆞ며 비록 해 드러도 增上 慢ᄒᆞ며「增은 더을씨오 慢은 ᄂᆞᆷ 므더니 너길씨니 몯 得혼 法을 得호라ᄒᆞ며 몯 證혼 道理ᄅᆞᆯ 證호라 ᄒᆞ야 제 實엔 사오나ᄇᆞᆫ ᄃᆡ 웃 사ᄅᆞᆷ 두고 더은 양ᄒᆞ야 法 므더니 너기며 사ᄅᆞᆷ 므더니 너길씨 增上慢이라」 增上慢ᄒᆞ논 젼ᄎᆞ로 ᄆᆞᅀᆞ미 ᄀᆞ리ᄂᆞ니 그럴씨 제 올호라 ᄒᆞ고 ᄂᆞᄆᆞᆯ 외다 ᄒᆞ야 正法을 비우서 魔ᄋᆡ ᄒᆞᆫ 黨이 ᄃᆞ외리니 이런 어린 사ᄅᆞᄆᆞᆫ 제 邪曲ᄒᆞᆫ 보ᄆᆞᆯ ᄒᆞ고 또 無量 有情이 큰 어려ᄇᆞᆫ 구데 ᄠᅥ러디긔 ᄒᆞᄂᆞ니 이런 有情ᄃᆞᆯ히 地獄 餓鬼 畜生애 그지 업시 두루 ᄃᆞᆫ니다가 이 藥師 琉璃光如來ㅅ 일후믈 듣ᄌᆞᄫᆞ면 모딘 ᄒᆡᆼ뎌글 ᄇᆞ리고 됴ᄒᆞᆫ 法을 닷가 惡趣예 아니 딜리니 비록 모딘 ᄒᆡᆼ뎍 ᄇᆞ리고 됴ᄒᆞᆫ 法 닷고ᄆᆞᆯ 몯ᄒᆞ야 惡趣예 ᄠᅥ러디고도 더 如來ㅅ 本願 威力으로 알ᄑᆡ 뵈샤 일후믈 잠ᄭᅡᆫ 들이시면 더에셔 주거 도로 人間애 나아 出家ᄒᆞ야 正ᄒᆞᆫ 보ᄆᆞᆯ 허디 아니ᄒᆞ며 해 드러 기픈 ᄠᅳ들 알며 增上慢ᄋᆞᆯ 여희여 正法을 비웃디 아니ᄒᆞ야 魔ᄋᆡ 버디 아니ᄃᆞ외야 漸漸 修行ᄒᆞ야 圓滿ᄋᆞᆯ ᄉᆞᆯ리 得ᄒᆞ리라.(석보 9: 13-14-15)

◉ 또 文殊師利여 믈읫 有情이 貪ᄒᆞ고 새옴 ᄇᆞᆯ라 제 모ᄆᆞᆯ 기리고 ᄂᆞᄆᆞᆯ 허러 三惡趣예 ᄠᅥ러디여 無量 千歲ᄅᆞᆯ 受苦ᄒᆞ다가 더에셔 주거 人間애 나고도 쇠어 나ᄆᆞ리어나 약대어나 라귀어나 ᄃᆞ외야 長常 채 맛고 주으륨과 목ᄆᆞᆯ로ᄆᆞ로 受苦ᄒᆞ며 또 長常 므거ᄇᆞᆫ 거슬 지여 길흘 조차 ᄃᆞᆫ니다가 시혹 사ᄅᆞ미 ᄃᆞ외오도 ᄂᆞᆺ가ᄇᆞᆫ ᄂᆞᄆᆡ 죠이 ᄃᆞ외야 ᄂᆞᄆᆡ ᄇᆞ룐 일 ᄃᆞᆫ녀 샹녜 自得디 몯ᄒᆞ리니 ᄒᆞ다가 아래 人間애 이싫저긔 藥師 琉璃光如來ㅅ 일후믈 듣ᄌᆞ뱃단디면 이 다ᄉᆞ로 이제와 또 싱각ᄒᆞ야 고ᄌᆞᆨ혼 ᄆᆞᅀᆞᄆᆞ로 歸依ᄒᆞ면 부텻 神力으로 한 受苦ㅣ 다 업고 諸根이 聰明코 날카바 智慧ᄅᆞ빙며 해드러 長常 됴ᄒᆞᆫ 法을 求ᄒᆞ야 어딘 버들 맛나아 魔 그므를 그츠며 無明을 헐며 煩惱ㅣ 다아 一切 生老病死憂悲苦惱ᄅᆞᆯ 버서 나리라.(석보 9: 16)

◉ 또 文殊師利여 믈읫 有情이 ᄂᆞᆷ과 닫나ᄆᆞᆯ 즐겨 서르 싸화 저와 ᄂᆞᆷ과ᄅᆞᆯ 어즈려 種種앳 모딘 罪業을 길워 샹녜 有益디 아니ᄒᆞᆫ 이ᄅᆞᆯ ᄒᆞ고 서르 害홇 쇠ᄅᆞᆯ ᄒᆞ야 뫼히며 수프리며 즘게며 무더멧 神靈을 請ᄒᆞ고 즁ᄉᆡᆼ 주겨 夜叉羅刹等을 이바ᄃᆞ며 믜ᄇᆞᆫ 사ᄅᆞᄆᆡ 일훔 쓰며 얼구를 ᄆᆡᇰᄀᆞ라 모딘 呪術로 빌며 귓것 브려 더의 목수믈 긋긔ᄒᆞ거든 아뫼나 이 藥師琉璃光如來ㅅ 일후믈 듣ᄌᆞᄫᆞ면 더런 모딘 이리 害티 몯ᄒᆞ며 서르 慈悲心ᄋᆞᆯ 내야 믜ᄇᆞᆫ ᄆᆞᅀᆞ미 업고 各各 깃거 서르 有益긔ᄒᆞ리라.(석보 9: 17) 닫ᄂᆞᄆᆞᆯ(닫+ᄂᆞ+ㅁ+ᄋᆞᆯ--달리믈?)

◉ 또 文殊師利여 ᄒᆞ다가 比丘 比丘尼 優婆塞 優婆夷며 녀나믄 淨信ᄒᆞᆫ 善男子善女人이「淨은 조ᄒᆞᆯ씨라 信은 미들씨니 法을 믿ᄂᆞᆫ 사ᄅᆞ미라」 八分齋戒ᄅᆞᆯ 디녀「 八分은 여듧 가지니 齋옛 이리 여듧 가질씨 八分齋라 ᄒᆞ니 우흿 八戒齋라도 ᄒᆞᄂᆞ니 支ᄂᆞᆫ 서르 잡드러 괴올씨니 모ᄃᆡ 서르 업디 몯ᄒᆞ야 힘 저ᅀᅳᆫ ᄠᅳ디라. 齋라 혼거시 낫계어든 밥 아니 머구미 읏드미오 여듧 가짓 일로 도바 일울씨 八支齋라 ᄒᆞᄂᆞ니라.」 ᄒᆞᆫ히 디나거나 석ᄃᆞᆯ만 ᄒᆞ거나 ᄒᆞ야 이 됴ᄒᆞᆫ 根源으로 西方 極樂 世界예 나고져 發願호ᄃᆡ 一定 몯ᄒᆞ야 이셔 이 藥師琉璃光如來ㅅ 일후믈 듣ᄌᆞᄫᆞ면 命終ᄒᆞᆯ ᄯᅢ긔 여듧 菩薩이 와「여듧 菩薩ᄋᆞᆫ 文殊師利 菩薩와 觀世音 菩薩와 得大勢 菩薩와 無盡意 菩薩와 寶檀華 菩薩와 藥王 菩薩와 藥上 菩薩와 彌勒 菩薩왜시니라」 길흘 ᄀᆞᄅᆞ쳐 즉자히 뎌 나랏 種種 雜色衆 寶花中에 自然히 化ᄒᆞ야 나며 일로브터 天上애 나리도 이시리니 비록 하ᄂᆞᆯ해 나고도 本來 됴ᄒᆞᆫ 根源이 다ᄋᆞ디 아니ᄒᆞᆯ씨 녀나믄 惡趣예 다시 나디 아니ᄒᆞ야 하ᄂᆞᆳ 목수미 다ᄋᆞ면 도로 人間애 나아 輪王이 ᄃᆞ외야 四天下ᄅᆞᆯ 거느려 威嚴과 德괘 自在ᄒᆞ야 無量 百千 有情을 十善으로 便安킈 ᄒᆞ리도

이시며「十善은 十惡을 아니홀씨라」 刹帝利婆羅門 居士ᄋᆡ 큰 지븨 나아「刹帝利ᄂᆞᆫ 田地 님자히라 ᄒᆞ논 마리니 王ㄱ 姓이라. 劫 처ᅀᅥ믜 사ᄅᆞ미 ᄲᅡᆺ 마ᄉᆞᆯ 먹다가 漸漸 粳米 머근 後에 사ᄅᆞᄆᆡ 쁘디 漸漸 거츠러 제여곰 바ᄐᆞᆯ ᄂᆞᆫ홀씨 有德ᄒᆞᆫ 사ᄅᆞᄆᆞᆯ 셰여 받ᄂᆞᆫ 호기ᄅᆞᆯ 決게ᄒᆞ니 이 王 始作이라. 그럴씨 서르 니ᅀᅥ 姓이 ᄃᆞ외니라.」 쳔랴이 有餘ᄒᆞ고 倉庫ㅣ ᄀᆞᄃᆞ기 넘씨고「倉은 갈ᄆᆞᆯ씨니 나ᄃᆞᆯ 갈ᄆᆞᆯ씨라. 庫ᄂᆞᆫ 쳔량 ᄀᆞ초아 뒷ᄂᆞᆫ 지비라」 양ᄌᆡ 端正ᄒᆞ고 眷屬이 ᄀᆞᄌᆞ며 聰明ᄒᆞ며 智慧ᄅᆞᄫᅵ며 勇猛코 게여ᄇᆞ미 큰 力士 ᄀᆞᄐᆞ니도 이시며 겨지비라도 이 藥師如來ㅅ 일후믈 듣ᄌᆞ바 고ᄌᆞᆨᄒᆞᆫ ᄆᆞᅀᆞ미로 디( ) 모미 아니ᄃᆞ외리라.(석보 9: 19-20)

◉ 그 ᄢᅴ 文殊師利 부텻긔 ᄉᆞᆯᄫᆞ샤ᄃᆡ 내 盟誓ᄅᆞᆯ ᄒᆞ노니 像法 轉ᄒᆞᆶ 時節에 種種 方便으로 淨信ᄒᆞᆫ 善男子 善女人ᄃᆞᆯ히 이 藥師琉璃光如來ㅅ 일후믈 듣ᄌᆞᆸ긔 ᄒᆞ며 ᄌᆞ옳저기라도 이 부텻 일후므로 들여 ᄯᅳ듣긔호리이다.(석보 9: 20-21)

◉ 世尊하 아뫼나 이 經을 디녀 닐거 외오며 ᄂᆞᆷᄃᆞ려 블어 닐어 여러 뵈어나 제 쓰거나 ᄂᆞᆷ 히여 쓰거나 ᄒᆞ고 恭敬ᄒᆞ며 尊重히 너겨 種種 花香과 瓔珞과 幡과 蓋와 풍류로 供養ᄒᆞ고 五色 ᄂᆞᄆᆞ채 녀허 조ᄒᆞᆫ 짜ᄒᆞᆯ ᄡᅳ설오 노ᄑᆞᆫ 座 밍ᄀᆞᆯ오 便安히 연ᄌᆞ면 그 ᄢᅴ 四天王이 眷屬과 無量百千天衆 ᄃᆞ리고 다 그 고대 가 供養ᄒᆞ며 디킈리이다.(석보 9: 21)

◉ 世尊하 이 經 流行ᄒᆞᆶ 짜해「流는 믈흐를씨오 行은 녈씨니 法이 펴디여 가미 믈 흘러 녀미 ᄀᆞ틀씨 流行이라 ᄒᆞ니라」뎌 藥師琉璃光如來ㅅ 本願功德을 디니며 일후믈 듣ᄌᆞᄫᆞ면 당다이 이 짜해 橫死ᄒᆞᆶ 주리 업스며「橫은 빗글씨니 橫死ᄂᆞᆫ 제 命 아닌 일로 주글씨라」 ᄯᅩ 모딘 귓것ᄃᆞᆯ히 精氣ᄅᆞᆯ 몯 아ᅀᆞ리니「精氣ᄂᆞᆫ 넉시라 ᄒᆞ듯ᄒᆞᆫ ᄠᅳ디라」 비록 아사 도로 녜 ᄀᆞᆮᄒᆞ야 ᄆᆞᅀᆞ미 便安ᄒᆞ리이다.(석보 9: 21-22) *줄(주리)

◉ 부톄 니ᄅᆞ샤ᄃᆡ 올타 올타 네 말ᄀᆞᄐᆞ니라. 文殊師利여 ᄒᆞ다가 淨信ᄒᆞᆫ 善男子善女人이 뎌 藥師琉璃光如來ᄅᆞᆯ 供養코져 ᄒᆞ거든 몬져 뎌 부텻 像을 밍ᄀᆞ라 조ᄒᆞᆫ 座애 便安히 노ᄉᆞᆸ고 種種ㄱ 곳비 코 種種ㄱ 香 퓌우고 種種ㄱ 幢幡으로 그 짜ᄒᆞᆯ 莊嚴ᄒᆞ고 밤낫 닐웨ᄅᆞᆯ 八分齋戒ᄅᆞᆯ 디녀 조ᄒᆞᆫ 밥 먹고 沐浴 ᄀᆞ마 香 ᄇᆞ라고 조ᄒᆞᆫ 옷 닙고 ᄠᅵ 업슨 ᄆᆞᅀᆞᆷ과 嗔心 업슨 ᄆᆞᅀᆞᆯ 내야 一切 有情에 利益ᄒᆞ며 安樂ᄒᆞ며「安樂은 便安코 즐거ᄫᆞᆯ씨라」 慈悲 喜捨ᄒᆞ며 平等ᄒᆞᆫ ᄆᆞᅀᆞᆯ 니르와다 풍류와 놀애로 讚嘆ᄒᆞᅀᆞ바 佛像 올ᄒᆞᆫ녀그로 갌도ᄉᆞᆸ고 뎌 如來ㅅ 本願功德을 ᄯᅩ 念ᄒᆞ야 이 經을 닐거 외오며 그 ᄠᅳ들 ᄉᆞ랑ᄒᆞ야 불어 닐어 여러 뵈면 一切願이 다 이러 長壽를 求ᄒᆞ면「長壽ᄂᆞᆫ 목수미 길씨라」長壽를 得ᄒᆞ고 가ᅀᆞ며로ᄆᆞᆯ 求ᄒᆞ면 가ᅀᆞ며로ᄆᆞᆯ 得ᄒᆞ고 벼스를 求ᄒᆞ면 벼스를 得ᄒᆞ고 아ᄃᆞᆯᄯᆞᄅᆞᆯ 求ᄒᆞ면 아ᄃᆞᆯᄯᆞᄅᆞᆯ 得ᄒᆞ리라.(석보 9: 22-23)

◉ 아뫼나 ᄯᅩ 사ᄅᆞ미 모딘 ᄭᅮ믈 어더 구즌 相ᄋᆞᆯ 보거나 妖怪ᄅᆞᄫᆡᆫ 새 오거나「妖怪ᄂᆞᆫ 常例ᄅᆞᆸ디 아니ᄒᆞᆫ 荒唐ᄒᆞᆫ 이리라」잇논 짜해 온가짓 妖怪 뵈어나 ᄒᆞ거든 이 사ᄅᆞ미 種種 貴ᄒᆞᆫ 거스로 뎌 藥師琉璃光如來ᄅᆞᆯ 恭敬ᄒᆞ야 供養ᄒᆞᅀᆞᄫᆞ면 머즌 ᄭᅮ미며 믈읫 됴티 몯ᄒᆞᆫ 이리 다 업서 분벼리 아니ᄃᆞ외며 믈블갈 모딘 것과 어려ᄇᆞᆫ 石壁과「石은 돌히오 壁은 ᄇᆞᄅᆞ미니 ᄇᆞᄅᆞᆷᄀᆞ티 션 바회ᄅᆞᆯ 石壁이라 ᄒᆞᄂᆞ니라」모딘 象과 獅子와 범과 일히와 곰과 모딘 ᄇᆞ얌과 믆벌에 트렛 므싀여ᄇᆞᆫ 이리 이셔도 고ᄌᆞᆨᄒᆞᆫ ᄆᆞᅀᆞᄆᆞ로 뎌 부텨를 念ᄒᆞ야 恭敬ᄒᆞᅀᆞᄫᆞ면 다 버서나리어며 다ᄅᆞᆫ 나라히 와 보차거나 도ᄌᆞ기 ᄀᆞᆯ외어나 ᄒᆞ야도 뎌 如來ᄅᆞᆯ 念ᄒᆞ야 恭敬ᄒᆞᅀᆞᄫᆞ면 다 버서나리라.(석보 9:24-25) *ᄇᆞᄅᆞᆷ(바람벽)

◉ 또 文殊師利여 아뫼나 淨信ᄒᆞᆫ 善男子善女人ᄃᆞᆯ히 죽ᄃᆞ록 녀나ᄆᆞᆫ 하ᄂᆞᆯ 셤기디 아니코 ᄒᆞᆫ ᄆᆞᅀᆞ ᄆᆞ로 佛法僧에 歸依ᄒᆞ야 警戒ᄅᆞᆯ 다 디니다가 그르ᄒᆞ야 지슌 이리 이셔 惡趣예 ᄠᅥ러듀믈 두리여 뎌 부텻 일후믈 고ᄌᆞ기 念ᄒᆞ야 恭敬ᄒᆞ야 供養ᄒᆞᅀᆞᄫᆞ면 당다이 三惡趣예 나디 아니ᄒᆞ리어며 아뫼나 겨지비 아기나홇 時節을 當ᄒᆞ야 至極ᄒᆞᆫ 受苦ᄒᆞᆯ 쩌긔 고ᄌᆞᆨᄒᆞᆫ ᄆᆞᅀᆞᄆᆞ로 뎌 如來ㅅ 일후믈 일ᄏᆞᆫ ᄌᆞ바 讚嘆ᄒᆞ야 恭敬 供養 ᄒᆞᅀᆞᄫᆞ면 ᄒᆞᆫ 受苦ㅣ 다 업고 나ᄒᆞᆫ 子息이 양ᄌᆡ 端正ᄒᆞ야 본 사ᄅᆞ미 깃거ᄒᆞ며 根源이 ᄂᆞᆯ카바 聰明ᄒᆞ며 便安ᄒᆞ야 病이 젹고 귓것시 精氣 앗디 아니ᄒᆞ리라.(석보 9: 25-26) *귓것(귀신부치?)

◉ 그 ᄢᅴ 世尊이 阿難이 ᄃᆞ려 니ᄅᆞ샤ᄃᆡ 뎌 藥師琉璃光如來ㅅ 功德을 내 일ᄏᆞᆯ즙ᄃᆞᆺᄒᆞ야 이 諸佛ㅅ 甚히 기픈 힝뎌기라. 아로미 어려보니 네 信ᄒᆞᄂᆞᆫ다 아니 信ᄒᆞᄂᆞᆫ다.(석보 9:26)

◉ 阿難이 ᄉᆞᆯ보ᄃᆡ 大德 世尊하 내 如來 니ᄅᆞ샨 經에 疑心ᄋᆞᆯ 아니ᄒᆞᅀᆞᆸ노니 엇뎨어뇨 ᄒᆞ란ᄃᆡ 一切 如來ㅅ 몸과 말ᄊᆞᆷ과 ᄠᅳ뎃 業이 다 淸淨ᄒᆞ시니 世尊하 이 日月도 어루 ᄠᅥ러디긔 ᄒᆞ며 須彌山도 어루 기울의려ᄒᆞ려니와 諸佛 니르시논 마ᄅᆞᆫ 乃終내 달옳 주리 업스니이다.(석보 9: 26-27) *줄

◉ 世尊하 믈읫 衆生이 信根이 ᄀᆞᆺ디 몯ᄒᆞ야「信根은 信ᄒᆞᄂᆞᆫ 根이라」諸佛ㅅ 甚히 기픈 힝뎍 니르거시든 ᄃᆞᆯᄌᆞᆸ고 너교ᄃᆡ 어듸쎤 藥師琉璃光如來 ᄒᆞᆫ 부텻 일훔 念ᄒᆞᆯ ᄲᅮ네 이런 功德 됴ᄒᆞᆫ 利ᄅᆞᆯ 어드리오 ᄒᆞ야 도ᄅᆞ혀 비웃논 ᄆᆞᅀᆞᄆᆞᆯ 내야 긴 바ᄆᆡ 큰 利樂알 일허 모딘 길헤 ᄠᅥ러디여 그지 업시 그우니ᄂᆞ니이다.(석보 9: 27) ᄲᅮᆫ+에/ -쎤(어듸+잇+더+ㄴ? 이 시기는 '이시-'가 '잇-'으로 바뀌지 않은듯)

◉ 부톄 阿難이ᄃᆞ려 니ᄅᆞ샤ᄃᆡ 믈읫 有情이 藥師琉璃光如來ㅅ 일후믈 ᄃᆞᆯᄌᆞᆸ고 고ᄌᆞᆨᄒᆞᆫ ᄆᆞᅀᆞᄆᆞ로 바다디녀 疑心 아니ᄒᆞ면 惡趣예 ᄠᅥ러ᄃᆞᆶ 주리 업스니라.(석보 9: 27-28) *줄

◉ 阿難아 이 諸佛ㅅ 甚히 기픈 힝뎌기라. 信ᄒᆞ야 아로미 어렵거늘 네 이제 能히 受ᄒᆞᄂᆞ니 다 如來ㅅ 威力 이론 고ᄃᆞᆯ 아라라.(석보 9: 28)

◉ 阿難아 오ᄌᆡᆨ 一生補處外예ᄂᆞᆫ 一切 聲聞이며 辟支佛이며 地예 묻ᄋᆞᆯ앳ᄂᆞᆫ 菩薩ᄃᆞᆯ히「地ᄂᆞᆫ 十地라」眞實로 信ᄒᆞ야 아로ᄆᆞᆯ 몯ᄒᆞᄂᆞ니 阿難아 사ᄅᆞᄆᆡ 몸 ᄃᆞ외요미 어렵고 三寶ᄅᆞᆯ 信ᄒᆞ야 恭敬호미 또 어렵고 藥師琉璃光如來ㅅ 일훔 시러 ᄃᆞᆫᄌᆞ보미 또 더 여러브니 阿難아 뎌 藥師琉璃光如來ㅅ 그지 업슨 菩薩行과 그지 업슨 工巧ᄒᆞ신 方便과 그지업슨 큰 願을 내 ᄒᆞᆫ 怯이어나 ᄒᆞᆫ 怯이 남거나 너펴 닐올띤댄 劫은 ᄉᆞᆯ리 다ᄋᆞ려니와 뎌 부텻 行과 願과 工巧ᄒᆞ신 方便은 다오미 업스리라.(석보 9: 28-29)

◉ 그 ᄢᅴ 모ᄃᆞᆫ 中에 ᄒᆞᆫ 菩薩摩訶薩 일후미 救脫이라 ᄒᆞ샤리 座애셔 니르샤 올ᄒᆞᆫ 엇게 메밧고 올ᄒᆞᆫ 무ᄅᆞᆸ ᄭᅮ러 몸 구펴 合掌ᄒᆞ야 부텨ᄭᅴ ᄉᆞᆯᄫᆞ샤ᄃᆡ 大德 世尊하 像法 轉홇 時節에 믈읫 衆生이 種種 분벼릐 보채요미 ᄃᆞ외야 長常 病ᄒᆞ야 시드러 음담 몯ᄒᆞ고 모기며 입시우리 내 ᄆᆞᆯ라 주ᄀᆞᆷ 相이 一定ᄒᆞ야 어버ᅀᅵ며 아ᅀᆞ미며 버디며 아로리며 두루에ᄒᆞ야셔 울어든 제 모미 누ᄇᆞᆫ 자히셔 보ᄃᆡ 琰魔王ㄱ 使者ㅣ 넉슬 ᄃᆞ려 琰魔法王「琰魔난 閻羅ㅣ라」알ᄑᆡ 니거든「琰魔王이 사ᄅᆞᆷ 罪 주는 法 ᄀᆞᄉᆞᆷ 아ᄂᆞᆫ 王일ᄊᆡ 法王이라 ᄒᆞᄂᆞ니라.」有情의 ᄒᆞᆫ ᄢᅴ 나온 神靈이「처섬 낧저긔 各各 ᄒᆞᆫᄢᅴ나 딕흰 神靈이+ᄂᆞ니라」제 지슌 罪며 福ᄋᆞᆯ 다 써 琰魔王ᄋᆞᆯ 맛뎌든 뎌 王이 그 사ᄅᆞᆷᄃᆞ려 무러 지슌 罪며 福이며 혜여 공ᄉᆞᄒᆞ리니 그 ᄢᅴ 病ᄒᆞᆫ 사ᄅᆞᄆᆡ 아ᅀᆞ미어나 아로리어나 病ᄒᆞ니 위ᄒᆞ야 藥師琉璃光如來ᄭᅴ 歸依ᄒᆞ야 ᄒᆞᆫ 즁 請ᄒᆞ야 이 經을 닑고 七層燈의 블 혀고 五色 續命神幡 ᄃᆞᆯ면「續命神幡은 목

숨 나ᅀᆞᆫ 神奇ᄒᆞᆫ 幡이라」 시혹 病ᄒᆞ닉 넉시 이고대 도라와 ᄉᆞᆷᄀᆞ티 子細히 보리니 닐웨어나 스믈흘리어나 셜흔 다쐐어나 마ᄉᆞᆫ 아ᄒᆞ래어나 디내오 病ᄒᆞ닉 넉시 도로 ᄭᆞᆰ 저긔 ᄭᅮ므로셔 ᄭᅵ듯ᄒᆞ야 됴ᄒᆞᆫ 業이며 구즌 業엣 果報ᄅᆞᆯ 다 ᄉᆡᆼ각ᄒᆞ야 알리니 제 보아 아론 젼ᄎᆞ로 ᄂᆞ외야 현마 모딘 罪業을 짓디 아니ᄒᆞ리니 이럴ᄊᆡ 淨信ᄒᆞᆫ 善男子善女人ᄃᆞᆯ히 다녀 藥師琉璃光如來ㅅ 일후믈 디녀 제 히메 홀 야ᄋᆞ로 恭敬ᄒᆞ야 供養ᄒᆞᄉᆞ바ᅀᅡ ᄒᆞ리로소이다. (석보 9: 29-30-31)

◉ 그 ᄢᅴ 阿難이 救脫菩薩ᄭᅴ 묻ᄌᆞ보ᄃᆡ 뎌 藥師琉璃光如來 恭敬 供養ᄒᆞᄉᆞ보ᄆᆞᆯ 엇뎨ᄒᆞ며 續命幡과 燈과ᄅᆞᆯ 엇뎨 ᄆᆡᆼᄀᆞᆯ리잇고.(석보 9: 31-32)

◉ 救脫菩薩이 니ᄅᆞ샤ᄃᆡ 大德아 아뫼나 病ᄒᆞᆫ 사ᄅᆞ미 病을 여희오져 ᄒᆞ거든 그 사ᄅᆞᆷ 위ᄒᆞ야 닐웨 밤나ᄌᆞᆯ 八分齋戒 디녀 제 쟝망혼 야ᄋᆞ로 쥬을 供養ᄒᆞ고 밤낫 여슷 ᄲᅩ로 뎌 藥師琉璃光如來ᄅᆞᆯ 저ᄉᆞ바 供養ᄒᆞᄉᆞᆸ고 이 經을 마ᄉᆞᆫ 아홉 디위 닑고 마ᄉᆞᆫ 아홉 燈의 블 혀고 뎌 如來ㅅ 像 닐구블 ᄆᆡᆼᄀᆞᄉᆞᆸ고 像마다 술위 ᄠᅵ만 크긔ᄒᆞ야 마ᄉᆞᆫ 아ᄒᆞ래ᄅᆞᆯ 光明이 긋디 아니킈 ᄒᆞ고 五色幡을 ᄆᆡᆼᄀᆞ로ᄃᆡ 마ᄉᆞᆫ 아홉 자ᄒᆞᆯ ᄒᆞ고 雜숨ᄐᆞᆫ ᄌᆞᆼᄉᆡᆼ 마ᄉᆞᆫ 아호ᄇᆞᆯ 노ᄒᆞ면 어려ᄇᆞᆫ 尼ᄋᆞᆯ 버서나며 모딘 귓거슬 아니 자피리라.(석보 9: 32-33)

◉ ᄯᅩ 阿難아 ᄒᆞ다가 刹帝利灌頂王ᄃᆞᆯ히 어려ᄇᆞᆫ 이리 닚 時節에 한 사ᄅᆞ미 쟝셕ᄒᆞᄂᆞᆫ 難이어나 「難ᄋᆞᆫ 어려ᄇᆞᆫ 이리라」 다ᄅᆞᆫ 나라히 보차ᄂᆞᆫ 難이어나 ᄌᆞ걋 나라해셔 거슬ᄲᅳᆫ 양ᄒᆞᄂᆞᆫ 難이어나 星宿ㅅ 變怪難이어나 「星宿」는 벼리라. 變怪ᄂᆞᆫ 常例ᄅᆞᆸ디 아니ᄒᆞᆫ 妖怪니라」 日食 月食 難이어나 ᄀᆞᄆᆞᆱ 難이어나 ᄒᆞ거든 뎌 王ᄃᆞᆯ히 一切 有情의 그에 慈悲心ᄋᆞᆯ 내야 가도앳던 사ᄅᆞᆷ노코 알ᄑᆡ 니르던 양 다히 뎌 藥師琉璃光如來ᄅᆞᆯ 供養ᄒᆞᄉᆞᄇᆞ면 이 됴ᄒᆞᆫ 根源과 뎌 如來ㅅ 本願力 젼ᄎᆞ로 그 나라히 즉자히 便安ᄒᆞ야 ᄇᆞᄅᆞᆷ 비 時節에 마초ᄒᆞ야 ᄂᆞᆞ르미 ᄃᆞ외야 一切 有情이 無病 歡樂ᄒᆞ며 「歡樂은 깃버 즐거ᄇᆞᆯ씨라」 그 나라해 모딘 夜叉等神靈이 有情 보차리 업스며 一切 머즌 이리 다 업고 刹帝 利灌頂王ᄃᆞᆯ토 長壽ᄒᆞ고 病 업서 다 自在ᄒᆞ리라.(석보 9: 33-34)

◉ 阿難아 ᄒᆞ다가 皇帝며 皇后ㅣ며 妃子ㅣ며 大臣이며 宰相이며 「宰ᄂᆞᆫ 다ᄉᆞ릴씨오 相은 도ᄫᅳᆯ씨니 벼슬 노ᄑᆞᆫ 臣下ㅣ 님그믈 돕ᄉᆞ바 百官ᄋᆞᆯ 다ᄉᆞ릴ᄊᆡ 宰相이라 ᄒᆞᄂᆞ니라」이며 百姓이 病을 ᄒᆞ거나 어려ᄇᆞᆫ 厄이어든 ᄯᅩ 五色幡 ᄆᆡᆼᄀᆞᆯ며 燈 혀아 닛위여 ᄇᆞᆰ게 ᄒᆞ며 숨ᄐᆞᆫ ᄌᆞᆼᄉᆡᆼ 노코 雜色 고ᄌᆞᆯ 비ᄒᆞ며 일훔난 香ᄋᆞᆯ 퓌우면 病도 덜며 厄도 버스리라.(석보 9: 34-35)

◉ 그 ᄢᅴ 阿難이 救脫菩薩ᄭᅴ 묻ᄌᆞ보ᄃᆡ 엇뎨 ᄒᆞ마 ᄋᆞᆫ 목수미 어누 더으리잇고.(석보 9:35)

◉ 救脫菩薩이 니ᄅᆞ샤ᄃᆡ 大德아 如來 니르시논 아홉 橫死ᄅᆞᆯ 몯 듣ᄌᆞᄫᆡᆺᄂᆞᆫ다. 이럴ᄊᆡ 續命幡燈 ᄆᆡᆼᄀᆞ라 福德 닷고ᄆᆞᆯ 勸ᄒᆞ노니 福ᄋᆞᆯ 닷ᄀᆞ면 제 목숨ᄭᅴ장 사라 受苦ᄅᆞᆯ 아니디내리라.(석보 9: 35)

◉ 阿難이 묻ᄌᆞ보샤ᄃᆡ 아홉 橫死ᄂᆞᆫ 므스기잇고.(석보 9: 35)

◉ 救脫菩薩이 니ᄅᆞ샤ᄃᆡ 有情ᄃᆞᆯ히 病을 어더 비록 그 病이 가ᄇᆡ얍고도 醫와 「醫ᄂᆞᆫ 病 고티ᄂᆞᆫ 사ᄅᆞ미라」 藥과 病 간슈ᄒᆞ리 업거나 醫ᄅᆞᆯ 맛나고도 왼 藥ᄋᆞᆯ 머겨 아니 주긇 저긔 곧 橫死ᄒᆞ며 ᄯᅩ 世間앳 邪魔外道앳 妖怪ᄅᆞᄫᆡᆫ 스스을 信ᄒᆞ야 「邪魔ᄂᆞᆫ 正티 몯ᄒᆞᆫ 魔ㅣ니 魔ᄂᆞᆫ 귓거시라」 간대옛 禍福ᄋᆞᆯ 닐어든 곧 두리ᄇᆞᆫ ᄠᅳ들 내야 ᄆᆞᄉᆞ미 正티 몯ᄒᆞ야 됴쿠주믈 묻그리ᄒᆞ야 種種 ᄌᆞᆼᄉᆡᆼ 주겨 神靈ᄭᅴ 플며 돗가비 請ᄒᆞ야 福ᄋᆞᆯ 비러 목숨 길오져 ᄒᆞ다가 乃終내 得디 몯ᄒᆞᄂᆞ니 어리여 미혹ᄒᆞ야 邪曲ᄒᆞᆫ 보ᄆᆞᆯ 信ᄒᆞᆯᄊᆡ 곧 橫死ᄒᆞ야 地獄애 드러 낧 그지 업스니 이ᄅᆞᆯ 첫 橫死ㅣ라 ᄒᆞᄂᆞ니라.(석보 9:

36)

◉ 둘차힌 王法을 니버 橫死홀씨오 세차힌 山行올 ᄒᆞ거나 노ᄅᆞ술 ᄒᆞ거나 婬亂을 맛들어나 수으를 즐기거나 듧써버 조심 아니ᄒᆞ다가 귓거시 精氣를 아ᅀᅡ 橫死홀씨오 네차힌 브레 술여 橫死홀씨오 다ᄉᆞᆺ차힌 므레 빠디여 橫死홀씨오 여슷차힌 모딘 즁ᄉᆡᆼ 믈여 橫死홀씨오 닐굽차힌 묏언헤 ᄠᅥ디여 橫死홀씨오 여듧차힌 모딘 藥을 먹거나 ᄂᆞ오ᄅᆞᆯ 굴이거나 邪曲ᄒᆞᆫ 귓거시 들어나 ᄒᆞ야 橫死홀씨오 아홉차힌 주으려 橫死홀씨니 이 如來 어둘 니르시논 아홉가짓 橫死ㅣ니 ᄯᅩ 그지업슨 여러 橫死ㅣ몯내 니르리라.(석보 9: 36-37)

◉ ᄯᅩ 阿難아 뎌 琰魔王이 世間앳 일훔 브튼 글와ᄅᆞᆯ ᄀᆞᆷ아랫ᄂᆞ니 ᄒᆞ다가 有情ᄃᆞᆯ히 不孝ᄅᆞᆯ ᄒᆞ거나 「不孝ᄂᆞᆫ 孝道 아니홀씨라」 五逆을 ᄒᆞ거나 三寶ᄅᆞᆯ 허러 辱ᄒᆞ거나 君臣ㅅ 法을 헐어나「君臣ㅅ 法은 님금 臣下ㅅ 法이라」 信戒ᄅᆞᆯ 헐어나 ᄒᆞ면 「信은 正法 信ᄒᆞᄂᆞᆫ ᄆᆞᅀᆞ미오 戒ᄂᆞᆫ 五戒라」 琰魔法王이 罪ᄋᆡ 야ᄋᆞ로 詳考ᄒᆞ야 罪 주ᄂᆞ니 「詳考ᄂᆞᆫ 子細히 마초ᄡᅥ 알씨라」 이럴ᄊᆡ 내 이제 有情을 勸ᄒᆞ야 燈 혀며 幡 밍ᄀᆞᆯ며 산 것 노하 福올 닷가 厄에 열두 夜叉大將이 모든 座애 잇더니 「大將은 큰 將軍이라」 官毗羅 大將과 伐折羅 大將과 迷企羅 大將과 安底羅 大將과 頞你羅 大將과 珊底羅 大將과 因達羅 大將과 波夷羅 大將과 摩虎羅 大將과 眞達羅 大將과 招杜羅 大將과 毗羯羅 大將과 이 열 두 夜叉 大將이 各各 七千夜叉ᄅᆞᆯ 眷屬 사맷더니 ᄒᆞᆫ ᄢᅴ 소리 내야 술보ᄃᆡ 世尊하 우리 이제 부텻 威力을 닙ᄉᆞ바 藥師琉璃光如來ㅅ 일후믈 듣ᄌᆞ보니 ᄂᆞ외애 惡趣를 저픈 주리 업스니 우리ᄃᆞᆯ히 다 ᄒᆞᆫ ᄆᆞᅀᆞᄆᆞ로 죽ᄃᆞ록 三寶애 歸依ᄒᆞᅀᆞ바 盟誓ᄅᆞᆯ 호ᄃᆡ 一切 有情 위ᄒᆞ야 利益 ᄃᆞᄫᆡᆫ 일ᄒᆞ야 便安킈 호리이다.(석보 9: 37-40)

◉ 아ᄆᆞ란 ᄆᆞᄉᆞᆯ히어나 자시어나 ᄀᆞ올히어나 나라히어나 뷘 수프리어나 이 經을 너비 펴며 藥師琉璃光如來ㅅ 일후믈 디니ᅀᆞ바 恭敬供養ᄒᆞᅀᆞᄫᆞ리옷 잇거든 우리ᄃᆞᆯ히 이 사ᄅᆞᄆᆞᆯ 衛護ᄒᆞ야「衛護ᄂᆞᆫ 둘어더 브러셔 護持홀씨라」 다 一切 苦難올 버서나고 願ᄒᆞ논 이ᄅᆞᆯ 다 일의 호리이다.(석보 9: 40)

◉ 아뫼나 病이며 厄이 이셔 버서나고져 ᄒᆞᆶ 사ᄅᆞᄆᆞᆫ 이 經을 닐거 외오며 五色 실로 우리 일후믈 ᄆᆡ자 제 願을 일운 後에 글어ᅀᅡ ᄒᆞ리이다. (석보 9: 40)

◉ 그 ᄢᅴ 世尊이 夜叉 大將ᄃᆞᆯ홀 讚嘆ᄒᆞ야 니ᄅᆞ샤ᄃᆡ 됴타됴타 너희ᄃᆞᆯ히 藥師琉璃光如來ㅅ 恩德 갑ᄉᆞᄫᆞᆯ 이ᄅᆞᆯ 念ᄒᆞ거든 샹녜 이러트시 一切 有情을 利益ᄃᆞᄫᆡ며 安樂긔 ᄒᆞ라.(석보 9: 40-41)

< 釋譜詳節 第九 > 끝

<釋譜詳節 第十三 >

◉ 부톄 王舍城耆闍堀山中에 겨샤「이브터 法華經 니르시ᄂᆞᆫ 靈山會라」 굴근 比丘衆一萬二千 사ᄅᆞᆷ과 ᄒᆞᆫᄃᆡ 잇더시니「이 ᄠᅴ 부텻 나히 닐흔 ᄒᆞ나히러시니 穆王 마ᄉᆞᆫ 다ᄉᆞᆺ찻ᄒᆡ 甲子ㅣ라」 다 阿羅漢이라.(석보 13: 1)

◉ 諸漏ㅣ ᄒᆞ마 다아「漏ㅣ 세 가지니 欲漏는 欲界옛 一切 煩惱ㅣ오 有漏는 色界 無色界옛 一切 煩惱ㅣ오 無明漏는 三界옛 無明이라」 ᄂᆞ외야 煩惱ㅣ 업서 己利ᄅᆞᆯ 得ᄒᆞ야「己利ᄂᆞᆫ 제 모미 됴홀씨니 智慧ᄅᆞᆯ 아라 疑心올 그칠씨라」 믈읫 結이 다아 업서 ᄆᆞᅀᆞ미 自得ᄒᆞ니러니 그 일후미 阿若憍

陳如와 摩訶迦葉과 優樓頻羅迦葉과 伽耶迦葉과 那提迦葉과「伽耶迦葉과 那提迦葉과ᄂᆞᆫ 優樓頻羅迦葉의 앗이라」舍利弗와 大目連과 摩訶伽栴延과 阿㝹(少+免)樓馱와「阿㝹( )樓馱ᄂᆞᆫ 阿那律이니 阿㝹樓頭ㅣ라도 ᄒᆞᄂᆞ니라.(석보 13: 1-2)

◉ 劫賓那와 憍梵波提와 離婆多와 畢陵伽婆蹉와 薄拘羅와 摩訶拘絺羅와 難陁와 富樓那彌多羅尼子와 須菩提와 阿難과 羅睺羅와 이러틋ᄒᆞᆫ 모다 아ᄂᆞᆫ 大阿羅漢ᄃᆞᆯ히며 (석보 13: 2)

☞「大迦葉은 頭陁 第一이오 舍利弗은 智慧 第一이오 目揵連은 神通 第一이오 伽旃延은 論議 第一이오 阿那律은 天眼 第一이오 富樓那ᄂᆞᆫ 說法 第一이오 須菩提ᄂᆞᆫ 解空 第一이오 阿難은 多聞 第一이오 離婆多ᄂᆞᆫ 持律 第一이오 羅睺羅ᄂᆞᆫ 密行 第一이니 이 十大 弟子ㅣ라. 解空은 空ᄋᆞᆯ 알씨오 持律은 律을 디닐씨오 密行은 秘密ᄒᆞᆫ 힝뎌기라.」(석보 13: 2-3)

◉ ᄯᅩ 無學 二千 사ᄅᆞᆷ과「學은 ᄇᆡ홀씨니 無學은 다 아라 더 ᄇᆡ올이리 업슬씨니 學無學은 當時로 몯다 아라 無學손ᄃᆡ ᄇᆡ호ᄂᆞᆫ 사ᄅᆞ미라」摩訶婆闍波提比丘尼 眷屬 六千 사ᄅᆞᆷᄃᆞ려 와 겨 겨시며「摩訶波提ᄂᆞᆫ 大愛道ㅣ라 ᄒᆞ논 마리라」羅睺羅ᄋᆡ 어마님 耶輸陁羅 比丘尼 ᄯᅩ 眷屬ᄃᆞ려 와 겨시며 菩薩 摩訶薩 八萬 사ᄅᆞ미「摩訶ᄂᆞᆫ 클씨니 菩薩 摩訶薩은 菩薩ㅅ 中에 큰 菩薩이시니라」다 阿녹(耒+辱)多羅三藐三菩提예 므르디 아니ᄒᆞ샤 다 陁羅尼와 樂說辯才ᄅᆞᆯ 得ᄒᆞ샤 므르디 아니ᄒᆞᆶ 法輪을 그우리샤「그우리샤ᄆᆞᆫ ᄂᆞᆷ도 조차 어갸 아ᄅᆞ시고 ᄂᆞᆷ 알외시논 德이라 法이 ᄒᆞᆫ고대 잇디 아니ᄒᆞ야 너비 펴아 가미 술위 ᄠᅴ 그우ᄃᆞᆺᄒᆞᆯ씨 法輪이라 ᄒᆞᄂᆞ니라.」(석보 13: 3-4)

◉ 無量百千諸佛을 供養ᄒᆞᄉᆞ바 여러 부텨ᄭᅴ 한 德ㅅ 根源을 시므샤 샹녜 諸佛이 일ᄒᆞ라 讚嘆ᄒᆞ시며 慈悲心으로 몸닷가 부텻 智慧예 잘 드르샤 큰 智慧 通達ᄒᆞ샤「通達은 ᄉᆞᄆᆞᄎᆞᆯ씨라」뎌 녁 ᄀᆞ새 걷나가샤 일후미 너비 들여 無量世界예 無數ᄒᆞᆫ 百千 衆生ᄋᆞᆯ 잘 濟渡ᄒᆞ시ᄂᆞᆫ 분 내러시니 그 일후미 文殊師利 菩薩와 觀世音 菩薩와 得大勢 菩薩와 常精進 菩薩와 不休息 菩薩와 寶掌 菩薩와 藥王 菩薩와 勇施 菩薩와 寶月 菩薩와 月光 菩薩와 滿月 菩薩와 大力 菩薩와 無量力 菩薩와 越三界 菩薩와 跋陁婆羅 菩薩와 彌勒 菩薩와 寶積 菩薩와 이러틋ᄒᆞᆫ 菩薩 摩訶薩 八萬 사ᄅᆞ미 다 와 겨시며 그 저긔 釋提桓因이 眷屬 二萬 天子 ᄃᆞ려와 이시며 ᄯᅩ 名月 天子와 (석보 13: 4- 5)

☞「名月 天子ᄂᆞᆫ ᄃᆞ리라」(석보 13:6)

◉ 普香天子와「普香 天子ᄂᆞᆫ 벼리라」寶光 天子와「寶光 天子ᄂᆞᆫ 히라」 四大天王이「四大天王은 持國 天王 增長天王 廣目 天王 多聞 天王이라」眷屬 一萬 天子ᄃᆞ려와 이시며 自在 天子와「自在天子ᄂᆞᆫ 化樂天에 위두ᄒᆞ니라」大自天子ㅣ「大自在天子ᄂᆞᆫ 他化天에 위두ᄒᆞ니라」眷屬 三萬 天子ᄃᆞ려와 이시며 娑婆世界예 위두ᄒᆞᆫ 梵天王尸棄 大梵과「尸棄ᄂᆞᆫ 大梵天王ㅅ 일후미니 初禪三天에 위두ᄒᆞ니라. 二禪으롯 우흔 말ᄊᆞ미 업슬씨 大梵 天王이 娑婆世界ᄅᆞᆯ ᄀᆞᆷ 아ᄂᆞ니라」光明 大梵ᄃᆞᆯ히「光明 大梵은 二禪三天에 위두ᄒᆞ니라」眷屬 一萬 二天 天子 ᄃᆞ려와 이시며 (석보 13: 6- 7)

☞「諸天을 아니다 니를 ᄲᅮᆫ뎡 實엔 다 왜ᄶᅥ니라」여듧 龍王 難陁 龍王과 跋難陁龍王과 娑伽羅 龍王과 和修吉 龍王과 德叉迦 龍王과 阿那娑達 龍王과 摩那斯 龍王과 優鉢羅 龍王ᄃᆞᆯ히 各各 若干百千 眷屬 ᄃᆞ려와 이시며「難陁ᄂᆞᆫ 깃브다 ᄒᆞ다 ᄒᆞ논 마리오 跋은 어디다 마리니 時節ㅅ 비를 깃비 ᄂᆞ리와 어딘 德이 잇다 ᄒᆞ논 ᄠᅳ디라. 이 두 龍이 兄弟니 目連의 降服히온 龍이라. 娑伽羅ᄂᆞᆫ 娑

竭羅ㅣ라. 和修吉은 머리 하다 ᄒᆞ논 마리오 德叉迦ᄂᆞᆫ 毒을 내ᄂᆞ다 ᄒᆞ논 마리오 阿那婆達多ᄂᆞᆫ 東土ㅅ 마래 熱惱ㅣ 업다ᄒᆞᆫ 마리니 그르 닐어 阿褥(녹)達이라 ᄒᆞᄂᆞ니 녀느 龍이 네가짓 熱惱ㅣ 잇거늘 이 龍은 업스니라. 네가짓 熱惱ᄂᆞᆫ 金翅鳥ㅣ 먹는 苦와 婬欲行ᄒᆞᆯ 時節에 本來ㅅ 몸 도로 ᄃᆞ외ᄂᆞᆫ 苦와 비느레 혀 근 벌에 잇ᄂᆞᆫ 苦와 더븐 몰애 모매 븓ᄂᆞᆫ 苦왜라. 摩那斯ᄂᆞᆫ 큰 모미라 ᄒᆞ논 마리오 優鉢羅ᄂᆞᆫ 이 龍이 靑蓮 모새 이실씨 일훔 지흐니라. 若干은 一定티 아니ᄒᆞᆫ 數ㅣ니 몯 니르혈씨라」(석보 13: 7-8)

◉ 네 緊那羅王法 緊那羅王과 妙法緊那羅王과 大法 緊那羅王과 持法緊那羅王이 各各 若干 百千 眷屬 ᄃᆞ려와 이시며 (석보 13: 8)

☞ 法緊은 四諦를 브르고 妙緊은 六度를 브르고 持緊은 一乘을 브르ᄂᆞ니라. 六度ᄂᆞᆫ 六婆羅密이라.(석보 13: 8)

◉ 네 乾闥婆王樂 乾闥婆과 樂音 乾闥婆王과 美乾闥婆王이 各各 若干 百千 眷屬 ᄃᆞ려와 이시며 (석보 13: 8-9)

☞ 樂은 풍류니 놀애 춤 트렛 ᄌᆡ죄라. 樂音은 풍륫 소리니 붑 티ᄂᆞᆫ ᄆᆞᄃᆡ며 시우대를 니르니라. 美ᄂᆞᆫ 아ᄅᆞᆷ다ᄫᆞᆯ씨니 풍륫 ᄌᆡ좃 中에 ᄆᆞᆺ 잘ᄒᆞᆯ씨라. 美音은 풍륫 소릿 中에 ᄆᆞᆺ 됴ᄒᆞᆯ씨라.(석보 13: 9)

◉ 네 阿修羅王 婆稚 阿修羅王과 佉羅騫駄阿修羅王과 毗摩質多羅 阿修羅王과 羅睺 阿修羅王이 各各 若干 百千 眷屬 ᄃᆞ려와 이시며 (석보 13: 9)

☞ 婆稚ᄂᆞᆫ 얽ᄆᆡ예다혼 마리니 사호ᄆᆞᆯ 즐겨 제 軍 알ᄑᆡ 가다가 帝釋손ᄃᆡ ᄆᆡ예ᄂᆞ니라. 佉羅騫駄ᄂᆞᆫ 엇게 넙다혼 마리니 바ᄅᆞᆱ 므를 소사 오ᄅᆞ게 ᄒᆞᄂᆞ니라. 毗摩質多ᄂᆞᆫ 바ᄅᆞᆱ 믈겱 소리라 혼 마리니 바ᄅᆞᆱ 므를 텨 겨를 니르왇ᄂᆞ니라. 羅睺 阿修羅王은 本來ㅅ 몺 기리 七百由旬이오 큰 威力이 잇ᄂᆞ니 제 너교ᄃᆡ 忉利天王과 日月 諸天이 내 머리 우희 ᄒᆞ니ᄂᆞ니 日月을 자바다가 귀옛 구슬 호리라코 ᄀᆞ장 嗔心 닐어 兵馬 니르와다가 싸홈ᄒᆞᆯ 쩌긔 帝釋의 알ᄑᆡ 軍이 몬져힛 光을 펴아 阿修羅ᄋᆡ 누늘 쏘아 몯 보게 ᄒᆞ야ᄃᆞᆫ 阿修羅ㅣ 소ᄂᆞ로 히를 ᄀᆞ리와든 日蝕ᄒᆞᄂᆞ니라. 阿修羅ㅣ 네 가지니 鬼趣예 브트니ᄂᆞᆫ 귓것 길헤 이셔 法護持ᄒᆞ논 히ᄆᆞ로 神通을 일워 뷔유메 드니 이 阿修羅ᄂᆞᆫ 알ᄲᅡ 나ᄂᆞ니라. 人趣예 브트니ᄂᆞᆫ 하ᄂᆞᆯ해셔 德이 사오나바 ᄠᅥ러디여 ᄂᆞ려 히ᄃᆞᆱ 겨틔 사ᄂᆞ니 이 阿修羅ᄂᆞᆫ ᄇᆡ야 나ᄂᆞ니라. 天趣예 브트니ᄂᆞᆫ 世界를 자바 가져 히미 ᄉᆞᄆᆞ차 저픈 거시 업서 梵王 帝釋 四天王과 겻구ᄂᆞ니 이 阿修羅ᄂᆞᆫ ᄃᆞ외야 나ᄂᆞ니라. 畜生趣예 브트니ᄂᆞᆫ 各別히 사오나ᄫᆞᆫ 阿修羅ㅣ 바ᄅᆞᆱ 가온ᄃᆡ 나아 바ᄅᆞᆱ 믈 ᄉᆡᄂᆞᆫ 굼긔 드러 이셔 아ᄎᆞᄆᆡᄂᆞᆫ 虛空애 나아 노다가 나조ᄒᆡᆫ 므레 가 자ᄂᆞ니 이 阿修羅ᄂᆞᆫ 축축ᄒᆞᆫ 氣韻으로 ᄃᆞ외야 나ᄂᆞ니라. 이 法華앳 阿修羅ᄃᆞᆯᄒᆞᆫ 天趣ㅣ라. (석보 13: 10)

◉ 네 迦樓羅王 大威德 迦樓羅王과 大身迦樓羅王과 大滿 迦樓羅王과 如意 迦樓羅王이 各各 若干 百千 眷屬 ᄃᆞ려와 이시며 (석보 13: 10-11)

☞ 大威ᄂᆞᆫ 큰 威嚴이니 龍을 저히ᄂᆞ니라. 大身은 큰 모미라. 大滿은 ᄀᆞ장 ᄀᆞᄃᆞᆨᄒᆞᆯ씨니 龍 자바 머구믈 ᄇᆞ데 足ᄒᆞᆯ씨라. 如意ᄂᆞᆫ 며개예 如意珠 이실씨라. 夜叉와 摩睺羅와ᄅᆞᆯ 아니 니를 ᄲᅮᆫ뎡 實엔 다 왯더니라.(석보 13: 11)

◉ 韋提希의 아ᄃᆞᆯ 阿闍世王이 若干 百千 眷屬 ᄃᆞ려와 各各 부텻 바래 禮數ᄒᆞᅀᆞᆸ고 ᄒᆞ녁 面에 믈러

안ᄌᆞ니라. (석보 13: 11)

☞ 各各은 우흘 다 닐온 마리라.(석보 13: 11)

◉ 그 저긔 世尊ᄭᅴ 四衆이 圍繞ᄒᆞᅀᆞ바 이셔 供養 ᄒᆞᅀᆞᄫᆞ며 恭敬ᄒᆞᅀᆞᄫᆞ며 尊重히 너기ᅀᆞ바 讚嘆ᄒᆞᄉᆞᆸ더니 菩薩ᄃᆞᆯ 위ᄒᆞ샤 大乘經을 니르시니 「大乘經은 大乘엣 經이라」 일후미 無量義니 「無量義ᄂᆞᆫ 그지 업슨 ᄠᅳ디라 혼 마리라」 菩薩 ᄀᆞᄅᆞ치시논 法이라.(석보 13: 11-12)

◉ 부텨 護念ᄒᆞ시논 배라 부톄 이 經 니르시고 結跏趺坐ᄒᆞ샤 無量義處 三昧예 드르샤 「處는 고디라」 몸과 ᄆᆞᅀᆞᆷ괘 움즉디 아니ᄒᆞ야 겨시거늘 그저긔 하ᄂᆞᆯ해셔 曼陁羅華와 摩訶 曼陁羅華와 曼殊沙華와 摩訶 曼殊沙華ᄅᆞᆯ 부텻 우콰 大衆ᄃᆞᆯ히 그에 비흐며 「曼陁羅ᄂᆞᆫ ᄠᅳ데 맛당ᄒᆞ다 혼 마리오 曼殊沙ᄂᆞᆫ 보ᄃᆞ랍다 혼 마리니 다 하ᄂᆞᆳ 貴ᄒᆞᆫ 고지라」 너븐 부텻 世界 여슷 가지로 震動ᄒᆞ더니 그 ᄢᅴ 會中엣 「會中은 모댓ᄂᆞᆫ 中이라」 比丘比丘尼 優婆塞 優婆夷 天龍 夜叉 乾闥婆 阿修羅 迦樓羅 緊那羅 摩睺羅 迦人非人과 ᄯᅩ 諸小王과 「諸小王은 여러 혀 근 王이라」 轉輪聖王과 이 大衆ᄃᆞᆯ히 네 업던 이ᄅᆞᆯ 얻ᄌᆞ바 歡喜合掌ᄒᆞ야 「歡喜ᄂᆞᆫ 깃글씨라」 ᄒᆞᆫ ᄆᆞᅀᆞᄆᆞ로 부텨를 보ᅀᆞ뱃더니 그 ᄢᅴ 부톄 眉間 白毫相앳 光明을 펴샤 東方앳 一萬 八千 世界ᄅᆞᆯ 비취샤ᄃᆡ 아래로 阿鼻 地獄애 니를오 우흐로 阿迦膩吒天에 니르니 이 世界예셔 뎌 싸햇 六趣 衆生ᄋᆞᆯ 다 보며 ᄯᅩ 뎌 싸해 겨신 諸佛도 보ᅀᆞᄫᆞ며 諸佛 니르시논 經法도 듣ᄌᆞᄫᆞ며 뎌 싸햇 比丘比丘尼 優婆塞 優婆夷ᄋᆡ 修行ᄒᆞ야 得道ᄒᆞᄂᆞᆫ 사ᄅᆞᆷ도 조쳐 보며 「得道ᄂᆞᆫ 道理ᄅᆞᆯ 得ᄒᆞᆯ씨라」 ᄯᅩ 菩薩 摩訶薩ᄃᆞᆯ히 種種 因緣과 種種 信解와 「解ᄂᆞᆫ 알 씨니 信호ᄆᆞ로 드러 法을 알씨라」 種種 相貌로 菩薩ㅅ 道理行 ᄒᆞ시논 양도 보며「相貌ᄂᆞᆫ 양ᄌᆡ라」 諸佛이 般涅槃ᄒᆞ시ᄂᆞ니도 보ᅀᆞᄫᆞ며 (석보 13: 12-14)

☞ 般涅槃은 究竟 涅槃이라 (석보 13: 14)

◉ ᄯᅩ 諸佛이 般涅槃ᄒᆞ신 後에 부텻 舍利로 七寶塔 세ᅀᆞᆸ논 양도 보리러니 그 ᄢᅴ 彌勒菩薩이 너기샤ᄃᆡ 오ᄂᆞᆳ나래 世尊이 神奇ᄅᆞ뷘 變化ㅅ 相ᄋᆞᆯ 뵈시ᄂᆞ니 엇던 因緣으로 이런 祥瑞 잇거시뇨.(석보 13: 14-15)

◉ 이제 世尊이 三昧예 드르시니 이 不可思議옛 希有ᄒᆞᆫ 이ᄅᆞᆯ 뵈시ᄂᆞ니「希ᄂᆞᆫ 드믈씨오 有ᄂᆞᆫ 이실씨니 希有는 드므리 잇다 혼 ᄠᅳ디라」 눌 더브러 무러ᅀᅡ ᄒᆞ리며 뉘ᅀᅡ 能히 對答ᄒᆞ려뇨 ᄒᆞ시고 ᄯᅩ 너기샤ᄃᆡ 文殊師利ᄂᆞᆫ 法王ㅅ 아ᄃᆞ리라 디나거신 無量諸佛ᄭᅴ ᄒᆞ마 親近히 供養ᄒᆞᅀᆞ바 이실ᄊᆡ「親은 ᄌᆞ올 아ᄒᆞᆯ씨오 近은 갓가ᄒᆞᆯ씨라」 당다이 이런 希有ᄒᆞᆫ 相ᄋᆞᆯ 보ᅀᆞ바 잇ᄂᆞ니 내 이제 무로리라. (석보 13: 15)

◉ 그 ᄢᅴ 比丘 比丘尼 優婆塞 優婆夷와 天龍鬼神ᄃᆞᆯ토 다 너교ᄃᆡ 이 부텻 神通ᄒᆞ신 相ᄋᆞᆯ 이제 눌 더브러 므르려뇨 ᄒᆞ더니(석보 13: 15)

◉ 그 ᄢᅴ 彌勒 菩薩이 ᄌᆞ갼 疑心도 決ᄒᆞ고져 ᄒᆞ시며 ᄯᅩ 모ᄃᆞᆫ ᄆᆞᅀᆞᄆᆞᆯ 보시고 文殊師利ᄭᅴ 묻ᄌᆞᄫᆞ샤ᄃᆡ 文殊師利여 導師ㅣ 엇던 젼ᄎᆞ로「導師ᄂᆞᆫ 法 앗외ᄂᆞᆫ 스스이니 如來ᄅᆞᆯ ᄉᆞᆯᄫᆞ시니라」 眉間 白毫앳 大光이 너비 비취시니 曼陁羅花 曼陁羅殊沙花ㅣ 비흐며 栴檀香ㅅ ᄇᆞᄅᆞ미 모ᄃᆞᆫ ᄆᆞᅀᆞᄆᆞᆯ 즐기게 ᄒᆞ고 이런 因緣으로 ᄯᅡ히 다 싁싀기 조ᄒᆞ며 이 世界 여슷 가지로 震動ᄒᆞ니 四部衆이 다 기ᄲᅥ 몸과 ᄠᅳᆮ괘 훤ᄒᆞ야 녜 업던 이ᄅᆞᆯ 얻ᄌᆞᄫᆞ뇨.(석보 13: 16)

◉ 眉間앳 光明이 東方을 비취샤 一萬八千 싸히 다 金色이 곧ᄒᆞ야 阿鼻地獄브터 有頂天에 니르시니「有頂은 色 이쇼맷 뎡바기라」 믈읫 世界中엣 六道 衆生ᄋᆡ「六道ᄂᆞᆫ 여슷 길히니 六趣ㅣ라」 주그며 사라가논 길헷 됴ᄒᆞ며 구즌 因緣으로 됴ᄒᆞ며 구즌 果報受호ᄆᆞᆯ 이에셔 다 보며 또 보ᅀᆞ뵤ᄃᆡ 諸佛이 經典을 불어 니ᄅᆞ샤ᄃᆡ「典은 尊ᄒᆞ야 여저 둘씨니 經을 尊ᄒᆞ야 여저 뒷ᄂᆞᆫ 거실씨 經典이라 ᄒᆞᄂᆞ니라」 菩薩 無數 億萬을 ᄀᆞᄅᆞ치시니 梵音이 깁고 微妙ᄒᆞ샤「梵音은 淸淨ᄒᆞᆫ 音聲이시니라」 사ᄅᆞ미 즐겨 듣ᄌᆞᆸ게 ᄒᆞ시며 各各 世界예 正法을 講論ᄒᆞ야 니ᄅᆞ샤 種種 因緣과 그지 업슨 알외요ᄆᆞ로 부텻 法을 불기샤 衆生ᄋᆞᆯ 알에 ᄒᆞ시며 사ᄅᆞ미 受苦ᄅᆞᆯ 맛나아 老病死ᄅᆞᆯ 슬ᄒᆞ야 ᄒᆞ거든 위ᄒᆞ야 涅槃ᄋᆞᆯ 니ᄅᆞ샤 受苦ᄅᆞᆯ 업게 ᄒᆞ시며 사ᄅᆞ미 有福ᄒᆞ야「有福은 福 이실씨라」 부텨를 供養ᄒᆞᄉᆞ바 됴ᄒᆞᆫ 法 求ᄒᆞ거든 위ᄒᆞ야 緣覺ᄋᆞᆯ 니르시며 (석보 13: 16-18)

◉ 佛子ㅣ 種種 修行ᄒᆞ야 無上 智慧ᄅᆞᆯ 求ᄒᆞ거든「佛子ᄂᆞᆫ 부텻 아ᄃᆞ리라. 菩薩이 부텻 法 므르ᅀᆞ보미 이 ᄃᆞ리 아빗 쳔량 믈러 가쥬미 곧ᄒᆞᆯᄊᆡ 菩薩ᄋᆞᆯ 부텻 아ᄃᆞ리라 ᄒᆞᄂᆞ니라」 위ᄒᆞ야 조ᄒᆞᆫ 道理 니ᄅᆞ시ᄂᆞ다.(석보 13: 18)

◉ 文殊師利여 내 이에셔 보며 드루미 이러ᄒᆞ며 또 千億 가짓 이리 하니 이제 어둘 닐오리라.(석보 13: 18)

◉ 내 뎌 싸햇 恒沙 菩薩이「恒沙ᄂᆞᆫ 恒河沙ㅣ라」 種種 因緣으로 부텻 道理 求ᄒᆞ논 야ᄋᆞᆯ 본ᄃᆡᆫ 布施ᄅᆞᆯ 호ᄃᆡ 金銀 珊瑚 眞珠 摩尼 硨磲 瑪瑙 金剛 여러 보ᄇᆡ와 奴婢와「奴ᄂᆞᆫ 남진 죠이오 婢ᄂᆞᆫ 겨집 죠이라」 술위와 보ᄇᆡ로 ᄭᅮ뮨덩과로 즐겨 布施ᄒᆞ야 佛道ᄅᆞᆯ 向ᄒᆞ야 三昧 第一엣 諸佛讚嘆ᄒᆞ시논 乘ᄋᆞᆯ 得ᄒᆞ고져 願ᄒᆞ리도 이시며 菩薩이 네 ᄆᆞᆯ 메ᅀᅳᆫ 寶車와 欄楯과 빗난 蓋와 軒飾ᄋᆞ로 布施ᄒᆞ리도 이시며「軒은 술위 우흿 欄干 너리니 軒飾은 軒엣 ᄭᅮ뮤미라」 (석보 13: 118-19)

◉ 또 菩薩이 몸과 솔콰 손과 발와 妻眷과 子息과로 布施ᄒᆞ야 無上道ᄅᆞᆯ 求ᄒᆞ리도 보며 또 菩薩이 머리와 눈과 몸과로 즐겨 布施ᄒᆞ야 부텻 智慧ᄅᆞᆯ 求ᄒᆞ리도 보리로다.(석보 13: 19-20)

◉ 文殊師利여 여러 王ᄃᆞᆯ히 부텻긔 나ᅀᅡ가 無上道理ᄅᆞᆯ 묻ᄌᆞᆸ고 됴ᄒᆞᆫ 나라콰 宮殿과 臣下와 고마ᄅᆞᆯ ᄇᆞ리고 머리 가ᄭᅡ 法服ᄋᆞᆯ 니브리도 보며「法服은 法엣 오시라」 菩薩이 쥬이ᄃᆞ외야 ᄒᆞ오ᅀᅡ 겨르로ᄫᅵ 이셔 經을 즐겨 외오리도 보며 또 菩薩이 勇猛 精進ᄒᆞ야 深山애 드러 佛道 ᄉᆞ랑ᄒᆞ리도 보며 또 貪欲ᄋᆞᆯ 여희여 샹녜 뷘 ᄃᆡ 이셔 禪定을 기피 다ᄭᅡ 五神通ᄋᆞᆯ 得ᄒᆞ리도 보며 또 菩薩이 便安히 禪定ᄒᆞ야 合掌ᄒᆞ야 千萬偈로 믈읫 法王ᄋᆞᆯ 찬탄 ᄒᆞᄉᆞᄇᆞ리도 보며 (석보 13: 20)

◉ 또 菩薩이 智慧 깁고 ᄠᅳ디 구더 能히 諸佛ᄭᅴ 묻ᄌᆞᄫᅡ 듣ᄌᆞᄇᆞ면 다 바다 디니논 양도 보며 또 佛子ㅣ 定과 慧왜 ᄀᆞ자 그지 업슨 알외요ᄆᆞ로 한 사ᄅᆞᆷ 위ᄒᆞ야 法講論ᄒᆞ며 즐겨 說法ᄒᆞ야 菩薩ᄋᆞᆯ ᄃᆞ외오며 魔王ㅅ 兵馬ᄅᆞᆯ 헐오 法鼓ᄅᆞᆯ 티논 양도 보며「鼓ᄂᆞᆫ 부피라」 또 菩薩이 便安히 좀ᄌᆞᆷᄒᆞ야 잇거든 天龍이 恭敬ᄒᆞ야도 깃디 아니ᄒᆞ리도 보며 또 菩薩이 수프레 이셔 放光ᄒᆞ야 地獄 受苦ᄅᆞᆯ 濟渡ᄒᆞ야 佛道애 들의ᄒᆞ논 양도 보며 또 佛子ㅣ 자디 아니ᄒᆞ야 수프레 두루 ᄃᆞᆫ녀 佛道 브즈러니 求ᄒᆞ논 양도 보며 (석보 13: 21)

◉ 또 警戒 ᄀᆞ자 威儀 이즌ᄃᆡ 업서 조호미 寶珠곧ᄒᆞ야 佛道 求ᄒᆞ논 양도 보며 또 佛子ㅣ 忍辱力에 住ᄒᆞ야 增上慢ᄒᆞᆷ 사ᄅᆞ미 구지즈며 티거든 다 ᄎᆞ마 佛道 求ᄒᆞ논 양도 보며 또 菩薩이 노ᄐᆞᆺ과 우숨과 어린 眷屬ᄋᆞᆯ 여희오 어딘 사ᄅᆞᄆᆞᆯ 갓가ᄇᆡ ᄒᆞ야 ᄒᆞᆫ ᄆᆞᅀᆞᄆᆞ로 亂ᄋᆞᆯ 더러「亂은 어즈러ᄇᆞᆯᄊᆡ라」 묏 수프를 ᄉᆞ랑ᄒᆞ야 億千萬世ᄅᆞᆯ 佛道 求ᄒᆞ논 양도 보며 菩薩이 됴ᄒᆞᆫ 차반과 온가짓 藥材로 부

텨와 즁괏 그에 布施ᄒᆞ며 일훔난 됴ᄒᆞᆫ 오시 비디 千萬 이쏘며 빋 업슨 오ᄉᆞ로「하 貴ᄒᆞ야 비디 업스니라」부텨와 즁괏 그에 布施ᄒᆞ며 千萬 가짓 栴檀香 보빗옛 집과 貴ᄒᆞᆫ 니블로 부텨와 즁괏 그에 布施ᄒᆞ며 淸淨ᄒᆞᆫ 東山애 곳과 果實왜 盛코 흐르는 심과 沐浴ᄒᆞᆯ 모ᄉᆞ로 부텨와 즁괏 그에 布施ᄒᆞ야 이러트시 種種 微妙ᄒᆞᆫ 거슬 布施호ᄃᆡ 즐겨 슬히 아니 너겨 無上道ᄅᆞᆯ 求ᄒᆞ논 양도 보며 菩薩이 寂滅ᄒᆞᆫ 法을 닐어 種種ᄋᆞ로 無數 衆生ᄋᆞᆯ ᄀᆞᄅᆞ치리도 이시며 菩薩이 믈읫 法性을 보ᄃᆡ 두가짓 相이 업서 虛空 ᄀᆞᆮ홈도 보며 또 佛子ㅣ ᄆᆞᄉᆞ매 着이 업서「着은 브티ᄃᆞᆼ길씨라」이런 微妙ᄒᆞᆫ 智慧로 無上道理 求ᄒᆞ논 양도 보리로다.(석보 13: 22-23)

◉ 文殊師利여 또 菩薩이 부텨 滅度ᄒᆞ신 後에 舍利 供養ᄒᆞᄉᆞᄫᆞ리도 이시며 또 佛子ㅣ 無數 恒沙 塔ᄋᆞᆯ 지ᅀᅥ 나라ᄒᆞᆯ ᄉᆞ미니 寶塔 노ᄑᆡ 五千 由旬이오 南北과 東西왜 正히 ᄀᆞᆮᄒᆞ야 二千 由旬이오 塔마다 各各 즈믄 幢幡이며 구슬 서ᄅᆞᆫ 帳이며 보빗옛 바오리 溫和히 울며 天龍 鬼神ᄃᆞᆯ콰 사ᄅᆞᆷ과 사ᄅᆞᆷ 아닌 것괘 香華伎樂ᄋᆞ로 샹녜 供養ᄒᆞᅀᆞᆷᄂᆞᆫ 야이 다 뵈ᄂᆞ다.(석보 13: 24)

◉ 文殊師利여 佛子ᄃᆞᆯ히 舍利 供養 위ᄒᆞ야 塔ᄋᆞᆯ 싁싀기 ᄉᆞ미니 나라히 自然히 特別히 됴하 하ᄂᆞᆳ 樹王이 고지 픈 ᄃᆞᆺᄒᆞ니「하ᄂᆞᆳ 樹王은 忉利天 園生樹ㅣ니 곳 픐 저긔 하ᄂᆞᆯ히 自然히 싁싀기 ᄉᆞ며 됴ᄒᆞ니라」부톄 ᄒᆞᆫ 光明 펴샤매 내며 한 모ᄃᆞᆫ 사ᄅᆞ미 뎌 나라햇 種種 奇妙ᄒᆞᆫ 것과 諸佛ㅅ 神力을 보ᄉᆞ바 녜 업던 이ᄅᆞᆯ 얻ᄌᆞ보니 佛子 文殊아 모ᄃᆞᆫ 疑心ᄋᆞᆯ 決ᄒᆞ고라 四衆이 울워러 仁과 날와 보ᄂᆞ니「仁은 우희 仁者ㅣ라 호미 ᄒᆞᆫ 가지니 文殊를 ᄉᆞᆯᄫᆞ시니라」世尊이 엇던 젼ᄎᆞ로 이런 光明을 펴시ᄂᆞ뇨.(석보 13: 24-25)

◉ 佛子ㅣ 이제 對答ᄒᆞ야 疑心ᄋᆞᆯ 決ᄒᆞ야 기ᄲᅳ긔 ᄒᆞ고라. 므슴 饒益으로 이런 光明을 펴거시뇨.(석보 13: 25)

◉ 부톄 道場애 안ᄌᆞ샤 得ᄒᆞ샨 妙法을 닐오려 ᄒᆞ시ᄂᆞᆫ가. 授記ᄅᆞᆯ 호려 ᄒᆞ시ᄂᆞᆫ가.(석보 13: 25)

◉ 한 佛土애 衆寶ㅣ 싁싀기 조호ᄆᆞᆯ 뵈시며「佛土ᄂᆞᆫ 부텻 짜히라」또 諸佛을 보ᅀᆞᆸ게 ᄒᆞ샤미 이 져고맛 因緣이 아니시니 文殊아 아라라.(석보 13: 26)

◉ 四衆이며 龍과 鬼神괘 仁者ᄅᆞᆯ 보ᄂᆞ니 므슷 이ᄅᆞᆯ 닐오려 ᄒᆞ시ᄂᆞ뇨.(석보 13: 26)

◉ 그 ᄢᅴ 文殊師利 彌勒 菩薩 摩訶薩와 諸大士 善男子等ᄃᆞ려 니ᄅᆞ샤ᄃᆡ 내 혜여호니 이제 世尊이 큰 法을 니르시며 큰 法雨를 비흐시며 큰 法螺ᄅᆞᆯ 부르시며 큰 法鼓ᄅᆞᆯ 티시며 큰 法義ᄅᆞᆯ 펴려 ᄒᆞ시ᄂᆞ다.(석보 13: 26)

☞ 雨ᄂᆞᆫ 비오 螺ᄂᆞᆫ 골와래오 鼓ᄂᆞᆫ 부피오 義ᄂᆞᆫ ᄠᅳ디니 비ᄂᆞᆫ ᄒᆞᆫ 마ᄉᆞ로 골오 젓고 螺ᄂᆞᆫ ᄒᆞᆫ 소리로 다 ᄉᆞᄆᆞᆺ고 부픈 한 사ᄅᆞᄆᆞᆯ 出令ᄒᆞ고 義ᄂᆞᆫ 맛당ᄒᆞᆯ 야ᄋᆞᆯ 조차 여러 내ᄂᆞ니 부텻 法을 가ᄌᆞᆯ벼 니르니라. (석보 13: 26)

◉ 善男子ᄃᆞᆯ하 내 디나건 諸佛ᄭᅴ 이런 祥瑞ᄅᆞᆯ 보ᄉᆞ보니 이런 光明을 펴시면 큰 法을 니르시더니 이럴ᄊᆡ 아노니 이제 부톄 光明 뵈샴도 또 이 ᄀᆞᆮᄒᆞ시니 衆生ᄋᆞ로 一切 世間앳 信티 어려ᄇᆞᆫ 法을 다 듣ᄌᆞ바 알에호리라 ᄒᆞ샤 이런 祥瑞ᄅᆞᆯ 뵈시ᄂᆞ니라.(석보 13: 27)

◉ 善男子ᄃᆞᆯ하 디나건 無量無邊 不可思議 僧祇劫 時節에 부톄 겨샤ᄃᆡ 號(+)ᄅᆞᆯ 日月燈明 如來應

供正徧知明行足善逝世間解無上士調御丈夫天人師佛世尊이러시니 (석보 13: 27)

☞ 日月燈明은 智慧 불ᄀᆞ샤미 日月燈 이 ᄀᆞᆮᄒᆞ실씨니 그 부텻 일후미시니라.(석보 13: 28)

◉ 正法을 불어 니ᄅᆞ샤ᄃᆡ 初善 中善 後善이러시니「初善 中善 後善은 三乘法을 니르니 다 機ᄅᆞᆯ 應ᄒᆞ야 道理예 마조미 몯 됴ᄒᆞ니 업슬ᄊᆡ 善이라 ᄒᆞ니라. 機ᄂᆞᆫ 뮈여 나ᄂᆞᆫ 고디라. 應은 마초ᄒᆞᆯ씨라.」그 ᄠᅳ디 깁고 멀며 그 말ᄊᆞ미 工巧코 微妙ᄒᆞ야 오ᄋᆞ로 섯근 거시 업서 淸白ᄒᆞ고 梵行앳 相이 ᄀᆞᆺ더시니 聲聞 求ᄒᆞᆯ 싸ᄅᆞᆷ 위ᄒᆞ샨 四諦法 니ᄅᆞ샤 生老病死ᄅᆞᆯ 벗기샤 究竟 涅槃킈 ᄒᆞ시고 辟支佛 求ᄒᆞᆯ 싸ᄅᆞᆷ 위ᄒᆞ샨 열두 因緣法을 니르시고 菩薩ᄃᆞᆯ 위ᄒᆞ샨 여슷 波羅密ᄋᆞᆯ 니ᄅᆞ샤..(석보 13: 28)

◉ 阿耨多羅 三藐 三菩提ᄅᆞᆯ 得ᄒᆞ야 一切 種種 智慧ᄅᆞᆯ 일우게 ᄒᆞ더시니「一切 種種 智慧ᄂᆞᆫ 부톄ᅀᅡ ᄆᆞᄌᆞ시니라」버거 부톄 겨샤ᄃᆡ ᄯᅩ 일후미 日月燈明이시고 ᄯᅩ 버거 부톄 겨샤ᄃᆡ ᄯᅩ 일후미 日月燈明이러시니 이러히 二萬 부톄 다 ᄒᆞᆫ가짓 字號(+)로 日月燈明 이시며 ᄯᅩ ᄒᆞᆫ가짓 姓 이샤 姓이 頗羅墮ㅣ러시니, 彌勒아 아라라. 첫 부텨 後ㅅ 부톄 다 ᄒᆞᆫ가짓 字로 일후미 日月燈明 이시고 열 號(+)ㅣ ᄆᆞᄌᆞ시고 니르시논 法이 初中終 이러시니 (석보 13: 29)

◉ ᄆᆞᆺ 乃終ㅅ 부톄 出家 아니ᄒᆞ야 겨싫 저긔 여듧 王子ᄅᆞᆯ 두겨샤ᄃᆡ ᄒᆞᆫ 일호믄 有意오 둘찻 일후믄 善意오 無量意오 네찻 일후믄 寶意오 다ᄉᆞᆺ찻 일후믄 增意오 여슷찻 일후믄 除疑意오 닐굽찻 일후믄 響意오 여듧찻 일후믄 法意러시니 이 여듧 王子ㅣ 威德이 自在ᄒᆞ샤 各各 네 天下ᄅᆞᆯ 거느렛더시니 이 王子ᄃᆞᆯ히 아바니미 出家ᄒᆞ샤 阿耨多羅 三藐 三菩提ᄅᆞᆯ 得ᄒᆞ시다 드르시고 王位ᄅᆞᆯ ᄇᆞ리시고 조차 出家ᄒᆞ야 大乘엣 ᄠᅳ들 發ᄒᆞ야 샹녜 조ᄒᆞᆫ 힝뎍 다싸 法師ㅣ ᄃᆞ외샤 ᄒᆞ마 千萬 부텨ᄭᅴ ᄆᆞᆯ읫 됴ᄒᆞᆫ 根源을 시므시니라. (석보 13: 30)

☞ 法師ᄂᆞᆫ 法 스스이라.(석보 13: 30)

◉ 그 ᄢᅴ 日月燈明佛이「日月燈明佛이 여듧 王子ㅅ 아바니미시니라」乘經을 니르시니 일후미 無量義니 菩薩 ᄀᆞᄅᆞ치시논 法이라. 護念ᄒᆞ시논 배라(석보 13: 31)

◉ 이 經을 니르시고 즉자히 大衆中에셔 結跏趺坐ᄒᆞ샤 無量義處三昧예 드르샤 몸과 ᄆᆞᅀᆞᆷ괘 움즉디 아니ᄒᆞ야 겨시거늘 그 저긔 하ᄂᆞᆯ해셔 曼陁羅華와 摩訶曼陁羅華와 曼殊沙華와 摩訶曼殊沙華ᄅᆞᆯ 부텻 우콰 大衆ᄃᆞᆯ히 그에 비흐며 너븐 부텻 世界 여슷 가지로 震動ᄒᆞ더니 그 ᄢᅴ 會中엣 比丘比丘尼 優婆塞優婆夷 天龍 夜叉 乾闥婆 阿修羅 迦樓羅 緊那羅 摩睺羅 迦人 非人과 ᄯᅩ 諸小王과 轉輪聖王과 이 大衆ᄃᆞᆯ히 네 업던 이ᄅᆞᆯ 얻ᄌᆞ바 歡喜合掌ᄒᆞ야 ᄒᆞᆫ ᄆᆞᄋᆞᄆᆞ로 부텨를 보ᄉᆞᄫᆡ더니 그 ᄢᅴ 如來 眉間 白毫相앳 光明을 펴샤 東方앳 一萬 八千佛土ᄅᆞᆯ 비취샤ᄃᆡ 오ᄂᆞᆰ날 보ᄉᆞᆸ논 佛土ㅣ ᄀᆞᆮ더라. (석보 13: 31-32)

◉ 彌勒아 아라라. 그 ᄢᅴ 會中에 二十億 菩薩이 法 듣ᄌᆞ보ᄆᆞᆯ 즐기더니 이 菩薩ᄃᆞᆯ히 이 光明이 너비 佛土 비취시논 고ᄃᆞᆯ 보ᄉᆞᆸ고 네 업던 이ᄅᆞᆯ 얻ᄌᆞ바 이 光明ㅅ 因緣을 알오져 ᄒᆞ더니 그 ᄢᅴ ᄒᆞᆫ 菩薩 일후미 妙光이라 호리 (석보 13: 32-33)

◉ 八百 弟子ᄅᆞᆯ 뒷더니 그 ᄢᅴ 日月燈明不이 三昧로셔 니르샤 妙光 菩薩ᄋᆞᆯ 因ᄒᆞ야 大乘經을 니르시니 일후미 妙法蓮華ㅣ니 菩薩 ᄀᆞᄅᆞ치시는 法이라. 부텨 護念ᄒᆞ시논 배라. (석보 13: 33)

☞ 妙法이라 혼 거시 더러븐 거슬 ᄇᆞ리고 다른ᄃᆡ 가 微妙ᄒᆞᆫ 이를 얻논디 아니라. 그저 더러븐 거긔셔 微妙ᄒᆞᆫ 法을 나토며 一乘이라 혼 거슨 三乘을 여희며 ᄇᆞ리고 一乘을 니르논디 아니하. 三乘을 모도아 一乘에 가ᄂᆞ니 이 經이 더러븐 거긔 微妙ᄒᆞᆫ 이를 나토오미 蓮ㅅ 고지 더러븐 므레 이쇼ᄃᆡ 조호미 곧고 三乘이 모다 一乘에 가미 蓮ㅅ 고지 고ᄌᆞ로셔 여름 여루미 곧ᄒᆞᆯᄊᆡ 妙法蓮華經이라 ᄒᆞ니라.(석보 13: 33)

◉ 여윈 小劫을 座애 니디 아니ᄒᆞ시니 모다 듣ᄌᆞᄫᆞ리도 ᄒᆞᆫ 고대 안자 여윈 小劫을 몸과 ᄆᆞᄆᆞᆷ괘 움즉디 아니ᄒᆞ야 부텻 마를 듣ᄌᆞ보ᄃᆡ 밥 머글ᄊᆞᄉᆡ만 너겨 ᄒᆞ나토 잇븐 ᄠᅳᆮ 내리 업더라.(석보 13: 34)

◉ 日月燈明佛이 여윈 小劫을 이 經 니르시고 즉자히 모ᄃᆞᆫ 中에 니ᄅᆞ샤ᄃᆡ 如來 오ᄂᆞᆳ밤 中에 無餘涅槃애 들리라.「無餘涅槃은 나문 것 업슨 涅槃이라」(석보 13: 34)

◉ 그 ᄢᅴ ᄒᆞᆫ 菩薩 일후미 德藏 이러니 日月燈明佛이 授記ᄒᆞ야 比丘ᄃᆞ려 니ᄅᆞ샤ᄃᆡ 이 德藏 菩薩이 버거 부톄 ᄃᆞ외야 號(+)를 淨身多陁阿伽度 阿羅訶 三藐 三佛陁ㅣ라 ᄒᆞ리라.(석보 13: 34)

☞ 多陁阿伽度ᄂᆞᆫ 如來라 혼 마리라.(석보 13: 34)

◉ 부톄 授記 다 ᄒᆞ시고 곧 밤中에 無餘 涅槃애 드르시니라.(석보 13: 35)

◉ 부톄 滅度ᄒᆞ신 後에 妙光 菩薩이 妙法 蓮華經을 가져 八十小劫을 사ᄅᆞᆷ 위ᄒᆞ야 물어 니르더니 日月燈明佛ㅅ 여듧 아ᄃᆞ니미 다 妙光ᄋᆞᆯ ᄉᆞᄉᆞᆼ 사ᄆᆞ신대 妙光이 ᄀᆞᄅᆞ쳐 阿耨羅 三藐 三菩提예 구드시긔 ᄒᆞ니 이 王子ᄃᆞᆯ히 無量 百千萬億 부텨를 供養ᄒᆞᅀᆞᆸ고 다 부톄 ᄃᆞ외시니 ᄆᆞᆺ 後에 成佛ᄒᆞ신 일후미 燃燈이러시다.(석보 13: 35)

◉ 八百 弟子ㅅ 中에「八百 弟子ᄂᆞᆫ 妙光 菩薩ㅅ 弟子ㅣ라」ᄒᆞ나히 일후미 求名이러니「求名은 일훔 求ᄒᆞᆯᄊᆡ니 實 업시 일훔ᄲᅮᆫ 求ᄒᆞᆯᄊᆡ라」利養ᄋᆞᆯ 貪ᄒᆞ야 ᄒᆞᆫ 經을 닐거도 通達티 몯ᄒᆞ야 해 니즐ᄊᆡ 일후믈 求名이라 ᄒᆞ더니(석보 13: 35-36)
*ᄲᅮᆫ

☞ 利養은 됴히 칠씨니 ᄂᆞᄆᆞ란 분별 아니코 제 몸ᄲᅮᆫ 됴히 츄미라. 小乘엣 사ᄅᆞ미 제 몸 닷ᄀᆞᆯ ᄲᅮᆫ ᄒᆞ고 ᄂᆞᆷ 濟渡 몯ᄒᆞᆯᄊᆡ 小乘ᄋᆞᆯ 利養ᄒᆞᄂᆞ다 ᄒᆞᄂᆞ니라.(석보 13: 36)

◉ 이 사ᄅᆞᆷ도 ᄯᅩ 善根因緣을 심곤 젼ᄎᆞ로 無量 百千萬億 諸佛을 맛나ᅀᆞ바 供養 恭敬ᄒᆞ며 尊重 讚嘆ᄒᆞᅀᆞᄫᆞ니라.(석보 13: 36)

◉ 妙光 菩薩은 다른 사ᄅᆞ미리여. 내 모미긔오. (석보 13: 36)

◉ 오ᄂᆞᆳ날 이 祥瑞를 보ᅀᆞᄫᆞᆫ딘 아래와 다ᄅᆞ디 아니ᄒᆞ시니 이럴ᄊᆡ 혜여호니 오ᄂᆞᆳ날 如來 당다이 大乘經을 니르시리니 일후미 妙法蓮華經ㅣ니 菩薩 ᄀᆞᄅᆞ치시는 法이라.(석보 13: 36)

◉ 부텨 護念ᄒᆞ시논 배라.「이ᄭᅵ장은 序品이니 品은 난호아 제여곰 낼씨라」(석보 13: 37)

◉ 그 ᄢᅴ 世尊이 三昧로 겨샤 ᄌᆞᄂᆞᄌᆞᄂᆞ기 니르샤 舍利弗ᄃᆞ려 니ᄅᆞ샤ᄃᆡ 諸佛ㅅ 智慧히 깁고 그지 업스샤 智慧ㅅ 門이 아로미 어려ᄇᆞ며 드루미 어려ᄇᆞ니 一切ㅅ 聲聞과 辟支佛의 몰롤거시라. (석보 13: 37)

◉ 엇뎨어뇨 ᄒᆞ른ᄃᆡ 부톄 百千萬億 無數 諸佛ᄭᅴ 갓ᄀᆞᄫᅵ ᄒᆞ야 諸佛ㅅ 그지업슨 道法을 다 行ᄒᆞ야 勇猛히 精進ᄒᆞ야 일후미 너비들여 甚히 기픈 네 업던 法을 일워 맛당ᄒᆞᆫ 고ᄃᆞᆯ 조차 니르논 마리 ᄠᅳᆮ 아로미 어려ᄇᆞ니라.(석보 13: 37)

◉ 舍利弗아 네 成佛ᄒᆞᆫ 後로 種種 因緣과 種種 譬喩로 말ᄊᆞᄆᆞᆯ 너비 불어 「譬ᄂᆞᆫ 가ᄌᆞᆯ벼 니를씨오 喩는 알윌씨라」 無數ᄒᆞᆫ 方便으로 衆生ᄋᆞᆯ 引導ᄒᆞ야 (석보 13: 38)

☞ 方便은 權變이라 ᄒᆞᄃᆞᆺ ᄒᆞᆫ 마리니 諸法을 工巧히 ᄲᅢ 機ᄅᆞᆯ 조차 衆生ᄋᆞᆯ 利케 ᄒᆞᆯ씨라. 權은 저ᇫᆞᆫ ᄃᆞ림쇠니 ᄒᆞᆫ 고대 固執디 아니ᄒᆞ야 나ᅀᅩ 믈림ᄒᆞ야 맛긔ᄒᆞᆯ씨오 變은 長常 固執디 아니ᄒᆞ야 맛긔 고틸씨라.(석보 13: 38) *ᄃᆞ림쇠

◉ 諸着ᄋᆞᆯ 여희의 ᄒᆞ노니 (석보 13: 38)

☞ 諸着은 여러가짓 브티 ᄃᆞᆼ긘 거시니 굴그면 六塵엣 業이오 혀그면 二乘法이라 六塵은 여슷 가짓 드트리니 여슷 가짓 불휘예셔 니러나아 眞實ㅅ 智慧ᄅᆞᆯ 드틀 무틸씨 드트리라 ᄒᆞ니라. 여슷 가짓 불휘ᄂᆞᆫ 눈과 귀와 고콰 혀와 몸과 ᄠᅳᆮ괘니 凡夫ㅣ 妄量ᄋᆞ로 자바 實ᄒᆞᆫ 것만 너겨 種種 모딘 罪業이 일로 브터 날씨 불휘라 ᄒᆞ니라. 여슷 가짓 드트른 누네 빗봄과 귀예 소리 드롬과 고해 내 마톰과 이베 맛 머굼과 모매 雜거시 범그룸과 ᄠᅳ데 法 이숌괘라. 빗과 소리와 香과 맛과 모매 범그는 것과 法과ᄋᆡ 됴ᄒᆞ며 구주믈 아로미 六識이니 六塵과 六根과 六識과ᄅᆞᆯ 모도아 十八世界라 ᄒᆞᄂᆞ니 各各 제여고밀씨 界라 ᄒᆞ니라. 香은 ᄒᆞᆫ갓 옷곳ᄒᆞᆫ 것분 아니라 고ᄒᆞ로 맏ᄂᆞᆫ 거슬 다 니르니라.(석보 13: 38-39) *혀그다(혀글다)/ *내(냄새)/ 범그르다/제여곰+일씨/ 분(ᄲᅮᆫ)/옷곳ᄒᆞ다

◉ 엇뎨어뇨 ᄒᆞ란ᄃᆡ 如來ᄂᆞᆫ 方便 波羅密왜 다 ᄀᆞᄌᆞᆯ씨니라.「方便 波羅密은 權變엣 智慧시니라. 知見은 아ᄅᆞ시며 보샤미니 知見 波羅密은 眞實ㅅ 智慧시니라.」(석보 13: 39)

◉ 舍利弗아 如來ㅅ 知見이 크고 기펴 四無量과 (석보 13: 39)

☞ 四無量은 네 가짓 그지 업슨 德이니 慈無量은 衆生 어엿비 너겨 救호미 그지 업슬시오 喜無量은 衆生ᄋᆡ 그에 즐거ᄇᆞᆫ 일 주미 그지 업슬씨오 捨無量은 衆生ᄋᆡ 그에 내것 ᄇᆞ려 恩惠 주미 그지 업슬씨라. (석보 13: 39)

◉ 四無礙와 「四無礙ᄂᆞᆫ 네 가짓 마ᄀᆞᆫᄃᆡ 업수미니 이 네가짓 辨才라」 十方과 四無畏와 禪定과 解脫와 三昧예 다 기피 드러 一切 녜 업던 法을 일웻ᄂᆞ니라.(석보 13: 39-40)

◉ 舍利弗아 如來 求 種種ᄋᆞ로 ᄀᆞᆯ히야 諸法을 工巧히 닐오ᄃᆡ 말ᄊᆞ미 보ᄃᆞ라바 모ᄃᆞᆫ ᄆᆞᅀᆞᄆᆞᆯ 즐기긔 ᄒᆞᄂᆞ니 모도아 니르건댄 無量無邊ᄒᆞᆫ 녜 업던 法을 부톄 다 일웻ᄂᆞ니라.(석보 13: 40)

◉ 말라 舍利弗아. 다시 니르디 마라ᅀᅡ ᄒᆞ리니 엇뎨어뇨 ᄒᆞ란ᄃᆡ 부톄 일웻ᄂᆞᆫ 第一엣 쉽디 몯ᄒᆞᆫ

아디 어려ᄫᅳᆫ 法은 부톄ㅅ 製法의 實相ᄋᆞᆯ ᄉᆞᄆᆞᆺ 아ᄂᆞ니라.(석보 13: 40)

◉ 製法이라 ᄒᆞᆫ 거슨 이런 相과 이런 性과 이런 體와 이런 力과 이런 作과 이런 因과 이런 緣과 이런 果와 이런 報와 이런 本末 究竟ᄃᆞᆯ히라.(석보 13: 40-41)

☞ 相은 양ᄌᆡ니 봄 거시 相이오 相ㅅ 根源이 性이오 體ᄂᆞᆫ 읏드미니 얼굴 ᄀᆞᄌᆞᆯ씨 體오 力은 히미니 됴히 내야 ᄡᅳᄂᆞᆫ 거시 力이오 作은 니러날씨니 아못 이리어나 잢간 니러날씨 作이오 처섬 비릇ᄂᆞᆫ 거시 因이오 因ᄋᆞᆯ 도ᄫᅳᆯ씨 緣이오 緣이 니그면 果ㅣ오 果애 마초 ᄃᆞ왼 거시 報ㅣ오 本末은 믿과 긑괘니 처섬과 乃終괘 本末이오 ᄀᆞ장 다ᄋᆞᆯ씨 究竟이라.(석보 13: 41)

◉ 이 法이 뵈도 몯ᄒᆞ며 니르도 몯ᄒᆞ리니 부텻 弟子 一切 漏ㅣ 다아 最後身에 住ᄒᆞ야도 그 히미 이긔디 몯ᄒᆞ리니 (석보 13: 41)

☞ 漏ㅣ 디은 最後身은 二乘엣 果報ㅣ니 이 法은 二乘法이 아닐씨 그 히미 몯 이긔리라.(석보 13: 41)

◉ 비록 世間애 ᄀᆞᄃᆞᆨᄒᆞ니 다 舍利弗이 ᄀᆞᆮᄒᆞ야 ᄆᆞᆞᆶ ᄀᆞ장 모다 ᄉᆞ량ᄒᆞ야도 부텻 智慧ᄅᆞᆯ 몯내 알리며 正히 十方애 ᄀᆞᄃᆞᆨᄒᆞ니 다 舍利弗이 ᄀᆞᆮᄒᆞ며 ᄯᅩ 녀ᄂᆞᆫ 弟子ᄃᆞᆯ히 ᄯᅩ 十方 佛刹애 ᄀᆞᄃᆞᆨᄒᆞ야 ᄆᆞᆞᆶ ᄀᆞ장 모다 ᄉᆞ량ᄒᆞ야도 ᄯᅩ 모리리어며 辟支佛이 ᄯᅩ 十方애 ᄀᆞᄃᆞᆨᄒᆞ야 모다 ᄒᆞᆫ ᄆᆞᆞᆶᄉᆞᄆᆞᆶ로 無量劫애 부텻 眞實ㅅ 智慧ᄅᆞᆯ ᄉᆞ량ᄒᆞ야도 져고마도 모ᄅᆞ리어며 新發意 菩薩이 「新發意ᄂᆞᆫ 새 發心이라」 無數佛을 供養ᄒᆞᄉᆞ바 믈읫 ᄠᅳ들 ᄉᆞᄆᆞᆺ 알며 (석보 13: 41-42)

◉ ᄯᅩ 잘 說法ᄒᆞᄂᆞ니ᄃᆞᆯ히 十方佛刹애 ᄀᆞᄃᆞᆨᄒᆞ야 ᄒᆞᆫ ᄆᆞᆞᆶᄉᆞᄆᆞᆶ로 恒河沙劫에 다 모다 ᄉᆞ량ᄒᆞ야도 부텻 智慧ᄅᆞᆯ 모ᄅᆞ리어며 므르디 아니ᄒᆞᄂᆞᆫ 菩薩ᄃᆞᆯ히 그 數ㅣ 恒沙 ᄀᆞᆮᄒᆞ야 ᄒᆞᆫ ᄆᆞᆞᆶᄉᆞᄆᆞᆶ로 모다 ᄉᆞ량ᄒᆞ야도 ᄯᅩ 모ᄅᆞ리라.(석보 13: 42)

◉ 나옷 이 相ᄋᆞᆯ 알오 十方佛도 아ᄅᆞ시ᄂᆞ니라.(석보 13: 43)

◉ 그 ᄠᅴ 大衆中에 聲聞엣 阿若憍陳如等 一千二百 사ᄅᆞᆷ과 聲聞 辟支佛에 發心ᄒᆞᆫ 比丘比丘尼 優婆塞優婆夷 各各 너교ᄃᆡ 世尊이 엇던 젼ᄎᆞ로 方便을 브즈러니 讚歎ᄒᆞ샤 니ᄅᆞ샤ᄃᆡ 부텻 法이 甚히 기퍼 니르논 마리 ᄠᅳᆮ 아로미 어려ᄇᆞᆨ 一切 聲聞 辟支佛이 몯 미츠리라 ᄒᆞ거시뇨.(석보 ㅂ3: 43)

◉ 부텨 니르시논 解脫ᄋᆞᆯ 우리도 得ᄒᆞ야 涅槃애 다ᄃᆞ론가 ᄒᆞ다소니 오ᄂᆞᆳ날 이 ᄠᅳ들 몯 아ᅀᅡᄫᆞ리로다.(석보 13: 43)

그 ᄠᅴ 舍利弗이 四衆의 疑心도 알오 저도 몰라 부텻긔 ᄉᆞᆯ보ᄃᆡ 世尊하 엇던 因緣으로 諸佛ㅅ 第一方便 甚히 기픈 微妙ᄒᆞᆫ 아디 어려ᄇᆞᆫ 法을 브즈러니 讚嘆ᄒᆞ시ᄂᆞ니잇고.(석보 13: 44)

◉ 내 아래브터 부텻긔 이런 마ᄅᆞᆯ 몯 듣ᄌᆞᄫᆞ며 四衆ᄃᆞᆯ토 다 疑心ᄒᆞᄂᆞ니 世尊하 펴아 니르쇼셔.(석보 13: 44)

◉ 그 ᄠᅴ 부톄 舍利弗ᄃᆞ려 니ᄅᆞ샤ᄃᆡ 말라 말라 다시 니르디 마라ᅀᅡ ᄒᆞ리니 이 일옷 니르면 一切

天人이 다 놀라아 疑心ᄒᆞ리라.(석보 13: 44)

◉ 舍利弗이 다시 ᄉᆞᆯ보ᄃᆡ 世尊하 願ᄒᆞᆫ든 니르쇼셔 願ᄒᆞᆫ든 니르쇼셔.(석보 13: 44)

◉ 엇뎨어뇨 ᄒᆞ란ᄃᆡ 이 會옛 無數 百千萬億 阿僧祇衆生이 아래 諸佛을 보ᄉᆞᄫᅡ 諸根이 놀캅고 智慧 ᄇᆞᆯ가 부텻 마ᄅᆞᆯ 듣ᄌᆞᄫᆞ면 어루 恭敬ᄒᆞ야 信ᄒᆞᄉᆞ보리이다.(석보 13: 45)

◉ 부톄 ᄯᅩ 舍利弗을 말이샤ᄃᆡ ᄒᆞ다가 이 이ᄅᆞᆯ 니르면 一體 世間앳 天人阿修羅ㅣ 다 놀라아 疑心ᄒᆞ며 增上 慢 比丘ㅣ 큰 구데 ᄠᅥ러디리라.(석보 13: 45)

☞ 큰 구데 ᄠᅥ러디다 호ᄆᆞᆫ 惡道애 ᄠᅥ디다 ᄒᆞ닛ᄒᆞᆫ 마리라.(석보 13: 45)

◉ 舍利弗이 다시 ᄉᆞᆯ보ᄃᆡ 世尊하 願ᄒᆞᆫ든 니르쇼셔 願ᄒᆞᆫ든 니르쇼셔.(석보 13: 45)

◉ 이 모든 中에 우리 ᄒᆞᆫ가짓 百千萬億 사ᄅᆞ미 世世예 ᄒᆞ마 부텨를 좃ᄌᆞᄫᅡ 敎化ᄅᆞᆯ 受ᄒᆞᄉᆞᄫᅡ 잇ᄂᆞ니 無上 兩足 尊하 第一法을 니르쇼셔.(석보 13: 45)

☞ 兩足은 두 가짓 이리 足ᄒᆞ실씨니 福과 智慧왜 다 足ᄒᆞ실씨라.(석보 13: 45)

◉ 이 사ᄅᆞᆷᄃᆞᆯ히 당다이 恭敬ᄒᆞ야 信ᄒᆞᄉᆞᄫᅡ 긴 바ᄆᆡ 便安ᄒᆞ야 됴ᄒᆞᆫ 이리 하리이다.(석보 13: 46)

◉ 世尊이 舍利弗ᄃᆞ려 니ᄅᆞ샤ᄃᆡ 네 브즈러니 세버늘 請하거니 어드리 아니니르료.(석보 13: 46)
* ㅡ번

◉ 네 차려 드르라. 내 ᄀᆞᆯᄒᆞ야 닐오리라.(석보 13: 46)

◉ 이 말 니르실쩌긔 모든 中에 比丘比丘尼 優婆塞優婆夷 五千 사ᄅᆞ미 座로셔 니러 부텻긔 禮數ᄒᆞᄉᆞᆷ고 믈러나니 엇뎨어뇨 ᄒᆞ란ᄃᆡ 이 무리 罪 깁고 增上慢ᄒᆞ야 몯 得혼 이ᄅᆞᆯ 得호라 너겨 이런 허므리 이실ᄊᆡ 잇디 몯ᄒᆞ거늘 世尊이 ᄌᆞᆷᄌᆞᆷᄒᆞ샤 말이디 아니ᄒᆞ시니라.(석보 13: 46)

◉ 그 ᄢᅴ 부톄 舍利弗ᄃᆞ려 니ᄅᆞ샤ᄃᆡ 이제ᅀᅡ 이 모든 사ᄅᆞ미 ᄂᆞ외야 가지와 닙괘 업고 다 正ᄒᆞᆫ 여르미 잇ᄂᆞ니 舍利弗아 이런 增上 慢ᄒᆞᆫ 사ᄅᆞᄆᆞᆫ 믈러가도 됴ᄒᆞ니라.(석보 13: 46-47)

☞ 가지와 닙과ᄂᆞᆫ 사오나ᄇᆞᆫ 사ᄅᆞᄆᆞᆯ 가ᄌᆞᆯ비시고 正ᄒᆞᆫ 여르믄 德 인 사ᄅᆞᄆᆞᆯ 가ᄌᆞᆯ비시니라.(석보 13: 47)

◉ 네 이대 드르라. 너 위ᄒᆞ야 닐오리라.(석보 13: 47)

◉ 舍利弗이 ᄉᆞᆯ보ᄃᆡ 엥올ᄒᆞ시이다.(석보 13: 47)

◉ 世尊하 願ᄒᆞᆫ든 듣ᄌᆞᆸ고져 ᄒᆞ노이다.(석보 13: 47)

◉ 부톄 니ᄅᆞ샤ᄃᆡ 이러ᄒᆞᆫ 妙法은 諸佛 如來 時節이어ᅀᅡ 니르시ᄂᆞ니 優曇鉢華 時節이어ᅀᅡ ᄒᆞᆫ 번

뵈요미 곧ᄒᆞ니라.(석보 13: 47)

☞ 優曇鉢은 優曇鉢羅ㅣ라.(석보 13: 47)

◉ 舍利弗아 너희 부텻 마ᄅᆞᆯ 고디 드르라. 거츠디 아니ᄒᆞ니라.(석보 13: 47)

◉ 舍利弗아 諸佛이 맛당ᄒᆞᆯ 야ᄋᆞᆯ 조차 說法ᄒᆞ시논 ᄠᅳᆮ 아로미 어려ᄇᆞ니 엇데어뇨 ᄒᆞ란ᄃᆡ 내 無數 方便과 種種 因緣과 譬喩엣 말ᄊᆞᄆᆞ로 諸法을 너펴 니르노니 이 法은 오직 諸佛이ᅀᅡ 아ᄅᆞ시리라.(석보 13: 48)

◉ 엇데어뇨 ᄒᆞ란ᄃᆡ 諸佛 世尊이 다ᄆᆞᆫ ᄒᆞᆫ 큰 일 因緣으로 世間애 나시ᄂᆞ니 舍利弗아 엇뎨 諸佛 世尊이 다ᄆᆞᆫ ᄒᆞᆫ 큰 일 因緣으로 世間애 나시ᄂᆞ다 ᄒᆞ거뇨.(석보 13: 48)

☞ ᄒᆞᆫ 큰 이른 一乘 妙法이니 妙法이 둘 아니며 세 아닐ᄊᆡ ᄒᆞ나히라 ᄒᆞ고 죠고맛 因緣이 아닐ᄊᆡ 큰 이리라 ᄒᆞ니라.(석보 13: 48)

◉ ᄒᆞ란ᄃᆡ 諸佛 世尊이 衆生ᄋᆞᆯ 부텻 知見을 여러 淸淨을 得케 호려 ᄒᆞ샤 世間애 나시며 衆生ᄋᆡ 그에 부텻 知見을 뵈요리라 ᄒᆞ샤 世間애 나시며 衆生이 부텻 知見道애 들에 호려 ᄒᆞ샤 世間애 나시ᄂᆞ니 舍利弗아 이러호미 諸佛이 ᄒᆞᆫ 큰 일 因緣으로 世間애 나시논디라.(석보 13: 48-49)

◉ 부톄 舍利弗ᄃᆞ려 니ᄅᆞ샤ᄃᆡ 諸佛 如來 다ᄆᆞᆫ 菩薩ᄋᆞᆯ 敎化ᄒᆞ샤 믈읫 ᄒᆞ시논 이리 샹녜 ᄒᆞᆫ 이리라. (석보 13: 49)

◉ 오직 부텻 知見으로 衆生ᄋᆞᆯ 뵈여 알외시ᄂᆞ니 如來 다ᄆᆞᆫ ᄒᆞᆫ 佛乘ᄋᆞ로 衆生 위ᄒᆞ야 說法ᄒᆞ시딥 이 녀나ᄆᆞᆫ 乘이 둘히며 세히 업스니라.(석보 13: 49)

◉ 舍利弗아 十方 諸佛ㅅ 法이 다 이러ᄒᆞ시니라.(석보 13: 49)

☞ 이ᄂᆞᆫ 十方앳 道理 ᄒᆞᆫ가지론 고ᄃᆞᆯ 니르시니라. (석보 13: 50)

◉ 舍利弗아 「일로 아래ᄂᆞᆫ 三世옛 道理 ᄒᆞᆫ가지론 주를 니르시니라.三世ᄂᆞᆫ 過去와 未來와 現在왜니 過去는 디나건 劫이오 未來ᄂᆞᆫ 아니왯ᄂᆞᆫ 劫이오 現在ᄂᆞᆫ 現ᄒᆞ야 잇ᄂᆞᆫ 劫이라.」 디나거신 諸佛도 無量無數 方便과 種種 因緣과 譬喩엣 말ᄊᆞᄆᆞ로 衆生 위ᄒᆞ야 諸法을 불어 니르더시니 이 法도 다 ᄒᆞᆫ 佛乘 이론 젼ᄎᆞ로 이 衆生ᄃᆞᆯ히 諸佛ᄭᅴ 法 듣ᄌᆞᄫᅡ 乃終에 다 一切 種智ᄅᆞᆯ 得ᄒᆞ리니 아뫼나 衆生이 過去 諸佛 맛나ᅀᆞᄫᅡ 六波羅密ᄋᆞᆯ 듣ᄌᆞᄫᅡ 福과 智慧와 닷곤 사ᄅᆞᆷᄃᆞᆯ히 다 ᄒᆞ마 佛道ᄅᆞᆯ 일우며(석보 13: 50)

☞ 布施와 持戒와 忍辱과 精進과ᄂᆞᆫ 福이오 禪定과 智慧와ᄂᆞᆫ 智慧라 이ᄂᆞᆫ 菩薩 行ᄒᆞ던 衆生ᄋᆞᆯ 니르시니라.(석보 13: 51)

◉ 이 滅度ᄒᆞ신 後에 아뫼나 ᄆᆞᅀᆞᄆᆞᆯ 보ᄃᆞ라ᄇᆡ 가지던 사ᄅᆞᆷᄃᆞᆯ토 다 ᄒᆞ마 佛道이 滅度ᄒᆞ신 後에 舍利供養ᄒᆞᄉᆞᆸ던 사ᄅᆞ미 萬億塔ᄋᆞᆯ 셰오 七寶로 조히 ᄭᅮ미거나 돌히며 栴檀香이며 沈水香이며 木櫁이며 녀나ᄆᆞᆫ 남기며 「木櫁은 香남기라」 甓이며 디새며 ᄒᆞᆯᄀᆞ로 塔ᄋᆞᆯ 이르ᄉᆞᆸ거나 아히 노ᄅᆞᆺᄒᆞ야 몰애

모도아 塔을 밍ᄀᆞ라도 이런 사ᄅᆞᆷ들히 다 ᄒᆞ마 佛道를 일우며 아뫼나 사ᄅᆞ미 부텨 위ᄒᆞᄉᆞ바 여러 像을 밍ᄀᆞᄉᆞᄇᆞ니도 다 ᄒᆞ마 佛道를 일우며 七寶로 일우ᅀᆞᆸ거나 구리어나 鑞이어나 鐵이어나 남기어나 흘기어나 갓블와 옷과 뵈와로 佛像을 ᄭᅮ미ᄉᆞ바도 이런 사ᄅᆞᆷ들히 다 ᄒᆞ마 佛道를 일우며 彩色ᄋᆞ로 佛像을 그리ᄉᆞ보ᄃᆡ 제ᄒᆞ거나 ᄂᆞ믈 시겨 ᄒᆞ야도 다 ᄒᆞ마 佛道를 일우며 아히 노ᄅᆞᆺᄒᆞ야 草木이어나 부디어나 손토보뢰어나 佛像을 그리ᅀᆞᆸ더니도 다 ᄒᆞ마 佛道를 일우며 아뫼나 사ᄅᆞ미 塔이며 像을 華香幡盖로 恭敬ᄒᆞ야 供養ᄒᆞᅀᆞᆸ거나 붑티며 角貝 불며 蕭와 笛과 琴과 箜篌와 琵琶와 鐃와 銅鈸와 이로ᄐᆞᆺᄒᆞᆫ 한 貴ᄒᆞᆫ 소리로 供養ᄒᆞᅀᆞᆸ거나 (석보 13: 51-52)

☞ 角은 ᄲᅢ리오 貝ᄂᆞᆫ 골와래래 구블호미 ᄲᆞᆯᄀᆞᆯᄒᆞᆯᄊᆡ 角貝라 ᄒᆞ니라. 蕭ᄂᆞᆫ 효ᄀᆞᆫ대를 엿거 부는 거시라. 笛은 뎌히라. 箜篌는 모기 구블ᄒᆞ고 鳳ᄋᆡ 머리 밍ᄀᆞᆯ오 시울 한 거시라. 鐃ᄂᆞᆫ 쥐엽쇠라. 銅鈸은 바래라.(석보 13: 53) ＊ 골와래/ 효ᄀᆞᆫ대(?)/ 구블ᄒᆞ다/ 시울/ 쥐엽쇠

◉ 깃분 ᄆᆞᅀᆞᄆᆞ로 부텻 德을 놀애 지ᅀᅥ 브르ᄉᆞ바 비록 ᄒᆞᆫ 죠고맛 고리라도 다 ᄒᆞ마 佛道를 일우며 아뫼나 사ᄅᆞ미 어즈러ᄇᆞᆫ ᄆᆞᅀᆞ미라도 ᄒᆞᆫ 낫고ᄌᆞ로 그륜 像을 供養ᄒᆞᅀᆞᆸ거나 저ᅀᆞᆸ거나 合掌ᄒᆞᅀᆞᆸ거나 ᄒᆞᆫ 소ᄂᆞᆯ 드ᅀᆞᆸ거나 ᄀᆞᆺ간 머리를 수리ᅀᆞᆸ거나 ᄒᆞ야 像을 供養ᄒᆞᄉᆞᄇᆞ며 塔廟 中에 「廟ᄂᆞᆫ 양ᄌᆡ니 祖上 양ᄌᆞ 겨신 ᄯᅡ히라. 西天 마래 塔이라 ᄒᆞᄂᆞ니 부텻 舍利 겨신 ᄯᅡ히라.」 드러 ᄒᆞᆫ 번 南無佛ᄒᆞ야 일ᄏᆞᆫ즙더니도 다 ᄒᆞ마 佛道를 일우며 過去 諸佛이 世間애 겨시거나 滅度ᄒᆞ신 後ㅣ어나 이 法 듣ᄌᆞᄇᆞᆫ 사ᄅᆞ미 다 ᄒᆞ마 佛道를 일우니라.(석보 13: 53-54)

☞ 舍利 供養 브터셔 잇ᄀᆞ자ᄋᆞᆫ 人天行을 니르시니라 (석보 13: 54)

◉ 舍利弗아 未來옛 諸佛이 世間애 나샤도 ᄯᅩ 無量 無數 方便과 種種 因緣과 譬喩엣 말ᄊᆞᄆᆞ로 衆生 위ᄒᆞ야 製法을 불어 니르시리니 이 法도 다 ᄒᆞᆫ 佛乘이론 젼ᄎᆞ로 이 衆生ᄃᆞᆯ히 부텻긔 法 듣ᄌᆞ바 乃終에 다 一切 種智를 得ᄒᆞ리어며 (석보 13: 54)

◉ 舍利弗아.舍利弗아 現ᄒᆞ야 겨신 十方앳 無量 百千萬億 佛土中엣 諸佛 世尊도 ᄯᅩ 無量 無數 方便과 種種 因緣과 譬喩엣 말ᄊᆞᄆᆞ로 衆生 위ᄒᆞ야 諸法을 불어 니르시ᄂᆞ니 이 法도 다 ᄒᆞᆫ 佛乘이론 젼ᄎᆞ로 이 衆生ᄃᆞᆯ히 부텻긔 法 듣ᄌᆞ바 乃終에 다 一切 種智를 得ᄒᆞ리라.(석보 13: 54-55)

◉ 舍利弗아 이러호미 諸佛ᄃᆞᆯ히 다ᄆᆞᆫ 菩薩을 敎化ᄒᆞ샤 부텻 知見으로 衆生을 뵈오져 ᄒᆞ시며 부텻 知見으로 衆生을 알외오져 ᄒᆞ시며 衆生을 부텻 知見에 드리고져 ᄒᆞ시ᄂᆞᆫ 젼ᄎᆡ론 고디라.(석보 13: 55)

◉ 舍利弗아 나도 이 ᄀᆞᆮᄒᆞ야 衆生ᄃᆞᆯ히 種種欲애 기피 貪着ᄒᆞᆫ 주를 아라 「흐린 業을 브트면 五塵을 欲ᄒᆞ야 ᄃᆞ오매 貪着ᄒᆞ고 조ᄒᆞᆫ 業을 브트면 小果를 欲ᄒᆞ야 二乘에 貪着ᄒᆞᄂᆞ니라」 제 本性을 조ᄎᆞ 種種 因緣과 譬喩엣 말ᄊᆞᆷ과 方便으로 說法ᄒᆞ노니 이 다 ᄒᆞᆫ 佛乘 一切 種智를 得게 ᄒᆞ논 젼ᄎᆡ라.(석보 13: 55-56)

◉ 舍利弗아 十方 世界예 二乘도 업거니 ᄒᆞ믈며 세히 이시리여.(석보 13: 56)

◉ 舍利弗아 諸佛이 五濁惡世예 나샤 衆生ᄋᆡ ᄠᅴ 만ᄒᆞ야 앗기며 貪ᄒᆞ며 ᄂᆞᆷ믜며 새오ᄆᆞ로 됴티 몯ᄒᆞᆫ 根源을 일울ᄊᆡ 諸佛이 方便力으로 ᄒᆞᆫ 佛乘을 가져 이셔 세헤 ᄀᆞᆯᄒᆞ야 니르시ᄂᆞ니라.(석보 13: 56)

◉ 舍利弗아 아라라. 내 부텻 누느로 六道 衆生을 본딘 艱難코 언극 ᄃᆞᄫᅵ야 福과 智慧왜 업서「천량 업슨 艱難이 아니라 福이 업슬씨 艱難타 ᄒᆞ니라」ᄌᆞᆺ사릿 險ᄒᆞᆫ 길헤 드러 受苦ㅣ 니ᅀᅥ 긋디 몯ᄒᆞ야 五欲애 기티 貪着ᄒᆞ야 어득ᄒᆞ야 보디 몯ᄒᆞ야 부텨와 受苦 그츨 法을 求티 아니ᄒᆞ고 邪曲ᄒᆞᆫ 보매 기피 드러 이실씨 이런 衆生을 위ᄒᆞ야 大慈悲心을 니르와 도라 내 처ᅀᅥᆷ 道場애 안자 세 닐웻 ᄉᆞᄉᆡ를 ᄉᆞᄉᆞᆼᄒᆞ요ᄃᆡ 내 得혼 智慧ᄂᆞᆫ 微妙ᄒᆞ야 第一이언마ᄅᆞᆫ 衆生이 諸根이 鈍ᄒᆞ야 미혹호매 즘탹ᄒᆞ야 잇ᄂᆞ니 이런 사ᄅᆞᆷ돌ᄒᆞᆯ 어드리 濟渡ᄒᆞ려뇨.(석보 13: 56-57)

◉ ᄒᆞ다니 그 ᄢᅴ 梵王과 帝釋과 四天王과 大自在川과 녀나ᄆᆞᆫ 天衆眷屬百千萬이 나ᄅᆞᆯ 轉法ᄒᆞ고라 請ᄒᆞ거늘 내 너교ᄃᆡ 다ᄆᆞᆫ 佛乘ᄲᅮᆫ 讚嘆ᄒᆞ면 衆生이 고디 듣디 아니ᄒᆞ야 惡道애 ᄠᅥ러디리니 ᄎᆞᆯ히 說法마오.(석보 13: 57-58)

◉ 涅槃애 어셔 드사 ᄒᆞ리로다 ᄒᆞ다가 다시 아랫 부텨 ᄒᆞ더신 方便力을 念ᄒᆞ야 내 이제 得혼 道理도 三乘ᄋᆞᆯ 닐어ᅀᅡ ᄒᆞ리로다 ᄒᆞ다니 이 ᄆᆞᅀᆞᆷ ᄉᆞ랑ᄒᆞᆶ 時節에 十方佛이 다 現ᄒᆞ야 니ᄅᆞᅀᅡᄃᆡ 됴ᄒᆞᆯ 쎠.(석보 13: 58) *ᄲᅮᆫ /ᄒᆞ다니

◉ 釋迦文 第一엣 導師ㅣ 無上法을 得ᄒᆞ야 一切不을 조차 方便力을 ᄡᅳᄂᆞ니 우리도 다 微妙ᄒᆞᆫ 第一法을 得ᄒᆞ야 衆生 위ᄒᆞ야 方便으로 三乘ᄋᆞᆯ ᄀᆞᆯᄒᆞ야 니르노니 비록 三乘ᄋᆞᆯ 닐어도 다ᄆᆞᆫ 菩薩ᄀᆞ ᄅᆞ쵸미라 ᄒᆞ시더라.(석보 13: 58-59)

☞ 衆生 위ᄒᆞ야 비록 三乘을 니ᄅᆞ실ᄲᅮᆫ뎡 實은 一乘ᄲᅮ니라.(석보 13: 59) *ᄲᅮᆫ(ᄲᅮ니라)

◉ 舍利弗아 내 조ᄒᆞᆫ 微妙ᄒᆞᆫ 소리 듣ᄌᆞᆸ고 南無 諸佛ᄒᆞ야 일ᄏᆞᆫᄌᆞᆸ고 ᄯᅩ 너교ᄃᆡ 내 諸佛 니ᄅᆞᅀᆞᆷ ᄀᆞ티 좃ᄌᆞᄫᅡ 호리라 ᄒᆞ고 즉자히 波羅柰예 가 方便力으로 다ᄉᆞᆺ 比丘 위ᄒᆞ야 說法호니 이ᄅᆞᆯ 轉法輪이라 ᄒᆞᄂᆞ니 곧 涅槃이라 혼 말ᄊᆞᆷ과 阿羅漢이 이시니 法과 僧과 ᄀᆞᆯᄒᆞ야 일훔 지흐니라.(석보 13: 59)

☞ 처멈 道場애 안ᄌᆞ시니 부톄라 혼 일후미 겨시고 轉法ᄒᆞ야 涅槃ᄋᆞᆯ 니르시니 法이라 혼 일후미 잇고 憍陳如를 濟渡ᄒᆞᅀᅣ 羅漢이 ᄃᆞ외니 僧이라 혼 일후미 이시니라.(석보 13: 59)

◉ 오라건 먼 劫브터 涅槃ㅅ 法을 讚嘆ᄒᆞ야 뵈야 죽사릿 受苦ㅣ ᄉᆞᄆᆞᆺ 업스리라 ᄒᆞ야 내 샹녜 이리 니르다니「이ᄂᆞᆫ 方便으로 니르시논 涅槃이라」舍利弗아 아라라. 내 佛子ᄃᆞᆯᄒᆞᆯ 본딘 다 恭敬ᄒᆞ논 ᄆᆞᅀᆞᄆᆞ로 부텨ᄭᅴ 오니 아래브터 諸佛을 좃ᄌᆞᄫᅡ 方便 說法을 듣ᄌᆞᄫᅡ 이실씨 내 너교ᄃᆡ 如來ᄂᆞᆫ 부텻 智慧 닐오ᄆᆞᆯ 위ᄒᆞ야 냇ᄂᆞ니 이제 正히 그 時節이로다. (석보 13: 60)

☞ 이ᄂᆞᆫ 佛子ᄃᆞᆯ히 根機니 군고ᄃᆞᆯ 보시고 眞實ㅅ 一乘ᄋᆞᆯ 나토오리라 ᄒᆞ시논 ᄠᅳ디라.(석보 13: 60)

◉ 舍利弗아 아라라 菩薩ᄃᆞᆯ히 그에 方便을 ᄇᆞ리고 無上道ᄅᆞᆯ 니르노니 菩薩이 이 法 드르면 疑心ᄋᆞᆯ 다 덜며 一千 二百羅漢도 다 부톄 ᄃᆞ외리라.(석보 13: 60)

◉ 三世 諸佛 說法ᄒᆞ시논 트리니 나도 이 ᄀᆞᆮᄒᆞ야 ᄀᆞᆯ히욤 업슨 法을 닐오리라.(석보 13: 61)

◉ 舍利弗아 ᄒᆞ다가 내 弟子ㅣ 제 너교ᄃᆡ 阿羅漢 辟支佛이로라 ᄒᆞ야 諸佛 如來ᄋᆡ 다ᄆᆞᆫ 菩薩ᄲᅮᆫ 敎

化ᄒᆞ시논 이를 모ᄅᆞ면 부텻 弟子ㅣ 아니며 阿羅漢 辟支佛이 아니니라.(석보 13: 61) *샫

◉ 또 舍利弗아 이 比丘比丘尼ᄃᆞᆯ히 제 너교ᄃᆡ ᄒᆞ마 阿羅漢ᄋᆞᆯ 得ᄒᆞ야 이 最後身이며 究竟 涅槃이라 ᄒᆞ야 ᄂᆞ외야 阿耨多羅三藐 三菩提ᄅᆞᆯ 求티 아니ᄒᆞ면 당다이 이 무른 다 增上慢人이론 고ᄃᆞᆯ 아롫디니 엇뎨어뇨 ᄒᆞ른ᄃᆡ 眞實로 阿羅漢ᄋᆞᆯ 得ᄒᆞ면 부텨 滅度ᄒᆞᆫ 後에 알ᄑᆡ 부텨 업슨 적 外예 이 法 信티 아니홇 줄 업스니 (석보 13: 61-62) * 줄

◉ 엇뎨어뇨 ᄒᆞ란ᄃᆡ 부텨 滅度ᄒᆞᆫ 後에ᄂᆞᆫ 이 經을 닐거 ᄠᅳᆫ 알리 쉽디 몯거니와 ᄒᆞ다가 다ᄅᆞᆫ 부텨ᄅᆞᆯ 맛나ᅀᆞᄫᆞ면 이 法中에셔 ᄉᆞᄆᆞᆺ 아로ᄆᆞᆯ 得ᄒᆞ리라.(석보 13: 62)

◉ 舍利弗아 너희ᄃᆞᆯ히 ᄒᆞᆫ ᄆᆞᅀᆞᄆᆞ로 信解ᄒᆞ야 부텻 마ᄅᆞᆯ 바다 디니라. (석보 13: 62)

◉ 諸佛 如來 거즛말 업스시니 녀나ᄆᆞᆫ 乘이 업고 오직 ᄒᆞᆫ 佛乘이라 舍利弗아 아라라 諸佛ㅅ 法이 이러ᄒᆞ야 萬億 方便으로 맛당ᄒᆞᆫ 고ᄃᆞᆯ 조차 說法ᄒᆞ시ᄂᆞ니 너희 ᄒᆞ마 諸佛ㅅ 方便을 아라 ᄂᆞ외야 疑心 업스니 ᄆᆞᅀᆞ매 ᄀᆞ장 깃거 당다이 부텨 욇 고ᄃᆞᆯ 알라.(석보 13: 62-63)

☞ 잇ᄀᆞ자ᄋᆞᆫ 方便品이니 알ᄑᆡ ᄒᆞᆫ 光明이 東녀그로 비취시니 微妙ㅅ 읏드미 ᄒᆞ마 ᄀᆞᆺ거신 마ᄅᆞᆫ 즘즘ᄒᆞ야 알며 말 아니ᄒᆞ야 信호ᄆᆞᆫ ᄠᅴ 므거ᄇᆞᆫ 衆生ᄋᆡ 몯 미출 이릴씨 모로매 말ᄊᆞᄆᆞᆯ 假借ᄒᆞ야 方便으로 여러 뵈샤ᅀᅡ ᄒᆞ릴씨 方便品이라 ᄒᆞ니라.(석보 13: 63)

<釋譜詳節 第十三 > 끝

<釋譜詳節 第十九 >

◉ 그 저긔 彌勒 菩薩 摩訶薩이 부텨ᄭᅴ ᄉᆞᆯᄫᆞ샤ᄃᆡ 世尊하 善男子 善女人이 이 法華經 듣고 隨喜ᄒᆞᆫ 사ᄅᆞᄆᆞᆫ 福ᄋᆞᆯ 언매나 得ᄒᆞ리잇고.(석보 19: 1)

◉ 부톄 니ᄅᆞ샤ᄃᆡ 阿逸多아 如來 滅度ᄒᆞᆫ 後에 比丘比丘尼 優婆塞優婆夷와 녀나ᄆᆞᆫ 智慧ᄅᆞᄫᆡᆫ 사ᄅᆞ미 얼우니며 져므니 「優婆塞ᄂᆞᆫ 淸淨ᄒᆞᆫ 남지니오 優婆夷ᄂᆞᆫ 淸淨ᄒᆞᆫ 겨지비라」 이 經 듣고 隨喜ᄒᆞ야 法會로셔 나아 녀느 고대 가 쥬의 坊이어나 뷘 겨르ᄅᆞᄫᆡᆫ 짜히어나 자시어나 ᄀᆞ올히어나 巷陌이어나 ᄆᆞᅀᆞᆯ히어나 「巷은 ᄀᆞ올 앉길히오 陌은 져잿 가온ᄃᆡᆺ 거리라」 제 드론 야ᄋᆞ로 어버ᅀᅵ며 아ᅀᆞ미며 이든 법ᄃᆞ려 ᄒᆡᆱᄀᆞ장 불어 닐어든 이 사ᄅᆞᆷᄃᆞᆯ히 듣고 隨喜ᄒᆞ야 또 옮겨 ᄀᆞᄅᆞ쳐든 녀나ᄆᆞᆫ 사ᄅᆞᄆᆞ 듣고 또 隨喜ᄒᆞ야 옮겨 ᄀᆞᄅᆞ쳐 이러히 올마 쉰 차히 가면 阿逸多아 그 쉰 차ᄒᆡ 善男子善女人의 隨喜 功德을 내 닐오리니 네 이대 드르라.(석보 19: 1-2)

◉ 四百萬億 阿僧祇 世界예 六趣衆生이 卵生과 胎生과 濕生과 化生「卵生은 알 ᄲᅡ 날씨오 胎生은 ᄇᆡ야 날씨오 濕生은 축축ᄒᆞᆫ ᄃᆡ셔 날씨오 化生은 翻生ᄒᆞ야 날씨라」 얼굴 잇ᄂᆞᆫ 것과 얼굴 업슨 것과 有想과 無想과 非有想과 발 업슨 것과 두발 ᄐᆞᆫ 것과 네발 ᄐᆞᆫ 것과 발 한 것과 이러틋ᄒᆞᆫ 衆生ᄃᆞᆯᄒᆞᆯ 사ᄅᆞᄆᆡ 福 求ᄒᆞ노라 ᄒᆞ야 제 맛 드ᄂᆞᆫ 거슬 다 주ᄃᆡ 衆生마다 閻浮提예 ᄀᆞᄃᆞᆨᄒᆞᆫ 金銀 琉璃 硨磲 瑪瑙 珊瑚 琥珀과 象과 ᄆᆞᆯ와 술위와 七寶 宮殿 樓閣ᄃᆞᆯᄒᆞᆯ 주어 이 大施主ㅣ 여든 히ᄅᆞᆯ 이 야ᄋᆞ로 布施ᄒᆞ고 너교ᄃᆡ (석보 19: 2-3)

☞ 大施主ᄂᆞᆫ 큰 布施ᄒᆞᄂᆞᆫ 님자히라 ᄒᆞ논 마리라.(석보 19: 3)

◉ 내 ᄒᆞ마 衆生ᄋᆡ 그에 즐거ᄇᆞᆫ 거슬 布施호ᄃᆡ 제 ᄠᅳ데 맛드논 야ᄋᆞᆯ 조차 호니 이 衆生이 다 늘거 ᄒᆞ마 주그리니 내 佛法으로 ᄀᆞᄅᆞ쳐 引導호리라 ᄒᆞ고 이 衆生ᄋᆞᆯ 모도아 法化ᄅᆞᆯ 펴아 ᄀᆞᄅᆞ쳐 利益ᄃᆞ외여 깃부믈 뵈야 ᄒᆞᆫ ᄠᅴ 다 須陁洹道 斯陁含道 阿那含道 阿羅漢道ᄅᆞᆯ 得긔ᄒᆞ면 네 ᄠᅳ데 엇더ᄂᆞ뇨.(석보 19: 3-4)

◉ 이 大施主의 功德이 하녀 져그녀.(석보 19: 4)

◉ 彌勒이 ᄉᆞᆯᄫᆞ샤ᄃᆡ 이 사ᄅᆞᄆᆡ 功德이 그지 업스며 ᄀᆞᆺ 업스니 이 施主ㅣ 衆生ᄋᆡ 그에 一切 즐거ᄇᆞᆫ 것 布施ᄒᆞᆯ 만ᄒᆞ야도 功德이 그지 업스니 ᄒᆞ믈며 阿羅漢果ᄅᆞᆯ 得긔 호미ᄯᅡ니잇가.(석보 19:4)

◉ 부톄 니ᄅᆞ샤ᄃᆡ 내 이제 分明히 너ᄃᆞ려 닐오리라.(석보 19: 4)

◉ 이 사ᄅᆞ미 一切 즐거ᄇᆞᆫ 거스로 四百萬億 阿僧祇 世界예 六趣 衆生ᄋᆡ 그에 布施ᄒᆞ고 ᄯᅩ 阿羅漢果ᄅᆞᆯ 得게 ᄒᆞ욘 功德이 쉰 찻 사ᄅᆞᄆᆡ 法華經 ᄒᆞᆫ 偈 듣고 隨喜ᄒᆞᆫ 功德에 ᄀᆞᆮ디 몯ᄒᆞ야 百分 千分 百千萬億分에 ᄒᆞ나토 몯 미츠리니 筭數譬喩로 몯 아롫 배라.(석보 19: 4-5)

◉ 阿逸多아 쉰 찻 사ᄅᆞᄆᆡ 功德도 오히려 無量無邊 阿僧祇어니 ᄒᆞ믈며 처ᅀᅥᆷ 會中에셔 듣고 隨喜ᄒᆞᄂᆞ니ᄯᅥ녀.(석보 19:5)

◉ 그 福이 ᄯᅩ 더우미 無量無邊 阿僧祇라 가ᄌᆞᆯ비디 몯ᄒᆞ리라.(석보 19: 5)

◉ ᄯᅩ 阿逸多아 아뫼나 사ᄅᆞ미 이 經 위ᄒᆞ야 쥬의 坊의 가 안ᄭᅥ나 셔거나 아니 한 ᄉᆞ싀ᄅᆞᆯ 드러도 이 功德으로 後生애 됴ᄒᆞᆫ 象이며 ᄆᆞ리며 술위며 보ᄇᆡ옛 더을 어드며 天宮도 ᄐᆞ리라.(석보 19: 5)

◉ ᄯᅩ 사ᄅᆞ미 講法ᄒᆞᄂᆞᆫ ᄯᅡ해 안자이셔 다ᄅᆞᆫ 사ᄅᆞ미 오나ᄃᆞᆫ 勸ᄒᆞ야 안자 듣긔커나 제 座ᄅᆞᆯ ᄂᆞᆫ호아 안치면 이 사ᄅᆞᄆᆡ 功德이 後生애 帝釋 앗ᄂᆞᆫ ᄯᅡ히어나 梵王 앗ᄂᆞᆫ ᄯᅡ히어나 轉輪聖王 앗ᄂᆞᆫ ᄯᅡ홀 得ᄒᆞ리라.(석보 19: 6)

◉ 阿逸多아 ᄯᅩ 사ᄅᆞ미 ᄂᆞᆷᄃᆞ려 닐오ᄃᆡ 經이 이쇼ᄃᆡ 일후미 法華ㅣ니 ᄒᆞᆫᄃᆡ 가 듣고져 ᄒᆞ야ᄃᆞᆫ 그 말 듣고 아니 한 ᄉᆞ싀ᄅᆞᆯ 드러도 이 사ᄅᆞᄆᆡ 功德이 厚生애 陁羅尼 菩薩와 ᄒᆞᆫ 고대 나리니 根源이 ᄂᆞᆯ카바 智慧ᄒᆞ야 百千萬世예 버워리 아니ᄃᆞ외며 입내 업스며 혓 病 업스며 입病 업스며 니 검디 아니ᄒᆞ며 누르며 성긔디 아니ᄒᆞ며 이 저디며 ᄲᅩᆷ듣디 아니ᄒᆞ며 그르나며 굽디 아니ᄒᆞ며 입시우리 드리디 아니ᄒᆞ며 옰디 아니ᄒᆞ며 드디 아니ᄒᆞ며 얼믓디 아니ᄒᆞ며 어저디디 아니ᄒᆞ며 기우디 아니ᄒᆞ며 두텁디 아니ᄒᆞ며 크디 아니ᄒᆞ며 검디 아니ᄒᆞ야 믈읫 아치 얻ᄇᆞᆫ 야이 업스며 고히 平코 엷디 아니ᄒᆞ며 뷔트디 아니ᄒᆞ며 ᄂᆞᆺ비치 검디 아니ᄒᆞ며 좁고 기디 아니ᄒᆞ며 ᄡᅥ디여 굽디 아니ᄒᆞ야 一切 ᄆᆡᄇᆞᆫ 相이 업서 입시울와 혀와 엄과 니왜 다 됴ᄒᆞ며 고히 길오 놉고 고ᄃᆞ며 ᄂᆞ치 두렵고 ᄎᆞ며 눈서비 놉고 길며 니마히 넙고 平正ᄒᆞ야 사ᄅᆞᄆᆡ 相이 ᄀᆞᆺ고 世世예 나ᄃᆡ 부텨를 보아 法 듣고 ᄀᆞᄅᆞ치논 마ᄅᆞᆯ 信ᄒᆞ야 바ᄃᆞ리라.(석보 19: 6-7)

◉ 阿逸多아 ᄒᆞᆫ 사ᄅᆞᄆᆞᆯ 勸ᄒᆞ야 가 法을 듣긔ᄒᆞ야도 功德이 이러커니 ᄒᆞ믈며 一心ᄋᆞ로 드러 닐그

며 외와 大衆의 거긔 놈 위ᄒᆞ야 ᄀᆞᆯ히 내 니르며 말다히 修行ᄒᆞᄂᆞ니ᄯᅥ녀.(석보 19: 8)

☞ 잇ᄀᆞ자은 隨喜功德品이니 이 品과 法師 功德品과 常不輕 菩薩品ㅅ ᄀᆞ자은 正宗ᄋᆞᆯ 드러디닌 功德을 너비 나토샤 功ᄋᆡ 녀트며 기푸믈 조차 暫持ᄒᆞ며 圓持ᄒᆞ며 精持ᄒᆞ논 次第 잇ᄂᆞ니라. 正宗은 正ᄒᆞᆫ ᄆᆞᆯ리니 法華經을 니르니라. 暫持ᄂᆞᆫ 잢간 디닐씨라. 圓持ᄂᆞᆫ 가초디닐씨라. 精持ᄂᆞᆫ 精微히 디닐씨라. 隨喜라 혼 ᄠᅳ든 一心ᄋᆞ로 드러 닐그며 말다히 修行 몯ᄒᆞ야도 드룬 야ᄋᆞ로 놈 위ᄒᆞ야 닐오ᄆᆞᆯ 즐기며 ᄀᆞᄅᆞ쵸ᄆᆞᆯ 조차 아니한 ᄉᆞᄉᆡ나 드루믈 깃거ᄒᆞ야도 또 勝福ᄋᆞᆯ 得ᄒᆞᆯᄊᆡ 暫持 功德이 ᄃᆞ외ᄂᆞ니라.(석보 19: 8)

◉ 그 저긔 부톄 常精進 菩薩 摩訶薩ᄃᆞ려 니ᄅᆞ샤ᄃᆡ 善男子 善女人이 이 法華經을 바다 디녀 닑거나 외오거나 사겨 니르서나 쓰거나 ᄒᆞ면 이 사ᄅᆞ미 당다이 八百 眼 功德과「眼은 누니라」千 二百 耳 功德과「耳ᄂᆞᆫ 귀라」八百 鼻 功德과「鼻ᄂᆞᆫ 코히라」千 二百 舌 功德과「舌은 혜라」八百 身 功德과「身은 모미라」千 二百 意 功德을 得ᄒᆞ야「意ᄂᆞᆫ ᄠᅳ디라」이 功德으로 六根ᄋᆞᆯ 莊嚴ᄒᆞ야 다 淸淨케 ᄒᆞ리라. (석보 19: 8-9)

☞ 法華經 디닒 사ᄅᆞ미 부텻 知見을 열면 보며 드르며 아로미 다 眞覺이며 實相ᄋᆞᆯ 證ᄒᆞ면 色香味觸이 다 眞法이라. 眞覺ᄋᆞ로 眞法을 對ᄒᆞ면 萬象ᄋᆞᆯ ᄉᆞᄆᆞᆺ 비취며 大千을 ᄒᆞᆫ가지로 볼씨 圓持功이 이러 六根 淸淨 功德을 得ᄒᆞ리라.(석보 19: 9)

☞ 數ㅣ 一千二百이며 八百 ᄃᆞ외논 주른 衆生ᄋᆡ 世界ᄂᆞᆫ 器 世界ᄅᆞᆯ 브터 잇ᄂᆞ니 거즛일로 일워 界ᄃᆞ욀씨 四方이 잇고 모미 遷流ᄒᆞ야 갈씨 三世 잇ᄂᆞ니 世界와 두가짓 거시 서르 涉ᄒᆞ야 三世 四方이 열 둘히 ᄃᆞ외오 열둘히 流變ᄒᆞ야 三疊이면 一千二百이 ᄃᆞ외리라.(석보 19: 9-10)

☞ 圓持 ᄒᆞᆫ 功이 일면 根마다 各各 ᄲᅮ믈 오ᄋᆞᆯ올씨 一千 二百 功德이 이시려니와 그 中에 또 느룸과 사오나ᄇᆞᆷ과ᄅᆞᆯ 一定홇딘댄 누는 앒과 겯과ᄅᆞᆯ 보고 뒤흘 몯 보며 고ᄒᆞᆫ 수미 나며 드로매 맏고 ᄉᆞᄉᆡᄅᆞᆯ 몯 마ᄐᆞ며 모ᄆᆞᆫ 서르 어울면 알오 닫나면 모ᄅᆞᄂᆞ니 이 다 세 分으로 ᄒᆞ나히 업슬씨 八百 功德 ᄲᅮ니라.(석보 19: 10) *-ᄲᅮᆫ/ 고ᄒᆞᆫ(코는) /-려니와

☞ 이ᄂᆞᆫ 權으로 世間앳 數를 브터 어둘니ᄅᆞᆯ ᄯᅳᄅᆞ미니 샹녯 누느로 色ᄋᆞᆯ 對호ᄃᆡ 부텻 知見을 열며 샹녯 귀로 소리ᄅᆞᆯ 드로ᄃᆡ 實相ᄋᆞᆯ 得하면 한 드트리 ᄀᆞ리디 아니ᄒᆞ며 十方이 훤ᄒᆞ야 萬象이 逃亡티 몯ᄒᆞ며 大千 世界ᄅᆞᆯ ᄀᆞ초 비취리니 千 二百 八百 功德이사 議論홇 줄 업스리라.(석보 19: 11)

☞ 經에 니르샤ᄃᆡ 父母 나ᄒᆞ샨 누니 三千界ᄅᆞᆯ 다 보리라 ᄒᆞ시니 어듸쩐 三分이 몯 ᄀᆞ자 八百 사오나ᄇᆞᆫ 이리 이시리오.(석보 19: 11)

☞ 그럴씨 이 體는 本來 數 업슨 ᄃᆞᆯ 아롫디니라.(석보 19: 11)

☞ 象은 양ᄌᆡ니 萬象은 一切 일구를 다 니ᄅᆞ니라. (석보 19: 11)

☞ 衆生ᄋᆡ 世ᄂᆞᆫ 生老病死ㅣ오 衆生ᄋᆡ 界ᄂᆞᆫ 前後左右ㅣ오 器世ᄂᆞᆫ 成住壞空이오 器界ᄂᆞᆫ 東西南北이라 거즛 일로 일워 界 ᄃᆞ욀씨 四方이 잇다 호ᄆᆞᆫ 妄量ᄋᆞ로 얼수리 일오 얼굴옷 일면 左右前後ㅣ 모로매 이실씨 四方이 잇다ᄒᆞ니라.(석보 19: 11)

☞ 모미 遷流ᄒᆞ아갈씨 三世 잇다호ᄆᆞᆫ 아니한 ᄉᆞᅀᅵ도 머므러 잇디 몯ᄒᆞ야 時節이 올마 흘러가면 모로매 디나건 時節와 이젯 時節와 아니왯ᄂᆞᆫ 時節이 이실씨 三世 잇다 ᄒᆞ니라.(석보 19: 11)

☞ 遷은 올ᄆᆞᆯ씨오 流는 흐를씨니 時節이 올마 흘러갈씨 遷流ㅣ라 ᄒᆞ니라.(석보 19: 11)

☞ 變은 고텨 ᄃᆞ욀씨니 얼굴 잇ᄂᆞᆫ 거슨 長常 ᄒᆞᆫ가지라 잇디 몯ᄒᆞ야 고텨 ᄃᆞ외ᄂᆞ니 流는 世예 브튼 마리오 變은 界예 브튼 마리라. 疊은 ᄀᆞᆯ포 싸ᄒᆞᆯ씨니 충이라 ᄒᆞ듯ᄒᆞᆫ 마리라.(석보 19: 11)

☞ 이 體라 호ᄆᆞᆫ 六根ᄋᆡ 體니 ᄆᆞᅀᆞᆯ 니ᄅᆞ니라. 三世 四方이 열둘 ᄃᆡ외요ᄆᆞᆫ 四方애 各各 三世옴 혜욘 數ㅣ라.(석보 19: 11)

☞ ᄒᆞᆫ 氣韻으로셔 十二世 ᄃᆞ외요미 一疊이오 十二世로셔 一百 二十世 ᄃᆞ외요미 二疊이오 一百 二十世로셔 一千 二百世 ᄃᆞ외요미 三疊이라.(석보 19: 11)

☞ 世로 界ᄅᆞᆯ 涉ᄒᆞ야 혜여도 ᄒᆞᆫ 가지며 界로 世ᄅᆞᆯ 涉ᄒᆞ야 혜여도 ᄒᆞᆫ가지니 世로 界ᄅᆞᆯ 涉ᄒᆞ게 닐옳딘댄 ᄒᆞᆫ 氣韻이 流ᄒᆞ야 三世 일오 三世 各各 流ᄒᆞ야 十世옴 ᄃᆞ외면 三十世 일오 三十世 各各 流ᄒᆞ야 十世옴 ᄃᆞ외면 三百世 일리니 三世예 各各 四方ᄋᆞᆯ 가초 혜여 十二界 일면 一疊이오 三十世예 各各 四方ᄋᆞᆯ ᄀᆞ초 혜여 一百 二十界 일면 二疊이오 三百世예 各各 四方ᄋᆞᆯ ᄀᆞ초 혜여 一千 二百界 일면 三疊이라. 界ᄅᆞᆯ 涉ᄒᆞ게 닐옳딘댄 二儀位ᄒᆞ야 四方이 셔고 四方이 各各 變ᄒᆞ야 十方곰 ᄃᆞ외면 四十方이 일오 四十方이 各各 變ᄒᆞ야 十方곰 ᄃᆞ외면 四百方이 일리니 四方애 各各 三世ᄅᆞᆯ ᄀᆞ초 혜여 十二世 일면 一疊이오 四十方애 各各 三世ᄅᆞᆯ ᄀᆞ초 혜여 一百 二十世ᄅᆞᆯ 혜면 二疊이오 四百方애 各各 三世ᄅᆞᆯ ᄀᆞ초 혜여 一千 二百世 일면 三疊이라.(석보 19: 12)

☞ 一世流ᄒᆞ야 十世 ᄃᆞ외논 고ᄃᆞᆫ 三世 절로 三世 ᄃᆞ외디 몯ᄒᆞ야 一氣로셔 流ᄒᆞ야 三世 ᄃᆞ외면 그 三世도 各各 三世 ᄀᆞᄌᆞᆯ씨 九世 일리니 처ᅀᅥᆷ브터 난 一氣ᄅᆞᆯ 몯 ᄇᆞ릴씨 十世 ᄃᆞ외ᄂᆞ니라.(석보 19: 13)

☞ 一方이 變ᄒᆞ야 十方 ᄃᆞ외논 고ᄃᆞᆫ 四方이 절로 四方이 ᄃᆞ외디 몯ᄒᆞ야 二儀ᄅᆞᆯ 브터 니ᄂᆞ니 二儀 위ᄒᆞ야 四方이 셔면 그 四方애 네모히 조출씨 八方이 일리니 처ᅀᅥᆷ브터 난 二儀ᄅᆞᆯ 몯 ᄇᆞ릴씨 十方이 ᄃᆞ외ᄂᆞ니라.(석보 19: 13)

☞ 二儀ᄂᆞᆫ 두 양ᄌᆡ니 하ᄂᆞᆯ콰 ᄯᅡ콰ᄅᆞᆯ 니르니라.(석보 19: 13)

☞ 位ᄂᆞᆫ 一定ᄒᆞᆫ 고대셔 다ᄒᆞ듯 ᄒᆞᆫ ᄠᅳ디라. 疊을 엇데 세 ᄲᅮᆫ 닐어뇨 ᄒᆞ란ᄃᆡ ᄒᆞᆫ 氣韻으로 三世 ᄃᆞ욀씨 三疊 ᄲᅮᆫ 니르니라.(석보 19: 13)

◉ 이 善男子善女人이 父母 나ᄒᆞ샨 淸淨ᄒᆞᆫ 肉眼ᄋᆞ로 三千大千 世界 안팟긔 잇ᄂᆞᆫ 뫼히며 수프리며 ᄀᆞᄅᆞ미며 바ᄅᆞ리며 아래로 阿鼻地獄애 니르며 우흐로 有頂에 니르리 보며 ᄯᅩ 그 가온ᄃᆡ 一切 衆生과 業의 因緣果報로 나ᄂᆞᆫᄃᆡᄅᆞᆯ 다 보아 알리라.(석보 19: 13)

◉ 비록 天眼ᄋᆞᆯ 得디 몯ᄒᆞ야도 肉眼ㅅ 히미 이러ᄒᆞ니라.(석보 19: 14)

◉ ᄯᅩ 常精進아 善男子善女人이 이 經을 바다 디녀 닑거나 외오거나 사겨 니르거나 쓰거나 ᄒᆞ면

千二百 耳 功德을 得ᄒᆞ리니 이 淸淨ᄒᆞᆫ 귀로 三千大千 世界예 아래로 阿鼻地獄애 니르며 우흐로 有頂에 니르리.(석보 19: 14)

◉ 그 가온ᄃᆡ 안팟긧 種種 말ᄊᆞᆷ과 소리ᄅᆞᆯ 드르리니 象ᄋᆡ 소리 ᄆᆞᆯ쏘리 쇠소리 술윗소리 우는 소리 시름ᄒᆞ야 한숨디ᄂᆞᆫ(ᄂᆞᆫ) 소리 골와랏 소리 갓붑 소리 쇠붑 소리 바ᇰᆞᆯ 소리 우숨소리 말ᄊᆞᆷ 소리 풍륫 소리 남지늬 소리 겨지븨 소리 싸ᄒᆡ 소리 갓나ᄒᆡ 소리 法 소리 法 아닌 소리 셜ᄫᅳᆫ 소리 즐거ᄫᅳᆫ 소리 凡夫ㅅ 소리 聖人ㅅ 소리 깃븐 소리 아니 깃븐 소리 하ᄂᆞᆳ 소리 龍ㅅ 소리 夜叉ㅅ 소리 乾闥婆ㅅ 소리 阿修羅ㅅ 소리 迦樓ㅅ 소리 摩睺羅迦ㅅ 소리 븕소리 믉소리 ᄇᆞᄅᆞᆷ소리 地獄소리 畜生ㅅ 소리 餓鬼ㅅ 소리 比丘ㅅ 소리 比丘尼ㅅ 소리 聲聞ㅅ 소리 辟支佛ㅅ 소리 菩薩ㅅ 소리 부텻 소리 조ᅀᆞᄅᆞᄫᆡᆫ 고ᄃᆞ로 니르건댄 三千大千 世界中에 一切 안팟긔 잇ᄂᆞᆫ 소리ᄃᆞᆯᄒᆞᆯ 비록 天耳ᄅᆞᆯ 몯 得ᄒᆞ야도 父母 나ᄒᆞ샨 淸淨ᄒᆞᆫ 샹녯 귀로 다 드러 아라 이러트시 種種 音聲을 ᄀᆞᆯ히요ᄃᆡ 耳根은 허디 아니ᄒᆞ리라.(석보 19: 14-16)

☞ 耳根이 허디 아니ᄒᆞ리라 ᄒᆞ샤ᄆᆞᆫ 비록 種種ᄋᆞᆯ ᄀᆞᆯᄒᆞ야 드러도 耳根이 그어긔 本來ㅅ 相이 ᄒᆞᆫ가질씨 허루미 업스며 섯근 거시 업스니 긔 귀옛 實相이라(석보 19: 16)

◉ ᄯᅩ 常精進아 善男子善女人이 이 經을 바다 디녀 닑거나 외오거나 사겨 니르거나 쓰거나 ᄒᆞ면 八百鼻 功德을 일우리니 이 淸淨ᄒᆞᆫ 鼻根ᄋᆞ로 三千大千 世界옛 우콰 아래와 안팟긧 種種香ᄋᆞᆯ 마ᄐᆞ리니 須曼那華香「須曼那ᄂᆞᆫ ᄠᅳ데 이대 맛다ᄒᆞ논 마리라」 闍提華香「闍提ᄂᆞᆫ 金錢華ㅣ라」 末利華香瞻葍(+)華香「瞻葍은 누른 고지라 혼 마리라」 波羅羅華香「波羅羅ᄂᆞᆫ 배 됴ᄒᆞᆫ 고지라 ᄒᆞ논 마리라」 赤蓮華香 靑蓮華香 白蓮華香 華樹香 果樹香 栴檀香 沈水香 多摩羅跋香「多摩羅跋은 됴하 ᄠᅴ 업슨 香이라 ᄒᆞ논 마리라」 多伽羅香과「多伽羅ᄂᆞᆫ 木香이라」 千萬가짓 어울운 香抹香丸香「丸은 무저기라」 塗香ᄋᆞᆯ 이 經 디닐 싸ᄅᆞ미 이어긔 이셔도 다 能히 ᄀᆞᆯ히며 (석보 19: 16-17)

◉ ᄯᅩ 衆生ᄋᆡ 香ᄋᆞᆯ ᄀᆞᆯᄒᆞ야 아라 象ᄋᆡ 香 ᄆᆞᄅᆡ 香쇠(쇼+ㅣ) 香羊ᄋᆡ 香 남지늬 香 겨지븨 香 싸ᄒᆡ 香 갓나ᄒᆡ 香과 草木 叢林香ᄋᆞᆯ「叢林은 얼근 수프리라」 갓갑거나 멀어나 믈읫 잇ᄂᆞᆫ 香ᄃᆞᆯᄒᆞᆯ 다 마타 ᄀᆞᆯᄒᆞ야 그릇디 아니ᄒᆞ며 이 經 디닒 사ᄅᆞ미 비록예 이셔도 ᄯᅩ 하ᄂᆞᆯ 우흿 諸天香ᄋᆞᆯ 마타 波利質多羅拘鞞陁羅樹香과 (석보 19: 17-18)

☞ 波利質多羅ᄂᆞᆫ 忉利天圓生樹ㅣ니 불휘 ᄯᅡ해 드로미 다ᄉᆞᆺ 由旬이오 노ᄑᆡ 一百 由旬이오 가지와 닙괘 四方애 펴듀미 ᄒᆞᆫ 由旬이니 그 고지 프면 香내 ᄒᆞᆫ 由旬을 펴디ᄂᆞ니 여러 가짓 비쳇 고지 둘어 莊嚴ᄒᆞ얫ᄂᆞ니라.(석보 19:18)

☞ 拘鞞陁羅ᄂᆞᆫ ᄀᆞ장 노니ᄂᆞ다 ᄒᆞ논 마리니 地樹香이라.(석보 19:18)

◉ 曼陁羅 華香 摩訶曼陁羅華香 曼殊沙華香 摩訶曼殊沙 華香 栴檀沈水 種種末香 여러가짓 雜花香 이러틋ᄒᆞᆫ 天香 어울운 香ᄋᆞᆯ 다 마타 알며 ᄯᅩ 諸天 모맷 香ᄋᆞᆯ 마토ᄃᆡ 釋帝 桓因이 勝殿 우희 이셔 五欲 즐겨 노ᄅᆞᆺᄒᆞᆯ 時節ㅅ 香과 妙法堂 우희 이셔 忉利天 위ᄒᆞ야 說法ᄒᆞᆯ 時節ㅅ 香과 여러 東山애 노닒 時節ㅅ 香과 녀나ᄆᆞᆫ 하ᄂᆞᆯᄐᆞᆯ히 남진 겨집 모맷 香ᄋᆞᆯ 다 머리셔 마타 이야ᄋᆞ로 有頂에 니르리.(석보 19: 19)

◉ 諸天 모맷 香ᄋᆞᆯ ᄯᅩ 다 마ᄐᆞ며 諸天 풔으ᄂᆞᆫ 香도 조쳐 마ᄐᆞ며 聲聞ㅅ 香 辟支佛ㅅ 香 菩薩ㅅ 香 諸佛 모맷 香ᄋᆞᆯ ᄯᅩ 다 머리셔 마타 잇ᄂᆞᆫᄃᆡᄅᆞᆯ 알리니.(석보 19: 19)

◉ 비록 菩薩ㅅ 無漏 法生鼻를 몯 得ᄒᆞ야도 이 經 디니ᄂᆞᆫ 사ᄅᆞᄆᆞᆫ 몬져 이런 鼻相을 得ᄒᆞ리라.(석보 19: 19)

☞ 菩薩이 分段身을 여희샤 六根이 漏 업슨 法을 브티나실ᄊᆡ 漏法生鼻라 ᄒᆞ시니라.(석보 19: 20)

◉ 또 常 精進아. 善男子善女人이 이 經을 바다 디녀 닑거나 외오거나 사겨 니르거나 쓰거나 ᄒᆞ면 千 二百 舌 功德을 得ᄒᆞ리니 됴커나 굿거나 아ᄅᆞᆷ답거나 아ᄅᆞᆷ답디 아니커나 여러 가짓 쁘며 ᄇᆞᆯ 븐 거시 舌根애 이셔 다 變ᄒᆞ야 됴ᄒᆞᆫ 마시 ᄃᆞ외야 하ᄂᆞᆳ 甘露ㅣ ᄀᆞᆮᄒᆞ야 아ᄅᆞᆷ답디 아니ᄒᆞᆫ 거시 업스며 舌根ᄋᆞ로 大衆中에 불어 닐어 깁고 貴ᄒᆞᆫ 소리ᄅᆞᆯ 내면 能히 그 ᄆᆞᄆᆞ매 드러 다 깃거 즐기긔 ᄒᆞ며 또 여러 天子와 天女와 釋梵 諸天이 다 와 드르며 또 여러 龍과 龍女와 夜叉와 夜叉女와 乾闥婆와 乾闥婆女와 阿修羅와 阿修羅女와 迦樓羅와 迦樓羅女와 緊那羅와 緊那羅女와 摩睺羅迦와 摩睺羅迦女ㅣ 法 드로ᄆᆞᆯ 위ᄒᆞ야 다 와 親近히 恭敬ᄒᆞ야 供養ᄒᆞ며 또 比丘 比丘尼 優婆塞優婆夷와 國王과 王子와 한 臣下 眷屬과 小轉輪王이 七寶千子 內外 眷屬ᄃᆞ리고 다 와 法 드르리니 이 菩薩이 說法을 잘ᄒᆞᆯᄊᆡ 婆羅門과 居士와 나랏 百姓ᄃᆞᆯ히 죽ᄃᆞ로개 조차 ᄃᆞᆫ녀 供養ᄒᆞ며 또 諸聲聞과 辟支佛이 샹녜 즐겨 보며 이 사ᄅᆞᄆᆡ 잇ᄂᆞᆫ 方面을 諸佛이 다 그녀글 向ᄒᆞ야 說法ᄒᆞ거시든 「方面은 녀기라 ᄒᆞ듯ᄒᆞᆫ 마리라」 一切 佛法을 다 能히 바다 디니며 또 能히 깁고 貴ᄒᆞᆫ 法音을 내리라.(석보 19: 20-22)

◉ 常精進아 善男子善女人이 이 經을 바다 디녀 닑거나 외오거나 사겨 니르거나 쓰거나 ᄒᆞ면 八百身功德을 得ᄒᆞ야 조ᄒᆞᆫ 모미 淨琉璃 ᄀᆞᆮᄒᆞ야 衆生이 즐겨 보리니 그 모미 조ᄒᆞᆫ 젼ᄎᆞ로 三千大千 世界옛 衆生ᄋᆡ 낧 時節와 주긇 時節과 우콰 아래와 됴ᄒᆞ며 구즌ᄃᆡ와 됴ᄒᆞᆫ 짜 머즌 짜해 나미 다 가온ᄃᆡ 現ᄒᆞ며 또 鐵圍山과 大鐵圍山과 彌樓山과 (석보 19: 22-23)

☞ 彌樓는 光明이라 ᄒᆞ논 마리니 金色 光明이라 (석보 19: 22)

◉ 摩訶彌樓山等 여러 山과 그 中엣 衆生이 다 가온ᄃᆡ 現ᄒᆞ며 아래로 阿鼻地獄애 니르며 우흐로 有頂에 니르리 잇ᄂᆞᆫ 것과 衆生이 다 가온ᄃᆡ 現ᄒᆞ며 聲聞과 辟支佛와 菩薩와 諸佛ㅅ 說法이 다 몲 가온ᄃᆡ 色像이 現ᄒᆞ리니 비록 無漏 ᄒᆞᆫ 法性엣 妙身알 得디 몯ᄒᆞ야도 淸淨ᄒᆞᆫ 샹녯 모매 다 가온ᄃᆡ 現ᄒᆞ리라.(석보 19:23)

◉ 또 常精進아 善男子善女人이 如來滅度ᄒᆞᆫ 後에 이 經을 바다 디녀 닐거나 외오거나 사겨 니르거나 쓰거나 ᄒᆞ면 千二百意功德을 得ᄒᆞ리니 이 淸淨ᄒᆞᆫ 意根ᄋᆞ로 ᄒᆞᆫ 偈 ᄒᆞᆫ 句를 드러도 그지 업스며 ᄀᆞᆺ 업슨 ᄠᅳ들 ᄉᆞᄆᆞᆺ 알리니 이 ᄠᅳ들 알오, 능히 ᄒᆞᆫ 句 ᄒᆞᆫ 偈ᄅᆞᆯ 불어 닐어 ᄒᆞᆫ ᄃᆞᆯ ᄒᆞᆫ ᄒᆡ예 니르리.(석보 19: 24)

◉ 믈읫 니르논 法이 이 意趣를 조차 다 實相애 그릇디 아니ᄒᆞ며 世俗經書ㅣ며 世間 다ᄉᆞᄅᆞᆯ 마리며 싱계사ᄅᆞᆯ 일ᄃᆞᆯᄒᆞᆯ 닐어도 다 正ᄒᆞᆫ 法에 順ᄒᆞ며 三千大千 世界옛 六趣衆生ᄋᆡ ᄆᆞᄉᆞ맷 行ᄒᆞ욤과 ᄆᆞᄉᆞ맷 動作ᄒᆞ욤과 ᄆᆞᄉᆞ맷 戱論을 다 알리니.(석보 19: 24-25)

☞ 行ᄒᆞ요ᄆᆞᆫ 샹녯 이ᄅᆞᆯ 조차 ᄒᆞᄂᆞᆫ ᄆᆞᄉᆞ미로 動作은 感動ᄒᆞ야 고텨 ᄃᆞ외ᄂᆞᆫ ᄆᆞᄉᆞ미오 戱論은 노ᄅᆞᆺᄒᆞ야 議論ᄒᆞᆯᄊᆡ니 ᄀᆞᆯᄒᆞ야 헤아리ᄂᆞᆫ 正티 몯ᄒᆞᆫ ᄆᆞᄉᆞ미라.(석보 19: 25)

◉ 비록 無漏智慧ᄅᆞᆯ 得디 몯ᄒᆞ야도 意根ᄋᆡ 淸淨호미 이러ᄒᆞᆯᄊᆡ 이 사ᄅᆞᄆᆡ ᄉᆞ랑ᄒᆞ며 혜아리며 니르논 마리 다 부텻 法이라. 아니 眞實ᄒᆞ니 업스며 ᄯᅩ 先佛ㅅ經 中에 니ᄅᆞ샨 배리라.(석보 19: 25)

☞ 先佛은 몬졋 부톄라. 잇ᄀᆞ자ᄋᆞᆫ 法師 功德品이니 몬졋 隨喜 功德品은 다ᄉᆞᆺ 가짓 法師애 ᄒᆞ나ᄒᆞᆯ 得ᄒᆞ고 一心ᄋᆞ로 드러 닐그며 말다히 修行호ᄆᆞᆯ 몯ᄒᆞ니 功이 圓티 몯ᄒᆞ고 비록 根과 智왜 ᄀᆞ조ᄆᆞᆯ 得ᄒᆞ야도 六千報애 몯 마츠니 德이 圓티 몯ᄒᆞ니라.(석보 19:25)

☞ 이 品 싸ᄅᆞ믄 다ᄉᆞᆺ 가짓 功이 ᄀᆞᄌᆞ며 六千德이 圓ᄒᆞ야 法 바담직ᄒᆞᆯᄊᆡ 法師ㅣ라 ᄒᆞ야 圓持 功德이 ᄃᆞ외니라. 몬졋 法師品은 經 디니ᄂᆞᆫ 사ᄅᆞᄆᆞᆯ 브터 圓記ᄅᆞᆯ 나토시고 이 法師品은 경...(석보 19: 25 : 이 부분은 26쪽 일부와 함께 인쇄되지 않아서 입력을 몯했습니다. 자료를 활용하시는 분은 참고하세요.)

◉ 그 ᄢᅴ 부톄 得 大勢 菩薩 摩訶薩ᄭᅴ 니ᄅᆞ샤ᄃᆡ 네 아라라. 比丘比丘尼 優婆塞優婆夷 法華經 디닗 사ᄅᆞᄆᆞᆯ 아뫼나 모딘 이브로 구지저 비우스면 큰 罪報 어두미 몬져 니르ᄃᆞᆺᄒᆞ며 得혼 功德도앳 가 니르ᄃᆞᆺᄒᆞ야 眼耳鼻舌身意 淸淨ᄒᆞ리니 得 大勢여. 네 無量 無邊 不可思議 阿僧祇劫 디내야 부톄 겨샤ᄃᆡ 일후미 威音王 如來 應 供正遍知明行足 善逝 世間 解 無上士調御 丈夫 天人士佛 世尊이러시니 劫 일후믄 離衰오. 나랏 일후믄 大成이러라.(석보 19: 26-27)

◉ 그 威音王佛이 뎌 뉘예셔 天人 阿修羅 위ᄒᆞ야 說法ᄒᆞ샤ᄃᆡ 聲聞 求ᄒᆞ리 위ᄒᆞ샨 四諦法을 니ᄅᆞ샤 生死 病死ᄅᆞᆯ 걷나아 究竟 涅槃케 ᄒᆞ시고 辟支佛 求ᄒᆞ리 위ᄒᆞ샨 十二 因緣을 니르시며 菩薩ᄃᆞᆯ 위ᄒᆞ샨 阿耨多羅三藐 菩提ᄅᆞᆯ 因ᄒᆞ샤 六波羅密法을 니ᄅᆞ샤 究竟 佛慧케 ᄒᆞ더시니 得大勢여! 이 威音王佛이 목수미 四十萬億那由他恒河沙劫이시고 正法이 世間애 이쇼ᄆᆞᆫ 劫 數ㅣ ᄒᆞᆫ 閻浮提 微塵 만ᄒᆞ고 像法이 世間애 이쇼ᄆᆞᆫ 劫數ㅣ 四天下微塵 만ᄒᆞ더니 그 부톄 滅度ᄒᆞ시고 正法 像法이 다 업슨 후에 이 國土애 ᄯᅩ 부톄 나샤ᄃᆡ ᄯᅩ 號(+)ᄅᆞᆯ 威音王 如來 應 供正遍知明 行足善逝 世間解無上士調御丈夫天人師佛 世尊이러시니 이 야ᄋᆞ로 次弟로 二萬億 부톄 겨샤ᄃᆡ 다 ᄒᆞᆫ 가짓 號(+)ㅣ러시(석보 19: 27-29)

◉ 다ᄆᆞᆺ 첫 威音王 如來 滅度ᄒᆞ샤 正法업슨 後 像法中에 增上慢 比丘ㅣ 큰 勢力이 잇더니 그 ᄢᅴ ᄒᆞᆫ 菩薩 比丘ㅣ 일후미 常不輕이러라.(석보 19: 29)

◉ 得 大勢여 엇던 因緣으로 일후믈 常不輕이라 ᄒᆞ야뇨.(석보 19: 29)

◉ 比丘ㅣ 「이 比丘는 常不輕 比丘ㅣ라」 比丘ㅣ나 比丘尼나 優婆塞優婆夷나 보니마다 다 절ᄒᆞ고 讚嘆ᄒᆞ야 닐오ᄃᆡ 내 너희ᄃᆞᆯᄒᆞᆯ ᄀᆞ장 恭敬ᄒᆞ야 업시오ᄃᆞᆯ 아니ᄒᆞ노니 엇뎨어뇨 ᄒᆞ란ᄃᆡ 너희ᄃᆞᆯ히 다 菩薩ㅅ 道理行ᄒᆞ야 당다이 부텨 ᄃᆞ외릴ᄊᆡ니라.(석보 19: 29) *-ㄹᄊᆡ니라

◉ 이 比丘ㅣ 經典 닐거 외오ᄆᆞᆯ 專主ᄒᆞ야 아니ᄒᆞ고 「專主는 오ᄋᆞ로 爲主ᄒᆞᆯ씨라」 오직 절ᄒᆞ기ᄅᆞᆯ ᄒᆞ야 四衆을 머리셔 보고 ᄯᅩ 부러 가 절ᄒᆞ고 讚嘆ᄒᆞ야 닐오ᄃᆡ 내 너희ᄃᆞᆯᄒᆞᆯ 업시우디 아니ᄒᆞ노니 너희ᄃᆞᆯ히 다 당다이 부톄 ᄃᆞ외리라 ᄒᆞ더니 四衆ㅅ 中에 怒ᄒᆞᆫ ᄆᆞᅀᆞᆷ 낸 사ᄅᆞᄆᆡ 모딘 이브로 구지저 닐오ᄃᆡ 이 智慧 업슨 比丘ㅣ 어드러셔 오뇨.(석보 19: 30)

◉ (앞말에 이어짐) 우리ᄃᆞᆯᄒᆞᆯ 授記호ᄃᆡ 당다이 부톄 ᄃᆞ외리라 ᄒᆞᄂᆞ니 우리ᄃᆞᆯ히 이러틋ᄒᆞᆫ 妄量앳 授記사 쁘디 아니호리라 ᄒᆞ더니 이 양ᄋᆞ로 여러 히ᄅᆞᆯ 샹녜 구지럼 드로ᄃᆡ 怒ᄒᆞᆫ ᄠᅳ들 아니 내야

샹녜 닐오ᄃᆡ 네 당다이 부톄 ᄃᆞ외리라 ᄒᆞ거든 이 말 니ᄅᆞᆷ 時節에 모ᄃᆞᆫ 사ᄅᆞ미 막다히며 디새며 돌ᄒᆞ로 텨든 조치여 ᄃᆞ라 머리 가셔 아셔ᄉᆞᆫ지 高聲으로 닐오ᄃᆡ 내 너희ᄅᆞᆯ 업시오ᄃᆞᆯ 아니ᄒᆞ노니 너희ᄃᆞᆯ히 다 당다이 부톄 ᄃᆞ외리라 ᄒᆞ더라.(석보 19: 30-31)

◉ 샹녜 이 말ᄒᆞ논 젼ᄎᆞ로 增上慢 比丘比丘尼 優婆塞優婆夷號(+)ᄅᆞᆯ 지호ᄃᆡ 常不輕이라 ᄒᆞ니라.(석보 19: 31)

◉ 이 比丘ㅣ 주ᄀᆞᆷ 時節에 虛空中에 威音王佛이 아래 니르시던 法華經엣 二十千萬億偈ᄅᆞᆯ 다 듣ᄌᆞᆸ고 다 能히 바다 디녀 즉자히 우희 닐온 양ᄀᆞ티 眼根이 淸淨ᄒᆞ며 耳鼻舌身意根이 淸淨ᄒᆞ야 六根淸淨을 得ᄒᆞ고 다시 목수미 二百萬億 那由他히ᄅᆞᆯ 더 사라 너비 사ᄅᆞᆷ 위ᄒᆞ야 이 法華經을 니르더니 그 저긔 增上慢 比丘比丘尼 優婆塞優婆夷이 사ᄅᆞᆷ 므더니 너겨 不輕이라 일훔지ᄒᆞ니ᄃᆞᆯ히 큰 神通力과 藥說辯力과 大善寂力을 得ᄒᆞ얫논 고ᄃᆞᆯ 보며 니르논 마ᄅᆞᆯ 듣고 다 信伏ᄒᆞ야 조ᄎᆞ니라.(석보 19: 31-32)

☞ 伏은 降伏ᄒᆞᆯ 씨라.(석보 19: 32)

◉ 이 菩薩이「 이 菩薩은 常不輕 菩薩ᄋᆞᆯ 니르니라」ᄯᅩ 千萬億 사ᄅᆞᄆᆞᆯ 化ᄒᆞ야 阿耨多羅三藐 菩提예 住케 ᄒᆞ고 命終ᄒᆞᆫ 後에 二千億 부텨를 맛나ᅀᆞᄫᆞ니 다 號(+)ㅣ 日月 燈明이러시니 그 法中에 이 法華經을 닐온 젼ᄎᆞ로 ᄯᅩ 二千億 부텨를 맛나ᅀᆞᄫᆞ니 ᄒᆞᆫ가지로 號(+)ㅣ 雲自在燈王이러시니 이 諸佛ㅅ 法中에 바다 디녀 닐그며 외와 四衆 위ᄒᆞ야 이 經典 니르던 젼ᄎᆞ로 常眼이 淸淨ᄒᆞ며 耳鼻舌身意諸根이 淸淨ᄒᆞ야 四衆中에 說法호ᄃᆡ ᄆᆞᅀᆞ매 저픈 고디 업스니 得 大勢여, 이 常不輕 菩薩 摩訶薩이 이러틋 ᄒᆞᆫ 諸佛을 供養ᄒᆞᅀᆞ바 恭敬尊重讚嘆ᄒᆞᅀᆞ바 여러 가짓 됴ᄒᆞᆫ 根源을 시므고 後에 ᄯᅩ 千萬億佛을 맛나ᅀᆞ바 ᄯᅩ 諸佛法中에 이 經典을 닐어 功德이 이러 당다이 부톄 ᄃᆞ외리러라.(석보 19: 32-34)

◉ 得大勢여. 네 이 ᄠᅳ덴 엇뎨 너기ᄂᆞᆫ다.(석보 19:34) -ᄂᆞᆫ다(의문씨끝)

◉ 그 ᄠᅴ 常不輕 菩薩은 다ᄅᆞᆫ 사ᄅᆞ미리여. 내 모미 긔라. (석보 19: 34)

◉ 내 아랫 뉘예 이 經을 바다 디녀 닐그며 외오며 ᄂᆞᆷᄃᆞ려 니르디 아니ᄒᆞ더든 阿耨多羅三藐三菩提ᄅᆞᆯ 샐리 得디 몯ᄒᆞ리러니라.(석보 19: 34)

◉ 得大勢여. 뎌 時節ㅅ 比丘比丘尼 優婆塞優婆夷 怒ᄒᆞᆫ ᄠᅳ드로 날 므더니 너기던 젼ᄎᆞ로 二百億劫을 샹녜 부텨를 몯 맛나며 法을 몯 드르며 쥬을 몯 보아 즈믄 劫을 阿鼻地獄애 ᄀᆞ장 受苦ᄒᆞ다가 이 罪 ᄆᆞᆺ고 ᄯᅩ 常不輕 菩薩ᄋᆡ 阿耨多羅三藐三菩提 敎化ᄅᆞᆯ 맛나니라.(석보 19: 34-35)

◉ 得大勢여. 네 ᄠᅳ덴 엇뎨 너기ᄂᆞᆫ다.(석보 19: 35)

◉ 그 ᄠᅴ 이 菩薩 므더니 너기던 四衆은 다ᄅᆞᆫ 사ᄅᆞ미리여.(석보 19: 35)

◉ 이 會옛 跋陁婆羅等 五百 菩薩와 師子月等 五百 比丘比丘尼와 思佛等 五百 優婆塞優婆夷 다 阿耨多羅三藐 三菩提예 므르디 아니ᄒᆞᄂᆞᆫ 사ᄅᆞ미 긔라.(석보 19: 35)

◉ 得大勢여. 아라라. 이 法華經이 菩薩 摩訶薩ᄃᆞᆯ흘 ᄀᆞ장 饒益ᄒᆞ야 能히 阿耨多羅三藐 三菩提예 니를의 홀씨 菩薩 摩訶薩ᄃᆞᆯ히 如來 滅度ᄒᆞᆫ 後에 샹녜 이 經을 바다 디니며 닐그며 외오며 사겨 니르며 쓰며 ᄒᆞ야ᅀᅡ ᄒᆞ리라.(석보 19: 35-36)

☞ 잇ᄀᆞ자온 常不輕 菩薩品이니 釋迦 前身이 威音王 時節에 妙法을 精微히 디니샤 너비 布施ᄒᆞ야 利益게 引導ᄒᆞ샨 이리라. ᄒᆞᆫ갓 닐거외올 ᄲᅮᆫ 아니ᄒᆞ샤 無相經을 디니시며 구짓ᄂᆞᆫ 辱을 구디ᄎᆞᄆᆞ샤 無我行을 디니시니 無相과 無我왜 긔 精微히 디니샤미라.(석보 19: 36)

☞ 萬億世예 이 經을 너비 니ᄅᆞ샤 正道애 住케 ᄒᆞ샤 增上慢ᄒᆞᄂᆞᆫ 사ᄅᆞ미 信伏ᄒᆞ야 좃긔ᄒᆞ시고 罪ᄆᆞᆫ 사ᄅᆞ미 도로 道果ᄅᆞᆯ 得긔ᄒᆞ시니 긔 너비 利케 ᄒᆞ샤미라.(석보 19: 36)

☞ 몬졔 經 디뉴미 다ᄉᆞᆺ 가짓 功이 ᄀᆞ자 비록 圓ᄒᆞ야도 精티 몯ᄒᆞ고 몬졔 利益 어두미 六千德을 得ᄒᆞ야 비록 勝ᄒᆞ야도 넙디 몯ᄒᆞ니 人法緣影이 이실ᄊᆡ니라.(석보 19: 36)

☞ 모로매 無相 無我ᄒᆞᆫ 妙애 나ᅀᅡ가ᄆᆞᆯ 求ᄒᆞ야 닐그며 외오매 專主홇 줄 모ᄅᆞ며 니즗 줄 모ᄅᆞ며 四衆에 恭敬홇 줄 모ᄅᆞ며 업디 옳줄 몰라 妙行이 ᄀᆞᄃᆞ기나 다 나아가ᄆᆞᆯ 求ᄒᆞ야 닐그며 외오매 專主홇 줄 모ᄅᆞ며 니즗줄 모ᄅᆞ며 四衆에 恭敬홇 줄 모ᄅᆞ며 업시옳 줄 몰라 妙行이 ᄀᆞᄃᆞ기 나 다 나아 億衆이 절로 化ᄒᆞ야 恭敬ᄒᆞ며 憍慢ᄒᆞᆫ 마ᅀᆞᆷ과 罪福괏 이리며 믈읫 人法緣影이라 혼 거시 다 正遍 正等 境界예 마ᄌᆞᆫ 後에ᅀᅡ 精ᄒᆞ며 너부미 ᄃᆞ외리니 이 眞實ㅅ 持經호맷 至極ᄒᆞᆫ 道ㅣ라. 緣은 因緣이오 影은 그르메라.(석보 19: 37)

◉ 그 ᄢᅴ 싸햐셔 소사나신 千世界 微塵等 菩薩 摩訶薩이 다 부텻 알ᄑᆡ 一心ᄋᆞ로 合掌ᄒᆞ야 尊顔올 울워ᄉᆞ바 부텨ᄭᅴ ᄉᆞᆯᄫᆞ샤ᄃᆡ 世尊하 우리ᄃᆞᆯ히 부텨 滅度ᄒᆞ신 後에 世尊ㅅ 分身 겨시던 나랏 滅度ᄒᆞ신 ᄯᅡ해 이 經을 너비 닐오리니 엇뎨어뇨 ᄒᆞ란ᄃᆡ 우리도 이런 眞實ㅅ 조ᄒᆞᆫ 큰 法을 得고져 ᄒᆞ야 바다 디녀 닐그며 외오며 사겨 니ᄅᆞ며 쓰며 ᄒᆞ야 供養호리이다.(석보 19: 37)

◉ 그 ᄢᅴ 世尊이 文殊師利等 無量百千萬億 오래 娑婆世界예 겨신 菩薩 摩訶薩와 比丘比丘尼 優婆塞優婆夷 天龍 夜叉 乾闥婆 阿修羅 迦樓羅 緊那羅 摩睺羅 迦人 非人 等 一切 모ᄃᆞᆫ 알ᄑᆡ 큰 神力을 나토샤 廣長舌을 내샤「廣長舌은 넙고 기르신 혜라」우흐로 梵世예 니르게 ᄒᆞ시고「梵世ᄂᆞᆫ 梵天ㅅ 世界니 初禪天이라」一切 터럭 구무마다 그지 업스며 數 업슨 비ᄎᆡᆺ 光明을 펴샤 十方 世界ᄅᆞᆯ 다 ᄀᆞᄃᆞ기 비취시니 한 寶樹 아래 師子座 우흿 諸佛도 ᄯᅩ 이 양ᄌᆞ로 廣長舌을 내시며 그지 업슨 光明을 펴시니라.(석보 19: 38-39)

◉ 釋迦牟尼佛와 寶樹 아랫 諸佛이 神力 나토싫 時節이 百千히ᄎᆞ거ᅀᅡ 도로 舌相올 가ᄃᆞ시고 ᄒᆞᆫ ᄢᅴ 기춤ᄒᆞ시며 ᄒᆞᆫ ᄢᅴ 彈指ᄒᆞ시니 이 두 音聲이 十方 諸佛 世界예 다 니르며 ᄯᅡ히 다 六種ᄋᆞ로 震動ᄒᆞ더니 그어긔 衆生 天龍 夜叉 乾闥婆 阿修羅 迦樓羅 緊那羅 摩睺羅 迦人 非人 等이 부텻 神力으로 다 이 娑婆世界옛 無量 無邊 百千萬億 한 寶樹 아래 師子座 우흿 諸佛도 보ᄉᆞᄫᆞ며 釋迦牟尼佛와 多寶如來왜 寶塔中에 師子座애 안자 겨샨 양도 보ᄉᆞᄫᆞ며 ᄯᅩ 無量 無邊 百千萬億 菩薩 摩訶薩와 四衆ᄃᆞᆯ히 釋迦牟尼佛ᄭᅴ 恭敬ᄒᆞ야 圍繞ᄒᆞᄉᆞ뱃ᄂᆞᆫ 양도 보고 다 ᄀᆞ장 깃거 녜 업던 이ᄅᆞᆯ 얻과라 ᄒᆞ더니 즉자히 諸天이 虛空애셔 高聲으로 닐오ᄃᆡ 이에로셔 無量無邊 百千萬億 阿僧祇 世界ᄅᆞᆯ 디나가 나라히 이쇼ᄃᆡ 일후미 娑婆ㅣ니 그에 부톄 겨샤ᄃᆡ 일후미 釋迦牟尼시니 이제 菩薩 摩訶薩ᄃᆞᆯ 위ᄒᆞ샤 大乘經을 니ᄅᆞ시ᄂᆞ니 일후미 妙法蓮華ㅣ니 菩薩 ᄀᆞᄅᆞ치시논 法이라. 부텨 護念ᄒᆞ시논 배라.(석보 19: 39-41)

◉ 너희 ᄆᆞᅀᆞ매 ᄀᆞ장 隨喜ᄒᆞ고 釋迦牟尼佛ᄭᅴ 저ᅀᆞ바 供養ᄒᆞᅀᆞ바라.(석보 19: 41)

◉ 뎌 衆生ᄃᆞᆯ히 虛空앳 소리 듣고 合掌ᄒᆞ야 娑婆世界ᄅᆞᆯ 向ᄒᆞ야 닐오ᄃᆡ 南無 釋迦牟尼佛 南無 釋迦牟尼佛 ᄒᆞ고 種種앳 花香瓔珞幡盖와 모매 莊嚴홀ᄭᅥ과 貴ᄒᆞᆫ 보ᄇᆡ로 다 娑婆世界예 머리셔 비터니 비흔 거시 十方ᄋᆞ로셔 오니 구룸 지픽ᄃᆞᆺᄒᆞ야 變ᄒᆞ야 보ᄇᆡ옛 帳이 ᄃᆞ외야 이엣 諸佛 우희 차 두프니 그저긔 十方 世界 ᄉᆞᄆᆞ차 ᄀᆞ린 거시 업서 ᄒᆞᆫ 부텻 나라히 갇더라.(석보 19: 41-42)

◉ 그 ᄢᅴ 부톄 上行等 菩薩 大衆 ᄃᆞ려 니ᄅᆞ샤ᄃᆡ 諸佛ㅅ 神力이 이러히 그지 업스며 ᄀᆞᆺ업서 ᄉᆞ랑ᄒᆞ야 議論 몯ᄒᆞ리니 내 이런 神力으로 그지 업스며 ᄀᆞᆺ 업슨 百千萬億 阿僧祇劫에 付屬ᄒᆞ노라 ᄒᆞ야 이 經 功德을 닐오ᄃᆡ 오히려 몯다 니ᄅᆞ노라.(석보 19: 42)

◉ 조ᅀᆞᄅᆞᄫᆡᆫ 고ᄃᆞ로 니ᄅᆞ건댄 如來ㅅ 一切 뒷논 法과 如來ㅅ 一切 自在ᄒᆞᆫ 神力과 如來ㅅ 一切 秘密ᄒᆞ고 조ᅀᆞᄅᆞᄫᆡᆫ 藏과 如來ㅅ 一切 甚히 기픈 이리 다 이 經에 現히 닐어 잇ᄂᆞ니라.(석보 19: 42-43)

◉ 이럴ᄊᆡ 너희 如來 滅度ᄒᆞᆫ 後에 ᄒᆞᆫ ᄆᆞᅀᆞᄆᆞ로 바다 디녀 닐그며 외오며 사겨 니ᄅᆞ며 쓰며 닐온 말다히 修行ᄒᆞ라.(석보 19: 43)

◉ 나라ᄃᆞᆯ해 아뫼나 바다 디녀 닐그며 외오며 사겨 니ᄅᆞ며 쓰며 닐온 말다히 修行ᄒᆞ며 經券잇ᄂᆞᆫ 짜ᄒᆞ란 東山이어나 수프리어나 나모미티어나 쥬의 坊이어나 쇼히 지비어나 殿堂이어나 묏고리어나 뷘 드르히어나 이어긔 다 塔일어 供養ᄒᆞᅀᆞᄒᆞ리니 엇뎨어뇨 ᄒᆞ란ᄃᆡ 이 짜ᄒᆞᆫ 곧 이 道場이라.(석보 19: 43)

◉ 諸佛이 이에셔 阿耨多羅三藐三菩提ᄅᆞᆯ 得ᄒᆞ시며 이에셔 法輪을 轉ᄒᆞ시며 이에셔 般涅槃ᄒᆞ시ᄂᆞ니라.(석보 19: 44)

☞ 잇ᄀᆞ장은 如來 神力品이라.(석보 19: 43)

----------<釋譜詳節 第十九> 끝 ----------

<釋譜詳節> 第二十三

☞ 앞의 두 장은 낙장

◉ 間애 겨시거나 涅槃ᄒᆞ신 後ㅣ어나 信心檀越이 「檀은 布施오 越은 건낼씨니 貧窮海ᄅᆞᆯ 건낼씨라」 金銀七寶 一切 됴ᄒᆞᆫ 거스로 如來ᄭᅴ 布施ᄒᆞᅀᆞ바ᄃᆞᆫ 어듸 두리잇고.(석보 23: 3)

◉ 부톄 니ᄅᆞ샤ᄃᆡ 부텨 이싫 저긔 施혼 부텻 거슨 즁ᄃᆞᆯ히 알려니와 부텨 滅度ᄒᆞᆫ 後에 一切 信心의 施혼 부텻 거스란 글로 부텻 像과 부텻 옷과ᄅᆞᆯ 밍ᄀᆞᆯ오, 七寶幡盖란 香과 기름과 보ᄇᆡ옛 고ᄌᆞᆯ 사아 부텻긔 供養홇디니 부텨 供養ᄒᆞ기 外예 년듸 몯 쓰리니 쓰면 부텻 것 도즉혼 罪 ᄃᆞ외리라.

(석보 23: 3) *-으란(거스란)

◉ 阿難이 또 술보ᄃᆡ 부텨 겨실쩌긔 아뫼어나 金銀 七寶와 집과 妻子와 죵과 옷과 음담과 一切 됴ᄒᆞᆫ 거스로 ᄀᆞ장 恭敬ᄒᆞ야 供養ᄒᆞᄉᆞᆸᄂᆞᆫ 사ᄅᆞᆷ과 涅槃ᄒᆞ신 後에 如來ㅅ 像ᄋᆞᆯ 잇 양ᄌᆞ로 供養ᄒᆞᄉᆞᆸᄂᆞ니와 이 두 사ᄅᆞᄆᆡ 福德이 어늬사 하리잇고.(석보 23: 4) * 잇-(단독형으로도 나타남)

◉ 부톄 니ᄅᆞ샤ᄃᆡ 두 사ᄅᆞᄆᆡ 福德 어두미 ᄒᆞᆫ가지니 엇뎨어뇨 ᄒᆞ란ᄃᆡ 부톄 비록 滅度ᄒᆞ고도 法身은 샹녜 잇논 젼ᄎᆡ라.(석보 23:4)

◉ 부톄 니ᄅᆞ샤ᄃᆡ ᄒᆞᆫ가지로 그지 업스며 ᄀᆞᆺ 업스리라.(석보 23:5)

◉ 阿難아 부텨 滅度ᄒᆞᆫ 後에 如來ㅅ 舍利ᄅᆞᆯ 供養호ᄃᆡ 四分에 ᄒᆞ나히어나 八分에 ᄒᆞ나히어나 十六分에 ᄒᆞ나히어나 百分에 ᄒᆞ나히어나 千分에 ᄒᆞ나히어나 萬分에 ᄒᆞ나히어나 恒河沙分에 ᄒᆞ나히어나 계ᄌᆞ빡 맛가미라도 다 기픈 ᄆᆞᅀᆞᄆᆞ로 供養 恭敬 尊重 讚歎ᄒᆞᄂᆞ니와 부텨 이싫 저긔 기픈 ᄆᆞᅀᆞᄆᆞ로 供養 恭敬ᄒᆞᄂᆞ니와 이 두 사ᄅᆞᄆᆡ 福德 어두미 ᄒᆞᆫ가지라.(석보 23:5-6)

◉ 그 福이 그지 업서 몯 니ᄅᆞ 혜리라.(석보 23:6)

◉ 부톄 阿難이와 大衆ᄃᆞᆯᄃᆞ려 니ᄅᆞ샤ᄃᆡ 나 涅槃ᄒᆞᆫ 後에 天上이며 人間이며 一切 衆生이 내 舍利ᄅᆞᆯ 어더 슬흐며 깃거 恭敬ᄒᆞ야 절ᄒᆞ야 기픈 ᄆᆞᅀᆞᄆᆞ로 供養ᄒᆞ면 그지 업스며 ᄀᆞᆺ업슨 功德을 得ᄒᆞ리라.(석보 23: 6)

◉ 阿難아 如來ㅅ 舍利ᄅᆞᆯ 보면 부텨를 보논디니 이런 젼ᄎᆞ로 三寶ㅣ 샹녜 이셔 衆生ᄋᆡ 歸依홇 ᄯᅡ히 ᄃᆞ외야 잇ᄂᆞ니라.(석보 23: 6)

◉ 阿難이 또 부텨ᄭᅴ 술보ᄃᆡ 부텨 涅槃ᄒᆞ신 後에 므슴 法을 브터 如來ᄅᆞᆯ ᄉᆞᅀᆞᄫᆞ리잇고.(석보 23: 6)

◉ 부톄 니ᄅᆞ샤ᄃᆡ 轉輪聖王 ᄊᆞ논 法을 브터 ᄒᆞ고 ᄉᆞᆫ 後에 天人 四衆이 舍利로 七寶塔 셰여 供養ᄒᆞ라.(석보 23: 7)

◉ 衆生이 큰 功德을 어더 三界ㅅ 受苦ᄅᆞᆯ 여희에 ᄒᆞ리라.(석보 23: 7)

◉ 그 저긔 釋提桓因이 부텨ᄭᅴ 술보ᄃᆡ 내 이제 부텨ᄭᅴ 半身舍利ᄅᆞᆯ 請ᄒᆞᄉᆞᆸ노이다.(석보 23:7)

◉ 부톄 니ᄅᆞ샤ᄃᆡ 如來 衆生ᄋᆞᆯ 다 ᄒᆞᆫ가지로 羅睺羅ᄀᆞ티 보ᄂᆞ니 네 半身舍利ᄅᆞᆯ 請호미 몯ᄒᆞ리니 이제 너를 ᄒᆞᆫ녁 웃니ᄅᆞᆯ 주노니 天上애 가져다가 塔 일어 供養ᄒᆞ라.(석보 23: 7)

◉ 네 福德이 그지 업스리라.(석보 23: 7)

◉ 그 저긔 天人 一切 大衆이 슬허 울어늘 世尊이 니ᄅᆞ샤ᄃᆡ 너희 天人ᄃᆞᆯ히 하 슬허말라. 부톄 비록 涅槃ᄒᆞ야도 舍利長常ᄋᆡ셔 供養ᄒᆞ리며 또 우 업슨 法寶 修多羅藏과 毗那耶藏과 阿毗達磨藏이 잇ᄂᆞ니 이런 因緣으로 三寶 四諦 샹녜 世間애 이셔 衆生이 歸依킈 ᄒᆞᄂᆞ니라.(석보 23: 8)

☞ 修多羅ᄂᆞᆫ 經이오 毗那耶ᄂᆞᆫ 律이오 阿毗達磨ᄂᆞᆫ 論이라 (석보 23: 8)

◉ 그저긔 世尊이 師子床ᄋᆡ 겨샤 眞金 소ᄂᆞ로 니버 겨신 僧伽梨衣ᄅᆞᆯ 아ᅀᆞ시고 紫磨黃金ㅅ 비ᄎᆡᆺ 가ᅀᆞᄆᆞᆯ 내샤 大衆 뵈시며 니ᄅᆞ샤ᄃᆡ 너희 一切 天人 大衆이 내 紫磨 黃金色앳 모ᄆᆞᆯ 보라ᄒᆞ시니 一切 大衆ᄃᆞᆯ히 울워러과 ᄒᆞᅀᆞ뱃거늘 世尊이 즉자히 無量 無邊 百千萬億 大涅槃光明을 펴샤 十方 一切 世界ᄅᆞᆯ 다 비취시고 또 大衆ᄃᆞ려 니ᄅᆞ샤ᄃᆡ 如來 너희ᄃᆞᆯ 위ᄒᆞ야 오란 劫에 難行苦行ᄒᆞ야 大慈悲ㅅ 本願으로 이 五濁애 阿耨多羅三藐三菩提ᄅᆞᆯ 일워 金剛ᄀᆞ티 허디 아니ᄒᆞᆶ 紫磨色身을 得ᄒᆞ야 三十二相 八十 種好ㅣ ᄀᆞ자 無量 光明으로 一切ᄅᆞᆯ 다 비취여 얼굴 뒷ᄂᆞᆫ 거시 光明 맛나아 解脫 아니ᄒᆞ리 업스니라.(석보 23: 8-9)

◉ 부톄 또 니ᄅᆞ샤ᄃᆡ 내 本來ㅅ 誓願力으로 이 더러ᄇᆞᆫ 싸해 나아 敎化ㅅ 因緣을 ᄆᆞᄎᆞᆯᄊᆡ 이제 涅槃호려 ᄒᆞ노니 너희ᄃᆞᆯ히 至極ᄒᆞᆫ 誠心으로 내 紫磨 黃金色身을 보아 이런 淸淨ᄒᆞᆫ 業을 모로매 닷가라.(석보 23: 10)

◉ 오ᄂᆞᆫ 뉘예 이런 果報ᄅᆞᆯ 得ᄒᆞ리라.(석보 23: 7)

◉ 그 ᄢᅴ 世尊이 이 양ᄋᆞ로 세 번 니ᄅᆞ샤 眞金身을 大衆 뵈시고 즉자히 七寶 師子 大床ᄋᆞ로 겨샤 虛空애 ᄒᆞᆫ 多羅樹ㅅ 노ᄑᆡᄅᆞᆯ 오ᄅᆞ샤 니ᄅᆞ샤ᄃᆡ 너희 大衆이 내 紫磨 黃金色身을 보라 ᄒᆞ시고 이 양ᄋᆞ로 漸漸 닐굽 多羅樹ㅅ 노ᄑᆡᄅᆞᆯ 오ᄅᆞ샤 닐굽 번 니ᄅᆞ시고 도로 師子床애 ᄂᆞ려 안ᄌᆞ샤 또 니ᄅᆞ시니 이 양ᄋᆞ로 세 번 오ᄅᆞᄂᆞ리샤 두루 모다 스믈 네 디위ᄅᆞᆯ 大衆ᄃᆞ려 니ᄅᆞ샤ᄃᆡ 내 涅槃호려 ᄒᆞ노니 너희ᄃᆞᆯ히 기픈 ᄆᆞᅀᆞᄆᆞ로 내 金剛 堅固 不壞 紫磨 黃金 無畏 色身을 보라.(석보 23: 10-11)

☞ 堅固ᄂᆞᆫ 구들씨오 不壞ᄂᆞᆫ 아니 헐씨라.(석보 23: 11)

◉ 優曇花 곧ᄒᆞ야 맛나미 어려ᄇᆞ니 너희ᄃᆞᆯ히 至極ᄒᆞᆫ 誠心ᄋᆞ로 내 紫磨 黃金 色身을 보라. ᄂᆞ외야 몯 보리니 너희 大衆이 ᄀᆞ장 보아 後에 뉘읏붐 업게 ᄒᆞ라.(석보 23: 11)

◉ 나ᄅᆞᆯ 滅度타 ᄒᆞ면 내 弟子ㅣ 아니며 나ᄅᆞᆯ 滅度 아니타 ᄒᆞ야도 내 弟子ㅣ 아니라 ᄒᆞ야시ᄂᆞᆯ 百萬億衆이 다 아라 듣ᄌᆞᄫᆞ니라.(석보 23: 11-12)

◉ 부톄 또 大衆ᄃᆞ려 니ᄅᆞ샤ᄃᆡ 나 涅槃ᄒᆞᆫ 後에 너희ᄃᆞᆯ히 三界예 어셔 날이ᄅᆞᆯ 너비 修行ᄒᆞ야 ᄂᆞ뇌야 ᄆᆞᅀᆞᆷ 게을이 먹디 마라. 그저긔 一切 世界 天人 四衆이 涅槃 光 맛나ᅀᆞ바 부텨 울워러 보ᅀᆞᄫᆞᆫ 사ᄅᆞ미 一切 三塗 八難이며 「 三塗ᄂᆞᆫ 三惡道ㅣ라」 ᄀᆞ장 모딘 罪 다 업서 버서나니라.(석보 23: 12)

◉ 그저긔 世尊이 도로 僧伽梨ᄅᆞᆯ 니브시고 바리와 錫杖과ᄅᆞᆯ 손소 阿難이 주시고 니ᄅᆞ샤ᄃᆡ 네 ᄒᆞ마 부텻 正化ᄅᆞᆯ 즐기란ᄃᆡ 貪欲과 憍慢ᄋᆞᆯ ᄇᆞ리고 부텻 말ᄊᆞᄆᆞᆯ 바다 精進ᄋᆞ로 道行ᄋᆞᆯ ᄉᆞ랑ᄒᆞ라.(석보 23: 12)

◉ 이 ᄆᆞᆺ 後ㅅ 부텨 기티논 긔걸이니 모로매 모다 삼가라.(석보 23: 13)

◉ 比丘ᄃᆞᆯ하 부텻 양ᄌᆞᄅᆞᆯ 보아라. 보미 쉽디 몯ᄒᆞ니라.(석보 23: 13)

◉ 이 後 一億 四千 나문 히예사 또 彌勒佛이 이시리라.(석보 23: 13)

◉ 내 聖師ㅣ ᄃᆞ외야 닐흔 아홉히예 ᄒᆞ욜 이를 ᄒᆞ마 ᄆᆞ초니 너희ᄃᆞᆯ히 힘써 ᄉᆞ라 바미 ᄒᆞ마 半이어 다 게으른 ᄠᅳᆮ 먹디 마아라.(석보 23: 13) *말+아라

◉ 내 게으르디 아니호ᄆᆞ로 正覺ᄋᆞᆯ 일우오라.(석보 23: 13)

◉ 이 如來ㅅ 말 後ㅅ 마리라. 그저긔 世尊이 初禪에 드르샤 初禪으로셔 二禪, 二禪으로셔 三禪, 三禪으로셔 四禪, 四禪으로셔 虛空處, 虛空處로셔 無邊識處, 無邊識處로셔 不用處, 不用處로셔 非想處, 非想處로셔 滅度定에 드르시니 이ᄂᆞᆫ 順入이오, 滅度定으로셔 도로 非想非, 非想處 非非想處로셔 不用處, 不用處로셔 無邊識處, 無邊識處로셔 虛空處, 虛空處로셔 四禪, 四禪으로셔 三禪, 三禪으로셔 二禪, 二禪으로셔 初禪에 드르시니 이ᄂᆞᆫ 逆入이니「逆入ᄋᆞᆫ 거스리 들씨라」그리 다 드르시고 大衆ᄃᆞ려 니ᄅᆞ샤ᄃᆡ 내 甚히 기픈 般若로 三界ᄅᆞᆯ 다 보니 根源性이 ᄆᆞᄎᆞ맨 뷔여 虛空이 ᄀᆞᆮ ᄒᆞ니 이를 아ᄂᆞ니ᄂᆞᆫ 世間애 버서난 사ᄅᆞ미라 ᄒᆞ고 이를 모ᄅᆞ면 生死始作이라 ᄒᆞᄂᆞ니라 ᄒᆞ시고 또 ᄒᆞ나콤 거르ᄠᅱ여 드르샤ᄃᆡ (석보 23: 13-15)

☞ 虛空處는 空無邊處ㅣ오 無邊識處는 識無邊處ㅣ오 不用處는 無所有處ㅣ라. 順入ᄋᆞᆫ 順히 들씨라.(석보 23: 14)

◉ 初禪으로셔 三禪, 三禪으로셔 虛空處, 虛空處로셔 無所有處, 無所有處로셔 滅盡定에 드르시니 이ᄂᆞᆫ 半超順入이오「半超ᄂᆞᆫ 半만 거르ᄠᅮᆯ 씨라」滅盡定으로셔 도로 非想非, 非想處 非非想處로셔 無邊識處 無邊識處로셔 四禪, 四禪으로셔 二禪, 二禪으로셔 初禪에 드르시니 이ᄂᆞᆫ 半超逆入이라.(석보 23: 14-16)

◉ 그리 드르시고 또 大衆ᄃᆞ려 니ᄅᆞ샤ᄃᆡ 내 摩訶般若로 三界ᄅᆞᆯ 다 보니 一切法이 다 淸淨ᄒᆞ야 ᄒᆞᆫ 것도 업스니 이 法相이 일후미 大涅槃이니 이 法을 眞實로 보ᄂᆞ닌 解脫이라 ᄒᆞ고 凡夫ㅣ 모ᄅᆞᆯᄊᆡ 無明이라 ᄒᆞᄂᆞ니라 ᄒᆞ시고 또 初禪으로셔 오ᄋᆞ로 거르 ᄠᅱ여 滅盡定에 드르시니 이ᄂᆞᆫ 全超順入이오「全超ᄂᆞᆫ 오ᄋᆞ로 거르 ᄠᅮᆯ씨라」滅盡定으로셔 도로 初禪에 드르시니 이ᄂᆞᆫ 全超逆入이니 그리 드르시고 또 大衆ᄃᆞ려 니ᄅᆞ샤ᄃᆡ (석보 23: 16)

◉ 내 佛眼ᄋᆞ로 三界옛 一切諸法을 다 보니 無明ㅅ 根源이 性이 本來 解脫ᄒᆞ야 十方애 求ᄒᆞ야도 곧 몯 어드리로다.(석보 23: 17)

◉ 根源이 업순 젼ᄎᆞ로 가지와 닙괘 다 解脫ᄒᆞ며 無明이 解脫혼 젼ᄎᆞ로 老死니르리 다 解脫 ᄒᆞ니라.(석보 23: 17)

◉ 이런 젼ᄎᆞ로 내 샹녜 寂滅光애 便安히 住호리니 일후미 大涅槃이라 그 저긔 世尊이 七寶床애 北녁 혀샤 올흔녀브로 누ᄇᆞ샤 그낤밤 中에 괴외ᄒᆞ샤 般涅槃ᄒᆞ시니라.(석보 23: 17)

◉ 娑羅樹林이 네 雙ᄋᆞ로 ᄒᆞ야 七寶床ㅅ 四方애 各各 ᄒᆞᆫ 雙곰 셔엣더니 東西옛 두 雙이 어울오 南北엣 두 雙이 어우러 가지 드리워 如來ᄅᆞᆯ 둡숩고 그 나ᄆᆞᆺ 비치 즉자히 白鶴ᄀᆞ티 ᄃᆞ외오 가지와 닙과 곳과 여름괘 ᄠᅥ러디며 거프리 ᄠᅥ디며 웃드미 漸漸 이우러 ᄒᆞᆫ 것도 업긔것 드르니라.(석보

23: 17-18) 업긔것드르니라(형태 및 해석?)

☞ 一切 ᄒᆞ논 일 잇논 法이 便安티 몯혼 주를 如來 뵈시노라 ᄒᆞ시며 人天ᄃᆞᆯ히 色身에 즐겨 貪着ᄒᆞᆫ 사ᄅᆞᆷ 위ᄒᆞ샤 無常ᄋᆞᆯ 뵈시노라 ᄒᆞ샤 涅槃ᄋᆞᆯ ᄒᆞ시니 十方 諸佛이 實엔 涅槃이 업스샤ᄃᆡ 衆生調伏 ᄒᆡ노라 ᄒᆞ샤 滅度ᄅᆞᆯ 뵈시ᄂᆞ니라.(석보 23: 18)

◉ 十方 無數 萬億 恒河沙 너븐 부텻 世界 다 ᄀᆞ장 드러치며 갓갓 소리ᄅᆞᆯ 내야 닐오ᄃᆡ 셜ᄫᅳᆯ쎠 世界 뷔어 다 ᄒᆞ며 十方 世界옛 一切 諸山目眞隣陁山과 摩訶目眞隣陁山과 鐵圍山과 大鐵圍山과 諸須彌山과 香山과 寶山과 金山과 黑山과 一切 大地예 잇ᄂᆞᆫ 諸山이 一時예 드러쳐 ᄠᅥ디고 다 므르드르며 큰 소리ᄅᆞᆯ 내야 닐오ᄃᆡ 셜ᄫᅳᆯ쎠 世間애 慧日이 업스샤 울워ᅀᆞᄫᅧ리 업거시다 ᄒᆞ며 ᄯᅩ 十方 世界옛 一切 大海 다 흐리오 겨리 닐며 갓갓 소리ᄅᆞᆯ 내야 닐오ᄃᆡ 셜ᄫᅳᆯ쎠 衆生이 正ᄒᆞᆫ 길ᄒᆞᆯ 일허 다ᄒᆞ며 一切 江河ㅣ며「江河ᄂᆞᆫ 가ᄅᆞ미라」내히며 으므리며 모시 다 소다디여 므리 다 여위오 十方 世界 ᄀᆞ장 어드버 日月ㅅ 光明이 몯 비취오.....(석보 23: 18-19) *-비취고 /-ㄹ쎠

◉ 거믄 ᄇᆞᄅᆞ미 부러 드트리 ᄀᆞᄃᆞᆨᄒᆞ며 一切 草木이 다 것듣더라.(석보 23: 20)

◉ 그 ᄢᅴ 十方 世界 一切 諸天이 虛空애 ᄀᆞᄃᆞᆨᄒᆞ야 이셔 슬허 우니 三千 大千 世界 드러치더니 種種 花香ᄋᆞᆯ 비허 須彌山ᄀᆞ티 싸ᄒᆞ며 ᄯᅩ 空中에 幢幡 瓔珞 寶珠를 虛空애 ᄀᆞᄃᆞ기 비ᄒᆞ니 變ᄒᆞ야 七寶臺 ᄃᆞ외며 ᄯᅩ 無數ᄒᆞᆫ 풍류ᄒᆞ며 갓갓 소리ᄅᆞᆯ 내야 닐오ᄃᆡ 셜ᄫᅳᆯ쎠, 世界 뷔어 다 ᄒᆞ더라.(석보 23: 20)

◉ 그 저긔 無數億 菩薩와 一切 大衆이 다 ᄎᆞ림 몯ᄒᆞ야 阿那律이 ᄃᆞ려 무로ᄃᆡ 부톄 涅槃ᄒᆞ시니여 對答호ᄃᆡ ᄒᆞ마 涅槃ᄒᆞ시니라.(석보 23: 20)

◉ 그 ᄢᅴ 阿難이 이 말 듣고 것ᄆᆞᄅᆞ 주거 ᄯᅡ해 ᄇᆞᄃᆞ텨 수미 업거늘 阿那律이 ᄎᆞᆫ 므를 ᄂᆞᄂᆡ ᄲᅳ리고 慰勞ᄒᆞ야 닐오ᄃᆡ 부톄 비록 涅槃ᄒᆞ샤도 舍利와 法寶왜 世間애 이실ᄊᆡ 衆生 歸依ᄒᆞᆯᄊᆡ ᄯᅡ히니 우리 너희와 ᄒᆞ야 브즈러니 精進ᄒᆞ야 佛寶法寶로 衆生ᄋᆞᆯ 濟渡ᄒᆞ야 如來ㅅ 恩惠ᄅᆞᆯ 갑ᄉᆞ바ᅀᅡ ᄒᆞ리라.(석보 23: 21)

◉ 阿難이 그 말 듣고 漸漸 ᄭᅵ야 나니라.(석보 23: 21)

◉ 大衆ᄃᆞᆯ히 ᄒᆞᆫ ᄢᅴ ᄯᅡ해 업더디여 그울며 우니 一切 世界 드러치더니 그저긔 無數 億 恒河沙 菩薩와 一切 天人 大衆이 各各 ᄆᆞᅀᆞᄆᆞᆯ 누겨 無數ᄒᆞᆫ 種種花香과 幢幡瓔珞ᄋᆞ로 슬허 供養ᄒᆞᅀᆞᆸ더니 無色界天에 니르리 供養 이ᄉᆞᆫᄌᆡ 더으더라.(석보 23: 21-22) * 이ᄉᆞᆫᄌᆡ = 이시+ᄋᆞᆫ+ᄌᆞ+ㅣ(?)

◉ 그저긔 東土앤 周穆王이 셔엣더시니 二月ㅅ 보롬 나래 모딘 ᄇᆞᄅᆞ미 니러 집도 ᄒᆞ야 ᄇᆞ리며 나모도 것거디며 地動ᄒᆞ며 西方애 ᄒᆡᆫ 므지게 열둘히 南北으로 ᄀᆞᄅᆞ ᄲᅦ여 잇더니 穆王이 臣下ᄃᆞ려 무르신대 太史扈多ㅣ ᄉᆞᆯ보ᄃᆡ 西方ㅅ 聖人이 入滅ᄒᆞ시ᄂᆞᆫ 相이샤ᄉᆞ이다.「入滅은 寂滅에 드르실씨라.」(석보 23: 22)

◉ 拘尸城엣 남진 겨지비 阿難이ᄃᆞ려 ᄉᆞᅀᆞᄫᆞᆶ 法을 무러늘 그저긔 帝釋이 닐오ᄃᆡ 부텨 니ᄅᆞ샨 야ᄋᆞ로 轉輪王ㅅ 法을 브터 ᄒᆞ라.(석보 23:23) * 양

◉ 그 사ᄅᆞᆷᄃᆞᆯ히 城에 드러가 七寶金棺 밍ᄀᆞᄉᆞ바 白氎과 兜羅綿과 種種香花와 幡盖 가져와 슬허 다시 供養ᄒᆞᅀᆞᆸ고 白氎으로 소ᄂᆞᆯ 싸 如來ᄅᆞᆯ 드ᄉᆞ바 金棺애 녀ᄭᅀᆞᆸ고 香油를 ᄀᆞᄃᆞ기 브ᄭᅀᆞᆸ고 곧 둡게 를 닫ᄌᆞᄫᆞ니라.(석보 23: 23)

◉ 그저긔 拘尸城 안햇 사ᄅᆞ미 福ᄋᆞᆯ 貪ᄒᆞ야 如來ᄅᆞᆯ 앗ᄉᆞ바 드리ᅀᆞᆸ고 ᄒᆞ오ᅀᅡ 供養ᄒᆞᄉᆞᄇᆞ리라 ᄒᆞ야 힘센 사ᄅᆞᄆᆞᆯ 만히 보내야 金棺알 드ᅀᆞᆸ다가 몯ᄒᆞ야ᄂᆞᆯ 阿那律이 닐오ᄃᆡ 城 안햇 사ᄅᆞ미 다 와도 몯 드ᄉᆞᄫᆞ리어니 너희 어느 드ᄉᆞᄫᆞᆯ따.(석보 23: 23) *-ㄹ따(의문씨끝)

◉ 너희ᄃᆞᆯ히 大衆과 諸天ㅅ 히ᄆᆞᆯ 請ᄒᆞ야ᅀᅡ 城의 드리ᄉᆞᄫᆞ리라.(석보 23: 24)

◉ 그 저긔 帝釋이며 色界天 니르리 香花幢幡 풍류로 金棺ᄋᆞᆯ 供養ᄒᆞᅀᆞᆸ더라.(석보 23: 24)

◉ 世尊이 大慈悲心ᄋᆞ로 福ᄋᆞᆯ 골오 주리라 ᄒᆞ샤 沙羅林에셔 棺이 虛空애 ᄒᆞᆫ 多羅樹ㅅ 노피ᄅᆞᆯ 올아 겨시거ᄂᆞᆯ 帝釋이 天衆ᄃᆞᆯ과로 七寶盖와 네 긷 寶臺 가지고 七寶瓔珞ᄋᆞᆯ 空中에 드리워 棺ᄋᆞᆯ 눕ᄉᆞᆸ고 풍류 ᄀᆞ초아 供養ᄒᆞᄉᆞᄫᆞ며 金棺 알ᄑᆡ 七寶花香과 眞珠瓔珞이 虛空애 ᄀᆞᄃᆞ기 듣더라.(석보 23: 24)

◉ 그저긔 拘尸城ㅅ 사ᄅᆞ미 金棺이 虛空애 겨시거ᄂᆞᆯ 보ᅀᆞᆸ고 더욱 슬허 우더니 金棺이 虛空ᄋᆞ로 ᄌᆞᄂᆞᄂᆞ기 拘尸城 西門ᄋᆞ로 드르샤 東門ᄋᆞ로 나샤 南門ᄋᆞ로 드르샤 北門ᄋᆞ로 나샤 도로 西門ᄋᆞ로 드르샤 이 야ᄋᆞ로 세 번 값도ᄅᆞ시고 東門ᄋᆞ로 나샤 北門ᄋᆞ로 드르샤 南門ᄋᆞ로 나샤 西門ᄋᆞ로 드르샤 이 야ᄋᆞ로 네 번 값도ᄅᆞ샤 두루 모다 닐굽번 값도ᄅᆞ시니 拘尸城엣 사ᄅᆞ미며 無數菩薩聲聞이며 天人大衆ᄃᆞᆯ히 가ᄉᆞᆷ 두드려 울며 좃ᄌᆞ바 ᄯᅡ콰 虛空애 ᄀᆞᄃᆞᆨᄒᆞ야 가며 無數 花香幡盖로 供養ᄒᆞᅀᆞᆸ더라.(석보 23: 25)

◉ 그저긔 一切 大衆이 無色界天 니르리 種種 香木ᄋᆞᆯ 가져ᄉᆞᄉᆞᄒᇙ ᄯᅡ해 왯더니 金棺이 漸漸 오샤 七寶床애 ᄂᆞ리시니라.(석보 23: 26)

◉ 如來 涅槃ᄒᆞ시니 摩耶夫人이 忉利天에 겨샤 五衰相이 現ᄒᆞ시고 그 낤 바ᄆᆡ 다ᄉᆞᆺ 가짓 머즌 ᄉᆞᄆᆞᆯ ᄉᆞ시니 ᄒᆞ나핸 須彌山이 믈어디며 四海 바닷 므리 여위오, 둘헨 羅刹ᄃᆞᆯ히 ᄃᆞ라가 사ᄅᆞᄆᆡ 눈ᄌᆞᄉᆞᄅᆞᆯ 물아 앗고 세헨 하ᄂᆞᆯ히 寶冠ᄋᆞᆯ 일흐며 모매 光明이 업고 네헨 구슬로 ᄉᆞᄆᆞᆫ 幢이 갓고로 디며 如意珠를 일코 다ᄉᆞ샌 師子ㅣ ᄌᆞ갯 모ᄆᆞᆯ 너흐니 갈ᄒᆞ로 바히ᄂᆞᆫ ᄃᆞᆺ 알ᄑᆞ거시ᄂᆞᆯ ᄉᆡ야 니ᄅᆞ샤ᄃᆡ 이 됴ᄒᆞᆫ ᄂᆞ지 아니로다.(석보 23: 26)

◉ 내 아래 白淨王ㅅ 宮의 이싫 저긔 「白淨王은 淨飯王이라」 나ᄌᆡ 자다가 쉽디 몯ᄒᆞᆫ ᄉᆞᄆᆞᆯ ᄉᆞ오니 ᄒᆞᆫ 天子ㅣ 모미 黃金色이오 白象 ᄐᆞ고 諸天子 더블오 됴ᄒᆞᆫ 풍류ᄒᆞ고 힛 光애 ᄲᅦ여 내 올ᄒᆞᆫ 녀브로 들어ᄂᆞᆯ 몸과 ᄆᆞᅀᆞᆷ괘 便安코 즐겁더니 곧 悉達太子ᄅᆞᆯ ᄇᆡ여 나하 世界ᄅᆞᆯ ᄇᆞᆰ긔 호니 이 ᄉᆞᄆᆞᆫ 당다이 如來ㅅ 涅槃相이샷다 ᄒᆞ더시니 그 ᄢᅴ 阿那律이 如來ᄅᆞᆯ 棺애 녀ᄭᅀᆞᆸ고 忉利天에 올아가 偈 지ᅀᅥ ᄉᆞᆯ바ᄂᆞᆯ 摩耶ㅣ 드르시고 싸해 것ᄆᆞᄅᆞ 주거디여 겨시다가 오라거ᅀᅡ ᄊᆡ샤 즉자히 眷屬 ᄃᆞ리샤 雙樹間애 오샤 (석보 23: 27)

◉ 부텻 棺ᄋᆞᆯ ᄇᆞ라시고 것ᄆᆞᄅᆞ 주거디거시ᄂᆞᆯ ᄂᆞ치 믈 ᄲᅳ리여ᅀᅡ ᄉᆡ샤 棺 알ᄑᆡ 나ᅀᅡ가 禮數 ᄒᆞ시고 울며 니ᄅᆞ샤ᄃᆡ 無量劫으로셔 長常 母子ㅣ ᄃᆞ외오다니 ᄒᆞᆺ 아ᄎᆞᄆᆡ ᄂᆞ외야 몯 보ᅀᆞᆸ게 다외요니 셜ᄫᆞᆯ쎠 衆生ᄋᆡ 福이 다ᄋᆞ거다 ᄒᆞ시고 種種 天花로 棺 우희 비ᄒᆞ시고 如來ㅅ 袈裟와 바리와 錫杖ᄋᆞᆯ

도라보시고 올ᄒᆞᆫ 소ᄂᆞ로 자ᄇᆞ샤 짜해 업더디여 우르시니 四衆이 다 슬허 우더니 帝釋이 그 ᄂᆞᆫᄆᆞᆯ로 ᄀᆞᄅᆞ미 ᄃᆞ외야 흐르게 ᄒᆞ니라.(석보 23: 28)

☞ 그 ᄂᆞᆫᄆᆞ른 摩耶 夫人ㅅ ᄂᆞᆫᄆᆞᆯ와 四衆의 ᄂᆞᆫᄆᆞ를 다 니르니라.(석보 23: 28)

◉ 그 ᄢᅴ 世尊이 神力으로 棺ㅅ 둡게ᄅᆞᆯ 열티게 ᄒᆞ시고 合掌ᄒᆞ야 니러 안ᄌᆞ시니 터럭 구무마다 一千 光明을 펴시고 光明마다 一千 化佛이 現ᄒᆞ샤 다 合掌ᄒᆞ야 摩耶ᄭᅴ로 向ᄒᆞ야 ᄉᆞᆯᄫᆞ샤ᄃᆡ 閻浮提예 머리셔 오실쎠.(석보 23: 29)

◉ 法이 本來 이런 거시니 우디 마ᄅᆞ쇼셔 ᄒᆞ시고 偈ᄅᆞᆯ ᄉᆞᆯᄫᆞ샤ᄃᆡ 一體 福田ㅅ 中에 부텻 福田이 ᄆᆞᆺ 爲頭ᄒᆞ며 一切 겨집 中에 玉女寶ㅣ ᄆᆞᆺ 爲頭ᄒᆞ니 날 나ᄒᆞ신 어마니미 느러 ᄀᆞᆯᄫᆞ리 업스샤 能히 三世옛 佛法僧寶ᄅᆞᆯ 내실ᄊᆡ 내 棺ᄋᆞ로셔 니러 合掌ᄒᆞ야 깃거 讚嘆ᄒᆞᄉᆞ바 나ᄒᆞ샨 恩惠ᄅᆞᆯ 갑ᄉᆞ바 내ᄋᆡ 孝道ᄒᆞᄉᆞᄫᆞ며 ᄉᆞ랑ᄒᆞᅀᆞᆸ논 ᄠᅳ들 나토노니 諸佛이 비록 滅度ᄒᆞ야도 法僧寶ㅣ 샹녜 잇ᄂᆞ니 願ᄒᆞᆫ ᄃᆞᆫ 어마니미 시름 마ᄅᆞ시고 無上行ᄋᆞᆯ ᄉᆞᆯ펴 보쇼셔 ᄒᆞ시니라.(석보23: 29-30)

◉ 그 ᄢᅴ 阿難이 부텻긔 ᄉᆞᆯᄫᆞᄃᆡ ᄂᆞ미 당다이 내 그에 무로ᄃᆡ 涅槃ᄒᆞ실 쩌긔 ᄆᆞ슷 마ᄅᆞᆯ ᄒᆞ시더뇨 ᄒᆞ리니 므스기라 니르리잇고.(석보 23: 30) * ᄒᆞ+시+더+뇨 (어순유의)

◉ 부톄 니ᄅᆞ샤ᄃᆡ 阿難아 네 對答호ᄃᆡ 世尊이 ᄒᆞ마 涅槃애 드렛더시니 摩耶夫人이 오나시ᄂᆞᆯ 如來 後世옛 不孝ᄒᆞᄂᆞᆫ 衆生ᄃᆞᆯᄒᆞᆯ 위ᄒᆞ야 金棺 여르시고 니르샤 合掌ᄒᆞ야 問訊ᄒᆞ시고 아ᄆᆞ란 偈ᄅᆞᆯ 니르시니라 ᄒᆞ라.(석보 23: 30)

◉ 如來 그 말 다ᄒᆞ시고 摩耶ᄭᅴ 하딕ᄒᆞ시고 棺ᄋᆞᆯ 도로 두프시니 三千 世界 다 드러치고 八部大衆이 목노하 우더라.(석보 23: 31)

◉ 摩耶 夫人이 阿難이ᄃᆞ려 무르샤ᄃᆡ 如來 乃終에 므슴 마ᄅᆞᆯ ᄒᆞ더시뇨.(석보 23: 31)

◉ 阿難이 ᄉᆞᆯᄫᆞᄃᆡ 밠中에 比丘ᄃᆞ려 警戒ᄒᆞ시고 ᄯᅩ 니ᄅᆞ샨 十二部經을 摩訶迦葉을 맛디노라 ᄒᆞ시고 ᄯᅩ 나ᄅᆞᆯ 조쳐 도바 펴라 ᄒᆞ더시니이다.(석보 23: 31)

◉ 摩耶ㅣ 더 슬ᄒᆞ샤 ᄯᅩ 무르샤ᄃᆡ 네 아래브터 부텨를 뫼ᄉᆞ바 ᄒᆞ니며 듣ᄌᆞ바 잇ᄂᆞ니 如來ㅅ 正法이 언제 滅ᄒᆞ리라 ᄒᆞ더시뇨.(석보 23: 31)

◉ 阿難이 울며 ᄉᆞᆯᄫᆞᄃᆡ 世尊이 아래 니ᄅᆞ샤ᄃᆡ 나 涅槃ᄒᆞᆫ 後에 摩訶迦葉과 阿難이 왜 法藏ᄋᆞᆯ 結集ᄒᆞ고 「結集은 모도아 經 밍ᄀᆞᆯ씨라」 摩訶迦葉이 狼跡山애 드러 滅盡定에 들어든 阿難이도 果證ᄋᆞᆯ 得ᄒᆞ야미 조차 般涅槃애 들쩌긔 正法으로 優婆趨(+毛+匊)多ᄅᆞᆯ 맛뎌든 優婆趨(+)多ㅣ 說法 잘ᄒᆞ야 사ᄅᆞᄆᆞᆯ 만히 濟渡ᄒᆞ며 ᄯᅩ 阿輸迦王ᄋᆞᆯ 勸ᄒᆞ야 (석보 23: 31-32)

☞ 阿」輸迦王은 無憂王이라 혼 ᄠᅳ디니 無憂는 시름 업슬씨니 이 王 날쩌긔 어마니미 시름 업슬씨 無憂ㅣ라 ᄒᆞ니라.(석보 23: 32)

◉ 부텻 法에 發心ᄒᆞ야 부텻 舍利로 八萬 四千塔ᄋᆞᆯ 셰에ᄒᆞ고 二百히 後에ᄂᆞᆫ 尸羅難陁 比丘ㅣ 說法을 잘ᄒᆞ야 閻浮提예 十二億 사ᄅᆞᄆᆞᆯ 濟渡ᄒᆞ고 三百히 後에ᄂᆞᆫ 靑蓮花眼比丘ㅣ 說法을 잘ᄒᆞ야 半

億 사ᄅᆞᆯ 濟渡ᄒᆞ고 四百히 後에ᄂᆞᆫ 牛口比丘ㅣ 說法을 잘ᄒᆞ야 一萬 사ᄅᆞᆯ 濟渡ᄒᆞ고 五百히 後에ᄂᆞᆫ 寶天比丘ㅣ 說法을 잘ᄒᆞ야 二萬 사ᄅᆞᆯ 濟渡ᄒᆞ고 八萬 衆生이 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ᄋᆞᆯ 發ᄒᆞ리니 正法이 이어긔 곧 다 업스리라.(석보 23: 32-33)

◉ 六百히 後에ᄂᆞᆫ 外道ᄃᆞᆯ히 난겻 佛法을 헐어든 ᄒᆞᆫ 比丘 馬鳴이라 호리 說法을 잘ᄒᆞ야 一切外道ᄃᆞᆯᄒᆞᆯ 降服히오 七百히 後에ᄂᆞᆫ ᄒᆞᆫ 比丘龍樹ㅣ라 호리 說法을 잘ᄒᆞ야 邪見幢ᄋᆞᆯ 업긔 ᄒᆞ고 正法홰ᄅᆞᆯ 혀리라.(석보 23: 33-34)

◉ 八百히 後에ᄂᆞᆫ 比丘ᄃᆞᆯ히 됴ᄒᆞᆫ 옷 즐겨 닙고 노ᄅᆞᆯ 즐겨ᄒᆞᆯ씨 百千 사ᄅᆞᄆᆡ 그에ᅀᅡ ᄒᆞ나 둘히 道果ᄅᆞᆯ 得ᄒᆞ며 九百히 後에ᄂᆞᆫ 남진 죵은 沙門이 ᄃᆞ외오 겨집죵은 比丘尼 ᄃᆞ외오 一千히 後에ᄂᆞᆫ 比丘ᄃᆞᆯ히 됴ᄒᆞᆫ 法을 즐기디 아니ᄒᆞ야 無量 比丘의 그에ᅀᅡ ᄒᆞ나 둘만 正受를 ᄉᆞ랑ᄒᆞ며 一千 一百히 後에ᄂᆞᆫ 比丘ᄃᆞᆯ히 댱가 드리를 ᄒᆞ며 大衆中에 毗尼ᄅᆞᆯ 비우스며 (석보 23: 34)

☞ 毗尼ᄂᆞᆫ 이대 다ᄉᆞ리다 ᄒᆞ논 마리니 제 모맷 婬과 怒와 癡와ᄅᆞᆯ 다ᄉᆞ리고 ᄯᅩ 衆生ᄋᆡ 惡ᄋᆞᆯ 能히 다ᄉᆞ릴씨라.(석보 23: 35)

◉ 一千二百히 後에ᄂᆞᆫ 즁과 승과 어러 子息 나하 아ᄃᆞᄅᆞᆫ 比丘ㅣ ᄃᆞ외오 ᄯᅳᄅᆞᆫ 比丘尼 ᄃᆞ외며 一千三百히 後에ᄂᆞᆫ 袈裟ㅅ 비치 自然히 히야 믈드디 아니ᄒᆞ리며 一千 四百히 後에ᄂᆞᆫ 四衆이 殺生ᄋᆞᆯ 즐기며 덦거슬 다 내야 ᄑᆞᆯ며 一千五百히옌 俱賒彌國에 三藏比丘의 弟子ㅣ 羅漢比丘를 주겨든 羅漢比丘의 弟子ㅣ 三藏比丘를 주기리니 그저긔 天龍八部ㅣ 다 시름ᄒᆞ야 ᄒᆞ거든 魔王波旬과 外道ᄃᆞᆯ히 깃거 난 겻기로 塔과 뎔와 ᄒᆞ야 ᄇᆞ리고 比丘ᄃᆞᆯᄒᆞᆯ 주겨든 一切 經藏ᄋᆞᆯ 阿耨達龍王이 다 가져 바ᄅᆞᆯ로 드러가리니 그저긔 佛法이 다 滅ᄒᆞ리라 ᄒᆞ더시이다.(석보 23: 35-36)

◉ 摩耶ㅣ 목노하 우르시고 니ᄅᆞ샤ᄃᆡ 如來ㅅ 正法을 네 맛ᄌᆞᄫᆞ란ᄃᆡ 브즈러니 護持ᄒᆞ야 닐그며 외오라.(석보 23: 36)

◉ 나ᄂᆞᆫ 如來 ᄉᆞᅀᆞᄫᆞᆯ 쩌글 ᄎᆞ마 보ᅀᆞᆸ디 몯ᄒᆞ야 가노라 ᄒᆞ시고 부텻 棺애 禮數ᄒᆞ시고 올ᄒᆞᆫ 녀그로 닐굽 번 갌도ᄅᆞ시고 목노하 우르샤 하ᄂᆞᆯ해 도라가시니라.(석보 23: 36)

◉ 그저긔 拘尸城엣 남진과 겨집과 無數ᄒᆞᆫ 菩薩聲聞 三十三天 一切 大衆이 種種 花香幢幡으로 金棺ᄋᆞᆯ 뫼ᅀᆞ바 이셔 닐웨ᄅᆞᆯ 디내요ᄃᆡ 부텻 神力으로 ᄇᆡ골픈 ᄆᆞᅀᆞ미 업고 오직 그리ᅀᆞ바 슬허 우니ᅀᆞᆸ더니 닐웨 디나거늘 如來ᄅᆞᆯ 다시 내ᅀᆞ바 七寶床애 연쟙고 大衆이 다시 ᄀᆞ장 슬ᄊᆞ바 一切 花香繒盖 풍류로 供養 ᄒᆞᅀᆞᆸ고 三十二相 八十種好 無量福德 智慧 莊嚴 金剛 堅固 紫磨 黃金 不壞 色身ᄋᆞᆯ 香水예 싯ᅀᆞ바 兜羅綿에 ᄲᅳ리ᅀᆞ바 白氎으로 ᄡᅡᄉᆞ바 金棺애 도로 녀ᄊᆞᄫᆞ니 그저긔 大衆의 가져온 香木이 須彌山 ᄀᆞ티 싸ᄒᆞ니 香내 世界예 차 펴디더니 香木ᄋᆞᆯ 최치기 무러 樓를 밍ᄀᆞᆯ오 七寶로 ᄭᅮ미ᅀᆞᆸ고 幢盖와 幡과 곳과 瓔珞과 各色彩로 莊嚴ᄒᆞᅀᆞᆸ고 「彩ᄂᆞᆫ 빗난 필ᄫᅵᆨ이라」 그 香樓 우희 金棺ᄋᆞᆯ 연쟙고 모다 다시 슬퍼 香花 풍류로 供養ᄒᆞᅀᆞᆸ고 大衆이 各各 七寶 香쵸 자바 香樓에 두루 브티ᅀᆞᄫᆞ며 한 ᄲᅴ 우니 大千世界 드러치더니 브리 香樓에 다ᄃᆞ라 ᄲᅳ고 아니 브틀씨 諸天이 ᄯᅩ 브티ᅀᆞᆸ다가 몯ᄒᆞ고 海神이 ᄯᅩ 브티ᅀᆞᆸ다가 몯ᄒᆞ야ᄂᆞᆯ 모다 닐오ᄃᆡ 如來 므슷 因緣을 몯 ᄆᆞ차 이러ᄒᆞ거시뇨 ᄒᆞ더니 (석보 23: 37-38)

◉ 阿那律이 닐오ᄃᆡ 날호라 그듸 내 히ᄆᆞ로 몯 ᅀᆞᅀᆞᄫᆞ리니 大迦葉이 五百 弟子 ᄃᆞ려와 부텻 모ᄆᆞᆯ 보ᅀᆞ보려 ᄒᆞᆯ씨 브를 아니 븓게 ᄒᆞ시ᄂᆞ니라.(석보 23: 39) *-ㄹ씨(이음씨끝)

◉ 그 저긔 世尊이 金棺ᄋᆞ로셔 金色 불ᄒᆞᆯ 내바ᄃᆞ샤 阿難이ᄃᆞ려 무르샤ᄃᆡ 迦葉 比丘ㅣ 왯ᄂᆞ니여.(석보 23: 39)

◉ 阿難이 ᄉᆞᆯ보ᄃᆡ 몯 왯ᄂᆞ니이다 ᄒᆞᄉᆞ바ᄂᆞᆯ 불ᄒᆞᆯ 도로 드리시니라.(석보 23: 39)

◉ 그저긔 大迦葉이 五百 弟子 ᄃᆞ리고 耆闍堀山ㅅ 畢鉢羅窟애 잇더니 拘尸城의셔 머루미 ᄒᆞᆫ 由旬이러라.(석보 23: 39)

◉ 三昧예 드러 이셔 自然히 ᄆᆞᄉᆞᄆᆞᆯ 놀라아 三昧로셔 나아 보니 뫼히 드러치거늘 如來 ᄒᆞ마 涅槃ᄒᆞ신 고ᄃᆞᆯ 아ᄉᆞᆸ고 弟子ᄃᆞᆯᄃᆞ려 닐오ᄃᆡ 우리 佛大師ㅣ ᄒᆞ마 涅槃ᄒᆞ샨디 닐웨 디나샤 棺애 드러셔시도소니 셜ᄫᅳᆯ쎠 셜ᄫᅳᆯ쎠.如來ᄭᅴ 어셔 가ᄉᆞ바ᅀᅡ ᄒᆞ리로다.(석보 23: 39-40) * -ㄹ쎠 / -도소-/ -ㄴ디

◉ 迦葉이 如來ᄅᆞᆯ 恭敬ᄒᆞᄉᆞᄫᅳᆯ씨 虛空ᄋᆞ로 ᄂᆞ라오디 아니코 弟子ᄃᆞᆯ 더블오 길ᄒᆞ로 밧비 거러 닐웨ᅀᅡ 拘尸城 東녀긔 오더니 ᄒᆞᆫ 婆羅門이 하ᄂᆞᆳ 고ᄌᆞᆯ 잡고 오거늘 마조 보아 무로ᄃᆡ 그듸ᄂᆞᆫ 어드러셔 오시ᄂᆞ니.(석보 23: 40) *-니(-잇고/가)생략형

◉ 對答호ᄃᆡ 부톄 涅槃ᄒᆞ야시ᄂᆞᆯ 내 ᄉᆞᄉᆞᄫᆞᆲ ᄯᅡᄒᆞ로셔 오노라.(석보 23: 40)

◉ ᄯᅩ 무로ᄃᆡ 이 고ᄃᆞᆫ ᄆᆞᅀᆞᆷ 곳고.(석보 23: 40)

◉ 對答호ᄃᆡ 부텨 ᄉᆞᄉᆞᄫᆞᆲ ᄯᅡ해 가 어둔 하ᄂᆞᆳ 고지라.(석보 23: 40)

◉ 迦葉이 도라ᄒᆞ야 비러늘 對答호ᄃᆡ 내 가져다가 어버ᅀᅵ와 아ᅀᆞᆷᄃᆞᆯ홀 뵈오 供養ᄒᆞᄉᆞᄫᆞ려 ᄒᆞ노라.(석보23: 41)

◉ 迦葉이 다시 비러 머리 우희 엿고 ᄯᅡ해 디여 ᄎᆞ림 몯ᄒᆞ얫다가 오라거ᅀᅡ ᄉᆡ야 拘尸國 北門ᄋᆞ로 드러 ᄒᆞᆫ 쥬의 坊ᄋᆡ 가니 여러 比丘ᄃᆞᆯ히 ᄒᆞᆫ 고대 모다 이셔 迦葉이ᄃᆞ려 닐오ᄃᆡ 너희 머리셔 ᄀᆞᆺ비오니 이에 안자 밥 머그라.(석보 23: 41)

◉ 迦葉이 닐오ᄃᆡ 내 큰 스승니미 ᄒᆞ마 涅槃ᄒᆞ시니 어느 ᄆᆞᄉᆞᄆᆞ로 바ᄇᆞᆯ 머그료.(석보 23: 41) *-님

◉ 모ᄃᆞᆫ 比丘ㅣ 닐오ᄃᆡ 네 스승이 누고.(석보 23: 41) *-고(의문씨끝)

◉ 對答호ᄃᆡ 世尊이시니라.(석보 23: 41)

◉ 比丘ᄃᆞᆯ히 듣고 ᄀᆞ장 깃거 닐오ᄃᆡ 즐거ᄫᆞᆯ쎠. 즐거ᄫᆞᆯ쎠. 如來 겨실 쩌긔ᄂᆞᆫ 우리 ᄒᆞ논 이ᄅᆞᆯ 禁止ᄒᆞ야 法이 싁싁ᄒᆞᆯ씨 우리ᄃᆞᆯ히 甚히 어려벙 ᄒᆞ다소니 이제 涅槃ᄒᆞ시니 싁싁ᄒᆞᆫ 法이 ᄒᆞ마 업스리로다 ᄒᆞ더니 부텻 神力으로 諸天ㅅ 귀와 迦葉의 弟子ᄃᆞᆯ히 귀ᄅᆞᆯ ᄀᆞ리여뎌 모딘 比丘의 마ᄅᆞᆯ 몯 듣게 ᄒᆞ시고 迦葉이ᅀᅮᆫ 듣게 ᄒᆞ시니라.(석보 23: 41-42) ᅀᅮᆫ(가섭+이+ᅀᅮᆫ)

◉ 그저긔 迦葉이 弟子ᄃᆞᆯ ᄃᆞ리고 부텨 供養ᄒᆞᄆᆞᄅᆞᆷ 거슬 그 城 안해 次第로 비러 가지고 西門ᄋᆞ로 나아 부텨ᄭᅴ 오ᅀᆞ바 金棺을 ᄇᆞ라ᄉᆞᆸ고 모ᄃᆞᆫ 弟子와 ᄒᆞᆫ ᄢᅴ 禮數ᄒᆞᄉᆞᆸ고 ᄎᆞ림 몯ᄒᆞ야 디옛다가 오라거ᅀᅡ ᄉᆡᆼ야 나ᅀᅡ ᄃᆞᅀᆞ바 香樓에 ᄌᆞᄂᆞᄌᆞᄂᆞ기 올아 비론 香花와 幡盖와 寶幢과 瓔珞과 풍류로 供養ᄒᆞᅀᆞ바 香 퓌우며 곳 비ᄉᆞᆸ고 ᄀᆞ장 슬허 우러 모ᄃᆞᆫ 弟子 ᄃᆞ리고 올ᄒᆞᆫ 녀그로 닐굽ᄇᆞᆯ 도ᄉᆞᆸ고 合掌ᄒᆞ야 ᄉᆞ러 이셔 몯내 슬허ᄒᆞ더니 世尊이 큰 慈悲心ᄋᆞ로 迦葉이 위ᄒᆞ샤 즉자히 두 바ᄅᆞᆯ 棺 밧긔 내바ᄃᆞ샤 迦葉일 뵈시니.(석보 23: 42-43)

◉ 千福輪으로셔 ᄌᆞ믄 光明을 펴샤 十方 一切 世界ᄅᆞᆯ 차 비취여시ᄂᆞᆯ 迦葉이 弟子ᄃᆞᆯ콰 ᄒᆞᆫ ᄢᅴ 禮數ᄒᆞᄉᆞᆸ고 것ᄆᆞᄅᆞ 주거 ᄯᅡ해 디옛다가 오라거ᅀᅡ ᄉᆡᆼ야 올ᄒᆞᆫ 녀그로 닐굽ᄇᆞᆯ 도ᄉᆞᆸ고 다시 저ᄉᆞᆸ고 몯내 슬허 목노하 우더니 如來 큰 音聲을 내샤 니ᄅᆞ샤ᄃᆡ 내 正法眼ᄋᆞ로 너를 맛디노라 ᄒᆞ시고 바ᄅᆞᆯ 도로 드리시니 棺이 네라ᄒᆞᆫ ᄃᆞᆺᄒᆞ더시다.(석보 23: 43)

◉ 祐律師ㅣ 닐오ᄃᆡ 부톄 本來 至極 寂靜ᄒᆞᆫ 그에 住ᄒᆞ샤 ᄒᆞᆫ 일도 업거신마ᄅᆞᆫ 世間ᄋᆞᆯ 조ᄎᆞ샤 世間애 나아 뵈시ᄂᆞ니 衆生이 처ᅀᅥᆷ 乃終을 보ᄉᆞᆸᄫᆞᆯᄲᅮᆫ뎡 法身은 나며 드르샤미 업스시니라.(석보 23: 44) -ㄹᄲᅮᆫ뎡

◉ 그럴ᄊᆡ 거즛말로 둥알패라 ᄒᆞ샤ᄃᆡ 뵈야ᄒᆞ로 甘露ᄅᆞᆯ 펴시며 거즛 일로 올ᄒᆞᆫ 녀브로 부ᄇᆡ 겨시다가 ᄯᅩ 光明을 펴시니 이 病 업스샨 주리라.(석보 23: 44)

◉ ᄯᅩ 一千 白氎으로 ᄡᅳᅀᆞ바 이쇼ᄃᆡ 두 바ᄅᆞᆯ 迦葉이 뵈시며 金棺이 다다 잇다가 摩耶ᄭᅴ 니러 合掌ᄒᆞ시니 이 업디 아니ᄒᆞ샨 주리라.(석보 23: 44)

◉ 그저긔 拘尸城엣 네 力士ㅣ 各各 七寶 홰옛블 가져 드러 香樓를 브티ᄉᆞᆸ다가 몯ᄒᆞ야ᄂᆞᆯ ᄯᅩ 여듧 力士ㅣ 드러 브티ᄉᆞᆸ다가 몯ᄒᆞ야ᄂᆞᆯ ᄯᅩ 열여슷 力士ㅣ 드러 브티ᄉᆞᆸ다가 몯ᄒᆞ야ᄂᆞᆯ ᄯᅩ 셜흔 여슷 力士ㅣ 드러 브티ᄉᆞᆸ다가 몯ᄒᆞ야ᄂᆞᆯ 大迦葉이 力士ᄃᆞᆯ콰 一切 大衆ᄃᆞ려 닐오ᄃᆡ 너희 아라라. 一切 天人ᄋᆡ ᄇᆞᆯ로 如來ㅅ 棺을 몯 ᄉᆞᄉᆞᆸᄂᆞᆫ 거시라. 그저긔 如來 큰 悲力으로 가ᄉᆞᄆᆞ로셔 브를 棺 밧긔 내샤 브티시니 닐웻 ᄉᆞᄉᆡ롤 모다 울쏘리 긋디 아니ᄒᆞ더라.(석보 23: 45)

◉ 그저긔 四天王이 各各 너교ᄃᆡ 내 香水로 브를 ᄢᅳ고 부텻 舍利ᄅᆞᆯ 뫼셔다가 供養ᄒᆞᅀᆞ보리라 ᄒᆞ야 七寶 金甁에 香水 녀허와 ᄢᅳᄉᆞᆸ다가 몯ᄒᆞ야ᄂᆞᆯ ᄯᅩ 海神沙伽羅龍王과 江神과 河神괘 各各 너교ᄃᆡ 내 香水로 브를 ᄢᅳ고 舍利ᄅᆞᆯ 뫼셔다가 供養ᄒᆞᅀᆞ보리라 ᄒᆞ야 各各 寶甁에 香水 녀허와 ᄢᅳᄉᆞᆸ다가 몯ᄒᆞ야ᄂᆞᆯ 阿那律이 닐오ᄃᆡ 그듸 내 ᄆᆞᄃᆡ 아니 舍利ᄅᆞᆯ 뫼셔다가 供養ᄒᆞᅀᆞ보려 ᄒᆞ시ᄂᆞ니.(석보 23: 46)

◉ 對答호ᄃᆡ 實엔 그리 ᄒᆞ노라.(석보 23: 46)

◉ 阿那律이 四天王ᄃᆞ려 닐오ᄃᆡ 그듸 내 貪心이 하도다.(석보 석보 23: 46)

◉ 舍利ᄅᆞᆯ 뫼셔 하ᄂᆞᆯ 우희 가면 ᄯᅡ햇 사ᄅᆞ미 어드리 가 供養ᄒᆞᅀᆞᄫᆞ료.(석보 23; 47)

◉ ᄯᅩ 海神ᄃᆞᆯᄃᆞ려 닐오ᄃᆡ 그듸 내 舍利ᄅᆞᆯ 뫼셔 믈로 드러가면 무릿 사ᄅᆞ미 어드리 가 供養ᄒᆞᄆᆞᄫᆞ료.(석보 23: 47)

◉ 四天王과 大海神ᄃᆞᆯ히 다 외오 호이다 ᄒᆞ고 各各 도라 니거늘 帝釋이 와 金甁엣 므를 븟ᄉᆞᄫᆞ니 브리 ᄲᅥ디거늘 帝釋이 부텻 엄니ᄅᆞᆯ 가지ᅀᆞ보려 ᄒᆞ더니.(석보 23: 47)

◉ 阿那律이 닐오ᄃᆡ ᄆᆞᅀᆞᄆᆞ로 몯ᄒᆞ시리니 大衆ᄃᆞᆯ콰 ᄒᆞᆫ ᄢᅴ ᄂᆞᆫ호쇼셔.(석보 23: 47)

◉ 帝釋이 닐오ᄃᆡ 부톄 아래 ᄒᆞᆫ 니ᄅᆞᆯ 몬져 주시니라 ᄒᆞ고 부텻 棺ᄋᆞᆯ 여ᅀᆞᆸ고 올ᄒᆞᆫ 녁 우흿 엄니ᄅᆞᆯ 뫼ᅀᆞ바 忉利天에 가 塔 일어 供養ᄒᆞᄫᆞᆸ더라.(석보 23: 47)

☞ 이 塔은 天上 네 塔엣 ᄒᆞ나히라.(석보 23: 47)

◉ 그 저긔 ᄂᆞᆯ난 羅刹 ᄃᆞᆯ히 모ᄆᆞᆯ 수머 帝釋 조차 와 모ᄃᆞᆫ 사ᄅᆞ미 다 몯 보거늘 ᄀᆞ마니 드러 부텻 엄니 ᄒᆞᆫ 雙ᄋᆞᆯ 도ᄌᆞᄒᆞᅀᆞ바 가니라.(석보 23: 48)

◉ 그저긔 城內ㅅ 사ᄅᆞ미 棺ᄋᆞᆯ 여ᅀᆞ바ᄂᆞᆯ 阿那律이 白氎을 드러보ᅀᆞᄫᆞ니 白氎은 一千張ᄋᆞ로 ᄒᆞ야 밧긧 ᄒᆞᆫ ᄇᆞ리 아니 ᄉᆞᆯ이고 兜羅綿은 다 아니 ᄉᆞᆯ여 겨시거늘 阿那律이 아니 ᄉᆞᆯ엣ᄂᆞᆫ 白氎과 兜羅綿을 효기 ᄡᅳ저 大衆ᄃᆞᆯᄒᆞᆯ 돌아 寶塔 일어 供養ᄒᆞᄉᆞᆸ게 ᄒᆞ고 또 白氎 ᄉᆞᆯ인ᄌᆡᄅᆞᆯ 쟉쟉 ᄂᆞᆫ호아 주어 寶塔 일어 供養ᄒᆞᄉᆞᆸ게 하고 녀나믄 ᄌᆡᄂᆞᆫ 모ᄃᆞᆫ 사ᄅᆞ미 各各 제 ᄆᆞᅀᆞᄆᆞ로 다마다가 塔 일어 供養 ᄒᆞᄉᆞᆸ더니라.(석보 23: 48)

◉ 城 안햇 사ᄅᆞ미 ᄇᆞᆯ쎠 匠人 브려 여듧 金壝과 「壝은 甁 ᄀᆞᆮᄒᆞᆫ 거시라」 여듧 師子座ᄅᆞᆯ ᄇᆡᇰᄀᆞᄉᆞᆸ고 各各 七寶로 ᄭᅮ미ᄉᆞᆸ고 그 七寶壝ᄋᆞᆯ 師子座ㅅ 우희 ᄒᆞ나콤 엳ᄌᆞᆸ고 師子座마다 셜흔 두 力士ㅣ ᄃᆞᅀᆞᄫᆞ며 그 座 우희 또 各各 여듧 嫁女ㅣ 七寶壝ᄋᆞᆯ 잡ᅀᆞᄫᆞ며 또 各各 여듧 嫁女ㅣ 七寶盖ᄅᆞᆯ 자바 金壝 우희 둡ᅀᆞᄫᆞ며 또 各各 嫁女ㅣ 七寶劒을 자바 七寶壝ᄋᆞᆯ 侍衛ᄒᆞᅀᆞᄫᆞ며 「劒은 갈히라」 또 各各 여듧 嫁女ㅣ ᄉᆡᆼ지츠로 ᄆᆡᇰᄀᆞ론 纛ᄋᆞᆯ 자바 壝四面에 셔ᅀᆞᄫᆞ며 「纛은 幢 ᄀᆞᆮᄒᆞᆫ 거시라」 各各 無數ᄒᆞᆫ 사ᄅᆞ미 微妙ᄒᆞᆫ 풍류와 보ᄇᆡ옛 幢幡盖와 香花와 瓔珞과ᄅᆞᆯ 가져 圍繞ᄒᆞᅀᆞ바 供養ᄒᆞᅀᆞᄫᆞ며 또 各各 無數ᄒᆞᆫ 사ᄅᆞᆷᄃᆞᆯ히 화살와 槍과 여러가짓 싸호맷 연자ᄋᆞᆯ 가지고 圍繞ᄒᆞ야 拘尸城으로셔 ᄉᆞᅀᆞᄇᆞᆫ 짜해 갊 時節에 城 안햇 모ᄃᆞᆫ 사ᄅᆞ미 無數ᄒᆞᆫ 香泥와 「泥ᄂᆞᆫ 즌 ᄒᆞᆯ기니 香泥ᄂᆞᆫ 香ᄋᆞ로 즌 ᄒᆞᆱᄀᆞ티 ᄆᆡᇰᄀᆞ론 거시라」 香水와ᄅᆞᆯ 가져 力士 뒤헤미조차 오며 길 닷가 香泥 ᄇᆞᄅᆞ고 깄 두녁 펴네 無數ᄒᆞᆫ 보ᄇᆡ옛 幢幡盖와 香花와 眞珠 瓔珞과 各色 金線 비단과 풍류와ᄅᆞᆯ 싁싀기 ᄭᅮ며 기드리ᄉᆞᆸ더니 (석보 23: 49-50)

◉ 그저긔 世尊이 大悲力으로 金剛 모ᄆᆞᆯ ᄇᆞᆯ아 舍利ᄅᆞᆯ ᄆᆡᇰᄀᆞᄅᆞ시니 여듧 셤 너머 마리러시니 네 엄니ᄲᅮᆫ 그저 겨시더라. 「舍利ㅅ 비치 五色이 ᄀᆞᆺ더시다」(석보 23: 51)

◉ 그저긔 大衆ᄃᆞᆯ히 舍利ᄅᆞᆯ 보ᄉᆞᆸ고 다시곰 슬허 가ᄌᆞᆫ 거스로 供養ᄒᆞᄉᆞᆸ더니 阿那律이 舍利ᄅᆞᆯ 여듧 金壝애 녀ᄊᆞᄫᆞ니 맛ᄒᆞ더시니 香泥路ᄅᆞᆯ 조차 「路ᄂᆞᆫ길히라」 一切 人天 大衆이 拘尸城 안해 뫼ᅀᆞ바 드리ᄉᆞᆸ고 拘尸城ㅅ 사ᄅᆞ미 녀느 나라해셔 와 아ᄉᆞᆷ가 너겨 四兵 모도아 城 밧긔 無數히 둘어 셰오 또 呪術 잘ᄒᆞᄂᆞᆫ 사ᄅᆞᆷ 五百ᄋᆞ로 門 자피고 또 五百ᄋᆞ로 七寶座ᄅᆞᆯ 圍繞ᄒᆞᅀᆞ바 夜叉 鬼神이 몯 와 앗게 ᄒᆞ고 모다 울며 供養ᄒᆞᄉᆞᆸ더니 하ᄂᆞᆯ콰 사ᄅᆞᆷ과 곳비ᄒᆞ며 풍류로 城을 두르고 ᄒᆞᆫ 거릇ᄉᆞᄉᆡ마다 燈을 혀니 열두 里ㅅ 짜해 燈이 ᄀᆞᄃᆞᆨᄒᆞ더라.(석보 23: 51-52)

◉ 그저긔 波波國에셔 부텨 滅度ᄒᆞ시다 듣고 四兵 뫼화 拘尸城의 와 使者 브려 닐오ᄃᆡ 부톄 이에

와 滅度 ᄒᆞ실ᄊᆞᆫ뎡 우리 ᄒᆡ도 스승니미실ᄊᆡ 舍利ᄅᆞᆯ 비ᄉᆞ바다가 塔 일어 供養ᄒᆞᄉᆞ바지이다.(석보 23: 52)

◉ 拘尸王이 對答호ᄃᆡ 그딋 마리 올커니와 世尊이 우리 나라해 오샤 滅度ᄒᆞ시니 우리 나라해셔 供養ᄒᆞᄉᆞᆸ디ᄇᆡ 그듸 내ᅀᅡ 舍利ᄅᆞᆯ 몯 어드리라.(석보 23: 52)

◉ 그 ᄢᅴ 또 遮頗國과 羅摩伽國과 毗留提國과 迦維衛國 釋種과 毗舍離國과 摩竭王 阿闍世왜 다 四兵 니르바다와 香姓엣 婆羅門ᄋᆞᆯ 拘尸城에 브려 安否ᄒᆞ고 닐오ᄃᆡ 如來 그딋 나라해 와 滅度 ᄒᆞ실ᄊᆞᆫ뎡 實엔 우리ᄃᆞᆯ코 울워ᄉᆞᆸ논 젼ᄎᆞ로 舍利 얻ᄌᆞ바다가 塔 일어 供養ᄒᆞᄉᆞ보려 ᄒᆞ야 머리셔 오소이다.(석보 23: 53)

◉ 對答호ᄃᆡ 그딋 마리 眞實로 올타커니와 오직 世尊이 이에와 滅度ᄒᆞ시니 우리 나라해셔 供養ᄒᆞᄉᆞᆸ디ᄇᆡ 그듸내 ᄀᆞᆺ비ᅀᅡ 오도다마ᄅᆞᆫ 舍利ᅀᅡ 몯어드리라 ᄒᆞ야ᄂᆞᆯ 그저긔 뎌 여러 나랏 王이 臣下ᄃᆞᆯ 뫼호아 議論ᄒᆞ야 頌지ᅀᅥ 닐오ᄃᆡ 우리ᄃᆞᆯ히 머리셔 와 이든 말ᄊᆞᄆᆞ로 舍利ᄅᆞᆯ 비ᄉᆞᆸ노니 아니 주시면 四兵이 이에 잇ᄂᆞ니 모ᄆᆞᆯ 아니 앗교리이다.(석보 23: 53-54) *그듸+내(들)

◉ 拘尸國王이 또 臣下 뫼호아 議論ᄒᆞ야 偈 지ᅀᅥ 對答호ᄃᆡ 그듸내 머리셔 ᄀᆞᆺ비오난마ᄅᆞᆫ 如來ㅅ 舍利ᄂᆞᆫ 몯 나ᄉᆞ리어다. 우리도 兵馬 뒷노소니 저티 아니호리이다.(석보 23: 54)

◉ 그저긔 ᄒᆞᆫ 大臣 優婆吉이 諸王ᄭᅴ 닐오ᄃᆡ 부텻 舍利ᄅᆞᆯ 이대 ᄂᆞᆫ호아 供養ᄒᆞᄉᆞ바 ᄒᆞ리니 엇뎨 兵馬 니르바 다 서르 싸홈 호려 ᄒᆞ시ᄂᆞᆫ고 ᄒᆞ야ᄂᆞᆫ 모다 됴타 ᄒᆞ고 舍利 겨신 ᄃᆡ 모다 와 머리 좃ᄉᆞᄫᆞ니 그저긔 또 帝釋이 여듧 王ᄭᅴ 닐오ᄃᆡ (석보 23: 54)

☞ 여듧 王은 波波國王과 遮頗國王과 羅摩伽國王과 毗留提國王과 迦維衛國王과 毗舍離國王과 拘尸國王괘라.(석보 23: 55)

◉ 우리 諸天ᄃᆞᆯ토 舍利ᄅᆞᆯ 더러 주쇼셔. 아니 주시면 싸호미 나리이다 ᄒᆞ고 또 阿耨達龍王과 文隣龍王과 伊那鉢龍王이 여듧 王ᄭᅴ 닐오ᄃᆡ 우리ᄃᆞᆯ토 舍利ᄅᆞᆯ 더러 주쇼셔. 아니옷 주시면 히므로 어루호리이다 ᄒᆞ더니 그저긔 優婆吉이 또 닐오ᄃᆡ ᄃᆞ토면 모로매 계우리 잇ᄂᆞ니 그러면 如來ㅅ 舍利 므스기 利益 ᄃᆞ외시리잇고 ᄒᆞ고 즉자히 세기제 ᄂᆞᆫ호아 ᄒᆞᆫ 기ᄌᆞ란 諸天ᄭᅴ ᄒᆞ고 ᄒᆞᆫ 기ᄌᆞ란 龍王ᄭᅴ ᄒᆞ고 ᄒᆞᆫ 기ᄌᆞ란 여듧王ᄭᅴ 골오 ᄂᆞᆫ혼대 모다 깃거 各各 金壜애 담ᄉᆞᄫᆞ니라.(석보 23: 55-56)

◉ 阿闍世王이 舍利ᄅᆞᆯ 모도아 혜ᄉᆞᄫᆞ니 各各 八萬 四千이러시다.(석보 23: 56)

◉ 그저긔 諸天은 하ᄂᆞᆯ해 뫼셔다가 七寶塔 셰ᄉᆞᆸ고 龍王은 龍宮의 뫼셔다가 七寶塔 셰ᄉᆞᆸ고 여듧 王은 各各 나라해 뫼셔다가 七寶塔 셰ᄉᆞᄫᆞ니 優婆吉은 舍利 되ᄉᆞᆸ던 독 안해 ᄀᆞ마니 ᄲᅮ를 ᄇᆞᄅᆞ니 그에 브릇근 舍利ᄅᆞᆯ 뫼셔다가 득조쳐 七寶塔 셰ᄉᆞᄫᆞ니라.(석보 23: 56)

◉ 처ᅀᅥᆷ 舍利 다 ᄂᆞᆫ호ᄉᆞᆸ고 부텻 웃입시우렛 터리 ᄒᆞ나히나마 잇거시ᄂᆞᆯ 아모도 가지디 몯ᄒᆞ얫더니 阿闍世王이 처ᅀᅥᆷ 舍利 얻ᄌᆞᄫᆞ라 옳저긔 술위예 ᄂᆞ려 ᄡᅡ해 디여 우더니 그리혼 이리 부텨 向ᄒᆞᄉᆞ바 ᄆᆞᄉᆞ미 重ᄒᆞ다 ᄒᆞ야 모다 阿闍世王ᄭᅴ 나사ᄂᆞᆯ 阿闍世王이 도라갌 저긔 ᄀᆞ장 깃거 풍류히오 붑 티며 쥬라불 이고 가더니 難頭禾龍王이 여러 龍 더블오 사ᄅᆞ미 ᄃᆞ외야 泥洹ᄒᆞ신 ᄡᅡ해 오다가 길

혜 阿闍世王ᄋᆞᆯ 보아 부텻 舍利ᄅᆞᆯ 더러 주쇼셔 ᄒᆞ야ᄂᆞᆯ 阿闍世王이 아니 준대 龍王이 닐오ᄃᆡ 내 難頭禾龍王이로니 그딋 나라ᄒᆞᆯ 드러 八萬里 밧긔다가 더뎌 사기ᄫᆞᆭ아디게 호리라.(석보 23: 57) *-다가(토씨로)

◉ 阿闍世王이 드리여 그 터리ᄅᆞᆯ 주고 ᄯᅩ 舍利ᄅᆞᆯ 더 내요려 ᄒᆞ더니 龍王이 닐오ᄃᆡ 이 터리도 足거이다 ᄒᆞ고 즉자히 須彌山 미틔 도라가ᄆᆞᆯ 니르바다 水精琉璃塔ᄋᆞᆯ 셰니 노ᄑᆡ 八萬四千里러라.(석1보 23: 58) *-러라

◉ 拘尸城의셔 舍利 다 ᄂᆞᆫ호ᅀᆞᆸ고 먼딋 弟子 기드리노라 ᄒᆞ야 ᄒᆞᆫ나ᄅᆞᆯ 잇다가 城 밧 衛致鄕이라 홇 ᄯᅡ해「一萬 二千 五百집 사ᄂᆞᆫ ᄯᅡ히 鄕이라」긼 네거리예 塔 이르ᅀᆞ바 黃金甓ㅅ 舍利ᄅᆞᆯ 그에 녀ᅀᆞᆸ고「金甓은 金壖이라」깁ᄃᆞᆯ며 燈혀며 花香 풍류로 供養ᄒᆞᅀᆞᆸ더라.(석보 23: 58)

◉ 人間애 큰 塔이 네히니 迦毗羅國 처ᅀᅥᆷ 나신 ᄯᅡ해 ᄒᆞᆫ 塔 잇고 摩竭提國 成道ᄒᆞ신 ᄯᅡ해 ᄒᆞᆫ 塔 잇고 波羅柰國鹿野苑 轉法ᄒᆞ신 ᄯᅡ해 ᄒᆞᆫ 塔 잇고 拘尸國 涅槃ᄒᆞ신 ᄯᅡ해 ᄒᆞᆫ 塔 잇더라.(석보 23: 59)

<釋譜詳節 二十三 > 끝

<釋譜詳節 第二十四>

◉ 世尊이 涅槃ᄒᆞ거시ᄂᆞᆯ 外道ᄃᆞᆯ히 깃거 닐오ᄃᆡ 瞿曇이 이싫 저긘 敎法이 블 ᄀᆞᆮᄒᆞ더니 이제ᅀᅡ 아니오라아 ᄲᅬ리라 ᄒᆞ거늘 梵王과 帝釋과 天王ᄃᆞᆯ히 다 와 大迦葉ᄭᅴ 請호ᄃᆡ 如來 正法眼ᄋᆞ로 尊者ᄭᅴ 付屬ᄒᆞ시니 어셔 結集ᄒᆞ쇼셔.(석보 24:1)

◉ 그저긔 迦葉이 彌盧山 우희 사ᄅᆞᆷ 브려 튱 부플 티라 ᄒᆞ니「彌盧山은 須彌山이라」그 ᄇᆞᆸ 소리 예셔 마ᄅᆞᆯ 닐오ᄃᆡ 부텻 無學弟子 一千이 摩竭提國上 茆城畢鉢羅堀로 모다 오라 ᄒᆞ더라.(석보 24:1)

◉ 阿闍世王ᄋᆞᆯ 請ᄒᆞ야 檀越外護ㅣ ᄃᆞ외에 ᄒᆞ야「檀越은 布施ᄒᆞ야 貧窮 바ᄅᆞᄅᆞᆯ 걷낼씨니 施主를 檀越이라 ᄒᆞᄂᆞ니라. 外護ᄂᆞᆫ 밧고로 護持ᄒᆞᆯ 씨라」부텻 遺敎ᄅᆞᆯ 結集ᄒᆞ더니「遺ᄂᆞᆫ 기틸 씨라」阿難이 出家ᄒᆞᆫ 後로 스므나ᄆᆞᆫ 히ᄅᆞᆯ 부텨 좃ᄌᆞ바 이셔 듣ᄌᆞᄇᆞᆫ 이리 ᄆᆞᆺ 하ᄃᆡ 無學功夫에 몯 미처 잇더니.(석보 24:1-2)

◉ 이 結集ᄒᆞᆶ 저긔 迦葉이 여슷 가짓 罪로 ᄇᆞᆶ여 내텨늘 (석보24:2)

☞ 여슷 가짓 罪ᄂᆞᆫ ᄒᆞ나핸 겨집 出家케 ᄒᆞ야 부텻 正法이 五百히 滅ᄒᆞ긔 호미오, 둘핸 부톄 둥 알패라 ᄒᆞ샤 믈 가져오라 ᄒᆞ야시ᄂᆞᆯ 아니 받ᄌᆞ보미오 세헨 부톄 神足 닷고ᄆᆞᆯ 닐어시ᄂᆞᆯ 즘즘코 對答 아니ᄒᆞᅀᆞ보미오, 다ᅀᆞ샌 겨집ᄃᆞᆯ홀 부텻 陰藏相 보ᅀᆞᆸ긔 호미오, 여스센 아랫 結이 몯다 업수미니라.(석보 24: 2)

◉ 阿難이 내ᄃᆞ라 ᄒᆞᆫ 수프레 가 안자이셔 上地定을 니겨 혀근 結을 다 ᄠᅥ러ᄇᆞ려 阿羅漢果ᄅᆞᆯ 證ᄒᆞ고 結集ᄒᆞᄂᆞᆫ 門 밧긔 와 들아지라 ᄒᆞ야ᄂᆞᆯ 迦葉이 닐오ᄃᆡ ᄒᆞ마 無學ᄋᆞᆯ 得호라 ᄒᆞ거든 門 ᄡᅵ므로

들라 ᄒᆞ야ᄂᆞᆯ 阿難이 즉자히 ᄲᅵᄆᆞ로 드러 大衆ᄭᅴ 禮數ᄒᆞᆫ대 迦葉이 阿難ᄋᆡ 머리 ᄆᆞ니며 닐오ᄃᆡ 내 부러 너를 어셔 得道ᄒᆞ게 ᄒᆞ다니 츠기 너기디 말라 ᄒᆞ더라.(석보 24: 3) * ᄒᆞ다니

◉ 迦葉이 優婆離ᄅᆞᆯ 請ᄒᆞ야 부텻 律藏ᄋᆞᆯ 모도고 阿難이ᄅᆞᆯ ᄒᆞ야 부텻 經藏ᄋᆞᆯ 모도더니 阿難이 座애 올아 앉거늘 모댓ᄂᆞᆫ 사ᄅᆞ미 疑心ᄋᆞᆯ 세가지로 호ᄃᆡ ᄒᆞᆫ 疑心은 부톄 아니 다시 나신가 ᄒᆞ고 ᄯᅩ ᄒᆞᆫ 疑心은 다른 世界옛 부톄 아니오신가 ᄒᆞ고 ᄯᅩ ᄒᆞᆫ 疑心은 阿難이 ᄒᆞ마 부톄 ᄃᆞ왼가 ᄒᆞ더니 阿難이 닐오ᄃᆡ 如是我聞이라 ᄒᆞ니 모ᄃᆞᆫ 疑心이 다 훤히 업스니라.(석보 24: 3-4)

☞ 如ᄂᆞᆫ 道理예 맛당ᄒᆞᆫ 마리오 是ᄂᆞᆫ 올ᄒᆞᆯ씨오 我聞은 내 드를씨니 如是我聞은 如ᄒᆞ며 是ᄒᆞᆫ 法을 내 부텨ᄭᅴ 듣ᄌᆞ보라 ᄒᆞ논 마리라.(석보 24: 4)

◉ 初祖 迦葉 尊者ㅣ 正法으로 阿難이 맛디고 (석보 24: 4)

☞ 祖ᄂᆞᆫ 한아비니 부텻 法 뎐디ᄒᆞ야 니ᅀᅥ ᄂᆞ려 오미 한아비 ᄀᆞᆱ일 뎐디ᄒᆞ야 子孫애 니ᅀᅥ ᄂᆞ려오미 ᄀᆞᆮᄒᆞᆯᄊᆡ 祖ㅣ라 ᄒᆞ니라. 西天ㄷ 祖師ㅣ 스믈 여들비니 摩訶迦葉 尊者와 阿難 尊者와 商那和修 尊者와 優婆麴多 尊者와 提多迦 尊者와 彌遮迦 尊者와 婆須密 尊者와 佛陀難提 尊者와 伏馳密多 尊者와 脅 尊者와 富那夜奢 尊者와 馬鳴 尊者와 迦毗摩羅 尊者와 龍樹 尊者와 迦那提婆 尊者와 羅睺羅多 尊者와 僧伽難 尊者와 耶舍多 尊者와 鳩摩羅多 尊者와 闍夜多 尊者 婆修盤頭 尊者와 摩拏羅 尊者와 鶴勒那 尊者와 師子 尊者와 不如密多 尊者와 般若多羅 尊者와 菩提達磨왜라. (석보 24: 4-5)

☞ 이 善提達磨 大師ㅣ 東土애 나와 東土ㅅ 初祖ㅣ ᄃᆞ외니 東土ㅅ 祖師ㅣ ᄯᅩ 여스시니 菩提 達磨 大師와 慧可 大祖禪師와 僧璨鑑智 禪師와 道信 大醫 禪師와 弘忍 大滿(+)禪師와 能大鑑 禪師왜라.(석보 24: 5)

◉ 忉利天에 올아가 네 塔애 禮數 ᄒᆞᅀᆞ바 하딕ᄒᆞᅀᆞᆸ고 世尊ㅅ 僧伽梨衣ᄅᆞᆯ 가지ᅀᆞᆸ고 雞足山애 가 滅盡定에 드러 이셔 彌勒下生ᄋᆞᆯ 기드리ᅀᆞᆸᄂᆞ니라.(석보 24; 5)

◉ 아래 阿闍世王이 迦葉尊者ᄭᅴ 期約호ᄃᆡ 尊者ㅣ 入滅ᄒᆞ싫 저긔 모로매 날ᄃᆞ려 니ᄅᆞ쇼셔 ᄒᆞ얫더니 迦葉 尊者ㅣ 雞足山애 가리라 ᄒᆞ야 阿闍世王ㄱ 손ᄃᆡ 가니 王이 마초아 자노라 ᄒᆞ야 몯 보니 王ㄱ ᄭᅮ메 집 보히 것거늘 ᄭᆡᄃᆞ라 너교ᄃᆡ 당다이 迦葉 尊者ㅣ 入滅ᄒᆞ시놋다 ᄒᆞ야 ᄆᆞᆯ도 몯 기드려 雞足山애 거러 ᄃᆞᄅᆞ니 그 뫼히 ᄒᆞ마 어우렛더라.(석보 24: 5-6)

◉ 迦葉이 처ᅀᅥᆷ 그 뫼해 들ᄶᅥ긔 닐오ᄃᆡ 阿闍世王이 오시거나 彌勒이 下生커시나 ᄒᆞ면 이 뫼히 열리라 ᄒᆞ얫더니 阿闍世王이 가니 그 뫼히 열어늘 보니 迦葉이 袈裟ᄅᆞᆯ 바다 드ᅀᆞ바 고ᄌᆞ기 안자 잇거늘 王이 울며 禮數ᄒᆞ고 나니 그 뫼히 도로 어우니라.(석보 24: 6-7)

☞ 迦葉 尊者ㅣ 阿難 尊者ᄭᅴ 法 맛됴미 考王 다ᄉᆞᆺ 찻히 丙辰이라.(석보 24: 7)

◉ 二祖 阿難 尊者ㅣ 正法으로 商那 和修ᄭᅴ 맛디고 寂滅에 드니라.(석보 24: 7)

☞ 阿難 尊者ㅣ 寂滅에 드로미 滿(+)王 열ᄒᆞᆫ 찻히 癸巳ㅣ라.(석보 24: 7)

◉ 아래 부톄 阿難이 더브르시고 舍衛城의 드르샤 乞食ᄒᆞ더시니 깄 ᄀᆞ새 효근 아히ᄃᆞᆯ히 홀ᄀᆞᆯ 뫼화 지블 밍ᄀᆞ라 두고 이ᄂᆞᆫ 몸채라 이ᄂᆞᆫ 翼廊이라 ᄒᆞ야 에워려 노다가 ᄒᆞᆫ올미 闍耶ㅣ라 호리 부텨 오시거늘 보ᄉᆞᆸ고 과ᄒᆞᄉᆞ바 제 庫房애 ᄇᆞ리라 ᄒᆞ야 뒷던 홀ᄀᆞᆯ 우희여 부텨ᄭᅴ 받ᄌᆞ보려 ᄒᆞ니 킈 쟈ᄀᆞᆯᄊᆡ 제 벋 올미 毗闍耶ㅣ라 호리ᄅᆞᆯ ᄃᆞ려 닐오ᄃᆡ 내 네 우희 올아 부텨ᄭᅴ 布施ᄒᆞᄉᆞ바지라 ᄒᆞ야ᄂᆞᆯ 毗闍耶ㅣ 毗闍耶ㅣ 엇게예 올아 부텨ᄭᅴ 받ᄌᆞᄫᆞᆫ대 부톄 구브샤 바리로 바다시ᄂᆞᆯ 毗闍耶ㅣ 合掌ᄒᆞ야 조차 깃ᄉᆞ바 ᄒᆞ더라.(석보 24: 7−8)

◉ 그저긔 闍耶ㅣ 發願ᄒᆞ야 ᄉᆞᆯ보ᄃᆡ 오ᄂᆞᆯ 布施ᄒᆞᄉᆞᄫᆞᆫ 善根功德으로 後生애 ᄒᆞᆫ 天下ᄅᆞᆯ 어더 繖盖 바틸 王이 ᄃᆞ외야「繖은 盖ᄀᆞᆮᄒᆞᆫ 거시라」諸佛을 供養ᄒᆞᄉᆞ바지이다.(석보 24: 8)

◉ 世尊이 그 말 드르시고 우연ᄒᆞ야시ᄂᆞᆯ 阿難이 合掌ᄒᆞ야 ᄉᆞᆯ보ᄃᆡ 世尊하 엇던 因緣으로 우연ᄒᆞ시ᄂᆞ니잇고.(석보 24: 8−9)

◉ 世尊이 니ᄅᆞ샤ᄃᆡ 나 滅度ᄒᆞᆫ 百年 後에 이 童子ㅣ 巴連弗에 나아 ᄒᆞᆫ 天下ᄅᆞᆯ 가져 轉輪王이 ᄃᆞ외야 姓은 孔雀이오 일후믄 阿育이라 ᄒᆞ고 이 버근 童子ᄂᆞᆫ 그 나랏 大臣이 ᄃᆞ외야 둘히 閻浮提ᄅᆞᆯ 가져 三寶ᄅᆞᆯ 供養ᄒᆞ며 正法으로 다ᄉᆞ리며 내 舍利로 八萬四千 塔ᄋᆞᆯ 셰리라.(석보 24: 9)

◉ 阿難아 이 바리엣 몰애ᄅᆞᆯ 내ᄃᆞᆫ니ᄂᆞᆫ 짜해 ᄉᆡᆼ라라. (석보 24: 9)

◉ 阿難이 다시 묻ᄌᆞ보ᄃᆡ 世尊이 아래 므슴 功德을 ᄒᆞ시관ᄃᆡ 이런 한 塔ᄋᆞᆯ 世尊 위ᄒᆞᄉᆞ바 이르ᄉᆞᄫᆞ리잇고.(석보 24: 9)

◉ 如來 니ᄅᆞ샤ᄃᆡ 디나건 劫에 ᄒᆞᆫ 王이 일후미 波塞奇라 호리 閻浮提ㅅ 八萬四千 나라ᄒᆞᆯ 가져 잇더니 그 ᄢᅴ ᄒᆞᆫ 부톄 겨샤ᄃᆡ 일후미 沸沙ㅣ러시니 波塞奇王이 그 부텨를 供養ᄒᆞᄉᆞᄫᆞ며 ᄆᆞᄉᆞ매 너교ᄃᆡ 부텨 像ᄋᆞᆯ 만히 그리ᄉᆞ바 녀느 나라해 골오 돌아 供養ᄒᆞᄉᆞ바 福ᄋᆞᆯ 모다 싣ᄌᆞᆸ게 호리라 ᄒᆞ야 畵師 블러 그리ᄉᆞᄫᆞ라 ᄒᆞ니「畵ᄂᆞᆫ 그림 그릴씨라」畵師ᄃᆞᆯ히 ᄒᆞ나토 ᄀᆞ티 몯그리ᄉᆞᆸ거늘 波塞奇王이 綵色 마초아 손소 ᄒᆞᆫ 像ᄋᆞᆯ 그리ᄉᆞ바 내야ᄂᆞᆯ 畵師ᄃᆞᆯ히 그 像ᄋᆞᆯ 模ᄒᆞ야 八萬四千像ᄋᆞᆯ 그리ᄉᆞ바 八萬四千 나라ᄒᆞᆯ 골오 돌아 供養ᄒᆞᄉᆞᆸ게 ᄒᆞ니 波塞奇王이 이젯 내 모미니 그리혼 因緣으로 八萬四千塔ᄋᆞᆯ 어드리라.(석보 24: 10−11)

◉ 阿難이 그 바리옛 몰애ᄅᆞᆯ 如來 ᄃᆞᆫ니시ᄂᆞᆫ 짜해 ᄉᆡᆼ니라.(석보 24: 11)

◉ 後에 巴連弗邑에 ᄒᆞᆫ 王이 일후미 頻頭婆羅ㅣ러니 無優ㅣ 라 홀아ᄃᆞᄅᆞᆯ 나ᄒᆞ니「前生앳 闍耶ㅣ라」모미 디들오 양ᄌᆡ 덧구즐씨 여러 아ᄃᆞᆯ 中에 ᄆᆞᆺ ᄉᆞ랑티 아니ᄒᆞ더니 그 ᄢᅴ 곳 나라히 扳(半+反+) ᄒᆞ거늘 頻頭婆羅王이 阿育일 브려「無憂를 西天 마래 阿育이라 ᄒᆞᄂᆞ니라」그 나라ᄒᆞᆯ 티라 ᄒᆞ야 보내요ᄃᆡ 兵甲ᄋᆞᆯ 져기 주어ᄂᆞᆯ 조ᄎᆞᆫ 사ᄅᆞ미 닐오ᄃᆡ 나라ᄒᆞᆯ 티라 가ᄃᆡ 兵甲이 젹거니 므슷 이ᄅᆞᆯ 일우리잇고.(석보 24: 11)

◉ 阿育이 닐오ᄃᆡ 나옷 王 ᄃᆞ욇 사ᄅᆞ미면 兵甲이 自然히 오리라 ᄒᆞ니 즉자히 짜해셔 兵甲이 나거ᄂᆞᆯ 四兵 ᄀᆞ초아 ᄃᆞ리고 그 나라 티라 가더니 諸天이 出令ᄒᆞ야 닐오ᄃᆡ 阿育王子이 天下애 王 ᄃᆞ외리니 너희ᄃᆞᆯ히 거슬ᄲᅳᆫ 양 말라 홀ᄊᆡ 그 나라히 즉자히 降服ᄒᆞ니 이 양ᄋᆞ로 天下ᄅᆞᆯ 바뤃 ᄀᆞ새 니르리 降服히니라.(석보 24: 12)

◉ 頻頭婆羅王이 업거늘 臣下ᄃᆞᆯ히 모다 阿育ᄋᆞᆯ 셰요려 ᄒᆞ더니 阿育이 닐오ᄃᆡ 나옷 王 ᄃᆞ외요미 맛당ᄒᆞ면 諸天이 와 내 머리예 므를 브스리라 ᄒᆞ니 즉자히 諸天이 므를 브스니라.(석보 24: 12)

◉ 阿育王 션 나래 鐵輪이 虛空ᄋᆞ로셔 나ᄅᆞ 오니 그저긔 虛空과 地下앳 鬼神이 다 讚嘆ᄒᆞ더라.(석보 24: 13)

◉ 阿育王이 阿ᄋᆞᆷ(少+免+)樓陁ㅣ라 ᄒᆞᆫᄀᆞᆯ 사ᄅᆞᄆᆞᆯ 大臣 사ᄆᆞ니 「前生앳 毗闍耶ㅣ라」 阿育王이 모디러 臣下ᄅᆞᆯ 손소 주기더니 阿ᄋᆞᆷ樓陁ㅣ 닐오ᄃᆡ 王이 엇뎨 사ᄅᆞᄆᆞᆯ 손소 주기시ᄂᆞ니잇고. 사ᄅᆞᆷ 주긺 官員을 定ᄒᆞ야 두쇼셔.(석보 24: 13)

◉ 王이 나라해 出令ᄒᆞ야 모딘 사ᄅᆞᆷ 어더드리라 ᄒᆞ니 ᄒᆞᆫ 耆梨山이라 ᄒᆞᆯ 뫼해 일후미 ᄯᅩ 耆梨라 ᄒᆞᆯ 노미 사로ᄃᆡ 사ᄅᆞᆷ 보니마다 ᄆᆡ야 티고 제 어버ᅀᅴ 말 니르리 거스더니 王이 블러다가 刑罰ᄀᆞᄉᆞᆷ 안 官員을 삼고「 刑罰은 사ᄅᆞᆷ 罪 줄씨라」 그 놈 위ᄒᆞ야 지블 크긔 짓고 다ᄆᆞᆫ ᄒᆞᆫ 門ᄋᆞᆯ 내오 그 안해 사ᄅᆞᆷ 罪줄 연자ᄋᆞᆯ 地獄ᄀᆞ티 ᄆᆡᆼᄀᆞ니라.(석보 24: 13-14) *연장(연장-도구)

◉ 그 모딘 노미 王ᄭᅴ 닐오ᄃᆡ 내 ᄒᆞᆫ 願을 ᄉᆞᆲ노니 사ᄅᆞ미 이 門 안해 들어든 다시 몯 나긔ᄒᆞ야 지이다.(석보 24: 14)

◉ 王이 對答호ᄃᆡ 네 願다히 ᄒᆞ야라.(석보 24: 14) *-다히('대로'의 자리에 쓰임)

◉ 그 ᄢᅴ ᄒᆞᆫ 홍졍바지 아ᄃᆞ리 出家ᄒᆞ야 諸國에 두루 ᄃᆞ니다가 次第로 乞食ᄒᆞ야 와 그 집 門ᄋᆡ 몰라 드리ᄃᆞ라 보니 地獄ᄀᆞ티 사ᄅᆞᄆᆞᆯ 달호거늘 두리여 도로 나오려 ᄒᆞ더니 그 모딘 노미 잡고 아니 내며 닐오ᄃᆡ 이에 든 사ᄅᆞᄆᆞᆫ 죽디ᄇᆡ 나디 몯ᄒᆞᄂᆞ니라 ᄒᆞ야ᄂᆞᆯ 그 比丘ㅣ 두리여 울며 닐오ᄃᆡ 나ᄅᆞᆯ ᄒᆞᆫᄃᆞᆶ ᄉᆞᄉᆡ나 살아 뒷다가 주기쇼셔.(석보 24: 14-15) *두+잇+다가(두다)

◉ 모딘 노미 듣디 아니ᄒᆞᆯᄊᆡ 이 양ᄋᆞ로 낤 數를 漸漸 조려 닐웻 ᄉᆞᄉᆡᄅᆞᆯ 살아지라 ᄒᆞ야ᄂᆞᆯ 모딘 노미 그리ᄒᆞ라 ᄒᆞ니라.(석보 24: 15)

◉ 比丘ㅣ ᄒᆞ마 주긂ᄃᆞᆯ 알오 勇猛精進ᄒᆞ야 坐禪호ᄃᆡ 得道ᄅᆞᆯ 몯ᄒᆞ얫더니 닐웨짜히ᄂᆞᆫ 王이 罪 지슨 각시ᄅᆞᆯ 그 모딘 노ᄆᆡ 그에 보내야 방하애 디허 주기더니 比丘ㅣ 보고 너교ᄃᆡ 苦ᄅᆞᆸ도 苦ᄅᆞ ᄇᆡᆯ쎠. 내 몸도 녀러ᄒᆞ리로다 ᄒᆞ고 ᄆᆞᅀᆞᄆᆞᆯ 더욱 ᄇᆡ 精進ᄒᆞ니 즉자히 阿羅漢ㅅ 功夫를 일우니라.(석보 24: 15) *방하 (방아)/ 고ᄅᆞᆸ도 고ᄅᆞ ᄇᆡᆯᄊᆡ

◉ 그 ᄢᅴ 모딘 노미 比丘ᄃᆞ려 닐오ᄃᆡ 뎌 즁아 닐웨 ᄒᆞ마 다ᄃᆞᆫ거다.(석보 24: 15)

◉ 比丘ㅣ 偈 지ᅀᅥ 對答호ᄃᆡ 내 ᄆᆞᅀᆞ미 解脫ᄋᆞᆯ 得ᄒᆞ야 뒷논 거슬 다 더러ᄇᆞ료니 이 모미ᅀᅡ ᄂᆞ외야 앗기디 아니ᄒᆞ노니이다.(석보 24: 16)

◉ 모딘 노미 그 比丘를 자바 기름 브슨 가마애 녀코 브를 오래 딛다가 둡게를 여러보니 그 比丘ㅣ 蓮ㅅ 곳 우희 안자 잇거늘 즉자히 그 奇別을 王ᄭᅴ 알왼대 王이 한 사ᄅᆞᆷ ᄃᆞ리고 와 보더니 比丘ㅣ 虛空애 올아 種種 變化ᄒᆞ야 뵈오 偈ᄅᆞᆯ 지ᅀᅥ 닐오ᄃᆡ 내 부텻 弟子ㅣ로니 諸漏 업수믈 得ᄒᆞ야 죽사릿 큰 저푸믈 이제 다 버서나이다.(석보 24: 16) *딛다(지피다)/ 죽사릿저품(죽고사는 두려움)

◉ 그 저긔 阿育王이 比丘의 말 듣고 부텻 法에 ᄀᆞ장 恭敬ᄒᆞ야 信ᄒᆞᄒᆞᆫ ᄠᅳ들 내니라.(석보 24: 16)

◉ 王이 比丘ᄭᅴ 무로ᄃᆡ 부톄 아래 므스기라 니ᄅᆞ샨 마리 잇ᄂᆞ니잇고.(석보 24: 17)

◉ 比丘ㅣ 對答호ᄃᆡ 부톄 大王ᄋᆞᆯ 니ᄅᆞ샤ᄃᆡ 나 滅度ᄒᆞᆫ 百年 後에 巴蓮弗邑에 나아 閻浮提ᄅᆞᆯ 가져 正法으로 다ᄉᆞ리며 ᄯᅩ 내 舍利로 閻浮提예 八萬四千塔ᄋᆞᆯ 세리라 ᄒᆞ야신마ᄅᆞᆫ 大王이 이제 地獄 ᄆᆡᆼᄀᆞ라시고 사ᄅᆞᄆᆞᆯ 하 주기시ᄂᆞ니 王이 이제 부텻 마ᄅᆞᆯ ᄉᆞ랑ᄒᆞ샤 一切 衆生ᄋᆞᆯ 어엿비 너기샤 法다히 修行ᄒᆞ쇼셔.(석보 24: 17)

◉ 그저긔 王이 부텻긔 더욱 敬信ᄒᆞᆫ ᄆᆞᅀᆞᄆᆞᆯ 내ᅀᆞ바 合掌ᄒᆞ야 比丘ᄭᅴ 절ᄒᆞ고 닐오ᄃᆡ 내 지슨 큰 罪ᄅᆞᆯ 이제 比丘ᄭᅴ 懺悔ᄒᆞ노니 내 ᄒᆞ던 이리 甚히 외다ᄉᆞ이다.(석보 24: 17)

◉ 願ᄒᆞᆫᄃᆞᆫ 佛子ㅣ 내 懺悔ᄅᆞᆯ 바ᄃᆞ샤 미혹ᄒᆞᆫ 사ᄅᆞᄆᆞᆯ ᄂᆞ외야 외다 마ᄅᆞ쇼셔 ᄒᆞ더라.(석보 24: 17)

◉ 王이 그 地獄門애 나오려커늘 모딘 노미 닐오ᄃᆡ 王이 몯 나시리이다.(석보 24: 18)

◉ 王이 무로ᄃᆡ 나ᄅᆞᆯ 주규려 ᄒᆞᄂᆞᆫ다.(석보 24: 18)

◉ 對答호ᄃᆡ 그리호려 ᄒᆞ노이다.(석보 24; 18)

◉ 王이 무로ᄃᆡ ᄆᆞᆺ 처ᅀᅥ믜 뉘 몬져 이 門 안해 드뇨.(석보 24: 18)

◉ 對答호ᄃᆡ 내 몬져 드도소이다.(석보 24: 18)

◉ 王이 닐오ᄃᆡ 그러면 네 몬져 주그리로다 ᄒᆞ고 그 모딘 노ᄆᆞᆯ ᄉᆞ라 주기고 地獄ᄋᆞᆯ 허러 ᄇᆞ리니라.(석보 24: 18)

◉ 阿育王이 나라해 무로ᄃᆡ 부텨 미처 보ᅀᆞᄒᆞᆫ 사ᄅᆞ미 아니 잇ᄂᆞ니여.(석보 24: 18)

◉ 그 ᄢᅴ 波斯匿王ㅅ 누의 숭ᄃᆞ외야 나히 一百 설흐니어니 잇더니 긔 부텨를 아래 보ᅀᆞ뱃더라.(석보 24: 18-19)

◉ 王이 듣고 즉자히 가 무로ᄃᆡ 부텻 功德이 엇더터시뇨.(석보 24: 19)

◉ 對答호ᄃᆡ 世尊ㅅ 神奇ᄒᆞ신 이리ᅀᅡ 經에 다 닐웻거니와 내 나히 열힌 저긔 부톄 오샤 우리 大闕에 드르시니 大闕 안히 고ᄅᆞᆫ 金ㅅ 비치러이다.(석보 24: 19)

◉ 내 드러 부텻긔 절ᄒᆞᅀᆞᆸ다가 金고지 ᄯᅡ해 디거늘 ᄯᅡ히 고ᄅᆞᆫ 金ㅅ 비칠ᄊᆡ 그 조ᄎᆞᆯ 얻다가 몯ᄒᆞ야 부텨 가신 後에 光明이 우션ᄒᆞ거ᅀᅡ 어두이다.(석보 24: 19)

◉ ᄯᅩ 닐오ᄃᆡ 부텻 목소리 여듧 가지시니 (석보 24: 19)

☞ 여듧 가짓 소리ᄂᆞᆫ ᄒᆞ나핸 ᄀᆞ짱 됴ᄒᆞ신 소리오 둘헨 보ᄃᆞ라ᄇᆞ신 소리오 세헨 맛가ᄇᆞ신 소리오 네헨 尊코 智慧ᄅᆞ바신 소리오 다ᄉᆞ샌 겨집 ᄀᆞᆫ디 아니ᄒᆞ신 소리오 여스센 외디 아니ᄒᆞ신 소리오 닐구벤 깁고 머르신 소리오 여들벤 다ᄋᆞ디 아니ᄒᆞ시ᄂᆞᆫ 소리라.(석보 24: 19)

◉ 이제 바ᄅᆞᆱ ᄀᆞ새 잇ᄂᆞᆫ 羯隨라 홇 새 우루미 부텻 목소리 져기 ᄲᅢ즛ᄒᆞᄉᆞᄇᆞ니이다.(석보 24: 20)

◉ 王이 그 새소리ᄅᆞᆯ 듣고져 ᄒᆞ야 ᄒᆞ나ᄒᆞᆯ 어더다가 두니 열흐리로ᄃᆡ 우루믈 아니 울씨 王이 안ᄒᆞᆯ 답쎠 ᄒᆞ더니 ᄒᆞᆫ 각시 아ᄎᆞᄆᆡ 粉 ᄇᆞᄅᆞ노라 ᄒᆞ야 거우를 보거늘 그 새 거우루엣 제 그르멜 보고 우루리라 ᄒᆞ거늘 그 각시 그 거우를 아ᄉᆞ니 그 새 아니 우니라.(석보 24: 20) *안ᄒᆞᆯ답쎠ᄒᆞ다(? 안탑까워하다?)

◉ 王이 大闕 안해 出令호ᄃᆡ 이 새 울의 ᄒᆞ니ᅀᅡ 夫人ᄋᆞᆯ 사모리라 ᄒᆞ야ᄂᆞᆯ 그 각시 거우를 가져다가 네 ᄇᆞᄅᆞ매 ᄃᆞᆫ대 그 새 그 거우루엣 제 그르메ᄅᆞᆯ 보고 우루믈 우니 그 목소리 淸暢和雅ᄒᆞ더니(석보 24: 20) * ᄇᆞᄅᆞᆷ(벽)

☞ 淸은 ᄀᆞᆺᄀᆞᆞᆯ씨오 暢은 ᄉᆡ훤ᄒᆞᆯ씨오 和ᄂᆞᆫ 溫和ᄒᆞᆯ씨오 雅ᄂᆞᆫ 正ᄒᆞᆯ씨라.(석보 24: 20)

◉ 王이 듣고 正眞道앳 ᄠᅳ들 니르바 다 즉자히 그 각시ᄅᆞᆯ 둘찻 夫人 사ᄆᆞ니 七千婇女ㅣ 다 깃거 ᄒᆞ더라.(석보 24: 21)

◉ 그저긔 阿育王이 宮內예 沙門二萬을 샹녜 供養ᄒᆞ거늘 外道 梵志 제무리 甚히 盛ᄒᆞ더니 沙門ᄋᆞᆯ 새와 허루리라 ᄒᆞ야 저희 무레 幻術 잘ᄒᆞᄂᆞᆫ 사ᄅᆞᄆᆞᆯ 골와 夷摩旦羅ㅣ라 홇 귓거싀 양ᄌᆡ ᄃᆞ외니 ᄒᆞᆫ 머리예 네 ᄂᆞ치오 여듧 누니오 여듧 ᄇᆞᆯ히러니 조ᄎᆞᆫ 귓것 二萬 ᄃᆞ리고 몬져 ᄆᆞᄉᆞᆯᄒᆞᆯ 다 도라 城門ᄋᆡ 다ᄃᆞ라 오나ᄂᆞᆯ 百姓ᄃᆞᆯ히 ᄎᆞ림 몯ᄒᆞ야 헤조쳐 ᄃᆞᆫ더니 王이 술위 브리여 盖 앗고 城門에 迎逢ᄒᆞ야 그 귓것ᄃᆞ려 무로ᄃᆡ 므슷 이ᄅᆞᆯ ᄒᆞ고져 ᄒᆞᄂᆞᆫ다. (석보 24: 21)

◉ 그 귓거시 닐오ᄃᆡ 사ᄅᆞᄆᆞᆯ 자바 먹고져 ᄒᆞ노니 百姓을 앗기거시든 沙門ᄋᆞᆯ 자바 주쇼셔. 沙門은 ᄂᆞᄆᆡ 지슨 녀름을 먹ᄂᆞ니이다.(석보 24: 22)

◉ 王이 ᄀᆞ장 두리여 沙門의 손ᄃᆡ 사ᄅᆞᆷ브려 니른대 ᄒᆞᆫ 샹재 일후미 端正이라 호리 나히 열세히러니 모ᄃᆞᆫ 比丘ᄉᆡ 닐오ᄃᆡ 내 가도 어루 降服히요리이다 ᄒᆞ고 귓것 잇ᄂᆞᆫᄃᆡ 와 닐오ᄃᆡ 녀느 굴근 比丘ㅣ ᄒᆞ마 오시리니 네 神奇ᄅᆞᆯ 내요려 ᄒᆞ거든 아직 내 밥 머글ᄊᆞ실 기드리라.(석보 24: 22)

◉ 그 ᄢᅴ 王이 귓것 위ᄒᆞ야 차바ᄂᆞᆯ 만히 准備ᄒᆞ야 뒷더니 그 샹재 그런 한 차바ᄂᆞᆯ 즉자히 다 먹고ᄉᆞᆫ지 ᄇᆡ롤 몯 ᄎᆡ와 조ᄎᆞᆫ 귓거들 자바 次第로 다 숨씨니 그 긴 귓거시 다 祇洹애 가냇더라.(석보 24: 22-23)

☞ 祇陁ᄅᆞᆯ 祇洹이라도 ᄒᆞᄂᆞ니 싸홈 이기다 ᄒᆞᄂᆞᆫ 마리니 太子 낧저긔 아바님 波斯匿王이 싸홈 이기시니라 (석보 24: 23)

◉ 그제ᅀᅡ 梵志 두리여 그 샹재 알ᄑᆡ 머리 조ᅀᅡ 降服ᄒᆞ야 다 出家ᄒᆞ니 王이 더욱 佛法을 信ᄒᆞᅀᆞᆸ더라.(석보 24: 23)

◉ 阿育이 舍利塔을 셰요리라 ᄒᆞ야 四兵 ᄃᆞ리고 王舍城의 가 阿闍世王ᄋᆡ 셰욘 塔앳 舍利를 다 내숩고「阿育王이 阿闍世王ㄱ 子孫이라」 ᄯᅩ 녀느 닐굽 塔앳 舍利를 다 내ᅀᅡ바 金銀 琉璃 玻瓈로 八萬四千 筒을 밍ᄀᆞ라 舍利를 담숩고 ᄯᅩ 金銀 琉璃玻瓈로 八萬四千 甁을 밍ᄀᆞ라 그 舍利ㅅ 筒을 담숩고 ᄯᅩ 無量 百千 幡幢繖盖를 밍ᄀᆞᅀᅥᄫᅥ니라.(석보 24: 23-24)

◉ 그 ᄢᅴ 巴連弗邑에 ᄒᆞᆫ 上座ᄋᆡ 일후미 耶舍ㅣ러니「上座ᄂᆞᆫ 爲頭ᄒᆞᆫ 座ㅣ라」 王이 그 上座ᄭᅴ 가 닐오ᄃᆡ 내 ᄒᆞ룻 內예 八萬四千 佛塔을 閻浮提예 세오져 ᄒᆞ노이다.(석보 24: 24)

◉ 耶舍ㅣ 닐오ᄃᆡ 됴ᄒᆞ시이다.(석보 24: 24)

◉ 王이 바ᄆᆡ 鬼神을 시겨 七寶ㅅ 골ᄋᆞ로 八萬四千 寶塔을 밍골오 耶舍 尊者를 命ᄒᆞ야 솘가라골 펴아 八萬四千 가ᄅᆞ래 放光케 ᄒᆞ고 ᄂᆞᆯ난 鬼神을 브려 ᄒᆞᆫ 光明곰 조차가 그 光明 다ᄃᆞᆫ 짜해 ᄒᆞᆫ 날 ᄒᆞᆫᄢᅴ 塔을 셰라 ᄒᆞ니 (석보 24: 24)

◉ 鬼神ᄃᆞᆯ히 닐오ᄃᆡ 뫼히 ᄀᆞ리여 서르 모ᄅᆞ거니 어느 ᄒᆞᆫ ᄢᅴ 셰리잇고.(석보 24: 25)

◉ 王이 닐오ᄃᆡ 너희 가 셰욜 야ᄋᆞ로 올히 ᄒᆞ야 이시라. 내 阿修羅를 브려 月食ᄒᆞ게 ᄒᆞ면 四千下ㅣ ᄒᆞᆫ ᄢᅴ 부플티리니 그저긔 셰라 ᄒᆞ니 그 鬼神ᄃᆞᆯ이 月食ᄒᇙ 저긔 八萬四千塔을 ᄒᆞᆫ ᄢᅴ 셰니 그 塔이 震旦國에 잇ᄂᆞ니도 열아호비니 우리나라해도 全羅道 天冠山과 江原道 金剛山애 이 塔이 이셔 靈ᄒᆞᆫ 이리 겨시니라.(석보 24: 25)

☞ 阿育王塔 이르ᅀᆞ보미 롕王(勵+力없음) 마ᅀᆞᆫ 여슷찻히 戊辰이라.(석보 24: 250

◉ 阿育王ᄋᆡ 아ᅀᆞ 善容이 뫼해 山行 갯다가 보니 梵志ᄃᆞᆯ히 仙人ㅅ 道理 닷노라 ᄒᆞ야 옷 바사도 이시며 나못닙도 머그며 ᄇᆞ롬도 마시며 ᄌᆡ예도 누ᄇᆞ며 가ᄉᆡ 남ᄀᆡ도 누버 種種 苦行ᄒᆞ요ᄃᆡ 得혼 이리 업더니 善容이 무로ᄃᆡ 너희 그리 묏고래 이셔 므슴 煩惱를 몯 ᄇᆞ러ᄇᆞ리관ᄃᆡ 得道를 몯ᄒᆞ얫ᄂᆞᆫ다.(석보 24: 25-26)

◉ 梵志 닐오ᄃᆡ 이어긔 안자이셔 사ᅀᆞ미 흘레 ᄒᆞ거든 보고 ᄆᆞᅀᆞᄆᆞᆯ 몯치 자바 得道를 몯ᄒᆞ얫노이다.(석보 24: 26)

◉ 善容이 너교ᄃᆡ 梵志ᄃᆞᆯ히 苦行을 뎌리 ᄒᆞ요ᄃᆡ 煩惱를 몯 ᄠᅥ러 ᄇᆞ리거니 沙門이 됴한 음담 먹고 됴ᄒᆞᆫ 平床 우희 옷도 ᄆᆞᅀᆞᆷ 난 조초 ᄀᆞ라 닙고 됴ᄒᆞᆫ 香 퓌우고 잇거니 貪欲이 언제 업스료 ᄒᆞ더니 (석보 24: 26)

◉ 阿育王이 듣고 시름ᄒᆞ야 닐오ᄃᆡ 내 다ᄆᆞᆫ ᄒᆞᆫ 앗이 뎌런 모딘 ᄠᅳ들 머그니 아ᄆᆞ례나 고티게 호리라 ᄒᆞ고 냇긔 풍류ᄒᆞᄂᆞᆫ 각시를 다 善容ᄋᆡ 그에 가 풍류ᄒᆞ라 ᄒᆞ고 大臣을 미리 긔걸ᄒᆞ요ᄃᆡ 나옷 善容일 주기하ᄒᆞ거든 너희 말이라.(석보 24: 27)

◉ 王이 善容이 잇ᄂᆞᆫ ᄃᆡ 가 怒ᄒᆞ야 닐오ᄃᆡ 네 엇뎨 내 풍류ᄒᆞᄂᆞᆫ 겨지블 ᄃᆞ려다가 노ᄂᆞᆫ다 ᄒᆞ고 大臣ᄃᆞᆯ홀 블러 닐오ᄃᆡ 내 앗이 풍류ᄒᆞᄂᆞᆫ 사ᄅᆞᄆᆞᆯ ᄃᆞ려다가 뒷ᄂᆞ니 너희 이 앗을 더브러다가 주기라.(석보 24: 27)

◉ 臣下ᄃᆞᆯ히 모다 말인대 王이 ᄯᅩ 누겨 닐오ᄃᆡ 그러면 닐웨ᄅᆞᆯ 뒷다가 주교리라 ᄒᆞ고 臣下ᄃᆞ려 닐오ᄃᆡ 내 옷 니피고 내 冠 쓰이고 내 宮의 드려 풍류홇 사ᄅᆞᆷ 뫼화 ᄀᆞ장 즐기게 ᄒᆞ라 ᄒᆞ고 ᄯᅩ흔 臣下ᄅᆞᆯ 긔걸ᄒᆞ야 甲 닙고 갈 ᄲᅡ혀 들오 善容ᄋᆡ 그에 가 닐오ᄃᆡ 王子ㅅ 命이 닐웻 부니로소니 아ᄆᆞ례나 ᄆᆞᅀᆞᆷᄉᆡ장 노라ᅀᅡ ᄒᆞ리이다.(석보 24: 27-28)

◉ 주근 後에ᅀᅡ 뉘으츤ᄃᆞᆯ 미츠리여. ᄒᆞ야 니르고 엿쇄ᄅᆞᆯ 날마다 가 그 야ᄋᆞ로 니르게 ᄒᆞ고 닐웻 자히 王이 사ᄅᆞᆷ 브려 무로ᄃᆡ 닐웻 ᄉᆞᅀᅵ예 네 快樂ᄋᆞᆯ 쳔ᄉᆞᆺ ᄒᆞ얀다.(석보 24: 28)

◉ 善容이 對答호ᄃᆡ 보도 몯ᄒᆞ며 듣도 몯거니 므스기 快諾ᄒᆞᄫᆞ리잇고.(석보 24: 28)

◉ 王이 親히 가 무로ᄃᆡ 네 내옷 닙고 내 宮殿에 드러 내 풍류바지 ᄃᆞ리고 됴ᄒᆞᆫ 차반 먹고 이쇼ᄃᆡ 엇뎨 몯 듣고 몯 보노라 ᄒᆞᄂᆞᆫ다.(석보 24: 28)

◉ 善容이 닐오ᄃᆡ ᄒᆞ마 주글 ᄊᆞᄅᆞ미어니 當時로 사라 이신ᄃᆞᆯ 주구메셔 다ᄅᆞ리잇가.(석보 24: 28)

◉ 므슴 ᄆᆞᅀᆞᆷ 경으로 貪欲ᄋᆞᆯ 펴리잇고.(석보 24:29)

◉ 王이 닐오ᄃᆡ 어린 거사. 네 다ᄆᆞᆫ ᄒᆞᆫ 모맷 목숨 위ᄒᆞ야도 그런 貪欲앳 즐거ㅂᆞ은 ᄆᆞᄉᆞ미 업거니ᄒᆞᄆᆞᆯ며 無數劫에 주그락 살락 ᄒᆞ야 그지업슨 受苦호이 엇더뇨.(석보 24: 29)

◉ 沙門이 이ᄅᆞᆯ 시름ᄒᆞ야 出家ᄒᆞ야 道理 ᄇᆡ화 輪廻 버슬 이ᄅᆞᆯ 求ᄒᆞᄂᆞ니라.(석보 24: 29)

◉ 그제ᅀᅡ 善容이 ᄆᆞᄉᆞ미 여러 王 ᄭᅴ ᄉᆞᆯ보ᄃᆡ 내 王 말ᄊᆞᆷ 듣ᄌᆞᆸ고ᅀᅡ 내 ᄆᆞᄉᆞ미 ᄭᆡ듣과이다. 生老病死ㅣ 眞實로 슬ᄒᆞᆫ 이리로소이다. 나ᄅᆞᆯ 出家ᄒᆞ야 道理 ᄇᆡ호게 ᄒᆞ쇼셔(석보 24: 29)

◉ 王이 깃거 그리ᄒᆞ라 ᄒᆞ야ᄂᆞᆯ 善容이 즉자히 王ᄭᅴ 하딕ᄒᆞ고 나가 沙門이 ᄃᆞ외야 나지여 바미여 修行ᄒᆞ야 阿羅漢果ᄅᆞᆯ 得ᄒᆞ니라.(석보 24: 29-30)

◉ ᄒᆞᆫ 臣下 阿育王ᄭᅴ 닐오ᄃᆡ 아래 難頭禾龍王이 阿闍世王ᄋᆞᆯ 므더니 너겨 부텻 터리ᄅᆞᆯ 아ᅀᅡ가니이다.(석보 24: 30)

◉ 阿育王이 듣고 ᄀᆞ장 怒ᄒᆞ야 鬼神ᄋᆞᆯ 出令ᄒᆞ야 鐵網ᄋᆞᆯ 밍ᄀᆞ라「鐵網은 쇠그르미라」須彌山ㅅ 기슬글 우려 龍王ᄋᆞᆯ 자바 ᄆᆡ야 오려 ᄒᆞ더니 龍王이 ᄀᆞ장 두리여 모다 議論호ᄃᆡ 阿育王이 부텨를 셤기ᄉᆞᆸᄂᆞ니 자ᄂᆞᆫ ᄉᆞᅀᅵ 어더 宮殿을 드러다가 須彌山 아래 노코 根源을 펴아 니르면 당다이 怒ᄅᆞᆯ 잔치리라 (석보 24: 30) *잔치다 -가라앉히다

◉ ᄒᆞ고 즉자히 龍ᄋᆞᆯ 보내야 阿育王 자ᄂᆞᆫ ᄉᆞᅀᅵ 어더 阿育王 宮殿을 드러다가 노하ᄂᆞᆯ 阿育王이 ᄭᆡ야 보니 八萬四千里ㅅ 노ᄑᆡ옛 水精塔이 잇거ᄂᆞᆯ ᄒᆞ녀ᄀᆞ튼 과ᄒᆞ고 ᄒᆞ녀ᄀᆞ론 두리여 ᄒᆞ더니 難頭禾龍王이 親히 나아 닐오ᄃᆡ 阿闍世王이 부텻 터리ᄅᆞᆯ 주실ᄊᆡ 이 塔ᄋᆞᆯ 이르ᄉᆞ뱃ᄂᆞ니 내 앗ᄉᆞᆸ디 아니호이다.(석보 24: 31)

◉ 釋迦文佛이 겨싫저긔 내 부텨ᄭᅴ 말ᄊᆞᄆᆞᆯ ᄒᆞᄉᆞ보ᄃᆡ 涅槃ᄒᆞ신 後에 劫다옳 時節에 經과 袈裟와

바리와를 내다가 져다가 이 塔애 녀허 뒷숩다가 彌勒이 나거시든 내야 받ᄌᆞ보리이다.(석보 24: 31)

◉ 阿育王이 닐오ᄃᆡ 내 그런 ᄠᅳ들 몰라 ᄒᆞ댕다 ᄒᆞ야ᄂᆞᆯ 難頭禾龍王이 龍ᄃᆞᆯ 브려 阿育王ㅅ 宮殿을 도로 드러다가 아랫터헤 노ᄒᆞ니라.(석보 24: 32)

◉ 阿育王이 塔ᄋᆞᆯ ᄒᆞ마 이르숩고 幡을 몯 ᄃᆞ라셔 病ᄒᆞ야 누버셔 虛空애 비로ᄃᆡ 부톄 靈ᄒᆞ거시든 내 情誠을 ᄉᆞᆯ피쇼셔 ᄒᆞ니 그 八萬四千塔이 다 알ᄑᆡ 와 벌오 ᄒᆞ나콤 王ᄭᅴ 와 구펴든 王이 손소 幡을 ᄃᆞ더니 次第로 다 도로 제고대 가더라.(석보 24: 32)

◉ 阿育王이 그 幡ᄃᆞᆯ오 病이 됴ᄒᆞᆯᄊᆡ 일후믈 續命幡이라 ᄒᆞ더라.「續命은 命을 니슬씨라」(석보 24: 32)

◉ 阿育王이 그저긔 臣下ᄃᆞᆯ ᄃᆞ려 雞雀 精舍애 가 上座 耶舍ᄭᅴ 닐오ᄃᆡ 부텨 授記ᄒᆞ샨 比丘ㅣ 아니 겨시니잇가.(석보 24: 33)

◉ 耶舍ㅣ 對答호ᄃᆡ 부톄 涅槃ᄒᆞ싫 저긔 阿難이 ᄃᆞ려 니ᄅᆞ샤ᄃᆡ 나 涅槃ᄒᆞᆫ 百年 後에 長者ᄋᆡ 아ᄃᆞᆯ 優婆麴(+)多ㅣ라 호리 出家ᄒᆞ야 道理 ᄇᆡ호리라 ᄒᆞ시니 이제 ᄒᆞ마 世間애 나샤 出家ᄒᆞ야 道理 ᄇᆡ화 阿羅漢이 ᄃᆞ외샤 優留曼茶山애 겨시니이다.(석보 24: 33)

◉ 王이 깃거 즉자히 臣下ㅣ며 眷屬ᄃᆞ려 가리라 ᄒᆞ더니 尊者ㅣ 너교ᄃᆡ 王이 오시면 좀ᄌᆞᄫᆞᆫ 한 사ᄅᆞ미 벌에ᄅᆞᆯ ᄇᆞᆯ바 주기리라 ᄒᆞ야 使者ᄃᆞ려 닐오ᄃᆡ 내 王ᄭᅴ 가리이다.(석보 24: 33)

◉ 王이 깃거 尊者 옳ᄂᆞᆫ 길헤 舟桁ᄋᆞᆯ 올히 准備ᄒᆞ고「舟는 ᄇᆡ오 桁은 짌대라」桁애 各色幡과 盖와ᄅᆞᆯ ᄃᆞ라 기드리더니 優婆麴(+)多 尊者ㅣ 一萬八千 阿羅漢 ᄃᆞ리고 오나ᄂᆞᆯ 王이 臣下ㅣ며 眷屬ᄃᆞ리고 尊者ᄭᅴ 가 밥 받ᄌᆞᆸ고 싸해 업데여 禮數ᄒᆞ고 ᄉᆞ러 合掌ᄒᆞ야 닐오ᄃᆡ 내 閻浮提예 爲頭ᄒᆞᆫ 王이 ᄃᆞ외요ᄆᆞᆫ 깃브디 아니ᄒᆞ고 오ᄂᆞᆯ 尊者 보ᄉᆞ보니 깃부미 그지 업서이다.(석보 24: 34)

◉ ᄒᆞ고 尊者ᄅᆞᆯ 請ᄒᆞ야 城의 드려 種種앳 座 ᄆᆡᆼᄀᆞᆯ오 尊者 올여 안치고 조ᄎᆞᆫ 즁으란 雞雀 精舍로 보내오 尊者ᄭᅴ 닐오ᄃᆡ 尊者ᄂᆞᆫ 양ᄌᆡ 端正ᄒᆞ고 ᄉᆞᆯ히 보ᄃᆞ랍거시ᄂᆞᆯ 나ᄂᆞᆫ 양ᄌᆡ 덧긋고 ᄉᆞᆯ히 세요이다.(석보 24: 34-35) *덧긋다.

◉ 尊者ㅣ 偈ᄅᆞᆯ 지ᅀᅥ 닐오ᄃᆡ 내 부텨ᄭᅴ 布施ᄒᆞᄉᆞᄫᆞᆯ ᄊᆡ근 됴ᄒᆞᆫ 쳔랴ᄋᆞ로 호니 王ᄋᆡ 몰애로 布施ᄒᆞ샤미 곧디 아니호이다.(석보 24: 35)

☞ 尊者ᄂᆞᆫ 前生애 됴한 쳔랴ᄋᆞ로 부텻긔 布施ᄒᆞᆯᄊᆡ 이제와 양ᄌᆡ 곱고 王은 前生애 몰애로 布施ᄒᆞᆯᄊᆡ 이제와 양ᄌᆡ 덧긋다 ᄒᆞ논 ᄠᅳ디라.(석보 24:35)

◉ 王이 ㅅ도 尊者ㅅ긔 닐오ᄃᆡ 如來 說法ᄒᆞ시며 ᄃᆞ니시던 ᄯᅡᄒᆞᆯ ᄀᆞᄅᆞ쳐시든 供養ᄒᆞᄉᆞ바지이다.(석보 24: 35)

◉ ᄒᆞ고 四兵ᄃᆞ리고 種種 供養이며 香花ㅣ며 幢幡이며 풍류며 다 ᄀᆞᄎᆞ 가지고 尊者 ᄃᆞ려 나니라.(석보 24: 35)

◉ 尊者ㅣ ᄒᆞᆫ 수프레 가 닐오ᄃᆡ 이 如來 나신 ᄯᅡ히니이다.(석보 24: 35)

◉ 王이 ᄯᅡ해 ᄂᆞ려 업데여 절ᄒᆞ고 供養ᄒᆞᅀᆞᆸ고 塔 세니라.(석보 24: 35-6)

◉ 尊者ㅣ ᄯᅩ ᄒᆞᆫ 고대 가 닐오ᄃᆡ 이 如來 六年 苦行ᄒᆞ더신 ᄯᅡ히니이다. 이에셔 長者ㅣ ᄉᆞ리 如來ᄭᅴ 졋 粥 ᄭᅮ어 받ᄌᆞᄫᆞ니이다.(석보 24: 36)

◉ ᄯᅩ 道場 菩提樹 미틔 가 닐오ᄃᆡ (석보 24: 36)

☞ 道場 菩提樹는 부텨 마다이 菩提 나모 미틔 成道ᄒᆞ실ᄊᆡ 道場 菩提樹ㅣ라 ᄒᆞ니라. 이 菩提樹는 우희 잇ᄂᆞᆫ 畢鉢羅樹ㅣ라. (석보 24: 36)

◉ 이 나모 미튼 如來 慈悲 三昧力으로 魔王ㅅ 兵馬 이긔시고 阿耨多羅三藐 三菩提ᄅᆞᆯ 일우신 ᄯᅡ히이다.(석보 24: 36)

◉ 王이 無量 보ᄇᆡ를 내야 種種 供養ᄒᆞᅀᆞᆸ고 큰 塔 세니라.(석보 24: 36)

◉ 尊者ㅣ ᄯᅩ 拘尸國에 가 닐오ᄃᆡ 이ᄂᆞᆫ 如來 부텻 일 ᄆᆞᄎᆞ시고 나ᄆᆞᆫ 것 업슨 涅槃애 般涅槃ᄒᆞ신 ᄯᅡ히니이다 ᄒᆞ야ᄂᆞᆯ 王이 ᄯᅡ해 업더디여 울오 種種 供養ᄒᆞᅀᆞᆸ고 큰 塔 세니라.(석보 24: 37)

◉ 王이 ᄯᅩ 尊者ᄭᅴ 닐오ᄃᆡ 부텻 굴근 弟子ᄃᆞᆯ히 舍利ᄅᆞᆯ 어더 供養ᄒᆞᄆᆞᆸ고져 ᄒᆞ노니 ᄀᆞᄅᆞ치쇼셔.(석보 24: 37)

◉ 尊者ㅣ 닐오ᄃᆡ 됴ᄒᆞ시이다. 大王이 이런 貴ᄒᆞᆫ 마ᅀᆞᄆᆞᆯ 내실ᄊᆡ.(석보 24: 37)

◉ ᄒᆞ고 王과 ᄒᆞ야 舍衛國 祇洹 精舍애 가 소ᄂᆞ로 ᄀᆞᄅᆞ치며 닐오ᄃᆡ 이ᄂᆞᆫ 舍利弗ㅅ 塔이니이다.(석보 24: 37)

◉ 王이 무로ᄃᆡ 엇던 功德을 뒷더신고.(석보 24: 37)

◉ 對答호ᄃᆡ 버근 法王이시니 轉法을 조차 ᄒᆞ더시니이다.(석보 24: 37)

◉ 王이 十萬兩ㅅ 보ᄇᆡ를 내야 供養ᄒᆞ니라.(석보 24: 37)

◉ 尊者ㅅ ᄯᅩ 닐오ᄃᆡ 이ᄂᆞᆫ 大目揵連ㅅ 塔이니이다.(석보 24: 38)

◉ 王이 ᄯᅩ 功德을 무러늘 對答호ᄃᆡ 神足이 第一이니 밧가라 ᄀᆞ로 ᄯᅡ홀 눌러도 ᄯᅡ히 드러치며 天宮에 가 難陁龍王과 跋難陁 龍王ᄋᆞᆯ 降服히시니이다.(석보 24: 38)

◉ 王이 ᄯᅩ 十萬兩ㅅ 보ᄇᆡ를 내야 供養ᄒᆞ니라.(석보 24: 38)

◉ 尊者ㅣ ᄯᅩ 닐오ᄃᆡ 이ᄂᆞᆫ 摩訶 迦葉ㅅ 窟이니이다.(석보 24: 38)

◉ 王이 또 功德을 무른대 對答호ᄃᆡ 뎨 欲이 져그샤 足ᄒᆞᆫ 고ᄃᆞᆯ 아ᄅᆞ시고 頭陁ㅣ 第一이러시니 如來 ᄌᆞ갯 半座와 僧伽梨衣를 주시니「世尊이 多子塔 알ᄑᆡ 가샤 ᄌᆞ갯 座를 ᄂᆞᆫ호아 迦葉이 안치시고 僧伽梨로 두르시고 니ᄅᆞ샤ᄃᆡ 내 正法眼藏ᄋᆞ로 너를 ᄀᆞ마니 맛디노니 네 護持ᄒᆞ야 後에 뎐디ᄒᆞ라.」衆生ᄋᆞᆯ 어여쎄 너겨 正法을 셰시니이다.(석보 24:38-39)

◉ 王이 또 十萬兩ㅅ 보ᄇᆡ를 내야 供養ᄒᆞ니라.(석보 24: 39)

◉ 尊者ㅣ 또 닐오ᄃᆡ 이ᄂᆞᆫ 薄拘羅ㅅ 塔이니이다.(석보 ㅈ4: 39)

◉ 王이 또 功德 무른대 對答호ᄃᆡ 無病이 第一이러시니 ᄂᆞᆷ 위ᄒᆞ야 ᄒᆞᆫ 句ㅅ 法도 니르신 저기 업고 샹녜 말 업더시니이다.(석보 24: 39)

◉ 王이 다ᄆᆞᆫ 돈 ᄒᆞᆫ나ᄐᆞ로 供養ᄒᆞᆫ대 臣下ᄃᆞᆯ히 닐오ᄃᆡ 功德이 녀느 ᄀᆞᆮ거시ᄂᆞᆯ 엇뎨 다ᄆᆞᆫ ᄃᆞᆫᄒᆞᆫᄂᆞᄐᆞ로 供養ᄒᆞ시ᄂᆞ니잇고.(석보 24: 39) *낱(매인이름씨)

◉ 王이 닐오ᄃᆡ ᄌᆞ갯 모미 비록 智慧 ᄇᆞᆯ기신ᄃᆞᆯ 世間애 므스기 有益ᄒᆞ료 ᄒᆞ더라.(석보 24: 39)

☞ 薄拘羅ㅣ 자내 ᄲᅮᆫ 어디디ᄇᆡ ᄂᆞᆷᄀᆞᄅᆞ쵸ᄆᆞᆯ 아니ᄒᆞᆯᄊᆡ 世間애 有益ᄒᆞᆫ 주리 업스니라.(석보 24: 40)

◉ 그 ᄠᅴ 그 ᄒᆞᆫ 낫 도니 도로 王 ᄭᅴ 오나ᄂᆞᆯ 臣下ᄃᆞᆯ히 보고 ᄒᆞᆫ 이ᄇᆞ로 기료ᄃᆡ 薄拘羅 尊者ㅣ 淸白ᄒᆞ샨 돈도 아니 바ᄃᆞ시ᄂᆞ다 ᄒᆞ더라.(석보 24: 40)

◉ 尊者ㅣ 또 닐오ᄃᆡ 이ᄂᆞᆫ 阿難ㅅ 塔이니이다.(석보 24: 40)

◉ 王이 또 功德을 무른대 對答호ᄃᆡ 이ᄂᆞᆫ 부텻 侍奉이러시니 多聞이 第一이시고 부텻 經을 ᄆᆡᆼᄀᆞᄅᆞ시니이다.(석보 24: 40)

◉ 王이 百億兩ㅅ 보ᄇᆡ를 내야 供養ᄒᆞᆫ대 臣下ᄃᆞᆯ히 닐오ᄃᆡ 엇뎨 布施 供養이 ᄂᆞᄆᆡ 그에셔 더으시니잇고.(석보 24: 40)

◉ 王이 닐오ᄃᆡ 如來ㅅ 모ᄆᆞᆯ 뫼ᄉᆞ바 ᄃᆞᆫ니실ᄊᆡ 供養이 ᄂᆞᄆᆡ 그에셔 더으며 如來ㅅ 法이 世間애 샹녜 이셔 미혹ᄒᆞᆫ 어드ᄇᆞᆫ 이ᄅᆞᆯ 업게ᄒᆞ샤미 다 阿難 尊者ㅅ 功德이실ᄊᆡ 供養이 ᄂᆞᄆᆡ 그에셔 더으니라.(석보 24:41)

◉ 그 ᄠᅴ 阿育王이 塔ᄋᆞᆯ 다 供養ᄒᆞ고 道場 菩提樹 아래 다시 가 世間앳 貴ᄒᆞᆫ 보ᄇᆡ로 供養ᄒᆞᄉᆞᆸ더니 王ㅅ 夫人 일후미 뎽샹랑팅당(+舍羅絺多)ㅣ라 호리 너교ᄃᆡ 王이 날 ᄇᆞ리시고 보ᄇᆡ 가져가 菩提樹 供養ᄒᆞ시ᄂᆞ니 뎌 남ᄀᆞᆯ이 울에 ᄒᆞ면 내 그에 오시리라 ᄒᆞ고 사ᄅᆞᆷ브려 더ᄇᆞᆫ 져즐 브스니 그 남기 즉자히 울어늘 王이 이우 다 듣고 ᄯᅡ해 업더디여 우더니 (석보 24: 41)

◉ 夫人이 닐오ᄃᆡ 王이 시름 ᄆᆞᄅᆞ쇼셔 내 어루 王ㅅ ᄆᆞᄉᆞᆯ 즐기시게 호리이다.(석보 24: 42)

◉ 王이 닐오ᄃᆡ 如來 뎌 나모 미틔셔 阿耨多羅三藐 三菩提ᄅᆞᆯ 일우시니 뎌 남기 업거니 내 사라

므슴ᄒᆞ료 ᄒᆞ야ᄂᆞᆯ 夫人이 두리여 도로 살어늘 王이 듣고 깃거 그 나모 미틔 가 누늘 長常 쌀아 잇더라.(석보 24: 42)

◉ 그저긔 王이 金銀 琉璃玻瓈로 네 가짓 도ᄀᆞᆯ 밍ᄀᆞ라 香乳와 香湯을 담고 種種 음담과 보ᄇᆡ옛 幢幡盖와 花香 풍류를 ᄀᆞ초 准備ᄒᆞ야 두고 齋戒ᄒᆞ야 흰 淨衣 닙고「淨衣ᄂᆞᆫ 조ᄒᆞᆫ 오시라」香爐 바다 殿 우희 이셔 四方 向ᄒᆞ야 절ᄒᆞ고 닐오ᄃᆡ (석보 24: 42)

◉ 如來ㅅ 賢聖 弟子ㅣ 四方애 겨시니 ᄃᆞᆯ히 나ᄅᆞᆯ 어엿비 너기샤 내 供養을 바ᄃᆞ쇼셔.(석보 24: 43)

◉ 그 ᄢᅴ 三川萬 比丘ㅣ 다 모다 오니 十萬이 阿羅漢이러라.(석보 24: 43)

◉ 그저긔 比丘ᄃᆞᆯ히 ᄆᆞᆺ 爲頭ᄒᆞᆫ 座ᄅᆞᆯ 비워 아니 앉거늘 王이 무른대 耶舍ㅣ 對答호ᄃᆡ 이 座ᄂᆞᆫ 上座ㅅ 座ㅣ니 년기 어듸쎤 안ᄌᆞ리잇고.(석보 24: 43)

◉ 王이 무로ᄃᆡ 尊者ㅅ 우희 ᄯᅩ 다른 上座ㅣ 잇ᄂᆞ니잇가.(석보 24: 43)

◉ 對答호ᄃᆡ 잇ᄂᆞ니 부텨 니ᄅᆞ샨 賓頭盧ㅣ ᄉᆞᆫ지 사라 겨시니 긔ᅀᅡ 이 座애 안ᄌᆞ시리이다.(석보 24: 43)

◉ 王이 닐오ᄃᆡ 어더 보ᄉᆞ발까.(석보 24: 43)

◉ 耶舍ㅣ 닐오ᄃᆡ 아니 오라아 보시리니 ᄒᆞ마 오시리이다.(석보 24: 43)

◉ 王이 ᄀᆞ장 깃거ᄒᆞ더니 이슥고 賓頭盧 尊者ㅣ 無量 阿羅漢 ᄃᆞ리고 鴈王 ᄀᆞ티 虛空애 ᄂᆞ라와 上座애 안ᄊᆡ늘 그에 잇던 比丘ㅣ 다 니러 禮數ᄒᆞ고 次第로 안ᄌᆞ니라.(석보 24: 44)

◉ 賓頭盧ㅣ 머리며 입거우지 조히 히오 辟支佛 양ᄌᆡ러니 王이 머리 조ᅀᅡ 禮數ᄒᆞ고 ᄭᅮ러 合掌ᄒᆞ야 닐오ᄃᆡ 尊者ㅣ 世尊을 보ᄉᆞ바 겨시니잇가.(석보 24: 44)

◉ 賓頭盧ㅣ 소ᄂᆞ로 눈서블 들오 王ᄋᆞᆯ 보며 닐오ᄃᆡ 긔 올ᄒᆞ니 녜여來 五百 阿羅漢 ᄃᆞ리시고 王舍城의 겨샤 安居ᄒᆞ실쩨도 내 그 中에 잇다이다.(석보 24: 44)

◉ ㅅ도 世尊이 舍衛國에 겨실ᄊᆡ긔 給孤獨 長者이 ᄯᅳ리 부텨와 比丘ᄃᆞᆯ홀 請ᄒᆞᄉᆞ바ᄂᆞᆯ 그저긔 比丘ᄃᆞᆯ히 各各 虛空애 ᄂᆞ라 가더니 나ᄂᆞᆫ 神力으로 大山을 조쳐 가져가니 世尊이 나ᄅᆞᆯ 외다 ᄒᆞ샤 엇뎨 神足을 내야 뵈ᄂᆞᆫ다.(석보 24: 45)

◉ 내 이제 너를 罰ᄒᆞ야 涅槃 몯게ᄒᆞ노니 世間애 샹녜 이셔 내 正法을 護持ᄒᆞ라 ᄒᆞ시이다.(석보 24: 45)

◉ ᄯᅩ 如來 비구ㅡ
ᄃᆞᆯ 더브르시고 城의 드러 乞食ᄒᆞ거시ᄂᆞᆯ 나도 조ᄍᆞ바 가다니 두 아히 몰앳 가온ᄃᆡ 이셔 노다가 부텨 오시거늘 보ᄉᆞᆸ고 몰애 우희여 부텨ᄭᅴ 받ᄌᆞ바ᄂᆞᆯ 世尊이 記ᄒᆞ샤ᄃᆡ 나 滅度ᄒᆞᆫ 百年 後에 요 아히

巴連弗邑에 王이 ᄃᆞ외야 閻浮提ᄅᆞᆯ 가져 내 舍利로 八萬四千塔ᄋᆞᆯ 세리라 ᄒᆞ더시니 그 아ᄒᆡ 이젯 王 모미시니이다.(석보 24: 45-46)

◉ 王이 ᄯᅩ 무로ᄃᆡ 尊者ㅣ 어듸 겨시니잇고.(석보 24: 46)

◉ 對答호ᄃᆡ 楗陁摩羅山애 이셔 梵行ᄒᆞᄂᆞᆫ 즁ᄃᆞᆯ콰 ᄒᆞᆫᄃᆡ 잇노이다.(석보 24: 46)

◉ 王이 ᄯᅩ 무로ᄃᆡ 眷屬은 며치니잇고.(석보 24: 46)

◉ 對答호ᄃᆡ 六萬 阿羅漢이이다.(석보 24: 46)

◉ 王이 나라해 出令호ᄃᆡ 王이 이제 十萬兩ㅅ 金으로 모ᄃᆞᆫ 즁님내ᄭᅴ 布施ᄒᆞ시고 一千 독 香湯ᄋᆞ로 菩提樹에 믈 주시ᄂᆞ니 五衆이 다 모ᄃᆞ라 ᄒᆞ야ᄂᆞᆯ 「五衆은 沙彌와 沙彌尼와 式叉摩那와 比丘와 比丘尼왜라」 王ㅅ 아ᄃᆞᆯ 拘那羅ㅣ라 호리 王ㅅ 겨틔 안잿다가 말란 아니ᄒᆞ고 두 손가라ᄀᆞᆯ 드니 두 바ᄅᆞᆯ 곱게 供養코져 ᄒᆞ논 ᄠᅳ디러니 大衆ᄃᆞᆯ히 다 우스며 王도 우스며 닐오ᄃᆡ 이 아기 功德을 더으놋다 ᄒᆞ고 닐오ᄃᆡ 내 ᄯᅩ 三千萬兩ㅅ 金으로 모ᄃᆞᆫ 즁님내ᄅᆞᆯ 供養ᄒᆞ며 ᄯᅩ 一千 독 香湯ᄋᆞᆯ 더 내야 菩提樹를 싯교리라 ᄒᆞ야ᄂᆞᆯ.(석보 24: 46-47) *내(복수토씨)

◉ 그 王子ㅣ ᄯᅩ 네 손가라ᄀᆞᆯ 드러늘 王이 도라보고 上座ᄭᅴ 닐오ᄃᆡ 내 庫앳 천량ᄋᆞ란 말오 그 外옛 녀나ᄆᆞᆫ 것과 閻浮提와 夫人과 婇女와 臣下와 이 아기 조쳐 다 내야 賢聖 즁님내ᄭᅴ 布施ᄒᆞ노이다.ᄒᆞ고 나라해 出令ᄒᆞ니라.(석보 24: 47)

◉ 그 ᄢᅴ 王과 上座와 比丘ᄃᆞᆯ히 香湯ᄋᆞ로 菩提樹를 싯기니 그 남기 倍倍희 싁싁ᄒᆞ고 길어늘 王이며 臣下ㅣ 다 ᄀᆞ장 깃거ᄒᆞ더라.(석보 24: 48)

◉ 그제ᅀᅡ 王이 즁님내ᄭᅴ 우브터 아래 니르리 손소 진지ᄒᆞ야 供養ᄒᆞ고 袈裟와 四億萬兩ㅅ 보ᄇᆡ로 五部衆을 布施ᄒᆞ고 「五部衆은 우흿 五衆이라」 ᄯᅩ 四十億萬兩ㅅ 보ᄇᆡ로 閻浮提와 夫人과 婇女와 太子와 臣下와ᄅᆞᆯ 도로 사아 내니 阿育王ㅅ 功德 그지 업수미 이러ᄒᆞ더라.(석보 24: 48)

◉ 阿育王ᄋᆡ 太子 法益이 八萬四千 塔 셰ᅀᆞᄫᆞᆫ 나래 나니 (석보 24: 49)

☞ 法益이 긔 拘那羅ㅣ니 이 太子ㅅ 누니 ᄀᆞᆺᄀᆞᆺ고 고ᄫᆞᆫ 양이 拘那羅ㅣ라 홇새 누니 ᄀᆞᆮᄒᆞᆯᄊᆡ 拘那羅ㅣ라 ᄒᆞ더라.(석보 24:49)

◉ 이 太子ᄋᆡ 擧動이 쳔쳔ᄒᆞ고 글도 잘ᄒᆞ며 활도 잘쏘며 一絃琴을 잘 노더니 「絃은 시우리라」 王ㅅ 夫人 ᄒᆞ나히 그 太子ᄅᆞᆯ ᄉᆞ랑ᄒᆞ야 더러ᄇᆞᆫ ᄠᅳ들 ᄒᆞ거늘 太子ㅣ 구틔여 從티 아니ᄒᆞᆫ대 그 夫人이 怨望ᄒᆞ고 제 이리 現露홇가 ᄒᆞ야 「現露ᄂᆞᆫ 나다날씨라」 아ᄆᆞ례나 더 太子ᄅᆞᆯ 모ᄢᅴ 밍ᄀᆞ로리라 ᄒᆞ야 王ㅅ ᄭᅴ 닐오ᄃᆡ 이제 四方이 大平ᄒᆞ니 太子ㅣ 德과 ᄌᆡ조왜 ᄀᆞᄌᆞ란ᄃᆡ ᄀᆞᆺ 나라해 보내샤 人心ᄋᆞᆯ 뫼호게 ᄒᆞ쇼셔. (석보 24: 49) *시울(줄)

◉ 王이 그 말 드러 太子ᄅᆞᆯ 보내니 太子ㅣ 가 公事ᄅᆞᆯ 甚히 잘ᄒᆞ더라. (석보 24: 50)

◉ ᄒᆞᆫ히 남즉ᄒᆞ거늘 王이 病을 호ᄃᆡ 오ᄋᆞᆫ 모미 고ᄅᆞᆫ 더러ᄇᆞᆫ 내 나거늘 天下앳 醫員이 고티다가 몯ᄒᆞ야ᄂᆞᆯ 그 夫人이 ᄀᆞᄆᆞ니 사ᄅᆞᄆᆞᆯ 브려 나랏 內예 王ㅅ 病 ᄀᆞᆫᄒᆞᆫ 사ᄅᆞᄆᆞᆯ 어더ᄃᆞ려다가 ᄇᆡ를 ᄲᅡ 보니 그 소배 거믄 벌에 기리 두서ᄎᆞᆫ ᄒᆞ니 잇고 내 하 더러ᄇᆡ 사ᄅᆞ미 몯 나ᅀᅡ가리러라.(석보 24: 50)

◉ 온가짓 藥ᄋᆞᆯ 브수ᄃᆡ 그 내 더욱 甚ᄒᆞ다가 마ᄂᆞᆭ 氣韻을 쐬니 그 벌에 죽고 그 내 즉자히 업거ᄂᆞᆯ 그 夫人이 王ᄭᅴ 닐오ᄃᆡ 王ㅅ 病을 내 어루고티ᅀᆞ보리니 나ᄅᆞᆯ 닐웨만 王이 ᄃᆞ외에 ᄒᆞ쇼셔. (석보 24: 50) *어루다 (다스리다. 처리하다)

◉ 王이 깃거 닐오ᄃᆡ 내 病을 됴케 ᄒᆞᆯ씨언뎡 닐웨 王 ᄃᆞ외요미 므슴ᄒᆞ료 ᄒᆞ야ᄂᆞᆯ 夫人이 마ᄂᆞᄅᆞᆯ 받ᄌᆞᄫᅡ 좌시게 ᄒᆞ니 즉자히 됴커늘 그 夫人이 王이 ᄃᆞ외야 勅書 ᄆᆡᇰᄀᆞ라 太子ᄭᅴ 보내야 두 눈ᄌᆞᄉᆞᄅᆞᆯ ᄲᅡᅀᅥ 보내라 ᄒᆞ고 다ᄅᆞᆫ 사ᄅᆞᄆᆞᆯ 갑새 보내니 太子ㅣ 아바님ᄭᅴ 勅書ㅣ신가 너겨 깃ᄉᆞᄫᅡ ᄒᆞᆫ 눈 ᄲᅡᅀᅥ ᅀᆞᆫ바다애 연자두고 오래 보니 苦空無我ᄅᆞᆯ 아라 須陁洹道ᄅᆞᆯ 得ᄒᆞ니라.(석보 24: 51)

◉ 그리코ᅀᅡ ᄯᅩᄒᆞᆫ 누늘 ᄆᆞᄌᆞ ᄲᅡᅀᅥ 그 使者ᄅᆞᆯ 맛디고 자내 妃子와 서르 ᄇᆞᆫ드러 城 밧긔 거러나니 길 넗 사ᄅᆞ미 올오 닐오ᄃᆡ 하ᄂᆞᆯ하 太子ㅣ 므슷 罪 겨시관ᄃᆡ 이리 ᄃᆞ외어시뇨 ᄒᆞ고 절ᄒᆞ야 보내며 모ᄀᆞᆯ 몌여 셜버 주그니도 잇더라.(석보 24: 51)

◉ 太子ㅣ 것바ᅀᅵ ᄃᆞ외애 빌머거 사니다가 마초아 믿나라해 도라오니ᄉᆞᆫ지 一絃琴을 가져 ᄃᆞ니며 간ᄃᆡ마다 노더라.(석보 24: 52)

◉ 그 ᄠᅴ 大臣이 太子ᄂᆡ 고ᄃᆞᆯ 아란마ᄅᆞᆫ 夫人ᄋᆞᆯ 므ᅀᅴ여 내야 닐오ᄆᆞᆯ 몯ᄒᆞ야 ᄒᆞᆫ 사ᄅᆞᄆᆞᆯ 브터 王ᄭᅴ 닐오ᄃᆡ 밧긔 ᄒᆞᆫ쇼겨이 琴을 잘 노ᄂᆞ이다.(석보 24: 52)

◉ 王이 블러보니 ᄌᆞ걋 太子ㅣ러라.(석보 24: 52)

◉ 마조 보아 太子와 며느리왜 차림 몯ᄒᆞ옛다가 ᄉᆡ니 그제ᅀᅡ 그 根源을 아라 그 夫人ᄋᆞᆯ 주규려 ᄒᆞ거늘 太子ㅣ 슬허 마ᄅᆞ쇼셔 請ᄒᆞᅀᆞ바ᄂᆞᆯ 王이 듣디 아니ᄒᆞ고 브레 ᄉᆞ라 주기니라.(석보 24: 52)

◉ 王이 後에 神靈ᄭᅴ 盟誓ᄒᆞ야 비니 太子ㅅ 누니 다시 나거늘 王이 몯내 .....(이하 낙장)

<釋譜詳節 卷 二十四 > 끝